

# 中國語文論集

第二輯

釜山慶南中國語文學會

1985. 10

---

—〈釜山慶南中國語文學會〉—

顧問：曹性坡

會長：李根孝

運營委員：姜信雄 高八美 金蘭娜

金世煥 金龍雲 金政六

王忠儀

監事：高英根 許捲洙

幹事：總務：李在夏

編輯：金進暎 柳瑩杓

李浚植 鄭憲哲

## 發 刊 辭

첫 論文集을 發刊한지도 벌써 滿一年이 지났다. 지난 六月에는 慶南大學校에서 第一回 學術論文 發表會도 가진 바 있다. 짧은 年輪인데도 오늘 第二輯을 發刊하게 되어 뿌듯한 마음 이루 禁할 수 없다. 오늘의 結實은 오로지 그간 여러 會員들의 精誠어린 努力과 刻苦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더우기 論文의 量과 質이 뚜렷하게 向上된데 대해 더한층 自負心을 가지게 된다. 길는 者만이 前進할 수 있다는 眞理가 말해 주는 것과 같이 우리 學畵의 前途에는 더 큰 發展이 있으리라고 期待된다. 이제 「中國語文論集」은 名實共히 論文集으로서의 구실을 다하여 學界에 이바지하는 바가 至大할 것이다.

이번에는 魯迅에 關한 特輯論文 五篇을 묶어 그의 世界觀과 文學的 價値를 紕明히 보았다. 또한 翻譯 二篇과 一般論文 三篇을 揚載했는데 各分野의 研究論文 및 翻譯의 揚載는 더욱 鼓舞的인 일이라 생각된다.

이번 第二輯 發刊은 顧問으로 推戴되신 性坡 스님께서 創刊號를 發刊할 때에 喜捨하신 一千萬원에 대한 利息에서 不足한 今番 發刊費 全額을 負擔하시게 되어 어려움 없이 出刊하게 되었다. 이 感謝한 마음은 永遠히 學界에 남아 後學들에게 龜鑑이 될 것이다.

本 論文集이 發刊되기까지 그間 어려운 與件에서도 論文과 翻譯文을 보내 주신 여러 會員님과 編輯委員 여러분께 再三 感謝의 말씀을 드리고 學界 諸賢의 아낌없는 叱正을 바라고 싶다.

1985年 10月 日

釜山慶南中國語文學會

會長 李 根 孝



# 中國語文論集

## 第 II 輯

### 〈目次〉

題字：曹性坡

發刊辭.....會長李根孝...(1)

#### 〈論文〉

敦煌曲詞調研究

—文人詞調의 對比하여—.....鄭憲哲...(3)

韓國律·絶의 起源問題.....柳瑩杓...(37)

《論語》中孔子文言之研究.....蔡根祥...(65)

#### 〈魯迅特輯〉

前期魯迅의 認識範疇批判.....金龍雲...(101)

前期魯迅의 歷史認識.....李浚植...(119)

前期魯迅의 階層認識.....金龍雲...(139)

前期魯迅의 휴머니즘.....申洪哲...(159)

魯迅과 辛亥革命.....金鍾賢...(177)

魯迅의 美學思想.....齊一·編輯室譯...(195)

魯迅의 文學理論「拿來主義」.....王永生·編輯室譯...(241)

#### 〈附錄〉

魯迅關係 主要資料 目錄.....(257)

彙報.....(311)

#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 VOLUME II

### <Contents>

#### <Essays>

- A Study on the Lyric Form of the Air of Dunhuang  
..... *Chung, Heon Chul*...( 3 )
- A Study on the Origin of Korean Lŭshi & Jueju  
..... *Yoo, Young Pyo*...( 37 )
- Stylistics in Confucius .....*Choi, Kan Cheong*...( 65 )

#### <Special Issue of Lu Xun>

- The Critique for the Category of Consciousness  
in the early Lu Xun.....*Kim, Yong Woon*...(101)
- Historical Consciousness in the early Lu Xun  
.....*Lee, Joon Sik*...(119)
- Class Consciousness in the early Lu Xun  
..... *Kim, Yong Woon*...(139)
- Humanism in the early Lu Xun.....*Shin, Hong Chul*...(159)
- Lu Xun and Xin Hai Revolution..... *Kim, Jong Hyun*...(177)
- Aesthetics of Xu Xun.....(195)
- Lu Xun's view point of Literatuse .....(241)
- Critical Succession and Reception—

# 敦煌曲詞調研究

—文人詞調와 對比하여—

鄭 憲 哲\*

## 目 次

- |                 |                    |                  |           |
|-----------------|--------------------|------------------|-----------|
| 一. 緒 論          | 23. 〈贊善子〉          | 24. 〈更漏長〉        |           |
| 二. 文人詞調와 同型의 詞調 | 三. 文人詞調와 同型이 아닌 詞調 |                  |           |
| 1. 〈天仙子〉        | 2. 〈破陣子〉           | 1. 〈鳳歸雲〉         | 2. 〈洞仙歌〉  |
| 3. 〈浣溪沙〉        | 4. 〈拋毬樂〉           | 3. 〈傾盃樂〉         | 4. 〈內家嬌〉  |
| 5. 〈魚歌子〉        | 6. 〈虞美人〉           | 5. 〈拜新月〉         | 6. 〈婆羅門〉  |
| 7. 〈菩薩蠻〉        | 8. 〈西江月〉           | 7. 〈長相思〉         | 8. 〈送征衣〉  |
| 9. 〈獻忠心〉        | 10. 〈山花子〉          | 9. 〈歸去來〉         | 10. 〈十二時〉 |
| 11. 〈臨江仙〉       | 12. 〈酒泉子〉          | 11. 〈鬪百草〉        | 12. 〈何滿子〉 |
| 13. 〈望江南〉       | 14. 〈感皇恩〉          | 13. 〈劍器詞〉        |           |
| 15. 〈謁金門〉       | 16. 〈生查子〉          | 四. 詞譜에 보이지 않는 詞調 |           |
| 17. 〈定風波〉       | 18. 〈望遠行〉          | 五. 結 論           |           |
| 19. 〈蘇莫遮〉       | 20. 〈鵲踏枝〉          | 主要參考文獻           |           |
| 21. 〈南歌子〉       | 22. 〈楊柳枝〉          |                  |           |

## 一. 緒 論

今世紀 初 발견된 「敦煌文書」 가운데는 唐·五代에 유행하던 民間詞를 기록한 寫卷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民間詞를 통틀어 「敦煌曲子詞」라 하고 일반적으로 이를 「敦煌曲」 혹은 「敦煌詞」라 略稱하고 있다. 敦煌曲의 발견은 전적으로 文人詞 위주로만 詞를 다루어 오던 詞學界에 唐代부터 이미 民間中心의 詞가 달리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것 만으로도 그 意義는 획기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특히 敦煌曲 중의 유일한 詞集이자 《花間》·《尊前》 兩集보다도 時代가 앞서는 것으로

\* 慶尙大學校 人文大學 中國語文學科 助教授

판명된 《雲謠集》속에 〈傾盃樂〉·〈內家嬌〉등 100字 이상의 慢詞(長調)가 採錄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당시까지만 해도 慢詞가 柳永·張先 등에 의해 비로소 創製된 것이라 여겨 왔고 그를 믿어 의심치 않았던 詞學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실이 믿기지 않아 심지어는 《雲謠集》을 北宋의 寫本으로 보고 그 出現時期를 柳永 이후로 단정한 이가 있었을 정도였다.<sup>1)</sup>

敦煌曲에 대한 연구는 발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왔다. 그러나 敦煌曲이 歷代로 계통있게 版本의 형태로 流傳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民間에 가까운 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짐작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쓰여진 手鈔本 卷子の 형태로만 갑작스레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에 본더부터 誤字·訛字·脫句·惡筆 등등으로 초래되는 問題를 많이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雲謠集》을 위시한 敦煌曲 研究에 종사한 사람들은 原文確定을 위한 校勘作業과 내용파악을 위한 語句注釋에서부터 착수하게 되었고, 또 그러한 작업이 敦煌曲研究의 主宗을 이루어 왔다. 敦煌曲 全般에 걸쳐서 처음으로 수집·정리하여 하나의 版本으로 출판한 이는 王重民으로(1950), 그의 「敦煌曲子詞集」에는 모두 161首의 敦煌曲이 수록되어 있다. 그 후에 任二北은 王氏의 詞集이 完備된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王集의 羅振玉 《敦煌零拾》, 劉復 《敦煌掇瑣》, 許國霖 《敦煌雜錄》, 日本 《大正新修大藏經》에 실려있는 것과 北京圖書館 소장 寫本에 散見되는 것을 보태어 도합 540 여 수의 敦煌曲을 수집하고 그 전반에 걸친 여러 문제를 검토·고찰한 《敦煌曲初探》을 발표하였고(1954), 이어 敦煌曲의 校定本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는 《敦煌曲校錄》을 출판하였다(1956).<sup>2)</sup> 물론 이들 著述에는 고쳐져야 할 여러가지 誤謬가 內在하고는 있으나, 수없이 많고 더 없이 넓은 영역에 걸쳐 어려운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 놓은 점이 허다하므로, 이들은 敦煌曲研究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든든한 발판을 마련해 준 훌륭한 業績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최근에는 任二北의 《敦煌歌辭集》이 敦煌曲 1,160여 수의 作品을 수록하여 출간되었을 것으로 믿어지나

1) 冒廣生이 대표적인 예이다. 拙稿 〈雲謠集試論〉 註 4) 參照.

2) 任二北의 《初探》과 《校錄》兩書는 表裏를 이루는 著作으로, 出刊된 年度는 약간 차이가 있으나 書名이 兩書에 互見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의 동시에 完成된 것 같다.



아직 筆者가 확인·입수하지는 못하였다.<sup>3)</sup>

筆者는 唐·五代詞 研究의 一環으로 《花間》·《尊前》兩集과 더불어, 敦煌曲의 諸問題를 관심있게 검토해 보고 있는 중이며, 그 첫 작업으로 <雲謠集試論>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 글 가운데서 사용 詞調의 문제는 다시 더욱 精細하게 다루기로 언질을 한 바 있다. 그런데 《雲謠集》에 국한된 詞調問題 만으로는 편쪽의 면에서나 전체 敦煌曲에서의 비중으로 보아 너무 輕微할 것으로 생각되어, 차제에 本稿를 통하여 敦煌曲에 사용된 詞調 전반에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다루어 보기로 한 것이다.

敦煌曲의 대부분이 民間詞이라는 通說을 그대로 따르는 견지에서는, 敦煌曲은 《花間集》이나 《尊前集》에 選錄된 唐·五代之 文人詞와는 서로 對立하는 개념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 표현한 내용은 일단 論外로 치더라도 民間詞와 文人詞가 동일 詞調를 사용하였을 경우, 字數·句式·平仄·用韻 등의 句法에 있어서 兩者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며 또 兩者間의 연관 관계는 어떠한가를 고찰해 보는 일은 民間詞와 文人詞에 있어서 詞式上的 脈絡을 관련지우는데 커다란 意義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本稿에서는 敦煌曲 詞調의 특징을, 文人詞의 詞調를 網羅하여 정리·수록한 「詞譜類」 諸文獻과의 對比를 통하여 探討해 보고, 아울러 그 주변에 존재하는 여러 문제도 정리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다루고자 한 詞調는 任二北 《敦煌曲校錄》에 收載된 것을 그 범위로 삼았으며, 對比에 사용한 詞譜類의 문헌은 《詞律》·《欽定詞譜》·《詞律拾遺》·《詞律補遺》 등이다. 그 중 《詞譜》가 詞調의 種類를 가장 많이 수록하였으면서도 詞調 각각에 대한 설명이 비교적 상세하다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가장 많이 참조하였다.

現今까지 알려진 자료, 주로 《敦煌曲校錄》에 의거하여 敦煌曲에서 사용한 詞調는 《雲謠集》에 사용된 13調 외에도, 중복되지 않게 산정하면 41調가 더 있어서 도합 54調에 이른다. 우선 이들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鳳歸雲\* ② 天仙子\* ③ 竹枝子\* ④ 洞仙歌\* ⑤ 破陣子\*  
⑥ 浣溪沙\* ⑦ 柳青娘\* ⑧ 傾盃樂\* ⑨ 內家嬌 ⑩ 拜新月\*

3) 周篤文 《宋詞》 p.5: 「一九〇〇年在敦煌發現的唐人曲詞殘卷, 據任二北先生新著《敦煌歌辭集》(待刊)的統計, 各類歌辭包括初唐至五代末的作品, 共達一千一百六十餘首。」 참조.

- ① 拋毬樂\* ⑫ 魚歌子\* ⑬ 喜秋天\* ⑭ 虞美人\* ⑮ 菩薩蠻\*  
 ⑯ 西江月\* ⑰ 獻忠心 ⑱ 山花子\* ⑲ 臨江仙\* ⑳ 酒泉子\*  
 ㉑ 望江南\* ㉒ 感皇恩\* ㉓ 謁金門\* ㉔ 生查子\* ㉕ 定風波\*  
 ㉖ 望遠行\* ㉗ 姿羅門\* ㉘ 蘇莫遮\* ㉙ 長相思\* ㉚ 鶻踏枝\*  
 ㉛ 送征衣\* ㉜ 別仙子 ㉝ 南歌子\* ㉞ 楊柳枝\* ㉟ 擣練子  
 ㊱ 贊普子\* ㊲ 泛龍舟\* ㊳ 鄭郎子 ㊴ 水調詞 ㊵ 樂世詞  
 ㊶ 更漏長\* ㊷ 感皇恩\* ㊸ 悉曇頌 ㊹ 好住娘 ㊺ 散花樂  
 ㊻ 歸去來 ㊼ 五更轉 ㊽ 十二時 ㊾ 百歲帶 ㊿ 十恩德  
 ㉟ 鬪百草 ㉡ 阿曹婆 ㉢ 何滿子\* ㉣ 劍器詞\*

(\*: 唐教坊曲名, 《校錄》載錄順)

여기서 ①에서 ⑬까지는 《雲謠集》에서 사용된 것이며, 그리고 ①에서 ㉟歸去來까지가 「定格聯章」이나 大曲이 아닌 雜曲에 사용된 詞調이다. 이중 \*표로 표시한 바와 같이 唐教坊曲名과 일치하는 것은(이하同), 모두 36調에 달한다.

## 二. 文人詞調와 同型的 詞調

詞譜類에 수록된 詞調는 그 성격상 대부분 敦煌曲의 詞調보다도 시대가 뒤지는 文인들이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이를 「文人詞調」라 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同型」이라 함은 양쪽이 서로 句法이 완전히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혹은 그 성질로 보아 같은 詞調로 볼 수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것임을 밝혀 둔다. 같은 詞調라 하더라도 「襯字」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형적으로 서로 字數에 차이를 보이는 수가 허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범주에 속하는 詞調는 모두 24調에 이른다.

### 1. 〈天仙子〉\*

이 調는 원래 單調와 雙調體가 있는데, 文人詞에서 單調體는 皇甫松·韋莊·和凝 등 花間派 詞人들의 작품이 있고, 雙調體는 宋 張先詞에 비로소 나타난다. 敦煌曲에서는 《雲謠集》에 2首가 들어 있는데, 모두 쌍조 68字體이다. 任二北은 이를 모두 단조로 보고 4수로 잘라 놓은 바 있으나, 이는 臆說이 된지 이미 오래다.

《詞律》에 4體, 《詞譜》에 5體를 실고 있는데, 《詞譜》의 5체 중 4체

는 단조체이고 1체는 張先의 쌍조 68字, 前·後段 각 6句 5仄韻으로 된 체이다. 敦煌曲의 本調 2首는 제 1수는 句法이 위의 張先詞와 완전무결하게 符合하고, 제 2수도 張先詞에 대비시켜 보아 전단 제 4구 末字가 韻字이어야 하는데 아닌 점, 후단 제 5구의 첫자가 平聲이어야 하는데 仄聲字인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일치한다. 다음에 例示하는 詞의 本文은 敦煌曲·本調 제 1수의 것이고, 平仄과 句讀는 《詞譜》에 표시된 張先의 것이다.<sup>4)</sup>(, :句, ◦ :韻, ○ :平, ● :仄, ⊖ :平이나 可仄, ⊕ :仄이나 可平, 이하 同)

〈天仙子〉(其一)

●●●○○●●● ●●●○○●●● ●●●○○●●● ●●●○○●●● ○●●●  
 燕語啼時三月半。煙蘼柳條金線亂。五陵原上有仙娥，攜歌扇。香燼漫。  
 ○●○○○○●● ●●●○○●●● ●●●○○●●● ●●●○○●●●  
 曾住九華雲一片。犀玉滿頭花滿面。負姿一雙偷淚眼。淚珠若得似珍珠，  
 ●●●○○●●● ●●●○○●●● ●●●○○●●● ●●●○○●●●  
 拈不散。如何限。中向紅絲應百萬。

唐代에 쓰여졌을 것으로 보이는 이 詞作에서 베풀어진 句法이, 宋代의 張先詞에서도 완전히 부합하고 있는 사실은 참으로 주목할만한 일임에 틀림없다.

《詞譜》에서 〈天仙子〉調名の 유래를 설명하면서, 이는 唐末 皇甫松의 本調 단조체의 詞에서 보이는 「懷惱天仙應有以」에서 따온 것이라 하고 특히 쌍조체는 宋人으로부터 비롯한다고 하였다.<sup>5)</sup> 그런데, 위에서 예시한 敦煌曲 본문 중에서도 이미 「仙娥」라는 字眼이 보일 뿐만 아니라 崔令欽 《教坊記》에 教坊曲名으로서 〈天仙子〉의 명칭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本調名이 반드시 皇甫松의 詞作에서 취해진 것이라 하기 극히 어려운 것이라 하겠다. 또한 쌍조로 된 本詞作이 宋代 이전에 쓰여진 것은 확실한 터이므로, 本調의 쌍조체가 宋人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에 대하여는 전혀 수증할 수 없다. 이와 같이 本調에 대한 《詞譜》의 記事는 그 신빙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 따라서 本調는 張先 등 宋人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民間에서 流傳되어 오던 것을 宋代에 이르러서도 張先 등이 답습하고 있었

4) 《詞譜》(卷2) 〈天仙子〉條 참조.

5) 同上.

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2. 〈破陣子〉\*

《詞律》《詞譜》에 晏殊의 雙調 62字, 전·후단 각 5句 3平韻으로 된 1체만을 수록하였다. 또 《詞譜》에서는 이를 本調의 創始로 삼고 있다.<sup>6)</sup> 그러나 이미 《雲謠集》에서 本調의 詞 4수가 보이고 있으므로 《詞譜》의 이 記事는 사실과 명확히 다를 수 있다.

晏殊의 本調와 敦煌曲(《雲謠集》)의 것을 對比시켜 보면, 句法上에 있어서 字數에 있어 前段 혹은 後段 제 2구에 1자의 출입, 한 군데의 韻이 맞지 않는 곳이 있는 것 등 극히 사소한 차이를 제외하면 거의 일치하고 있다. 《詞譜》와 《雲謠集》의 本調를 比較하여 다음과 같이 例示한다.

《詞譜》: 6, 6。 7, 7。 5。 6, 6。 7, 7。 5。(62字)

《雲謠集》: 6, 5。(,) 7, 7。 5。 6, 6(5)。 7, 7。 5。(61, 60字)

여기서 《雲謠集》 本調 4수의 사를 《詞譜》 방식처럼 體別로 나누면 3체로 분류하게 된다.

1. 제 1, 2수 : 쌍조 61자, 전·후단 각 5구 3평운
2. 제 3수 : 쌍조 60자, 전·후단 각 5구 3평운
3. 제 4수 : 쌍조 61자, 전단 5구 2평운, 후단 5구 3평운

따라서 엄밀하게 따져서 이들은 晏殊의 체와 모두 다르며, 《詞譜》에는 이들 3체가 하나도 수록되어 있지 않은 셈이 된다.

시대가 앞서는 敦煌曲과 거의 엇비슷한 體式의 詞를 宋詞人인 晏殊가 지은 사실 역시, 그가 民間詞를 답습하고 있었던 것으로 유추될 수 있으며, 敦煌曲에서 볼 수 있는 民間詞調의 餘響이 宋初에서는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 3. 〈浣溪沙〉\*

敦煌曲에서는 《雲謠集》 2수와 普通 寫卷(P3128, P2607, P3128, P3821, P4692, S2607)에서 散見되는 12수를 합쳐 도합 14수가 보인다. 그 중 「P3128」卷 중의 3수와 「P2607」卷 중의 1수 모두 4수는 王重敏《敦煌曲

6) 《詞譜》(卷14)〈破陣子〉條「此調始自此詞，宋詞俱照此調填。」참조.

子詞集》에는 〈浪淘沙〉라는 調名으로 실려 있던 것이다. 任二北의 《敦煌曲校錄》에는 이를 〈浣溪沙〉調에 編入시켰는데, 이는 《王集》의 4수가 敦煌曲의 여타 浣溪沙와 句法上 완전히 일치할 뿐만 아니라, 원래 〈浪淘沙〉調는 일반적으로 7言 4句와 똑같은 28字의 句式을 갖춘 형태이기 때문이나 本稿에서는 任氏의 견해를 좇아 〈浪淘沙〉項을 별도로 세우지 않았다.

本調는 《詞律》에 2체, 《詞律拾遺》에 1체가 실려 있다. 《詞譜》에는 5체가 수록되어 있는데 42, 44, 46字로 된 쌍조체들이며 正體로는 韓偓(唐末人)의 전·후단 각 7言 3句로 이루어진 42字體를 들고 있다. 敦煌曲本調의 경우는 14수가 모두 「7, 7, 7, 3, 7, 7, 7, 3。」 48字의 형태로 《詞譜》의 正體전·후단에 각 1구 3字씩을 더한 句式이나, 전단 3平韻, 후단 2平韻으로 用韻은 《詞譜》의 正體와 일치한다.

그런데 敦煌曲 本調의 句法은 《詞譜》에서의 〈山花子〉調에 꼭 들어 맞는 것이므로 이 문제는 〈山花子〉項에서 再論하기로 한다. 아 물론 敦煌曲에서 本調의 명칭을 함부로 붙인 것은 아닐 것이며, 《花間集》의 毛文錫의 詞에서도 이와 같은 체를 달리 이름하지 않고 〈浣溪沙〉라 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sup>7)</sup>, 처음에는 詞譜類의 여러 체나 敦煌曲의 本調의 체를 모두 〈浣溪沙〉라 統稱한 듯하다. 本調의 體式 가운데 7言 6句로 된 齊言體를 〈浣溪沙〉라 하고, 敦煌曲의 것과 같은 雜言體를 〈攤破浣溪沙〉〈攤聲浣溪沙〉〈山花子〉 혹은 〈南唐浣溪沙〉라 한 것은 北宋 이후의 일이라는 설도 있다.<sup>8)</sup> 《詞譜》에서 이러한 여러 관계를 고려치 않고 〈浣溪沙〉와 〈山花子〉로 分項한 것은 敦煌曲과 같은 民間資料가 당시에는 전혀 발굴되지 않았던 데에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 4. 〈拋毬樂〉\*

《雲謠集》에 단조 6句 4平韻의 40字體 1수와 6句 3平韻의 42字體 1수가 수록되어 있다. 《詞律》에 3체가 있고, 《詞調》에는 단조 30, 33, 40자체와 쌍조 187자체, 모두 4체를 수록해 놓고 있다.

《雲謠集》의 2수는, 제 5구에서 각각 5자와 7자로 한 것과 전체에서 平仄이 2자 정도 다른 것 말고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런데, 《詞譜》의

7) 《花間集》(卷5) 參照. 〈浣溪沙〉라 한 것은 誤刻일 가능성이 크다. 《詞牌彙釋》p. 382 本條引《詞徵》: 「浣溪沙之爲浣沙溪, 則因槩本誤刻而異, 非原有此區別也。」 참조.

8) 《敦煌曲初探》p. 94 참조.

단조 40字體는 五代 馮延巳의 詞作으로 《雲謠集》의 本調 제 1 수와 句式, 平仄, 用韻 등이 완전히 合致되는 것이다.<sup>9)</sup>

《唐五代詞》에 실린 馮延巳의 本調 8 수는 雲謠詞와 꼭 같은 句法이며, 花間詞人인 和凝도 이와 같은 詞作을 1 수 남기고 있음이 발견된다.<sup>10)</sup>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民間詞의 本調가 적어도 五代時에까지 남아 있었고, 이를 사용하여 填詞하는 文人 詞人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5. 〈魚歌子〉\*

詞譜類에는 〈漁歌子〉라 표기하고 있으나 《教坊記》와 敦煌寫卷에는 〈魚歌子〉라 되어 있다. 敦煌曲에는 《雲謠集》에 2 수, 日本 橋川藏本과 《敦煌零拾》本 등에 중복된 2 수, 도합 4 수가 있는데, 모두가 句式이나 平仄에 다소 출입이 서로 보이는 50자, 52자체의 쌍조로 되어 있다. 《詞律》에 2 체가 실려 있고, 《詞譜》에는 6 체를 실었는데 그 중 敦煌曲과 비슷한 것으로는 顧夔와 孫光憲의 쌍조 50자로 된 2 체이다. 여기서 《詞譜》의 顧·孫 兩人的 句式과 敦煌曲의 50자체의 句式은 「3.3.7.3.3.6 3.3.7.3.3.6」으로 일치하며, 각 글자의 平仄에 있어 출입은 다소 있으나 서로 仄韻을 사용하고 전후단 末 3 구 「3.3.6」의 부분에서는 平仄에 있어서 근소한 차이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로 본다면 《詞譜》의 顧·孫 兩人的 체는 敦煌曲의 本調와 근본적으로는 같은 체임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詞譜》에서는 本調의 쌍조체는 《花間集》의 顧夔·孫光憲에서 비롯하였다고 적고 있는데<sup>11)</sup>, 시대가 앞서는 民間詞에서 이미 쌍조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역시 《詞譜》의 誤謬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다.

### 6. 〈虞美人〉\*

敦煌曲 殘卷에는 〈魚美人〉이라 되어 있다. 「虞」와 「魚」가 近似한 音인 까닭으로 해서 생긴 誤鈔라 봄이 옳겠다. 《詞律》에 쌍조 2 체, 《詞律拾遺》에 쌍조 4 체를 실었고, 《詞譜》에는 쌍조 56자·58자로 된 7 체를 수록

9) 자세한 圖解는 拙稿 〈雲謠集試論〉 p.54 참조.

10) 林大椿 《唐五代詞》 pp.257~259, p.101 참조.

11) 《詞譜》(卷1)〈魚歌子〉條:「至雙調體, 昉自花間集顧夔·孫光憲, 有魏承班, 李珣諸詞可校。」 참조.

하여 李煜과 毛文錫의 체를 正體로 삼고 顧夔·馮延巳·晁補之·張炎의 사를 別體로 삼고 있다.

敦煌曲에는 《敦煌曲子詞集》에 쌍조 58자체 1수가 보이며, 任二北은 그의 《校錄》에서 이를 2수로 보고 전·후단을 각각 나누어 수록하였다. 《詞譜》에 단조체가 보이지 않기도 하고, 또한 기히 이를 1수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므로 여기서는 1수로 간주하기로 한다. 敦煌曲의 本調는 전·후단이 각각 「7.5.7.3.」의 句式으로 꼭 같은 형태의 58자체로서, 詞譜의 58자체와 비교해 보면, 《詞譜》의 체는 모두 每句에 韻을 담고 있는데 비해 敦煌曲에서는 전·후단 제 4 구에는 모두 押韻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우선 외형적으로 각 구의 字數가 완전히 일치하므로 본디는 서로 동일한 詞調라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믿어진다. 그렇다면 本調는 文人詞에서 五代를 거쳐 南宋末에 이르기까지 크게 변화하지 않고 流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7. 〈菩薩蠻〉\*

本調는 《詞律》에 쌍조 1체, 《詞律拾遺》에 단조 1체가 실려 있으며, 《詞譜》에는 李白의 체를 正體로 삼고 朱敦儒·樓扶의 체를 別體로 하여 모두 쌍조 44자로 된 3체가 수록되어 있다.

《詞譜》의 3체는 모두 平仄에 출입이 있어 체를 달리하는 것일 뿐, 句式은 전부가 「7.7.5.5. 5.5.5.5.」로 같은 꼴을 취하고 있다. 敦煌曲에는 本調의 詞가 18수가 있는데 그 중 5수가 한 군데 혹은 세 군데 정도의 출입을 보일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李白 등이 句式과 일치하고 《詞譜》의 正體와 같이 매 2구마다 換韻도 하고 있다. 더구나 任二北은 敦煌曲 本調 제 6 수를 天寶 元년에 쓰여지고 開元 年間に 지어졌을 것이라 지적하고 이 詞가 歷史上 最古의 〈菩薩蠻〉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 바 있다.<sup>12)</sup> 이러한 추측의 사실 여부는 且置하고라도, 本調의 由來가 胡樂의 中國流入과 함께 한 매우 오래 된 것이어서 일찍부터 널리 流布된 것만은 틀림없다. 따라서 文人詞 계통에서는 일찍부터 民間詞나 李白 등의 詞作을 답습하여 왔던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다만 民間詞에서는 字數에서 약간의 例外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文人詞에서 보다는 좀 더 자유스럽거나 융통성이

12) 《敦煌曲校錄》 p. 35 (其六): 「此辭可能高於天寶元年, 而作於開元間, 就現有資料言, 可能爲歷史上最古之菩薩蠻, 亦文藝性極高之作。」

가해졌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 8. 〈西江月〉\*

《詞律》에 3체, 《詞律拾遺》에 2체를 수록하였고, 《詞譜》에는 柳永의 쌍조 50자체를 정체로 하여 蘇軾·吳文英·歐陽炯·趙以仁의 체를 포함 5체를 실고 있다. 또 《詞譜》에서는 歐陽炯에서 本調가 비롯하나 전·후단 起韻이 仄韻으로 되어 있어 이 체에 맞추어 填詞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柳永의 詞를 正體로 삼았음을 附記하고 있다.<sup>13)</sup> 그러나 柳永보다는 歐陽炯이 앞서는 사람이므로, 本調가 급속히 여러 갈래로 분화되어 간 것이 아니라면, 歐陽炯의 詞作이 詞調의 본래 면모에 더 가까울 것으로 판단된다.

歐陽炯의 本調는 「6.6.7.6 7.6.7.6」으로 句式이 柳·蘇·吳 3家の 詞調에 비해 후단 제 1구가 1자 많은 정도의 근소한 차이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敦煌曲은 本調 3수 중 2수가 歐陽炯의 체와 句式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약간의 平仄은 相違하지만 仄韻과 平韻을 번갈아 換韻한 것도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敦煌曲의 나머지 1수는 句式이 柳·蘇·吳 3家和 같은 「6.6.7.6 6.6.7.6」의 형태인데, 이는 柳永의 체와 各字의 平仄面에서도 완전무결하게 부합하는 것이다. 단 用韻에 있어서는 전·후단 첫구에서 句로 처리하지 않고 押韻한 것만 차이를 보일 뿐이다. 다음에 이를 例示해 보기로 한다. 역시 原詞는 敦煌曲의 것이고 平仄 표시는 《詞譜》의 柳永의 것이다.

#### 〈西江月〉(其三)

雲散金烏初吐。煙迷沙渚沈沈。棹歌驚起亂棲禽。女伴各歸南浦。船押  
波光搖。鏤貪歡不覺更深。楚歌哀怨出江心。正值月當南午。

《詞譜》에 실린 本調 5체 중 이와 같이 4체가 敦煌曲과 大同小異하며, 쌍조 56자로 된 趙以仁의 체도 사실상 기본적으로 本調를 운용하여 填詞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敦煌曲의 本調 역시 文人詞에서 五代 및

13) 《詞譜》(卷8)〈西江月〉條:「...又此調始於南唐歐陽炯, 前後段兩起韻俱仄韻, 自宋蘇軾·辛棄疾外, 填者絕少, 故此調必以柳詞爲正體。」



宋代에까지도 큰 변화가 없이 유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9. 〈獻忠心〉\*

本調의 명칭은 現傳하는 《花間集》이나 詞譜類 등 文人詞 관계 문헌에서 〈獻衷心〉이라 적고 있다. 그러나 《教坊記》에서 〈獻忠心〉이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訛傳되어 계속 誤記된 것으로 여겨진다. 敦煌曲 殘卷에는 모두 《教坊記》에서와 같이 적어 놓고 있다. 후대의 文人詞에서는 대부분 情詞로된 것이나, 敦煌曲에서는 6수 중 2수에서 本意를 읊은듯 「獻忠心」의 字眼이 보이는 것은 이러한 판단을 더욱 뒷받침해 주고 있다.

《詞律》《詞譜》에 다같이 歐陽炯의 쌍조 64자체(전단 9구 4평운, 후단 8구 4평운)와 顧夔의 쌍조 69자체(전·후단 각 9구 4평운) 모두 2체를 수록해 놓고 있다. 敦煌曲에는 〈菝怨春〉이라는 調名을 잘못 붙였을 수 있는 것 1수를 포함하여 모두 6수가 보이는데<sup>14)</sup>, 訛字·別字가 너무 많고 句數도 전·후단에 걸쳐 16句에서 18句에 이르는 것들이라 句讀를 분별하기조차 어려운 정도이다. 字數는 67, 69, 75, 82자 4종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6수 모두 전·후단에 8구 혹은 9구이고, 押韻도 전·후에 주로 4平韻(3平韻을 쓴 경우도 있음)을 사용하였고, 약간의 출입은 있지만 전·후단 공히 末3句가 《詞譜》本調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3, 3, 3.」으로 끝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敦煌曲과 詞譜類의 本調는 원천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花間集》이나 《唐五代詞》를 통털어 살펴보아도 文人詞 계통의 本調 詞作으로는 詞譜類에 수록되어 있는 2수가 전부이고 《全宋詞》에도 전혀 이로써 填詞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句法이 원래부터 너무 까다롭고 體式이 多岐하여 歐陽炯이나 顧夔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이 調를 이용한 사람이 없어지고 本調도 소멸되어 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 10. 〈山花子〉\*

앞 〈浣溪沙〉項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詞譜》에서는 齊言體로 된 것만을 〈浣溪沙〉라 하고, 雜言體로 된 것은 〈山花子〉條로 나누어 놓고 있다. 《詞律》과 《詞譜》에 각각 南唐 李璟의 1체만 수록해 놓았다. 《詞譜》에서

14) 〈菝怨春〉은 바로 〈獻忠心〉調이다. 《敦煌曲校錄》 p. 84 참조.

李璟의 本調 위에다 다음과 같이 〈山花子〉條를 설정한 이유를 적고 있다.

이 調는 곧 〈浣溪沙〉의 別體로 단지 兩段의 끝 구에다 3자를 많게 해서 그 韻을 끝 구에다 옮긴 것일 뿐이다. 이로 인해 添字·攤破의 이름이 붙게 되었다. 그러나 《花間集》에서 和麩이 그 때 이미 〈山花子〉로 이름하였기도 하여 별도로 1體로 엮은 것이다.<sup>15)</sup>

이 記事로 보아서는 《詞譜》에서 사실상 이미 本調를 〈浣溪沙〉의 別體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런데도 和麩이 〈山花子〉로 별칭하고 있었던는 이유로, 〈浣溪沙〉條에다 하나의 別體로 처리하지 않고 獨立된 하나의 體로 설정 수록한 것은 남득이 가지 않는다.

원래 〈山花子〉는 唐 崔令欽의 《教坊記》에 〈浣溪沙〉와 함께 列記되어 있는데, 이로 보아서는 처음에 〈浣溪沙〉와 명확히 구별되는 曲調였을 듯하다. 敦煌曲의 本調는 1수 밖에 보이지 않으나 敦煌曲 〈浣溪沙〉 14수와 비교해 보기로 하면, 〈浣溪沙〉는 平韻만 사용한 반면, 《山花子》는 仄韻을 사용하였고, 전자는 전·후단의 句法은 同一하나 仄仄이 不同하고, 후자는 전·후단의 구법과 평측이 완전히 동일한 점 등, 양자간에 字數만 같을 뿐 실제상의 여러 면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情況에서 본다면, 初期의 〈山花子〉는 전적으로 仄韻體를 가리킨 것이 아닌가 추측되며, 그렇다면 敦煌曲의 本調는 그 原來的 詞調를 지니고 있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후대 이 仄韻體로 된 원래의 〈山花子〉의 詞調가 衰微해졌을 무렵, 그와 句式이 같은 〈浣溪沙〉의 別體로 填詞하는 사람들이 그를 〈山花子〉로도 일컫게 되어 더 후대에 詞譜類에서 이를 참작, 독립된 1체로서 수록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나, 지금으로써는 확증할 도리가 없다.

## 11. 〈臨江仙〉\*

《詞律》에 14체, 《詞律拾遺》에 2체, 《詞譜》에는 11체가 수록되어 있는, 字數가 54~62자로 비교적 別體가 많은 쌍조의 詞調이다. 그러나 敦煌曲

15) 《詞譜》(卷7)〈山花子〉條：「此調即浣溪沙之別體，不過多三字兩結句，移其韻于結句耳，此所以有添字攤破之名；然在花間集，和麩時已名山花子，故另編一體。」

에서는 本調의 詞가 비교에 불편하게 각각 64자·59자로 된 2수 밖에 보이지 않는다. 敦煌曲의 제 1수와 제 2수의 句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제 1수 : 7. 7. 7. 6. 5. 7. 6. 7. 4. 3. 5. (64자)

제 2수 : 7. 6. 7. 5. 5. 7. 6. 7. 4. 5. (59자)

여기서, 제 1수의 후단 末句는 「4.3.5」의 독특한 句式으로 詞譜類에서는 그 예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며, 제 2수는 59자로 詞譜類에서 字數가 동일한 馮延巳와 王觀의 체와 비교해 보면 各字의 仄仄은 서로 출입이 적지 않으나 句式과 用韻에 있어서는 상호 일치하고 있다. 이로 보아 詞譜類에는 실리지 않은 別體가 더 존재하였을 것이며, 수록된 것이라 하더라도 敦煌曲에서 사용된 本詞의 原型으로부터 함께 派生되어 다양하게 발전해간 것으로 간주하여도 그다지 무리는 없을 듯하다.

## 12. 〈酒泉子〉\*

敦煌曲에는 49자체 2수, 50자체 1수, 도합 3수가 本詞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詞律》에는 40자에서 52자로 된 20체를 실었고, 또 《詞譜》에는 40~45자의 22종이나 되는 많은 체를 실고 있으나 《詞律》의 潘閔의 49자와 52자로 된 체는 體製가 맞지 않는 다른 詞調로 판단하고<sup>16)</sup>, 本調에서는 삭제시키고 별도로 《憶餘杭》調를 설정하여 거기에다 편입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花間》·《尊前》 및 《陽春》諸集에 〈酒泉子〉詞는 諸家の 대동소이한 것이 22수가 있는데 대략 어림하니 5체에 불과하다. 《詞律》에 실린 潘閔의 「長憶孤山」과 「長憶西湖湖上水」 2調는 《湘山野錄》에 따르면 본디 〈憶餘杭〉이라. 이름 붙인 것이고 또한 위에 든 諸詞와 체제가 맞지

16) 《詞律》의 潘閔의 그體를 本調條에 列入시킨 立場은 다음과 같이 매우 鞏固하다 : 「按潘作此詞三首, 前四十九字者二, 此五十二字者一。舊原係酒泉子, 卽石曼卿取作畫圖, 錢希白自書于玉堂屏風者; 尾句雖稍變, 實是酒泉子而詞統收此一篇作憶餘杭, 誤也。縱有此別名, 亦應附入酒泉子, 不得另立一調。」 《詞律》(卷1)〈酒泉子〉條 참조.

않으므로 字數에 따라 별도로 뒤에다 열거하였다.<sup>17)</sup>

《詞譜》의 이 견해에 대해 杜文瀾도 그의 《詞律校刊》에서 동조하면서 마땅히 다른 調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sup>18)</sup>

이와 같이 《詞譜》등에서 潘閔의 〈酒泉子〉를 〈憶餘杭〉이라 부정하는 설이 있는데, 敦煌曲과 潘氏의 本調를 비교해 보면 이들의 설에 대해 즉각 의문이 제기된다. 즉, 潘氏의 체 중에 49자체는 敦煌曲 3수 중 字數가 역시 49자인 그수와 句式「4.7.7.5 7.7.7.5」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1수와는 仄仄이 6자가 서로 다르지만 句·韻이 완전히 일치하고, 다른 1수와는 7자가 仄仄이 다르고 句·韻은 2군데밖에 출입이 없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로 보아 敦煌曲과 潘閔의 本調는 거의 동일한 詞調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sup>19)</sup> 따라서 《詞譜》등에서 그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다른 文人詞에서는 49자 등의 예를 찾아 볼 수 없고 마침 別名도 있어서 전혀 다른 詞調로 誤認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았던 데서 연유한다. 이러한 事例에서 보는 바와 같이 詞譜類의 記事는 반드시 모두 신빙할 수 있는 것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13. 〈望江南〉\*

敦煌曲에 8수가 보이는데 單調體(27자) 4수, 나머지는 雙調體(54, 55자)이다. 《詞律》《詞譜》에는 〈憶江南〉條에 각각 皇甫松·吳文英·馮延巳·白居易·歐陽脩·馮延巳의 3체를 실고 있으며<sup>20)</sup>, 이 역시 단조체(27자)와 쌍조체(54, 59자)가 있다. 本調에 원래부터 단조와 쌍조가 구비되어 있

17) 《詞譜》(卷3)〈酒泉子〉條：「按，花間·尊前及陽春諸集，酒泉子詞，諸家大同小異者二十二闋，約計不過五體。……至詞律所收潘閔長憶孤山一與長憶西湖上水二詞，按湘山野錄本名憶餘杭，且與以上諸詞體製不合，故仍按字數，別列在後。」

18) 《詞律》(卷3)本調校記：「按釋文瑩湘山野錄云：“長憶二首是潘閔自，度曲因憶西湖諸勝，故名憶餘杭，與酒泉子不同。”所論與詞譜詞統均合，應另爲一調。」  
참조.

19) 潘閔은 宋 眞宗 時의 사람으로 洛陽에서 藥을 팔며 지낸적이 있다. (《中國人名大辭典》참조.) 그는 民間과 往來가 빈번했던 것으로 여겨지며, 民間詞에서 流傳되던 詞調를 填詞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0) 《詞律》《詞譜》가 모두 本調를 〈憶江南〉이라 標題하고, 그 別名으로 〈謝秋娘〉〈江南好〉〈春去也〉〈望江南〉〈夢江南〉〈夢江口〉〈望江梅〉〈安陽好〉〈夢仙遊〉〈步虛聲〉〈壺山好〉〈望蓬萊〉〈歸塞北〉 등을 열거하고 있다.

있던 듯하나, 쌍조 54자체는 단조체의 句式「3.5.7.7.5」를 중복시킨 형식이며, 敦煌曲의 55자체 1수는 후단 末句를 1자 더 증가시킨 것일 뿐이다. 詞譜類의 馮延巳의 59자 체는 句法이 완전히 다른 체이나 敦煌曲에 그와 같거나 유사한 詞作이 없으므로 전혀 비교할 수가 없다.

敦煌曲과 詞譜類의 本調 간에는 平仄·句式과 用韻에 간혹 서로 出入이 있으나 대체로 일치하고 있으므로 本來 同調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詞譜類와 《歷代詩餘》 등에서는 本調를 宋代에 가서 雙調가 나타난 것으로 적고 있는데, 이 점은 敦煌曲에서 이미 雙調가 갖추어져 있음을 볼 때 역시 信憑性이 없다. 또 《詞譜》에서 〈望江南〉을 〈憶江南〉의 別名으로 들면서, 飛卿詞에서 유래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sup>21)</sup>, 敦煌曲의 寫卷「P2809」「P3128」「P3911」「S5556」등 여러 독립된 殘卷에서 모두 「望江南」으로 일치하여 적고 있고 《教坊記》의 教坊曲名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면, 이 〈望江南〉이란 詞調(詞牌)名이 특정된 詞人의 詞作 구절에서 나온 것이라 하기는 전혀 어려울 뿐만 아니라, 詞譜類에서 이 〈望江南〉을 標題調目으로 내세우지 않고 겨우 〈憶江南〉의 별명 정도로 열거한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

아름든 本調는 宋代에 까지 唐代이래의 民間詞와 별 차이 없이 填詞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겠다.

#### 14. 〈感皇恩〉\*

敦煌曲에 쌍조체 4수가 보이는데, 2수가 57자, 2수가 58자로 되어 있다. 모두가 전단 5구, 후단 6구로 이루어져 있고 平韻으로 押韻하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句式은 「7.7.7.3.5 5.5.3.7.3.5」로 되어 있다.

《詞律》《詞律拾遺》《詞譜》에 각각 4체·3체·7체를 실고 있지만, 張先·周邦彥·賀鑄 등 전부가 宋人의 詞作으로 張先을 제외하고는 仄韻을 사용하고, 字數는 60~80의 쌍조체이다. 《詞譜》에 正體로 실린 毛滂의 67자체는 전·후단 7구 4仄韻을 사용하는 「5.4.7.4.6.5.3 4.4.7.4.6.5, 3」의 句法으로 敦煌曲의 本調와는 그 차이가 매우 현격하므로, 양자를 전혀 同調로 간주하기 어렵다. 다만, 敦煌曲과 字數에 있어 가장 가까운 《詞律》의 張先 60자체 뒤에 杜文瀾의 校記에서 平韻을 사용하였다는 이유

21) 《詞譜》(卷1)〈憶江南〉條：「溫庭筠詞有“梳洗罷，獨望江樓”句，名望江南。」  
참조.

로 <小重山>으로列入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이 보인다.<sup>22)</sup> 이 記事를 실마리로 詞譜類의 <小重山>條를 살펴 보기로 하였다.

<小重山>은 《詞律》에 58자 1체, 《詞律拾遺》에 58자 1체를 실었고, 《詞譜》에는 薛昭蘊(58자)·趙長卿(60자)·無名氏(57자)·黃子行(58자)의 쌍조 4체가 수록되어 있는데, 모두 平韻을 썼고 그 기본적인 字數나 句式에서 敦煌曲의 本調와 같은 체를 모두 갖추어 놓았다.

敦煌曲의 제1·2수는 《詞譜》의 無名氏와 같은 57자의 체로 각자의 平仄에 다소 출입이 보이거나 句讀와 用韻이 같으며, 제 3 수는 薛昭蘊의 체와 平仄이 1자만 相違하고 字數·句法·用韻이 모두 부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詞譜類의 <小重山>調는 敦煌曲에 보이는 <感皇恩>임이 분명하며, 敦煌曲의 <感皇恩>은 바로 후세 詞譜類에서 말하는 <小重山>인 것이다. <感皇恩>은 唐 數坊曲名으로 敦煌曲의 詞作들이 이에 더욱 가까울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그런데 詞譜類에서 이러한 <感皇恩>과 <小重山>으로 나누는 誤謬를 범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後代에 五代 詞人들이 平韻으로 압운한 詞作과 宋代에 더욱 발전하여 仄韻으로 압운한 것과 같은 文人詞 資料밖에 남아 있지 않고, 初期 民間詞 資料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詞譜類 사이에 紛紜한 諸說도 모두 여기서 기인하는 것이다. 任二北은 그의 《初探》에서 다음과 같이 한탄한 바 있다.

설령 敦煌曲이 200년만 더 일찍 발견되었던들, 3書(《詞律》·《校刊》  
《詞譜》를 일견음) 사이에 저절로 이처럼 크게 사실과 동떨어지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sup>23)</sup>

### 15. <調金門>\*

《詞律》《詞律拾遺》에 각 1체를 실었고, 《詞譜》에는 韋莊·孫光憲·周必大的 쌍조 45자체 3체, 程迥의 쌍조 46자체 1체, 모두 4체를 수록하고 있다. 敦煌曲에는 3수가 보이는데 2수는 쌍조 45자체이고 1수는 쌍조 46자체이다.

22) 《詞律》(卷9)〈感皇恩〉張先條：「按，感皇恩調無用平韻，及首句七字者，此詞當是小重山；惟兩結句各添一字，與趙仙源“一夜中庭拂翠條”一首字句悉同應附于卷八小重山調後。」

23) 《敦煌曲初探》p.27：「設使敦煌曲早二百年發現，則三書之間，自不至有如許乖舛矣。」

敦煌曲의 45자체 2수 중 1수는 《詞譜》의 韋莊의 체와 1자만 仄이 다르고 나머지는 句法·用韻이 모두 부합되며, 1수는 韋莊과 완전히 一致한다. 46자로 된 1수도 같은 字數로된 程迥의 체와 6자가 仄의 출 입을 보일 뿐이며 詞 外型에 있어서는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敦煌曲과 文人詞의 本調는 원천적으로 동일한 詞調임을 알 수 있다.

### 16. 〈生查子〉\*

《詞律》과 《詞譜》에 각각 4체와 5체를 수록하고 있는데, 《詞譜》에는 唐末 韓偓의 체를 正體로하여 劉侍讀·牛希濟·孫光憲·張泌 등 五代人의 別體를 함께 載錄하였다.

그러나 敦煌曲에는 모두 전·후단 각 5言 4句로 된 2수의 詞作이 보일 뿐이다. 이 2수의 敦煌曲은 《校錄》에서 盛唐 작품으로 간주되는 것으로서<sup>24)</sup>, 韓偓의 本調와 완전히 符合하고 있다.

다음에 이를 例示하여 둔다. 原詞는 敦煌曲의 것이고 句法 표시는 《詞譜》의 것이다.

#### 〈生查子〉(其一)

●●●●○● ●●●○○● ●●●○○● ●●●○○● ●●●○○● ●●●○○●  
三尺龍泉劍，匣裏無人見。一張落雁弓，百隻金花箭。 爲國竭忠貞，  
●●●○○● ●●●○○● ●●●○○●  
苦處曾征戰。先望立功勳，後見君王面。

이와 같이 本調는 初期에 民間詞와 文人詞가 꼭같은 형태로 填詞되다가, 五代 이후 本調를 사용하여 詞를 짓는 사람들에 의하여 別體가 나타나면서 句式도 다소 달라진 것으로 여겨진다.

### 17. 〈定風波〉\*

《詞律》에 字數가 62자에서 100字에 이르는 6체가 실려 있으며 《詞譜》에는 8체가 수록되어 있고 모두 60자에서 63자에 이르는 쌍조체인데, 兩書 공히 歐陽炯의 전단 5구 3平韻 2仄韻, 후단 6구 4仄韻 2平韻으로된 62 자체를 正體로 삼고 있다.

敦煌曲에는 5수가 보이는데, 59자로 된 것이 3수, 60자의 것이 2수

24) 《敦煌曲校錄》 p. 63 참조.

로 모두 쌍조이다. 그러나 5수가 모두 약간씩 句式을 달리하고 있어서 세부에 있어서는 外形上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敦煌曲과 詞譜類에서 本調가 字數에서 일치하는 것은 60자체인데, 《詞譜》에서는 李泳·曹冠·陳允平의 3체가 이에 해당하나 우선 句式에 있어서 동일한 것은 없고, 敦煌曲과 대비하여 보아도 서로 부합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兩者間에 꼭 들어맞는 句法을 가진 체는 보이지 않으나 敦煌曲과 詞譜類에서 전단의 句式이 「7.7.7.2.7」로 된 것이 많은 수를 점하고 있고, 후단은 서로 비교적 출입이 많으나 대체로 7음 위주의 雜言 형식으로 같은 색채를 느낄 수 있고, 用韻에 있어서도 平仄을 번갈아 換韻하고 있다. 이로 본다면 敦煌曲과 詞譜 所收 本調는 기본적으로 同調로 보아도 커다란 무리는 없으리라 믿어진다. 《校錄》에서 任二北은 敦煌曲 제 2수의 作品內容을 따져보고 盛唐의 작품이라 斷定한 바 있다.<sup>25)</sup> 만약 任氏의 斷定이 사실과 그리 멀지 않다면, 詞譜類에서의 本調體가 모두 歐陽炯등 五代 이후의 詞人들의 作임을 고려할 때, 후대에 本調로 연결어지는 것은 敦煌曲에서 계속 발전해 간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18. 〈望遠行〉\*

敦煌曲에는 盛唐 작품으로 간주되는 本調의 詞가 1수 있다.<sup>26)</sup> 쌍조 54자, 전단 4구 4平韻, 후단 5구 4平韻의 체이다. 詞譜類에는 五代에서 宋代에 걸치는 作家들의 7,8체가 수록되어 있다.

유일하게 보이는 敦煌曲 本調의 작품 1수는 다음과 같은 句式을 갖추고 있다.

敦煌曲 : 7,6,7,7. 3,3,7,7,7. (54字)

그런데 이 54字體는 詞譜類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나 이와 가장 가까운 것으로 李璟의 55자체와 李珣의 53자체가 있다.

李 璟 : 7,7,7,7. 3,3,7,7,7. (55字)

李 珣 : 7,6,7,7. 3,3,6,7,7. (53字)

25) 《敦煌曲校錄》 p.64.

26) 前掲書 p.68 참조.



위에서 例示한 것을 서로 비교하면 敦煌曲의 本調는 前段이 李珣의 句式과 같고 後段은 李璟의 것과 같다. 뿐만 아니라 用韻에 있어서도 前·後段 각 4 平韻을 押韻한 것도 일치하므로 동일한 調임이 분명하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敦煌曲의 本調는 詞譜類에 未載된 하나의 體式이라 하겠고, 詞譜에 收載된 柳永 등의 長調까지 계속 발전해 나간 것의 源流에 가까운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따라서 《詞譜》에서 本調의 令詞는 韋莊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설도 그 근거가 희박한 것임을 알 수 있겠다.<sup>27)</sup>

### 19. 〈蘇莫遮〉\*

敦煌曲에는 本調의 普通雜曲 2 수와 大曲 6 수 모두 8 수가 포함되어 있다. 《詞律》에는 周邦彥 1 체, 《詞譜》에는 范仲淹 1 체를 실고 있는데, 兩書의 각체는 그 句法이 쌍조 62자, 전·후단 각 7구, 4 仄韻으로 같다.

敦煌曲의 경우, 雜曲 2 수는 字數가 제 1 수가 63자 제 2 수가 62자이며 大曲 6 수는 모두가 62자로 句式이 제 2 수와 같고, 또 雜曲 제 2 수는 詞譜類의 本調體와 엄밀하게 따져도 62자 중 平仄이 2 자만 서로 출입이 있을 뿐 모든 句法, 用韻이 같은 것이다. 大曲은 원래 舞曲의 性格을 띤 것이므로 敦煌曲의 大曲은 舞曲歌辭라 할 수 있어서 별도로 칠 수 있는 것이나, 이 역시 詞譜類와 비교해 보아도 各字의 平仄에 서로 약간의 출입이 보일 뿐 句法이나 仄韻으로 押韻한 사실은 부합하고 있다.

任二北은 雜曲 2 수의 寫作時期를 盛唐, 大曲은 武后와 玄宗朝 사이로 보았는데, 이 정도로 敦煌曲 本調의 諸詞는 早期에 지어진 것이 그 內容으로 미루어 틀림없는 듯하다. 그렇다면 宋人에까지 이러한 本調가 填詞된 것으로 보아, 本調는 오랜 唐代의 詞調가 宋代까지 거의 變化 없이 잘 保存되어 내려간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20. 〈鵲踏枝〉\*

羅振玉 《敦煌零拾》에는 敦煌曲 原卷대로 〈雀踏枝〉라 하였으나 王重敏 《敦煌曲子詞集》에는 이를 〈鵲踏枝〉로 고쳤다. 教坊記에 〈鵲踏枝〉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寫卷에서 〈雀踏枝〉로 한 것은 同音으로 인하여 唐·五

27) 《詞譜》(卷21)〈望遠行〉條:「望遠行, 唐教坊曲名, 令詞起自韋莊, …」 참조.

代時에 通用되고 있었기 때문이다.<sup>28)</sup> 詞譜類에는 〈鶻踏枝〉라는 調目을 세우지 않고 이를 〈蝶戀花〉條에 실고 그 本名이 〈鶻踏枝〉임을 밝히면서 宋晏殊詞에서 〈蝶戀花〉로 改稱했다고 하고 있다.<sup>29)</sup>

敦煌曲에는 2수가 보인다. 《詞律》에서는 張泌과 石孝友의 쌍조 60字體가 실렸고, 《詞譜》에는 馮延巳·沈會宗·石孝友의 쌍조 60자 3체가 실려 있다. 敦煌曲 本調의 제 2수는 詞譜類의 體에 비해 字數는 1자 더 많은 61자이나 전·후단 각 5구 4仄韻으로 거의 일치하는 것이고, 제 1수는 쌍조 59자체로 字數는 비슷하나 일견 句式이 매우 相違함을 발견할 수 있다. 敦煌曲의 제 1·2수의 句式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제 1수 : 7, 7, 7, 7. 7, 8, 7, 9. (전단 4측운, 후단 3측운)  
 제 2수 : 7, 4, 5, 7, 7. 7, 4, 5, 8, 7. (전·후단 각 4측운)

그러나 이와 같이 句式으로 따져 보면 각 구의 밑줄 친 부분을 서로 상하 비교해 보면 서로 간에 1, 2자 정도의 增減밖에 있고 押韻도 仄韻으로 하고 있는 점 등, 같은 詞調로 볼 수 있는 요소를 구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 1수는 그 詞의 內容이 民間 색체가 물씬 풍기는 것으로서 詞牌와 걸맞는 本意를 읊고 있는 것으로 보아<sup>30)</sup>, 이는 敦煌曲 제 2수나 詞譜所收 詞調와는 약간 다른, 本調중의 한 別體로 간주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 21. 〈南歌子〉\*

敦煌曲에 本調는 單調體 2수를 포함하여 7수가 보이는데 字數는 28·29, 54·56·57字로 되어 있다. 詞譜類에도 單·雙調가 공히 보이고, 모두 7체가 採錄되어 있으나 單調는 23·26자체, 쌍조는 52·53·54자체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詞譜類에는 54자체를 제외하고 敦煌曲에 보이는 여타 本調의 여러 체는 수록해 놓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54자체의 句

28) 任半塘(二北)《教坊記箋訂》p.101 및 p.223 참조.

29) 《詞譜》(卷13)〈蝶戀花〉條:「蝶戀花, 唐教坊曲, 本名鶻踏枝, 宋晏殊改今名。」 참조.

30) 敦煌曲〈鶻踏枝〉(其1)의 原文은 다음과 같다. 「巨耐靈鶻多瞞語。送喜何曾有憑據。幾度飛來活捉取。鎖上金籠休共語。比擬好心來送喜。誰知鎖我在金籠裏。願他征夫早歸來, 騰身却放我向青雲裏。」

식을 중심으로 서로 비교해 보면 양자의 차이를 窺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敦煌曲 : 5.5.7.6.5    5.5.7.6.3  
周邦彥 : 5.5.7.6.4    5.5.7.6.4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敦煌曲과 詞譜類의 文人詞는 전·후단 末句에 서로 1차씩의 근소한 출입이 있을 뿐이며, 그리고 양자가 平韻을 사용하는 점은 같다. 그 밖에도 서로 單調는 單調體대로 雙調는 雙調體대로 各體의 字數에 있어서는 차이를 다소 보이나, 句式에 있어 전체적으로 공통되는 점이 많이 발견된다.

詞譜類에서 唐末 溫庭筠에서 辛棄疾 등 宋人의 체를 싣고 있는 것으로 보아 本調는 후일 宋代 이후에까지 약간씩 變化를 보이며 발전해 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22. 〈楊柳枝〉\*

敦煌曲에 쌍조 46체 1수가 보인다. 《詞律》에 3체를 실었는데 溫庭筠의 단조 7言 4句 28자체, 쌍조로는 顯覲의 40자체, 朱敦儒의 44자체가 있다. 《詞譜》에서 〈楊柳枝〉條에는 上記 溫庭筠의 단조체만 싣고, 쌍조체는 위에 든 《詞律》의 2체에 賀鑄의 1체를 더하여 3체를 별도로 세운 〈添聲楊柳枝〉條에다 실었다. 《詞譜》에서 이와 같이 따로 〈添聲楊柳枝〉라 하여 條를 설정한 것은, 溫庭筠의 7言 4句 齊言聲詩體를 기본으로 보고 五代와 宋人의 本調는 朱敦儒와 같은 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매 7言句 뒤에다 3자구를 첨가하여 지은 형식이어서 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으로 믿어진다.<sup>31)</sup>

그러나 다음에 敦煌曲의 本調 句式과 詞譜類의 顯覲의 체를 비교하면,

敦煌曲 : 7, 4, 7, 5,    7, 4, 7, 5, (46자)  
顯 覲 : 7, 3, 7, 3,    7, 3, 7, 3, (40자)

31) 《詞譜》(卷3) 〈添聲楊柳枝〉條 참조.

와 같이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兩體는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라는 심증은 가지지만, 民間詞에서는 이와 같이 좀 더 자유로운 句式을 전작부터 운용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寫卷에 그대로 <楊柳枝>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詞譜》에서처럼 <添聲楊柳枝>條를 別設한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겠다. 敦煌曲의 本調 작품이 아직 1수밖에 알려져 있지 않아 더 이상의 면모는 파악할 수가 없다.

### 23. <贊普子>\*

敦煌曲에 1수가 보이고, 詞譜類에도 1體밖에 실고 있지 않으며, 調名을 <贊浦子>라 하였다.<sup>32)</sup> 「普」와 「浦」가 同音이기 때문이다.

敦煌曲과 詞譜類 所收 毛文錫의 本調는 각각 쌍조 44자와 42자체로, 자수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모두 전·후단 각 4구 2平韻으로 공통점이 발견된다. 句式은 다음과 같다.

敦煌曲 : 5, 5, 5, 5.    6, 7, 6, 5. (44字)

毛文錫 : 5, 5, 5, 5.    6, 6, 5, 5. (42字)

이 句式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로 후단 제2.3구에 1자씩의 출입이 있을 뿐이어서 그 밖의 句法과 用韻은 서로 합치하므로 填詞된 두 詞作의 根源이 同調임을 알기 어렵지 않다.

《詞譜》에서 本調에 있어 毛詞 이외 다른 詞作이 없다는 記事를 적고 있는데, 이는 文人詞에서 五代의 毛氏 이외에는 그 이후로도 이 調에 填詞된 적이 없고, 五代 이후 완전히 本調가 사라져 버렸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24. <更漏長>\*

敦煌曲에는 本調의 詞作이 2首가 있는데, 제 1수는 「P3271」과 「S6537」 卷에 중복되어 있고, 제 2수는 「P3994」卷에 보인다. 그런데 이들 2수의 <更漏長>은 作者名이 밝혀져 있지 않으나 《花間集》등의 文人詞總集에서

32) 《教坊記》에도 <贊普子>라 하고 있으므로 이를 따랐다.

33) 《詞譜》(卷4) <贊浦子>條 : 「贊浦子, 一名贊普子, 詞見花間集, 無別首可校。」  
참조.

그 제 1 수가 溫庭筠의 「金鴨香, 紅燭淚」詞이며<sup>34)</sup>, 제 2 수는 歐陽炯의 「三十六宮夜水」詞와 일치한다. 그리고 이 2 수는 모두가 《詞律》《詞譜》에 正體와 別體중의 하나로서 <更漏子>條에 들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敦煌曲의 寫卷에서 이들이 발견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溫·歐陽 兩人이 이들 詞의 原作者임에 틀림없다면, 이들의 詞作이 널리 유행하여 民間에도 빈번히 불려워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로 본다면 비록 作者名이 밝힐 수는 없더라도 文人의 작품이 이 밖에도 敦煌曲 중에 混在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은 차후 충분히 探討되어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2 수의 句法은 다음과 같다.

溫庭筠 : 3, 3, 6, 3, 3, 5.    3, 3, 6, 3, 3, 3. (雙調 46字, 前·後段 各 6句 2仄韻 2平韻)

歐陽炯 : 6, 6, 7, 5.    3, 3, 6, 7, 5. (雙調 49字, 前段 4句 3平韻 後段 5句 4平韻)

이와 같이 兩者間에 字數에도 차이가 있지만, 특히 用韻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 보이는 까닭으로 해서 任二北 《初探》 등에는 이들 중 제 1 수를 詞譜類에서처럼 <更漏子>로 하고, 제 2 수를 <更漏長>으로 나누어 수록하고 句法面에 치중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세히 밝히고 있으나<sup>35)</sup>, 本調名은 이미 《教坊記》에 보이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詞調에서 別體가 다수 보이는 것과 감안하면 溫·歐陽 兩氏의 活動年代가 다소 거리가 있음을 감안하면 任氏의 說에 수긍키 어려운 점이 많다. 이 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여기서는 줄이기로 한다.

### 三. 文人詞調와 同型이 아닌 詞調

敦煌曲에서 사용된 詞調를 살펴보면 《詞譜類》에 載錄되어있는 후대 文人詞調의 體式과 관련하여 다른 것들이 있다. 다시 말해서 敦煌曲에서와 같

34) 《花間集》南宋 紹興十八年刻 晁謙之跋本에서는 「玉鑪香, 紅燭淚」로 시작되어 있다.

35) 《敦煌曲初探》 p.33 및 《敦煌曲校錄》 pp.86~88 참조.

은 이름의 詞調가 詞譜類에도 수록은 되어 있으나, 字數·句法·用韻 등 詞의 外型的 面에 있어서는 近接되는 要素를 구비하지 못한 것도 상당수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敦煌曲과 詞譜類 사이에 이러한 명백한 相違가 존재한다고 해서, 양자의 同名 詞調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速斷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라 여겨진다. 그렇다고 양자간에 예외없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추측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채집·발견된 敦煌曲이 그 당시 填詞·歌唱된 모든 民間詞體를 빠짐없이 꺾다 망라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文人詞 방면에서도 당시 지어졌던 詞體가 清代에 쓰여진 詞譜類에 남김없이 모두 실려져 있는 것은 아닐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금일 우리가 對比해 볼 수 있는 자료에는 한계가 뒤따르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욱 정확한 論斷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자료의 발굴이 더욱 절실히 기대되는 것이다.

本章에서도 양자 사이의 형식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 1. <鳳歸雲>\*

《雲謠集》에 4수가 보이는데 쌍조 73,78,83字의 中調로 되어 있고, 83자체 2수는 서로 몇몇 句의 字數에 1자씩의 출입이 있다. 詞譜類에는 柳永·趙以夫 등 宋人의 3체가 보이는데 모두 100자를 넘는 慢詞이다.

### 2. <洞謁歌>\*

《雲謠集》에 서로 句法이 비슷한 쌍조의 74자와 75자체 2수가 실려 있다. 詞譜類에는 무려 40체가 수록되어 있는데 적게는 82자에서 많게는 126자에 이르는 체이며, 전부가 晏幾道·柳永·蘇軾·辛棄疾·吳文英 등 宋人의 체이다. 특히 蘇軾의 체를 正體로 삼았는데, 蘇軾의 本詞 自序에 後蜀主 孟昶의 <洞仙歌>詞를 云謂한 것을 보면 五代에 이미 本調가 있었던 것이 된다.<sup>36)</sup> 雲謠詞는 孟昶보다는 빠르므로 《雲謠集》에서와 같은 本

36) 《詞苑叢談》(卷10)〈辨證〉 p.221 洞仙歌異說條：「東坡序云：僕七歲時，見眉州耆隱，姓朱，忘其名，年九十餘，自言常隨其師入蜀王孟昶宮中。一日大熱，王與花蕊夫人夜起避暑摩訶池上，作一詞，朱具能記。今四十年，朱已死矣，人無知此詞者。獨記其首兩句，云：『冰肌玉骨，自清涼無汗』暇日尋味，豈洞仙歌乎？乃爲足之云。…」 참조. 이 글은 《東坡詞》諸本에서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調가 演變을 거듭하여 五代를 거치고 宋代에 이르러서 매우 盛行하여 수 많은 사람들에 의해 填詞되고 많은 別體를 탄생시킨 듯하다.

### 3. 〈傾盃樂〉\*

《雲謠集》에 2수가 보이는데, 모두가 110字, 109字의 慢詞로 되어 있다. 《雲謠集》에서 慢詞의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니나, 本調 그리고 〈內家嬌〉 등에서 몇 수의 慢詞가 발견되어 종래의 北宋 柳永·張先 등이 慢詞를 처음으로 創製하였다는 설을 뒤집은 것은 이제 이미 오래된 사실이다.<sup>37)</sup> 詞譜類에는 《詞律》에 8체, 《詞律拾遺》에 3체, 《詞譜》에는 10체를 실고 있는데 모두가 柳永이 지은 체를 중심으로 한 94~116字의 것이다.

詞譜類에서는 109字體는 없고 110字體는 《律拾》에 沈會宗의 것이 보이는데 이를 《雲謠集》의 제 1수와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沈會宗 : 4, 8, 7, 4, 5, 4, 8, 5, 4, 6.    4, 4, 7, 7, 9, 5, 7, 4, 8. (前段 10句 4  
仄韻, 後段 9句 5仄韻)

《雲謠集》 : 4, 4, 5, 5, 4, 6, 8, 5, 4, 4, 7.    7, 6, 7, 7, 6, 8, 4, 4, 5. (前段 11句 8  
仄, 後段 9句 4仄韻)

여기서 얼핏보면 상호 仄韻을 사용하는 등 類似性을 발견할 수 있을 듯도 하나, 종내 다른 체임을 인정치 않을 수 없다. 《詞譜》에 正體로 내세운 柳永의 104字體도 前段 10句 4仄韻, 後段 11句 5仄韻으로 특히 用韻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本調는 詞譜類에서 보는 바와 같이 別體가 원래 많은 터이고, 字數가 그 범위에서 오가는 것을 보더라도 柳永 등의 體가 民間詞의 本調體와 전혀 관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柳永은 원래 民間과의 來往이 많았던 詞人이므로, 일부 그의 詞調 역시 民間詞調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서 柳永의 慢詞 역시 民間에서 불리워지고 있었던 慢詞에 의해 크게 촉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진다.

### 4. 〈內家嬌〉

本調는 教坊曲名에 보이지 않는다. 《雲謠集》에 2수가 보이는데 제 1수

37) 拙稿 〈雲謠集試論〉 참조.

가 106字, 제 2 수가 96자인 慢詞이다. 《詞譜》와 《律拾》에 柳永의 106字體 1 調를 수록해 놓고 있다. 字數는 《雲謠集》의 제 1 수와 柳永의 本調와 서로 같으나, 《雲謠集》이 前段 11句 6平韻, 後段 10句 4平韻이나 柳永의 本調體는 前段 10句 4仄韻, 後段 10句 7仄韻으로 用韻面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柳永 《樂章集》에는 本調에다 「林鍾商」이라 宮調名을 注記하고 있는데, 이는 「P3251」卷의 《雲謠集》 제 2 수와 동일한 詞에 「御制林鍾商內家嬌」라 되어 있는 것과 脈絡을 같이하고 있다. 이로 보아 분명 《雲謠集》의 本調 詞作과 柳永의 本調가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雲謠集》과 柳永의 本調 간에 생각될 수 있는 慢詞 형식과 그 淵源 관계는 앞에서 이미 서술한 〈傾盃樂〉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다고 하겠다.

#### 5. 〈拜新月〉\*

《雲謠非》에 2 수가 보이며 공히 쌍조 84자체이나 句式은 서로 다소 다르다. 詞譜類에 唐人 李端의 5言 4句의 單調 20字 형태의 체만 수록하여 놓았다. 양자는 우선 字數나 句式에 있어 서로 현격히 다르므로 어떠한 연관성을 추측하기조차 전혀 불가능하다. 그리고 別名을 〈拜新月〉로 하는 〈拜星月慢〉이 詞譜類에 모두 3체가 보이니 이들은 字數가 각각 101·102·104字이고 句式이 판연히 다르므로 本調와 관련이 없을 듯하다.

#### 6. 〈婆羅門〉\*

敦煌曲에 4 수가 보이고 전부가 단조 34자로 句式이 동일하며, 모두 첫머리가 「望月」로 시작하여 달을 읊은 것이다. 詞譜類에는 別名을 〈婆羅門〉이라 하는 〈婆羅門引〉을 4 체 실고 있는데 쌍조 76자체이며 句式은 각 체마다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나, 敦煌曲과는 전혀 無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詞譜》의 正體인 宋人 曹組의 〈婆羅門引〉은 原名이 〈望月婆羅門引〉이라 되어 있고<sup>38)</sup>, 그 내용이 달을 읊은 것이며, 《教坊記》에도 〈望月婆羅門〉이라는 이름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曹組의 本調體는 처음에는 民間詞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고 후대로 계속 변화해 간 것으로 여겨

38) 《詞律》(卷11) 〈婆羅門引〉條 참조.



진다.

### 7. 〈長相思〉\*

敦煌曲에 쌍조 3수가 보이고 모두 「作客在江西」로 시작하며 字數는 41字이다. 詞譜類에는 몇몇 체가 있는데 우선 字數에서 가장 가깝게는 白居易의 쌍조 36자체에서 柳永의 103자체, 袁去華의 104자체까지 있다. 그러나 양자의 여러 句式에서 전혀 共通點은 찾을 수 없다. 아마 本調는 民間詞와 文人詞가 달리 독립해서 발전되어 갔을 것으로 짐작된다.

### 8. 〈送征衣〉\*

敦煌曲에 쌍조 59자체가 1수 있으며 詞譜類에 柳永의 쌍조 121字 1체가 보인다. 양자는 字數에서 句法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다르고, 唐·五代에 他詞가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文人詞에서는 柳永이 本調의 이름을 빌어 새로이 創調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 9. 〈歸去來〉

敦煌曲의 本調는 16수가 보이며, 「出家樂讚」(6수)·「歸西方讚」(10수)라는 副題가 붙어 있는 佛教 관계의 歌辭로, 1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15수가 모두 「歸去來」句로 시작한다. 前6首는 「歸去來」句 뒤에 3字를 덧붙이고 7言 2句로 된 本辭의 末3字를 중첩한 和聲을 달고 있다. 나머지는 本辭로 7言 3句를 쓴 것이 7수, 7言 5句를 사용한 것이 3수이다.

詞譜類에는 柳永의 쌍조 49자, 52자 2체가 수록되어 있으며, 各句가 모두 완전한 雜言體로 되어 있어 句法上 서로 공통점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이도 柳永이 本調의 이름만 빌어 새로이 創製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 여겨진다.

### 10. 〈十二時〉

敦煌曲 本調는 任氏 《校錄》에서 「定格聯章」으로 분류된 것 중의 하나로 每首의 字數가 ① 3.7.7.7, ② 3.5.5.5, ③ 3.7.7.7.7.7.7, ④ 3.3.7.7.7로 이루어져 있는 특이한 체이다. 그리고 「天下傳孝十二時」 「禪門十二

時」「發憤」「太子十二時」 등등의 副題를 붙이고 있는 것이 많고, 대체로 佛敎 관계의 歌辭가 많다. 또한 敦煌曲에서 本調는 가장 많은 도합 204수의 숫자를 차지하고 있다.

《詞律》에 柳永의 三疊으로 된 130자체, 《律拾》에 朱雍의 쌍조 91자체와 葛長庚의 三疊 141자체, 《詞譜》의 〈十二時慢〉條에 위 3체와 無名氏의 쌍조 125자체를 실고 있으며, 〈十二時〉가 별명 중의 하나로 불리워지는 〈憶少年〉에도 2체가 실려 있다.

그러나 敦煌曲의 本調 詞譜類에 收載된 〈十二時〉〈十二時慢〉〈憶少年〉과는 전혀 상관 없는 별개의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로 보아서는 後代 柳永 등의 本調 詞는 調名만 차용한 新聲이라 할 수 있겠다.

### 11. 〈鬪百草〉

敦煌曲의 本調는 大曲의 형태로서 모두 4수가 보인다.<sup>39)</sup> 句式은 「5.5.5.5.6.5」(31字)로 되어 있고 제 5구 6자는 매수 「喜去喜去覓草」로 일치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和聲의 구실을 한 듯하다.<sup>40)</sup>

詞譜類에 晁補之의 2체가 보이는데 모두 쌍조 102자체이며 순전히 長短句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로 보아 후대의 本調는 역시 調名만 빌어 填詞된 새로운 詞調라 할 수 있겠다.

### 12. 〈何滿子〉\*

敦煌曲에 大曲 형식의 4수가 보인다. 7글 4句의 형태이며 3平韻으로 押韻하였다. 任二北은 이들을 盛唐의 作品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sup>41)</sup>

詞譜類에 5체가 보인다. 단조로는 和凝의 36·37자체 (各 6句 3平韻) 쌍조로는 尹鶚의 73자체와 毛熙震의 74자체 (前·後段 各 6句 3平韻), 그리고 毛滂의 74자체(前·後段 各 6句 4平韻)로 나누어진다. 和·尹·毛 五代 3家の 체는 字數와 句式은 상당히 다르나 3平韻을 쓰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므로, 이들의 詞體가 敦煌曲의 本調와 관련이 있다면 이는 敦煌曲의 것보다 훨씬 변화·발전해 간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用韻만 일치한다 해서 그와 같이 추측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다.

39) 〈鬪百草〉라는 調名 밑에 「第一」「第二」 등으로 나누어 標題를 달고 있다.

40) 이것은 大曲에도 和聲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거로 볼 수 있다.

41) 《敦煌曲校錄》 p.188 〈何滿子〉條: 「其辭可能爲盛唐作品。」 참조.

### 13. 〈劍器詞〉\*

敦煌曲에 보이는 本調는 3수로 전부 5言 8句로 된 大曲의 형태이다: 《詞律》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律拾》과 《詞譜》에 宋人 袁去華의 쌍조 96자의 〈劍器近〉 1體만을 실고 있다. 詞譜類에서의 「劍器」라는 명칭도 舞曲(大曲)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sup>42)</sup>, 실사 그렇다 하더라도 위의 袁氏의 것과 같은 체는 후대에 새로 창제된 詞調로서 敦煌曲의 本調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봄이 옳을 것으로 여겨진다.

## 四. 詞譜에 보이지 않는 詞調

敦煌曲에서는 詞譜類의 文獻에 수록된 文人詞調에는 보이지 않는 詞調를 사용하여 填詞한 작품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이러한 詞調는 敦煌曲 사용 詞調 54調 가운데서 3분의 1에 가까운 17조나 차지하고 있다.<sup>43)</sup> 그 調名은 다음과 같다.

- ① 〈竹枝子〉\* ② 〈柳青娘〉\* ③ 〈喜秋天〉\* ④ 〈別仙子〉 ⑤ 〈綺練子〉 ⑥ 〈泛龍舟〉\* ⑦ 〈鄭娘子〉 ⑧ 〈水調詞〉 ⑨ 〈樂世詞〉 ⑩ 〈皇帝感〉\* ⑪ 〈悉曇頌〉 ⑫ 〈好住娘〉 ⑬ 〈散花樂〉 ⑭ 〈五更轉〉 ⑮ 〈百歲篇〉 ⑯ 〈十恩德〉 ⑰ 〈阿曹婆〉

이들 중 〈竹枝子〉는 教坊曲名이기도 하며, 晚唐·五代의 7言 4句로 된 齊言聲詩體 〈竹枝〉와는 아무런 관련을 가지고 있지 않다. 敦煌曲에 있어서의 〈竹枝子〉는 쌍조 64字體로서 「7.5.6.7.7」의 句式을 중첩한 형태이므로 兩調가 名稱만 유사할 뿐, 그 來源을 別途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柳青娘〉調는 본래 歌妓의 이름으로 調名을 삼은 예에 속한다.<sup>44)</sup> 이는 〈定風波〉調와 비슷한 句法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은 모두 敦煌曲과 《教坊記》에 本辭와 調名이 보이므로 필시 뚜렷이 구별되는 다른 요소들이 있

42) 聞汝賢 《詞牌彙釋》 pp.667~668 참조.

43) 「S2607」卷에 〈碁怨春〉이라는 調名으로 1首가 보이거나 이는 원래 〈獻忠心〉 調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本稿 제2장 9 〈獻忠心〉條 참조.

44) 《唐音癸籤》(卷13): 「柳青娘者, 豈亦歌妓之名, 後遂爲曲名歟?」 참조.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喜秋天〉은 앞에서 언급한 〈竹枝子〉〈柳青娘〉과 더불어 《雲謠集》에 수록된 詞調이다. 〈喜秋天〉은 教坊曲名에 들어 있으며, 詞譜類에는 他調의 別名으로조차도 언급이 없다. 그러한 까닭으로 本章에 분류하였기는 하나, 실제로 〈喜秋天〉調는 北宋 이후의 〈卜算子〉와 동일한 詞調이다. 그렇다면 〈喜秋天〉이 〈卜算子〉의 원래 명칭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들과 같이 위에 든 여러 調名이 詞譜類의 문헌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이들 詞調가 民間에서 노래불리워지다가 文人들에 이르러서는 填詞된 바 없음을 뜻하며, 실사 填詞된 바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詞作이 中途에서 영원히 埋沒되어 失傳해 버렸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쨌거나, 이들에 대한 詞譜類에서의 未載는 이들 詞調의 대부분으로 하여금 후세의 文人詞調와 비교하여 대조해 볼 수 있는 근거를 잃게 만든 것은 틀림 없다고 하겠다.

## 五. 結 論

이상에서와 같이 敦煌曲에서 사용된 詞調 54調를 주로 詞譜類 문헌에 실린 文人詞調와의 對比를 통하여 개략적으로 살펴 보았다. 앞으로 敦煌殘卷의 정리가 더욱 완벽해지고 資料가 더 발굴되면,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의 작품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며 더욱 확실한 民間詞의 면모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邊方이라 할 수밖에 없는 敦煌에서조차 唐·五代の 民間詞가 수많은 발견될 정도라면, 문화의 중심지역인 中原에서는 詞의 流行이 가히 어떠한 지경이었는지를 상상하기 어려울만하다. 그러나 그러한 情況을 實證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것은 참으로 가석한 일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 現今까지 정리된 자료를 토대로하여 추출된 敦煌曲 詞調의 몇 가지 特性和 詞學上的 意義, 그리고 對比 결과 드러난 詞譜의 문제점 등과 곁들여 종합하여 보기로 한다.

敦煌曲 54調 가운데 唐 教坊曲名에도 동일한 調名이 보이는 것은 38調에 이르며, 그리고 이 38調 중 2調를 제외하면 모두가 雜曲子의 詞調에 해당하는 것이다.<sup>45)</sup> 이 사실은 民間詞가 唐 教坊의 樂曲과 매우 밀접한

45) 《雲謠集》의 경우는 13調중 內家嬌 1調를 제외한 12調가 모두 教坊曲名이었다. 拙稿 〈雲謠集試論〉 pp.50~65 참조.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教坊의 性格을 示唆해 주는 단서가 되는 것으로 詞이 發生이나 起源을 논의하는데 중요한 資料가 될 것이다.

敦煌曲의 詞調를 文人詞調에 對比시켜 본 결과 調名과 그 形式이 상호 부합하거나 근사한 詞調도 있었고, 調名은 동일하나 그 形式에서 類似性을 지니고 있지 않은 것도 있었으며, 敦煌曲에서는 사용된 바 있는 調名이 詞譜類의 문헌에 전혀 收載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보았다. 어떤 한 詞調가, 時代가 앞서는 것과 일치하는 면이 나타나는 것은 아무래도 그것이 前代의 것과 脈을 같이하는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敦煌曲의 詞調는 그 대부분이 文人詞調보다는 先行하므로 民間詞는 後代의 文人詞를 先導했고, 또한 文人詞는 民間詞에서 진작부터 정착되어온 가락에다 그대로 填詞했거나 그 가락을 基調로 하여 얼마간 다르게 사용한 예가 많았던 것이다. 唐·五代는 물론 北宋 初에서 南宋 末까지의 長久한 時期에 걸쳐 文人詞에서 民間詞에서의 같은 詞調 形式을 踏襲·沿用한 경우가 적지 않았던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慢詞를 처음 創製한 것으로 알려졌었던 北宋의 詞人 柳永·張先 등의 詞作에서도 民間詞調와 부합하는 것이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들의 慢詞중 적어도 일부는 오히려 民間과 훨씬 밀착된 來往을 함으로 말미암아 기히 民間에 있던 慢詞의 곡조를 활용한 것이거나, 慢詞의 제작을 촉발받아 이루어졌을 蓋然性이 농후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調名은 敦煌曲과 詞譜에서 互見하나 그 詞調의 形式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자료의 아직 충분하지 못하여 판단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나, 後代 文人詞가 이미 있어왔던 調名을 採用·取擇한 데에는, 경우에 따라 기존 詞牌를 이용하여 新調를 創製, 填詞하였을 가능성과 더불어서, 어떠한 前代 詞調와 다소간에 어떠한 關係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詞譜에 전혀 調名이 수록되지 못한 詞調는 주로 民間에서만 流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형 文人階層에 流行한 바 있다 하더라도 작품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 못하여 그 詞調가 결국 失傳되어 버렸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敦煌曲은 그 대부분이 初期詞라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同時期의 文人詞에서 볼 수 있는 바와 약간 다른 詞調 運用이 나타난다. 동일한 詞調에 填入된 詞作이라 하더라도 각 詞作이 전반적으로 字

數에서 차이가 나고 句法 또한 많이 다른 수가 많다. 실사 字數가 일치하는 同調의 詞作일 경우에도 句法·平仄·用韻등 실제 詞調의 形式에 있어서 相違를 보이는 수가 허다하다. 이것은 詞調의 樂曲에 따라 填詞할 때 各調마다의 일정한 句法에 얽매이지 않고, 襯字를 활용하거나 平仄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通叶字로 押韻하는 등 文人詞보다는 대체로 더욱 자유스런 詞調運用이 가능하였던 데 기인한다. 이 또한 民間詞의 한 특징이라 하겠다.

敦煌曲 詞調를 고찰하는 데 있어 몇몇 詞譜類의 문헌과 각각 對比해본 결과 부수적으로 얻은 것도 적지 않다. 앞 장에서 이미 지적한 바이지만, 詞譜의 誤謬나 未備가 상당히 발견되는 것은 看過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 중 詞調 혹은 調名의 始源에 대한 記事는 매우 실빙성이 부족한 것이 많으며, 개중에는 臆斷으로 別調를 新設하는 등의 명백한 오류도 발견되었다. 그리고 敦煌曲에 보이는 詞調가 다수 詞譜에 未收된 것은 앞에서도 지적한대로이고, 특히 字數나 句法 혹은 平仄·用韻이 다른 別體에 이르러서는 실리지 못한 것이 부지기수였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가 敦煌曲과 같은 民間詞 資料가 詞譜 편찬 당시에는 전혀 알려지거나 발굴되지 못했던 데 기인한다.

民間詞 資料가 流傳되지 못한 것은 宋代에 이르러 詞의 全盛時代를 맞아 文人詞가 極盛하여 唐·五代에 맥맥히 命脈을 이어오던 民間詞의 지위를 순식간에 흡수하여 계승의 길을 완전히 滅絕시켜 버린 결과이다. 원래부터 俗文學的 性格을 띠는 民間資料란 記錄性에 있어 매우 脆弱한 면을 지니고 있다. 더구나 卑視되고 忽待받은 民間詞에 대한 자료가 처음에는 다소 있었다한들, 오랜 세월 동안 일반적인 상황하에서는 殘存하지 못할 것은 너무도 번연한 일이다. 따라서 清代에 들어선 이후 詞譜나 詞集類 등 관계 문헌의 편찬시에는 民間詞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당시까지 훌륭히 보전 혹은 유전되어 온 《花間》《尊前》등의 詞總集과 個人文集 등의 詞作, 그리고 여타 典籍에 수록된 文人詞 자료만을 근거로하여 劃定·編纂하게 된 것이므로, 일련의 여러 상황으로 보아서는 現傳하는 詞譜類에 이러한 根本的인 오류가 존재하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歸結이라 하겠다.

敦煌曲과 같이 오랫동안 매몰되어 있었던 民間詞 자료의 발굴로 말미암아 唐·五代詞의 범위가 더욱 擴張되었으며, 무엇보다도 五里霧中이던 詞

의 淵源이나 初期發展에 관한 여러 상황들이 상당한 정도까지 밝혀짐으로써 中國詞文學 研究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받은 것은 진실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敦煌曲의 詞調에 대한 더욱 자세한 연구는 民間詞에서 文人詞로의 移行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어 매우 절실한 일이라 믿어진다.

#### 主要 參考文獻

1. 《敦煌曲校錄》任二北, 上海藝者合出版社, 上海, 1955.
2. 《敦煌曲初探》任二北, 上海文藝聯合出版社, 上海, 1954.
3. 《敦煌曲子詞集》王重民, 商務印書館, 上海, 1956.
4. 《詞律》萬樹, 中華書局, 臺北, 1966.
5. 《詞律拾遺》徐本立(上記《詞律》合訂本)
6. 《詞律補遺》杜文瀾(同上)
7. 《詞譜》王奕清等, 聞汝賢自印本, 臺北, 1976.
8. 《詞牌彙釋》聞汝賢, 聞汝賢自印本, 臺北, 1963.
9. 《詞名索引》吳藕汀, 太平書局, 香港, 1966.
10. 《花間集》(《四部叢刊 初編 縮本》) 商務印書館, 臺北, 1976.
11. 《尊前集》(《彊村叢書》本) 廣華書局, 香港, 1970.
12. 《敦煌雲謠集新書》潘重規, 石門書局, 臺北, 1977.
13. 《教坊記箋訂》任半塘(二北), 中華書局, 北京, 1964.
14. 《唐五代詞》林大椿, 商務印書館, 香港, 1976.
15. 《全宋詞》唐圭璋, 世界書局, 臺北, 1976.
16. 《宋詞》周篤文, 古籍出版社, 上海, 1980.
17. 《詞苑叢談》徐鉉, 木鐸出版社, 臺北, 1982.
18. 《唐音癸籤》胡震亨, 木鐸出版社, 臺北, 1982.
19. 〈花間集과 尊前集의 比較研究〉鄭憲哲, (《論文集》人文系篇 第23輯 第1號) 慶尙大學校, 晉州, 1984.
20. 〈雲謠集試論〉鄭憲哲, (《中國語文論集》創刊號), 釜山慶南中國語文學會, 釜山, 1984.





# 韓國 律·絶의 起源問題

柳 瑩 杓\*

〈目 次〉	
I. 序 言	Ⅲ. 三國의 五言詩
Ⅱ. 絶句와 律詩의 形成	1. 三國의 五言詩 概況
1. 絶句	2. 三國 五言詩의 制作年代
① 絶句의 名稱	① 鼻荊郎詞
② 絶句의 起源	② 悼歎詩
③ 絶句의 分類	③ 詠孤石詩
2. 律詩	3. 三國 五言詩의 格律
① 對仗	4. 최초의 絶句와 律詩
② 聲律說	Ⅳ. 結 語
③ 律詩의 形成	

## I. 序 言

우리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할 우리의 문자가 없던 시대에 선조들은 어쩔 수 없이 中國의 漢字를 빌어 그들의 생각을 표현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문학은 訓民正音 창제 이전까지는 漢字로 표현된 漢文學이 그 주류를 이루어 왔다.

본래 문학은 어느 장르를 막론하고 모두 그 발생배경 및 발전과정이 있게 마련이지만, 우리의 漢文學, 특히 五言詩에 있어서는 그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 즉 우리 선조들은 中國 漢字의 도입과 더불어 中國에서 이미 유행하던 詩歌의 형식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따라서 中國에서 五言의 各詩體가 언제 형성이 되었는가에 관한 정확한 인식이 앞서야만 우리나라의 各 五言詩體의 기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絶句를 고구려 乙支文德의 〈與隋將于仲文詩〉, 최

\* 釜山産業大 中文科

초의 律詩를 역시 고구려 定法師의 〈詠孤石詩〉라고 보는 說에 대하여는 이견이 많다. 우선 이 두 詩를 최초의 絕句·律詩로 보는 견해는 이것들이 각각 五言四句와 五言八句로 구성되어 있어 唐代의 五言律·絶과 글자 수가 일치한다는 점에 착안한 감이 짙다. 한편 여기에 반대하는 이들은 첫째, 이 두 詩는 仄仄의 법칙상 唐代의 近體詩(律·絶)와 合致되지 아니하고 둘째, 시기적으로도 이 두 詩가 제작된 때에는 中國에서도 아직 新體詩文學이 완성되지 못했으니 이 두 詩는 絶句·律詩일 수가 없고 각각 五言四句·五言八句의 古詩라는 것이다.<sup>1)</sup>

그러나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絶句와 律詩는 唐代에 갑자기 성행한 것인가? 또한 絶句는 반드시 近體詩인가?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中國에서의 絶句와 律詩의 발생시대 및 그 요인을 고찰하고 다시 〈與隋將于仲文詩〉와 〈詠孤石詩〉 및 기타 몇몇 三國 五言詩들의 격률과 세 작년대를 분석·비교하여 위에서 말한 두가지 說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시도하려 한다.

## Ⅱ. 絶句와 律詩의 形成

### 1. 絶句

絶句란 四句로 구성된 五·七言小詩를 지칭하는 말로서 그 발생은 五言이 七言보다 앞선다. 대체로 五言絶句의 발생을 고찰하면 七言絶句의 대강을 알 수 있고 더우기 이 글에서는 〈與隋將于仲文詩〉등과의 관련하여서 언급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五言絶句만을 검토의 대상으로 삼는다. (下文의 律詩의 경우도 역시 같다.)

#### ① 絶句의 名稱

絶句라는 명칭은 唐代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六朝때부터 있던 것으로 그 당시에는 絶句 혹은 斷句·短句로 불리었다. 漢 이래의 五言詩選集인 梁 徐陵의 《玉臺新詠》에는 漢·魏·晋代의 五言四句의 樂府詩 四首를

1) 文璇奎 《韓國漢文學史》 pp. 75~77 및 徐首生 《古代漢文學研究》 pp. 21~24 참조.

「古絕句」로 명명하였고<sup>2)</sup> 다시 徐陵과 거의 同詩代人인 吳均의 「雜絕句」四首를 수록하고 있다. 한편 正史에도 絕句에 관한 기록이 적지 않은데, 그것을 시대별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宋 劉昶의 斷句(465年作)……《南史 卷十四·劉昶傳》
- 齊 武陵昭王 曄의 短句(479~482年間作)……《南齊書 卷三十五·武陵昭王曄傳》
- 梁 蕭正德的 絕句(523年作)……《南史 卷五十一·梁宗室傳》
- 梁 陸山才의 絕句(552年頃作)……《南史 卷六十四·張彪傳》
- 梁 元帝의 絕句四首(554年作)……《南史·梁本紀》

다시 각각의 正史에 기재된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자.

1) 劉昶의 斷句: 廢帝인 子業이 즉위하자(昶은) 徐州刺史가 되었다. ……帝가 북으로(昶을) 토벌하자, ……昶도 즉시 기병하였지만 통치권력의 여러 군현들이 모두 명령을 받들지 않았다. 昶은 일이 이기지 못할 줄 알고 밤중에 성문을 열고 魏나라로 도망쳤다. 어머니와 처를 버리고 오직 첩 한사람만을 남자옷을 입혀 말을 타고 따르게 했다. 길에서 비문강개하여 斷句를 지었다.<sup>3)</sup> 그리하여 첩의 손을 잡고 남쪽을 바라보고 통곡하니 좌우의 부하들이 슬퍼하여 목메이지 않는 자가 없었다. 마더마디가 비통하였는데 멀리 그의 어머니에게 절을 했다. (廢帝即位, 爲徐州刺史。……帝北討, ……昶即起兵。統內諸郡, 並不受命。昶知事不捷, 乃夜開門奔魏。 携母妻, 惟携妾一人作丈夫服, 騎馬自隨。在道慷慨爲斷句曰云云。因把姬手, 南望慟哭, 左右莫不哀哽。每節悲慟, 遙拜其母。)

白雲滿鄣來, 흰구름은 변방 가득히 밀려오고,

- 2) 古絕句 四首는 다음과 같다. 「藥砧今何在, 山上復有山。何當大刀頭, 破鏡飛上天」(其一)。「日暮秋雲陰, 江水清且深。何用通音信, 蓮花玳瑁簪」(其二)。「菟絲從長風, 根莖無斷絕。無情尚不離, 有情安可別」(其三)。「南山一柱樹, 上有雙鸞鷲, 千年長交頸, 歡愛不相忘。」(其四)

단 徐陵이 古絕句로 명명하였다고 해서 漢魏때부터 絕句라는 명칭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아마도 徐陵은 이 詩들의 형식이 당시에 유행하던 “絕句”와 같았기 때문에 “絕句”로 명명했을 것이다.

- 3) 詩는 下文에서 따로 인용함.

黃塵半天起, 황사는 하늘 반을 가렸는데,  
關山四面絕, 길은 험난해 갈바 모르고  
故鄉幾千里, 고향은 천만리 저멀리 있네.

ii) 昭王 曄의 短句: 曄은 굳세고 총명함이 출중하였다. ……여러 왕들과 短句詩를 지었는데 謝靈運體를 본받아서 지어 바쳤다. 齊의 高帝가 답하여 가로되; ‘너의 20字를 보니 여러 아이들이 지은 것 중에 서 가장 낫다. 그러나 사령운은 방탕하여 詩에 앞뒤가 없다. 潘岳과 陸機는 매우 宗으로 숭상할 만하며 顏延之가 아마 그 다음일 것이다. (曄剛穎傑出, ……與諸王共作短句詩, 學謝靈運體, 以呈。上報曰; ‘見汝二十字, 諸兒作中 最爲優者。 但康樂放蕩, 作體不辨有首尾。安仁、士衡, 深可宗尙, 顏延之抑其次也’)

iii) 蕭正德的 絕句: 普通三年(523)에 (正德은) 黃門侍郎 輕車將軍이 되었다가……얼마후 魏나라로 도망쳤다. 처음 떠날 때에 詩一絶을 지어 등롱속에 집어넣었으니 바로 <詠竹火籠>詩<sup>4)</sup>이다. (普通三年, 以黃門侍郎爲輕車將軍。 ……頃之, 奔魏。初去之始, 爲詩一絶, 內火籠中, 即詠竹火籠曰云云。)

楨幹屈曲盡, 홀륭한 인재 뒤틀리어 다 없어지고,  
蘭麝氣氤銷, 난초와 사향의 길은 내음 사라졌네,  
欲知懷炭日, 제가 되어 버릴 날을 알고 살구나.  
正是履冰朝. 바로 얼음을 밟고 가듯 위험한 때 이리라.

iv) 陸山才의 絕句: 張彪는 처음에 若邪에서 몸을 일으키었고, 若邪에서 흥성했으며 若邪에서 죽었다. 그의 처와 개까지도 모두 당시에 소중하게 여겨졌다. 彪의 친구인 吳中의 陸山才는 沈泰 등이 배반한 것에 슬퍼하며 吳昌門에 詩 一絶을 새겨넣었다.」(彪始起於若邪, 興於若邪, 終於若邪。及妻犬皆爲人所重異。彪友人吳中陸山才, 嗟泰等翻背, 刊吳昌門爲詩一絶曰: ‘田橫感義士, 韓王報主臣。若爲感意氣, 持寄禹川人’)<sup>5)</sup>

4) 詩는 下文에서 따로 인용함.

5) 이 詩는 末句의 用典의 出處를 몰라 해석이 되지 않는다. 先賢들의 절정 있으시길 빈다.

v) 元帝의 絕句: 魏나라 군사가 목책을 불사르자……마침내 황태자와 王褒를 인질로 잡히고 항복을 청했다. ……유폐되어 있으면서 술을 청해 마시고는 詩 四絶을 지었다.<sup>6)</sup> (及魏人燒柵, ……遂使皇太子·王褒出質請降。……在幽逼, 求酒飲之, 製詩四絶。其一曰云云)

南風且絶唱, 남풍은 오묘한 노래인듯  
西陵最可悲。서쪽 구릉에서 가장 애달퍼하네。  
今日還萬里, 오늘 호리로 돌아가게 되련만,  
終非封禪時。끝내 봉선 올리던 때는 아니라오。”

이상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五言四句 二十字로 된 絶句는 최초 斷句·短句 등의 명칭으로도 불리워졌다. 그리고 齊 高帝의 말에 의하면 宋의 顏延之·謝靈運에게 二十字의 短句詩가 있었을 뿐 아니라 晉의 陸機·潘岳에게도 이미 短句詩가 있었고 宋朝에서는 그러한 詩를 짓는 풍조가 상당히 유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絶句의 起源

上文에서는 絶句는 斷句 혹은 短句로 칭해지며 이미 宋朝부터 상당히 성행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이러한 絶句는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가? 여기에 관하여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개의 說이 있다.

첫째, 絶句는 律詩의 반을 잘라서 만들었다는 것이다. 明 徐師曾의 《文體明辯》卷二의 설명이 가장 대표적이다.

‘絶’이란 ‘截’의 뜻이니 律詩에서 자른 것이다. 그러므로(絶句에서) 끝의 두 句가 對를 이루는 것은 (律詩의) 前半四句를 자른 것이고, 처음 두 句가 對를 이루는 것은 後半四句를 자른 것이며, 전편이 모두 對를 이루는 것은 중간 四句를 자른 것이고, 모두 對를 이루지 않는 것은 처음과 끝의 四句를 자른 것이다.<sup>7)</sup> 그러므로 唐人의 絶句는 모두 律詩라고 불리었다. 李漢이 昌黎集을 편찬할 때 絶句를 모두 律詩로 분류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絶之爲言截也, 卽律詩而截之也。故

- 6) 원래 詩는 四首이나 여기서는 첫번째 것만을 인용한다.
- 7) 蒿隄는 묘지의 뜻으로 쓰이지만 원래는 泰山 남쪽의 산이름이다. 또한 封禪은 泰山에서 주로 행하여졌다.
- 8) 律詩의 對仗은 보통 頷·頸 兩聯에만 사용한다. (王力·《漢語詩律學》 pp. 142~152 참조)

凡後兩句對者，是截前四句。前兩句對者，是截後四句，全篇皆對者，是截中四句。皆不對者，是截首尾四句。故唐人絕句皆稱律詩。觀李漢編昌黎集，絕句皆入律詩，蓋可見矣。）

絕句가 律詩의 卅을 잘라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絕句는 律詩보다 나중인 唐代에 형성되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上文에서도 나왔듯이 絕句라는 명칭은 律詩가 형성되기 훨씬 전인 梁朝에 이미 정식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첫번째의 說은 성립되기 어렵다.

둘째, 絕句는 聯句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聯句는 連句라고도 하는데, 동일한 韻을 사용하여 여러 사람이 합작하여 詩를 짓되 한사람이 四句씩 짓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단지 四句만을 짓고 계속하지 않기 때문에 ‘斷句’ 혹은 ‘絕句’라고 한다는 것이다.<sup>9)</sup> 清代 趙翼의 《陔餘叢考·聯句條》에는 그러한 聯句의 예로서 南朝 宋의 謝晦와 그의 형의 아들인 世基의 聯句, 梁 元帝와 武陵王 紀의 아들인 圓正의 聯句가 소개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絕句는 바로 聯句에서 나왔다고 보기는 힘들다. 즉 漢魏樂府의 五言四句 小詩는 南朝 聯句의 존재보다 앞서는 것이다.

셋째, 絕句는 唐 律詩가 성립되기 이전인 漢魏의 樂府小詩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玉臺新詠》의 〈古絕句四首〉 외에도 〈上留田行〉(里中有啼兒，似類親父子。回車問啼兒，慷慨不可止)·〈枯魚過河泣〉(枯魚過河泣，何時悔復及。作書與魴鱖，相教慎出入) 등이 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詩는 질과 양적으로 모두 큰 가치가 없었다. 그러다가 晉代이후 樂府小詩는 江南을 중심으로 크게 성행한다. 특히 〈子夜歌〉·〈團扇歌〉를 비롯한 吳聲歌曲과 西曲歌는 대부분이 五言四句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녀간의 사랑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후 齊·梁間에 접어들면 일반 文人들이 樂府小詩의 체제를 모방하여 대량으로 五言四句詩를 창작하기에 이른다. 그중 謝朓·梁武帝·簡文帝·庾信 등의 경우에는 이러한 小詩가 그들의 대표작이었다. 이렇게 文人들이 본격적으로 小詩를 짓게 되고 또 絕句라는 명칭이(上文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등장하게 되자 이에 絕句는 정식으로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명칭은 이전의 詩들이 대부분 長篇인데 絕句는 四句의 짧은 시형으로 마치 갑자기 단절된 詩體처럼 보이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9) 余冠英《漢魏六朝詩選》pp.79~80 참조.

이상 絶句의 起源에 관한 주요한 학설을 살펴보았다. 그중 세번째의 說이 근래에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sup>10)</sup> 그것은 문학의 진화과정에서 볼 때 무리가 없는 설명이기 때문일 것이다.

### ③ 絶句의 分類

詩를 크게 古體詩와 近體詩로 분류할 때<sup>11)</sup> 흔히 近體詩는 다시 絶句와 律詩·排律로 나눈다. 이와 같은 분류법에 의하면 絶句는 近體에만 속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上文에서도 밝혔듯이 絶句는 唐以前 六朝時代부터 이미 존재했던 詩體이다. 즉 絶句는 애초 近體가 아닌 古詩에 속하는 것이었다. 한편 唐代에 詩律이 확립된 후에는 絶句에도 平仄을 많이 따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같은 이름의 絶句라도 古體와 近體로 구분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淸의 薑文煥은 《聲調四譜》에서 絶句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sup>12)</sup>

五絶의 범칙은 비록 齊梁體에서 모방한 것이지만, 그때에는 아직 黏法과 對法이 정해지지 않았다. 唐人의 五絶에는 律絶·古絶·拗絶의 구분이 있다. 律絶이란 곧 세상에 전해지는 平起·仄起式의 四句가 그것이다. 한번 사용하면 絶句가 되고 거듭 사용하면 律詩가 된다. 그 用韻은 平聲韻이 많고 仄聲韻은 적으며, 律詩와 대체로 같다. 古絶이란 五言古詩의 平韻·仄韻의 四句가 그것이다. 그 用韻은 平聲이 많기는 하지만 仄聲韻에 있어서는 이 體가 정격이다. 古詩와 역시 동일하다. 이상 律絶과 古絶의 二格은 비록 다르지만 黏法과 對法을 적용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며, 이것이 唐人의 絶句의 정식이다. 拗絶이란 齊梁間의

10) 絶句가 樂府小詩에서 기원했다는 說에 대하여는 金學主教授의 《中國文學概論》 p. 77, 劉大杰의 《中國文學發展史》 pp. 290~1, 陸佩如의 《中國詩史》 pp. 382~402, 邱燮友의 《唐詩三百首》 p. 317, 文復書店 간행의 《新編中國文學史》 pp. 368~370, 蔣祖怡의 《詩歌文學纂要》 pp. 90~93, 澤田總清著 王鶴儀譯의 《中國韻文學史》 pp. 229~231 및 p. 216 등을 참고 바람.

11) 王力은 《漢語詩律學》에서 古詩와 古體詩를 구분하였다. 즉 그는 古詩는 漢以來 六朝까지의 詩, 古體詩는 唐以後 律詩가 성립된 다음 詩律의 영향을 직간접으로 받은 古詩로 보았다. 그러나 필자는 일반적인 분류법에 의하여 古詩와 古體詩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왜냐하면 王力の 견해에 따르면 聲律說이 흥성한 뒤의 후대의 近體와 상당히 흡사한 齊梁間의 新體詩와 王力이 말한 唐代의 古體詩와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12) 邱燮友 《唐詩三百首》 p. 318에서 재인용함.

諸詩의 법식으로 律句와 古句를 섞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黏對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律絶·古絶과는 완전히 다르며 拗律과도 역시 다르다. 이 격식은 가장 오래 되었으며 盛唐人들은 간혹 사용하는 자가 있었다. (五絶之法雖仿自齊梁, 但黏對尚未有定. 唐人此體乃有律絶·古絶·拗絶之判. 律絶者即世所傳平起仄起四句是也. 單用則爲絶句, 雙用則爲律詩. 其用韻則平多仄少, 與律詩大致相同. 古絶者五言古平仄韻各四句是也. 其用韻平聲固多, 仄聲則專以此體爲正, 與古詩亦同. 律古二格雖殊, 而黏對之法則一, 此唐人絶句之正式也. 拗絶者即齊梁諸詩之式, 律古各句可以間用, 且不用黏對, 與律古二體迥別, 與拗律亦異. 此格最古, 盛唐人間有用者.)

그러나 이같은 絶句의 三分法은 「唐人此體乃有律絶古絶拗絶」이라고 했듯이 唐人의 絶句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唐 이전의 絶句까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분류법으로 보기에 는 곤란한 점이 있다. 즉 唐 이전 최초로 絶句의 형식이 등장할 때 그것은 詩律이 產生되기 이전의 古詩의 형태였다. 그러다가 齊梁間에 聲律說이 유행하여 詩에서 音韻의 和諧를 구하게 되자 五言四句의 詩型도 점차로 후대의 律句의 형식을 갖추게 된다. 이것이 上記의 「五絶之法雖仿自齊梁」의 齊梁體이다. 이 齊梁體는 格詩라고도 하는데 律句에 비해 五言句의 第三字에 拗字가 많고(즉 格詩의 各句는 律句 아니던 似律句이다.) 통상 黏法을 사용하지 않으며, 간혹 對法이 어긋난다.<sup>13)</sup> 이러한 格詩가 점차로 唐의 近體詩로 발전하고 거기에 따라 近體絶句도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齊梁間에 창작된 絶句는 모두 格詩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格詩는 과연 어떠한가? 다음 몇 수의 詩를 살펴보자. (平聲은 「一」 仄聲은 「V」의 기호로 표시함.)<sup>14)</sup>

13) 格詩에 관하여는 王力の 《漢語詩律學》 p. 427, 428, 456 및 王利器注의 《文鏡秘府論》 前言 p. 13과 本文 pp. 48~58을 참고 바람.

14) 六朝時代의 平仄을 南宋 이후에 통용되던 平水韻에 의거하여 논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平水韻은 廣韻, 廣韻은 唐韻, 唐韻은 隋 陸法言의 切韻을 이어받은 것이다. 그런데 切韻은 그 序文에 의하면 陸法言을 위시한 광명의 학자가 「南北是非」와 「古今通塞」을 고려하여 한가지 方言에 치우치지 않고 晉의 呂靜 이하의 六家의 韻書를 종합교정한 것으로 唐代 用韻의 표준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隋의 시대가 비교적 가까운 南朝代의 詩의 平仄은 切韻을 계승한 平水韻으로 따지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中國聲韻學通論》 p. 95, 《漢語音韻學》 pp. 89~90. p. 197 《中國聲韻學》 pp. 141~145 《中國韻文學史》 pp. 198~200 《中國文學概論》 p. 78 등 참조.



〈詠竹火籠〉（蕭正德）

楨榦屈曲盡， —V V V V（古句）  
蘭麝氛氳銷。 —V ———（古句，失對）  
欲知懷炭日， V—V V V（古句，失黏）  
正是履冰朝。 V V V —— ※ 蕭韻

〈爲鄰人有懷不至〉（沈約）

影逐斜月來， V V —V —（古句）  
香隨遠風入。 ——V —V（古句）  
言是定知非， —V V ——（失黏）  
欲笑翻成泣。 V V ——V（失對） ※ 緝韻

〈傷徐主簿〉（其一）（何遜）

世上逸群士， V V V —V（第三字拗，孤平）  
人間徹總賢。 ——V V —  
舉池論賞訖， V—V V V（第三字拗，孤平）  
蔣徑駕周旋。 V V V —— ※ 先韻

〈傷徐主簿〉（其二）（何遜）

一旦辭東序， V V ——V  
千秋送北邙， ——V V —  
客簫雖有樂， V ——V V  
鄰笛遂還傷。 —V V —— ※ 陽韻

〈傷徐主簿〉（其三）（何遜）

提琴就阮籍， ——V V V（第三字拗，下三仄）  
載酒覓揚雄。 V V V ——  
直荷行翠水， V ——V V（失黏）  
斜柳細牽風。 —V V —— ※ 東韻

〈答王司空餞酒〉（庾信）

今日小園中， —V V ——  
桃花數樹紅。 ——V V —  
欣君一壺酒， ——V V V（第三字拗，下三仄）  
細酌對春風。 V V V —— ※ 東韻

蕭正德과 沈約의 詩는 古句의 출현으로 古體絶句로 볼 수 있고 그 나머지 詩들은 《文鏡秘府論》에 모두 格詩의 예로 인용되어 있다. 즉 齊梁間의 絶句라고 해서 모두 格詩만 있는 것은 아니다. 格詩의 예 중에서 〈傷徐主簿〉第一首는 후대의 詩律로 보면 孤平을 범했으므로 古體이고, 第二首는 무척 드문 예이기는 하나 완전한 近體이며, 第三首는 下三仄과 失黏이 하나이므로 近體에 가깝고, 庾信의 詩는 더욱 近體에 가깝다.<sup>15)</sup> 그리고 후대로 내려오면서 絶句는 점차로 古體로부터 格詩의 형식을 갖추게 되며 그중에는 간혹 唐代的 近體絶句와 격률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도 출현하였다.

결국 絶句는 최초 樂府小詩에서 유래하여 南朝에 접어들어 文人들이 정식으로 이러한 체제를 모방하여 詩를 짓기 시작하고(古體絶句) 곧 뒤이어 齊梁間에 聲律說이 유행하여 詩句가 格律化하자 格詩가 성행하였다가 唐代에 완전한 近體絶句로 발전하였다.<sup>16)</sup>

## 2. 律詩

律詩는 글자수와 아울러 對仗과 平仄이 격률에 맞아야 한다.<sup>17)</sup> 漢·魏·晉代의 동일한 韻字를 사용한 五言古詩를 律詩 혹은 排律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분이다.<sup>18)</sup> 따라서 律詩를 이루는 관건은 바로 對仗과 平仄의 合律與否에 있다.

絶句가 南朝에 정식으로 성립한 것에 비하여 律詩라는 개념은 唐의 沈佺期·宋之問 이후에 확립되었다.<sup>19)</sup> 그러나 律句는 五言四句의 格詩에서

15) 이외에 南朝의 五絶 중에서 古體에 속하는 것으로는 陶弘景의 〈投贈〉, 王融의 〈白君之出矣〉, 吳均의 〈雜絶句〉 등을 들 수 있고 格詩의 체제를 갖추었으며 失黏과 下三平을 범한 것으로는 謝朓의 〈同王主簿有所思〉·〈玉階怨〉이 있고, 失黏이나 失對와 下三仄을 범한 것에는 謝朓의 〈金谷聚〉·〈銅雀悲〉·〈王孫遊〉와 簡文帝의 〈詠楓葉〉, 庾肩吾의 〈詠長信宮中草〉, 薛道衡의 〈人日思歸〉, 庾信의 〈重別周尚書〉가 있으며, 近體와 격률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는 江總의 〈長安九日〉, 庾信의 〈和侃法師〉등이 있다.

16) 董文煥이 말한 唐人的 拗絶이란 결국 失黏失對의 古絶과 失黏失對의 律絶이다.

17) 王力《漢語詩律學》pp. 449~451 참조.

18) 가령 五言八句詩 중 紙韻을 사용한 曹植의 〈雜詩〉(南國有佳人)과 侵韻을 사용한 阮籍의 〈詠懷詩〉(夜中不能寐)는 律詩가 아니다.

19) 《新唐書·杜甫傳贊》……「唐興, 詩人承陳·隋風流, 浮靡相矜。至宋之間, 沈佺期等, 研揣聲音, 浮切不差, 而號律詩, 競相襲沿。」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이미 齊梁間에 확립된 것이다.

중국의 詩는 南朝 初期에 이르러 晉 이래의 현학적인 遊仙詩가 쇠퇴하고 謝靈運을 위시한 山水文學이 꽃을 피운다. 이에 詩人들은 詩에서 辭藻와 佳句·對偶 등 형식적인 美를 추구하게 된다.<sup>20)</sup> 동시에 樂府小詩의 성행으로 말미암아 五言詩는 종래의 長篇을 벗어나 四句나 八句의 새로운 체제가 유행하였다. 그리고 齊 永明間에 四聲이 발견되고 沈約이 八病說을 제창하자 詩에서 音韻의 和諧를 중시하게 되었다. 律詩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발생한 것이다.<sup>21)</sup>

다시 律詩의 성립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對仗과 聲律說 및 거기에 따른 律詩의 성립 상황을 항을 나누어 검토하자.

#### ① 對仗

律詩는 반드시 한개 이상의 聯에서 對仗을 이루어야 한다. 頷聯·頸聯의 두곳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首·頷·頸聯에서 사용하는 것도 적지 않다. 또는 간혹 頸聯에서만 한번 사용하거나 頷·頸·尾聯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드물게는 全篇에 걸쳐 사용한다.<sup>22)</sup> 그리고 律詩의 對仗은 짧은 篇幅안에 보다 많은 意象을 표현하기 위하여 同字끼리의 對仗은 피하여야 하고 對仗을 이룬 詩語는 平仄까지 對가 되어야 한다. 古詩는 이와는 달리 對仗에 의한 구속이 없으며 (즉 對仗을 써도 좋고 사용하지 않아도 좋다.) 對仗을 쓸 경우에도 굳이 동일한 글자를 피하지 않는다.

본래 중국어는 單音節語이기 때문에 對仗을 짓기가 편리하며 그럴 경우 무척 整齊한 느낌을 준다. 그래서 중국의 詩는 일찍부터 對仗이 발달하였다. (물론 산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詩經을 비롯한 漢·魏·晉의 古詩에서 對仗의 예를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다.

○ 薄汚我私，薄澣我衣。 (《詩·周南·葛覃》)

○ 漢之廣矣，不可泳思；江之永矣，不可方思。 (《詩·周南·漢廣》)

20) 《文心雕龍·明詩》……「宋初文詠，體有因革。莊老告退，而山水方滋。儻采百字之偶，爭價一句之奇。情必極貌以寫物，辭必窮力而追新。此近世之所競也」

21) 淸의 王夫之는 그의 《古詩評選》에서 제 3 권을 「小詩」, 제 6 권을 「近體」라 명명하였고, 王闓運은 그의 《八代詩選》에서 齊 이하 隋까지의 격률을 갖춘 詩 507首를 「新體詩」란 이름하에 수록하였다. (邱燮友 《唐詩三百首》p.169, 劉大杰 《中國文學發展史》p.287, 陸侃如 《中國詩史》p.384 등 참조)

22) 王力 《漢語詩律學》pp.142~153 참조.

- 嘒嘒草蟲，趨趨阜螽。 (《詩·召南·草蟲》)
- 青青子衿，悠悠我心。 (《詩·鄭風·青衿》)
- 觀閔既多，受侮不少。 (《詩·邶風·柏舟》)
- 昔爲鴛與鴦，今爲參與辰。 (蘇武詩)
- 一顧傾人城，再顧傾人國。 (李延年詩)
- 君若清路塵，妾若濁水泥。 (曹植·〈七哀詩〉)
- 胡馬依北風，越鳥巢南枝。 (〈古詩十九首〉)
- 鸛如山上雪，敝若雲間月。 (卓文君·〈白頭吟〉)
- 狐鴻號外野，朔鳥鳴北林。 (阮籍·〈詠懷詩〉)

그러나 이때의 對仗은 결코 의도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었고 同字對도 피하지 않았다.

對仗은 南北朝에 접어들어 唯美主義思潮로 말미암아 散文이 駢儷化하고 詩에서도 형식적인 미를 중시하게 되자 크게 성행하게 되었다.<sup>23)</sup> 이때에는 對仗에 대한 인식이 이미 높아져서 劉勰은 言對·事對·反對·正對의 넷으로 구분하여 對仗의 우열 및 성질을 논하였고<sup>24)</sup> 따라서 同字對는 점차 쓰이지 않게 되었다. 참고로 明의 徐師曾이 《文體明辨》에서 열거한 齊·梁·陳·隋의 五言律詩 35首에 사용된 對仗의 형태를 살펴보자.<sup>25)</sup>(下文과의 관련하에서 平仄 및 韻을 함께 고찰하겠다.)

區分 作家와 詩題	對 仗				韻	平 仄						
	使用聯	平仄 不相 對	同字 對	韻		第三字拗			失失 黏對			
						首	領	頭		尾	古	失
											句	平
齊謝朓·〈新亭渚別范零陵〉	○	○	○	1	尤	1	1	1	1	2		
齊王融·〈有所思〉(其一)					支	1				2	1	

23) 가장 단적인 예로서 謝靈運의 〈登池上樓〉는 총 20句 중에서 「衾枕昧節候，褰開暫窺臨」의 두 句를 빼고는 모두 對仗을 사용하였다.

24) 《文心雕龍·麗辭》……「凡有四對。言對爲易，事對爲難，反對爲優，正對爲劣。言對者，雙比空辭者也。事對者，並舉人驗者也。反對者，理殊趣合者也。正對者，事異義同者也。」

25) 徐師曾은 이 詩들을 近體五言律詩로 분류했으나 그도 「梁陳諸家漸多儷句，雖名古詩，實墮律體。唐興，沈宋之流，研練精切，穩順聲勢，號爲律詩。」라고 인정하고 있듯이 律詩는 唐代에 형성된 개념이므로 王閔運의 소위 「新體詩」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齊王融·〈有所思〉(其二)	○ ○ ○ ○	1	侵				1
梁劉孝先·〈詠竹〉	○	1	侵	1			1 2
梁王籍·〈入若耶溪〉	○ ○ ○ ○		尤				2
梁蕭統·〈贈周處士〉	○ ○ ○ ○		侵		1		1
梁吳均·〈入關〉	○		青·庚		1		2
梁吳均·〈迎柳吳興道中〉	○ ○	1	歌	1			2 1
梁吳均·〈寶劍〉	○ ○	1	齊	2	1		2 1
梁庾肩吾·〈歲盡〉	○ ○		寒			1	
梁陰鏗·〈經豐城劍池〉	○ ○ ○ ○	2	支	1			1 2
梁陰鏗·〈晚泊五洲〉	○ ○ ○ ○	1	東	1	1		3 1
梁陰鏗·〈蜀道難〉	○ ○		蕭		1		1 1
梁江淹·〈詒袁常侍〉	○ ○	1	先	4	1		
梁何遜·〈與胡興安夜別〉	○ ○ ○ ○	2	尤		1		1 1 2
梁元帝·〈折楊柳〉	○		陽				3 2
梁沈氏·〈綵毫怨〉	○ ○		魚				
北齊蕭愨·〈秋思〉	○ ○		寒		1	1	2 1
陳僧惠標·〈山〉(其一)	○ ○		庚				1
陳僧惠標·〈山〉(其二)	○ ○	1	魚·虞	1			3 1
陳後主·〈望遠〉	○ ○		先	1	1		3 1
陳徐陵·〈秋日別庾正員〉	○ ○		蕭				2 1
陳張正見·〈賦得日中朝市滿〉	○ ○ ○ ○		庚				1
陳陸瓊·〈關山月〉	○ ○ ○	1	尤	1	1		3 1
周庾信·〈詠懷〉	○ ○ ○ ○		歌		1	1	3
周崔仲方·〈奉和周趙王詠石〉	○ ○ ○ ○	1	先				1 1
周蕭子卿·〈梅花〉	○ ○		灰				1
隋邢巨·〈遊春〉	○ ○ ○ ○		刪				
隋盧思道·〈上巳禊飲〉	○ ○	1	眞				1 1
隋明餘慶·〈塞上〉	○ ○ ○ ○	1	庚				1

隋江總·〈別袁昌州〉	○	○	○	尤	1		1
隋李仁仁·〈賦得方塘含白水〉	○	○		陽		2	1 1
隋王由禮·〈賦得岩穴無結構〉	○	○		侵			
隋王睿·〈七夕〉	○	○	○	微			1
隋越王·〈京洛行〉	○	○		麻			1 1

※ 숫자는 출현회수를 표시함.

※ 한 句의 平仄이 「平平仄仄仄」인 것과 「平平仄仄平」은 律句로 처리함.<sup>26)</sup>

※ 孤平拗救(「仄平平仄平」과 「仄仄仄平仄, 平平仄仄平」)는 合律로 봄.

※ 對仗의 平仄不相對란 對仗을 이룬 것 중 平仄이 서로 對가 되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失對에 의한 것(12번)과 古句에 의한 것(3번)으로 나눌 수 있다.

이 35수의 詩들은 적어도 八句의 半이상은 律句를 사용한 新體詩들이다. 그중 王融의 〈有所思〉(其一)는 對仗을 쓰지 않았고 吳均의 〈寶劍〉은 同字對를 사용하였으며 그 나머지는 대체로 律詩의 對仗의 법칙과 들어맞는다.<sup>27)</sup> 물론 徐師曾이 예거한 이 詩들이 南朝의 新體詩를 모두 포괄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당시의 對仗의 발전 상황은 충분히 알 수 있다.

對仗의 법칙은 그후 唐初 上官儀의 六對·八對 등의 구분을 통하여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 六對·八對라는 것은 南朝의 詩인들이 이미 능숙하게 운용하던 것으로 上官儀는 단지 정식으로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하다.<sup>28)</sup> 즉 南朝에 이르러 對仗의 사용은 정식으로 격률화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완전히 성숙한 단계에 도달하였다.

## ② 聲律說

律詩의 平仄은 一句내에서 뿐 아니라 一聯, 나아가서는 全篇에 걸쳐 멋진 굴곡의 리듬을 타게 배치되어 있다. 그리하여 一句의 기본리듬으로서 五言句의 경우 平平仄仄平, 平平平仄仄, 仄仄平平仄, 仄仄仄平平의 4개의 격률이 정해지고, 一聯의 리듬을 위하여는 對法이, 全篇의 리듬을 위하여

26) 王力《漢語詩律學》pp.100~103, pp.88~96 및 邱變友《唐詩三百首》pp.172~73 참조.

27) 엄밀히 平仄까지를 고려하더라도 同字對를 제외하고 對仗을 사용한 總聯數는 82곳이며 그중 對仗끼리의 平仄이 서로 對가 되지 않는 것이 모두 15곳이어서 올바르게 사용된 비율은 여전히 81%로서 아주 높다.

28) 劉大杰《中國文學發展史》pp399~400 참조.

는 黏法이 고안되었다. 따라서 律詩는 첫 句의 리듬과 入韻 여부가 강해지면 전편의 平仄이 그대로 결정된다. 古詩는 이와는 달리 平仄上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중국어는 본래 聲調語이기 때문에 詩에서 聲調의 조화를 고려한다면 詩의 맛과 멋을 한층 돋울 수 있다. 古代의 중국어에 몇 개의 聲調가 있었는데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異見이 분분하지만, 齊 永明間에 이르러 佛經의 轉讀이 유행한 후 당시의 중국어에는 平上去入의 4개의 聲調가 존재한다는 것이 최초로 인식되었다.<sup>29)</sup> 이렇게 일단 聲調의 존재가 확인된 이상 그 이전과는 달리 高低長短이 다른 聲調를 활용하여 詩의 리듬을 고려하는 것은 필연적인 추세였다. (더우기 六朝는 唯美主義 사조가 극성하던 시대였다)

가장 먼저 平仄의 조화를 詩에 적용시킨 이는 沈約이었다. 《宋書·謝靈運傳論》에는 平仄의 배치에 관한 그의 인식이 나타나 있다.

宮羽의 五音을 서로 변화시키고 낮고 높은 소리의 절주가 엇갈리게 하기 위하여는, 만약 앞에 가벼운 소리가 있다면 뒤에는 반드시 급박한 음향이 오게 하여, 한 句에서는 음운이 모두 다르고 두 句에서는 가볍고 무거운 것이 모두 틀리게 해야 한다. 이러한 뜻에 잘 통달해야 한 바로소 文이라 할 수 있다. (欲使宮羽相變, 低昂舛節, 若前有浮聲, 則後須切響, 一簡之內, 音韻盡殊, 兩句之中, 輕重悉異。妙達此旨, 始可言文。)

그리하여 沈約은 五言詩에서 聲韻의 조화를 해치는 여덟가지 경우를 제시하고 八病說을 제창하여 당시의 일류급 문인들의 호응을 받아 마침내 永明體라는 새로운 조류를 탄생시켰다.

당시에 분장을 잘 짓던 이로는 吳興의 沈約·陳郡의 謝朓·琅邪의 王融이 있었는데, 의기가 투합하여 서로 도와나갔으며 汝南의 周顒은 성운을 잘 알았다. 沈約 등의 문장은 모두 宮商의 五音을 사용하고 平上去入의 四聲으로 韻을 지었는데, 平頭·上尾·蜂腰·鶴膝(의 八病의

29) 劉大杰 《中國文學發展史》 p. 234~283 및 董同龢著 孔在錫教授譯 《漢語音韻學》 pp. 87~88 참조. 그리고 永明間에 四聲에 입각한 聲韻學 관계 저술로는 沈約의 《四聲譜》·周顒의 《四聲切韻》·王斌의 《四聲論》 등이 있었다고 하나 이미 亡佚되었다.

규칙)이 있었다. 다섯자에서 음운이 모두 틀렸고 두 句내에서 角徵(의 고저)가 같지 않아 더하거나 덜할 수가 없었으니 세상에서 영명체라 불렀다. (時盛爲文章，吳興沈約·陳郡謝朓·琅邪王融，以氣類相推轂，汝南周顒，善識聲韻。約等文皆用宮商，將平上去入四聲，以此制韻，有平頭·上尾·蜂腰·鶴膝。五字之中，音韻悉異，兩句之內，角徵不同，不可增減。世呼爲永明體。)<sup>30)</sup>

沈約의 八病說은 그 규칙이 너무 엄하여 沈約 자신조차도 모두 준수할 수는 없었지만<sup>31)</sup>, 「一簡之內，音韻盡殊，兩句之中，輕重悉異」의 기본정신은 변하지 않고 후대로 계승되어 왔다. 그리하여 南朝의 詩人들은 五言詩句의 平仄 배치를 여러가지로 시도하던 중 점점 통일된 규칙을 형성하여 후대의 律句(平平平仄仄, 平平仄仄平, 仄仄仄平平, 仄仄平平仄)에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러나 세번째 글자의 平仄과 對法 및 黏法은 아직 律詩의 그것에 비해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소위 王闓運의 新體詩 및 上文에서 언급한 齊梁體(格詩)이다.

참고로 上文의 도표의 詩 35首의 總句數가 280句인데 그중 古句가 15, 第三字拗句가 19, 律句가 246句이고<sup>32)</sup>, 총 140聯 중 失對가 29련이며, 黏法은 105곳의 적용대상 중에서 失黏이 44곳임을 보더라도 聲律說에 의한 詩의 律化 현상을 넉넉히 알 수 있다.<sup>33)</sup>

### ③ 律詩의 형성

五言詩에 있어 對仗 및 平仄의 배치는 南朝에 이미 매우 성숙하게 발전되었다. 따라서 이것들이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詩體, 즉 唐의 律詩를 형성하는 것은 필연적인 추세이다.

다시 上文의 도표를 살펴보자. 이 35수의 詩 중에서 古句를 사용한 11수(그속에는 전편에 걸쳐 對仗을 쓰지 않은 것과 同字對를 쓴 것이 포함되어 있다.)와 出韻의 2수(그중 한수는 古句를 사용한 것과 중복됨)를 제

30) 見《南史·陸厥傳》

31) 上同書……「約論四聲，妙有詮辯，而諸賦亦往往與聲韻乖。」

32) 여기서 필자가 말한 律句란 本文에서 언급한 네가지 기본격률 외에 仄平平仄仄, 平平平仄平, 平仄仄平平, 平仄平平仄 및 平平仄仄平인 句와 孤平拗救句를 포함한 것이다.

33) 沈約의 聲律說은 대체로 一聯에 한한 것으로서 全篇에 걸친 음운의 조화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齊梁體의 詩에는 失黏의 예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다.



외한 23수의 詩는 對仗과 律句를 사용하였으되 第三字拗나 失黏·失對를 범한 齊梁體의 詩(格詩)이다.

사실 律詩와 古詩를 구분하는 경계선은 그렇게 명확한 것은 아니다.<sup>34)</sup> 특히 律詩와 格詩의 구분은 더욱 그러하다. 가령 第三字拗의 경우에 下三平은 律詩의 금기로 되어 있지만, 下三仄은 唐의 律詩에서도 인정되고 있다.<sup>35)</sup> 또 近人 王力은 《漢語詩律學》에서 失對는 하나까지, 失黏은 둘까지를 律詩로 인정하고 있다.<sup>36)</sup>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上記의 23수의 齊梁體 詩에서 下三平이나 失黏과 失對 또는 下三仄이 엮여져서 문란한 경우를 제외한 王融의 〈有所思〉(其二)·王籍의 〈入若耶溪〉·庾肩吾의 〈歲盡〉·惠標의 〈山〉(其一)·張正見의 〈賦得日中朝市滿〉·崔仲方的 〈奉和周趙王詠石〉·蕭子卿의 〈梅花〉·盧思道的 〈上巳禊飲〉·明餘慶의 〈塞上〉·王睿의 〈七夕〉·隋 越王의 〈京洛行〉의 11수는 近體律詩로 보더라도 무리가 없으며, 특히 梁 沈氏의 〈綵毫怨〉·隋 邢巨의 〈遊春〉·王由禮의 〈賦得岩穴無結構〉의 3수는 격률상 唐의 律詩와 완전히 일치한다.

다시 보다 넓은 예증을 들기 위해 徐師曾이 뽑은 35수의 詩 외에 近人들의 여러 서적에서 인용된 新體詩 중에서 律詩와 격률이 같은 몇몇의 詩를 든다.

〈詠畫屏風〉(其十六) (庾信)

度橋猶徙倚， √—√√

34) 예를 들면 邱燮友는 《唐詩三百首》에서 王維의 〈終南別業〉「中歲頗好道，晚家南山陲。興來每獨往，勝事空自知。行到水窮處，坐看雲起時。偶然值林叟，談笑無還期。」를 평하여 「全詩平仄拗亂，不合格律，唯其中兩聯對仗，故仍視爲律詩」라고 하여 律詩로 보았다. 그러나 이 詩의 平仄은 「平仄仄仄仄，仄平平平平。仄仄仄仄仄，仄仄仄仄仄。平仄仄仄仄，仄平平仄平。仄平仄平仄，平仄平平平」으로서 전혀 合律하지 않기 때문에 對仗만 合律하다고 해서 律詩로 볼 수 없다. 王力은 《漢語詩律學》p.453에서 이 詩를 古風式五律，즉 古詩로 보았다.

35) 王力 《漢語詩律學》pp.88~96 참조.

36) 「對和黏的格律在盛唐以前並不十分講究。二者比較起來，黏更居於不甚重要的地位。直至中唐以後，還偶然有不對不黏的例子。……失對的例子不很多，……唐人倒也盡可能避免失對。……失黏的例子頗多，……黏的形式，在律詩形成的時候雖已有這種傾向，却還未成爲必須遵守的規律，中唐以後，黏的規律漸嚴，……近代(也許是自宋以後)科場中不准有失對失黏的詩，於是黏對幾乎成爲金科玉律。」(上同書 pp.112~119 참조)

坐石未傾壺。 √√√—  
 淺草開長岑。 √√—√  
 行營纔細廚。 —√√—  
 沙洲兩鶴迴。 —√√√ (下三仄)  
 石路一松孤。 √√√—  
 自可尋丹壑。 √√—√  
 何勞憶酒壺。 —√√— ※ 虞韻，中兩聯對仗

〈舟中望月〉 (庾信)

舟子夜離家。 —√√—  
 開輪望月華。 —√√—  
 山明疑有雪。 —√√  
 岸白不關沙。 √√√—  
 天漢看珠蚌。 —√—√  
 星橋似桂花。 —√√—  
 灰飛重暈闕。 —√√  
 蕩落獨輪斜。 —√√— ※ 麻韻，下三聯對仗

〈關山月〉 (張正見)

岩間度月華。 —√√—  
 流彩映山斜。 —√√—  
 飛逐連城驥。 √√—√  
 輪隨出塞車。 —√√—  
 唐虞遙合影。 —√√  
 秦桂遠分花。 —√√—  
 欲驗盈虛理。 √√—√  
 方知道路賒。 —√√— ※ 麻韻，中兩聯對仗

이렇게 詩는 南朝에 이르러 對仗의 유행과 音韻和諧의 중시로 말미암아 격률화되었으며 新體詩 혹은 齊梁體詩가 대량으로 창작되었다. 그중에는 近體의 律詩와 비교하여 격률상 조금도 손색이 없는 詩도 다수 출현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南朝에 律詩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南朝의 시인들은 아직은 의식적으로 격률을 정해놓고 詩를 지은 것은 아니기 때문

이다. 가령 한 시인의 동일한 제목의 詩일지라도 어떤 것은 후대의 격률에 맞고 어떤 것은 맞지 않으며, 시기적으로 후대의 詩라고 해서 모두가 前代의 詩보다 격률화되어 있지도 않은 것이다.

대체로 南朝의 詩는 여러가지 격률이 시도되면서 점차로 近體律詩를 향하여 접근하여 갔고, 그런 중에 우연히 律詩와 격률이 완전히 같은 것도 나오게 되었다. 律詩의 격률은 唐의 沈佺期·宋之間에 의하여 정식으로 완성되었으나, 그것은 그들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경향을 최종적으로 마무리지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Ⅲ. 三國의 五言詩

#### 1. 三國의 五言詩 概況

이 땅에 五言의 정형시가 언제부터 유입되었는지, 그 창작상황은 어떠한지에 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어 분명하지 않으나 《三國遺事》와 《隋書》, 明代 馮惟訥이 撰한 《古詩紀》 등에 실려 있는 몇몇의 작품을 살펴볼 때, 三國시대에 五言의 詩歌형식이 창작되었음은 확실하다. 더욱 眞德女王 때에는 唐 高宗에게 외교적 수단으로 詩歌를 헌상할 정도로 五言詩가 성숙되었다. 현재 여러 문헌에 전하는 三國의 五言詩歌는 다음과 같다.

	出 典	作 者	形 式	時 代
〈昇判郎詞〉	《三國遺事·紀異》	新羅時人	五言四句	眞平王(?)
〈太平頌〉	《三國遺事·眞德王》	眞德女王(?)	五言二十句	650년
〈與隋將于仲文詩〉	《隋書·于仲文傳》	乙支文德	五言四句	612년
〈詠孤石詩〉	《古詩紀·卷117·陳》	高句麗定法師	五言八句	陳末
〈悼歎詩〉	《古詩紀·卷138·隋》	新羅慧輪	五言四句	隋(?)

이 도표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비교적 후대에 출현한 〈太平頌〉 한수를 제외한 나머지 四首의 詩歌는 五言四句나 五言八句의 짧은 新體詩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中國의 五言詩는 漢代樂府나 古詩十九首 등과 같이 대체로 長篇에서 출발하여 南北朝에 이르러서야 四句의 絕句 혹은 八句의 新體詩로 短篇化하고 있는데 비하여 三國의 五言詩는 新體의 형식이 먼저 도입되었는데, 이는 아마도 三國과 中國간의 본격적인 교류가 南北朝 이후에 이루어졌고, 中國에 건너간 佛僧 혹은 文人들이 그

당시에 中國에서 가장 인기있던 詩歌形式—즉 新體詩를 바로 배웠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동시에 漢文에 대한 이해의 축적이 그리 깊지 않은 문화배경 아래에서 異國의 文字인 漢字로서는 자유자재로 詩語를 구사하며 長篇의 詩를 짓기에는 어떤 한계를 느꼈을 가능성도 있다. (<太平頌>은 제작시기가 늦을 뿐 아니라 《三國遺事》에는 眞德女王的 自製라고 하였으나 아무래도 新羅 朝臣들의 合作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창작보다는 長篇을 이루기 쉽고 또 詩의 제작동기상으로도 短篇보다는 長篇이 적합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新體의 형식을 띤 三國의 五言詩 중에서 과연 絕句와 律詩로 간주할 수 있는 작품은 존재할까? 존재한다면 가장 이른 작품은 과연 어느 것인가? 먼저 제작년대가 불분명한 詩들의 좀더 구체적인 년대를 추정하고 다시 각 詩의 격률을 살펴보자.

## 2. 三國 五言詩의 制作年代

문제가 되는 작품은 <與隋將于仲文詩>와 <太平頌>을 제외한 나머지 세 수이다. 다시 향을 나누어 각각의 제작년대를 추정하자.

### ① <鼻荊郎詞>

《三國遺事》의 기록에 의하면 鼻荊郎은 新羅 25대 眞智王이 죽은지(579) 2년 후에 그 혼령이 과부가 된 桃花女와 교접하여 태어났으며, 곧 궁중에 서 자라났다. 鼻荊郎이 15세 되던 해 眞平王은 그에게 벼슬을 내리고 귀신을 다스리게 하였는바, 귀신들은 그의 이름만 듣고도 도망을 갔다 한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鼻荊郎詞>를 지어 이것을 써 붙여 귀신을 불러치는 부적으로 삼았다. (時人作詞曰云云。鄉俗帖此詞以辟鬼) 그 詞는 다음과 같다.

聖帝魂生子, 성제의 혼이 아들을 낳았으니,  
 鼻荊郎室亭。 비형랑의 집이 바로 이곳일세.  
 飛馳諸鬼衆, 날고 뛰는 귀신 우리들,  
 此處莫留停。 이곳일랑 머물지 말라.

이상이 《三國遺事》의 기록이다. 이 기록을 사실 그대로 믿는다면 이 詞의 제작년대는 가장 빨리 잡아서 596년이다. 그러나 《三國遺事》에도 기재

되어 있듯이 이 詞는 時인들이 지은 것으로서 최초로 漢字가 아닌 우리의 언어로 구전되다가 漢文學이 상당히 발전된 후대에 漢字로 개작되었을 가능성이 짙다. 더욱이 <鼻荊郎詞>는 그 내용과 풍격상 도저히 詩라고는 할 수 없고 鼻荊郎의 위엄을 빌어 귀신을 물리치려는 일종의 呪文으로 보아야 한다. 계위 4년만에 酒色으로 왕위를 쫓겨난 眞智王을 ‘聖帝’로 칭한 것도 <鼻荊郎詞>에 주술적 권위를 더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② <悼歎詩>

이 詩의 작자인 慧輪은 《古詩紀》에 隋代의 新羅人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三國史記》와 《三國遺事》, 그리고 《海東高僧傳》의 어느 곳에도 慧輪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三國遺事·歸竺諸師》와 《海東高僧傳》에 惠輪이란 신라승이 등재되어 있는데, 필자의 생각에는 이 兩者는 동일인인 것 같다. 특히 《古詩紀》의 편찬자인 馮惟訥은 慧와 惠를 混用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더욱 그러하다.<sup>37)</sup>

그렇다면 惠輪은 어느 시대의 신라승인가? 《三國遺事》에는 《大唐西域求法高僧傳》의 기록을 인용하여 唐 貞觀(627~649)년間に 釋 阿離那·跋摩 등이 천축으로 求法의 길을 떠났고, 그 뒤를 이어 惠業·玄泰·求本·玄恪·惠輪·玄遊 등이 역시 천축으로 떠났는데 그중 唐나라로 돌아온 자는 玄泰뿐이었다고 기재하였다. 그렇다면 惠輪은 隋代의 신라승이 아니라 唐 貞觀 이후의 신라승이며, 그의 <悼歎詩>는 그가 천축으로 떠나기 이전에 지은 것으로 그 제작시기 역시 唐 貞觀 이후일 것이다. 그의 詩는 다음과 같다.

衆美乃羅列, 여러 미인들 늘어서 있건만,  
群英已古今。 영웅은 이미 흘러가 버렸네.  
也知生死分, 생사의 갈림길 알고 있다 하여도,  
那得不傷心。 어찌 마음 아파하지 않을 수 있으리.

### ③ <詠孤石詩>

《古詩紀》에는 陳代의 詩歌 속에 이 詩를 열거하고 작자를 高麗定法師로 밝혔으나 더 이상의 자세한 기록은 없다. 한편 《大東詩選》에는 高麗定法

<sup>37)</sup> 가령 《古詩紀》卷 117에 釋 惠標가 보이는데 正史인 《陳書·虞寄傳》에는 慧標로 기재하였다.

師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간략히 소개하였다.

고구려의 승으로 일찍이 後周에 들어가 標法師을 좇아 유람하였다.  
(高句麗僧，嘗入後周，與標法師從遊。)

이 기록이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삼가 여러 先賢들의 가르침을 바랍니다.) 後周(즉 北周임, 537~581)와 陳(557~589)이 거의 동시대에 中國의 남과 북에 각각 존재하던 왕조임을 감안한다면 《古詩紀》와 《大東詩選》의 기록은 상처되지 아니한다. 만약 후자의 기록이 전자와는 다른 出處를 갖는 것이라면, 이 詩의 제작년대를 추정하는데 ‘標法師’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그렇다면 ‘標法師’는 과연 누구인가? 필자의 의견으로는 그는 바로 《古詩紀》卷 117에서 定法師와 동일한 제명의 〈詠孤石詩〉를 남기고 있는 陳末의 惠標法師이다. 惠標(《陳書·虞寄傳》에는 慧標로 표기하였음)는 陳末의 佛僧으로 陳에 모반한 陳寶應에게 送別詩 한수<sup>38)</sup>를 기증한 것이 발기가 되어 모반이 실패하자 함께 죽임을 당하였다.<sup>39)</sup>

한편 〈詠孤石詩〉는 梁의 朱超에게서도 한수가 보이는데<sup>40)</sup> 우선 세수의 〈詠孤石詩〉를 살펴보기로 하자.

(朱超)

侵霞去口近， 자욱한 노을은 하늘 가득 퍼지고，  
鎖水微流分。 물속에 드리워 격류를 갈라치네.  
對影疑雙鬢， 물에 비친 그림자 두개의 누각인듯，  
孤生若斷髮。 외로이 우뚝 솟아 구름에 끊겼네.  
遇風靜華浪， 바람을 가로막아 돛무늬 물결 잔잔하고，  
騰壑起薄暎。 뭉게뭉게 안개는 땅저미 속에 피어나네。  
蟠音近七嶺， 비록 칠령에 가깝다지만，  
獨立不成群。 홀로 우뚝하여 짝을 짓지 않았네.

(惠標)

中原一孤石， 중원에 외로이 솟은 바위 있으니，

38) 그의 〈贈陳寶應詩〉는 《古詩紀》卷 117에 보임.

39) 《陳書·虞寄傳》 참조.

40) 《古詩紀》卷 103 참조.

地理不知年。 땅이 정해진 뒤로 그 햇수를 모르네.  
 根舍彭澤浪。 밑부리는 팽택의 물결에 씻기우고,  
 頂入香鑪煙。 꼭대기는 향로불 안개속에 들었네.  
 崖成二鳥翼。 절벽은 새의 두 날개인냥,  
 峯作一芙蓉。 봉우리는 한송이 연꽃일래라.  
 何時發東武。 어느때 東武를 떠났건대,  
 今來鎮龜川。 이제사 龜川은 진압하는가.

(定法師)

廻石直生空。 구불구불한 바위덩이 공중에 우뚝 섰고,  
 平湖四望通。 평평한 호수는 사방으로 통했네.  
 岩根恒灑浪。 바위뿌리 언제나 물결에 씻기우고,  
 樹杪鎖搖風。 나무가지 드리워 바람에 흔들리네.  
 偃流還潑影。 잔잔한 물위에 그림자 잠겼고,  
 侵霞更上紅。 자욱한 안개속에 꼭대기 더욱 붉네.  
 獨拔群峯外。 주위의 산봉우리 눈아래 두고  
 孤秀白雲中。 흰구름속에 지홀로 빼어났다네.

이상 세수의 <詠孤石詩>를 읽어보면 그 吟詠의 대상이 동일함을 느끼게 된다. 「鎮水激流分」, 「根舍彭澤浪」, 「岩根恒灑浪」 등의 詩句는 이 孤石이 호수 속에 위치한 것임을, 「孤生若斷雲」, 「頂入香鑪煙」, 「侵霞更上紅」은 孤石의 우뚝한 자태를 나타낸다. 그리고 孤石은 넓은 호수 속에 우뚝 솟아 있기 때문에 주위의 산봉우리와는 멀리 떨어져 있고, 그 허리로는 구름과 안개가 늘 끼어 있다. 또한 이 호수는 「彭澤浪」·「香鑪煙」 등의 표현으로 보아 鄱陽湖일 가능성이 길다. 다만 朱超와 定法師의 詩가 단순히 孤石을 詠歎한데 비하여 惠標의 詩에는 末二句에 시인의 감개가 담겨 있다는 차이점은 있다.<sup>41)</sup>

이렇게 보면 定法師는 北周에서 이 詩를 지은 것이 아니라(물론 定法師가 陳에 들어간 것은 中國의 북쪽→즉 당시의 北周를 통해서일 것이다.) 陳나라에서 惠標法師를 좇아 다니다가 惠標가 죽기 전에 이 詩를 지었다. (惠標와 함께 지었을 가능성이 길다.) 따라서 定法師의 <詠孤石詩>는 아

41) 末二句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삼가 여러 先賢들의 가르침을 청한다.

무리 늦어도 陳이 멸망하기 이전(589)에 창작된 것이다.

### 3. 三國 五言詩의 格律

여기서는 三國의 다섯수의 五言詩의 韻과 平仄 및 對仗을 분석하여 그들의 詩體가 각각 어디에 속하는 가를 고찰하기로 한다.

#### 〈鼻荊郎詞〉

聖帝魂生子，鼻荊郎室亭。 〱〱—〱，—〱〱〱。  
飛馳諸鬼衆，此處莫留停。 —〱—〱〱，〱〱〱—〱。

이 詞는 平聲 靑韻을 쓰고 있고 그 平仄과 黏法·對法은 近體絕句의 규칙과 완전히 일치한다. 즉 격률상으로도 볼 때 〈鼻荊郎詞〉는 완전한 近體絕句이다.

#### 〈與隋將于仲文詩〉

神策究天文，妙算窮地理。 —〱〱—〱，〱〱—〱〱。  
戰勝功既高，知足願云止。 〱〱—〱—，—〱〱—〱。

이 詩는 上聲 紙韻을 사용하였고 首句와 末句는 律句로 볼 수 있으나 中二句는 완전한 古句이다. 따라서 이 詩는 전형적인 古體絕句이다.

#### 〈悼歎詩〉

衆美乃羅列，群英已古今。 〱〱〱—〱，—〱〱〱。  
也知生死分，那得不傷心。 〱—〱〱，〱〱〱—〱。

이 詩의 韻은 平聲 侵이며 首句의 第三字가 拗인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近體絕句의 규칙과 같다. 즉 이 詩는 齊梁體絕句이다.

#### 〈詠孤石詩〉

廻石直生空，平湖四望通。 —〱〱—〱，—〱〱〱。  
岩根恒瀾浪，樹杪鎖搖風。 —〱—〱〱，〱〱〱—〱。  
偃流還漬影，侵霞更上紅。 〱—〱〱，—〱〱〱。  
獨拔群峯外，孤秀白雲中。 〱〱—〱—，—〱〱—〱。



이 詩의 韻은 平聲 東이며 平仄은 律詩의 그것과 일치하지만 後二聯의 黏法과 對法은 格률에 맞지 않는다. 또 頷聯과 尾聯의 對仗은 工巧하나 頸聯에서는 對仗이 이루어지지 않았다.<sup>42)</sup> 따라서 이 詩는 唐代 律詩가 완성되기 직전의 齊梁의 格詩로 보아야 한다.

〈太平頌〉

大唐開洪業，巍巍皇猷昌。 √---√，-----。  
 止戈戎衣定，修文繼百王。 √---√，--√√-。  
 統天崇雨施，理物體含章。 √--√-，√√√--。  
 深仁壽日月，撫運萬時康。 ----√√，√√√--。  
 幡旗旣赫赫，鉦鼓何鏗鏘。 --√√√，-√---。  
 外夷遠命者，剪覆被天殃。 √--√√，√√√--。  
 淳風凝幽顯，遐邇競呈祥。 ----√，-√√--。  
 四時和玉燭，七曜巡萬方。 √--√√，√√-√-。  
 維嶽降宰輔，惟帝用忠良。 -√√√√，-√√--。  
 五三成一德，昭我皇家唐。 √--√√，-√---。

이 詩는 비록 平聲 陽韻을 사용하고 있으나 排律이 아니라 五言古詩이다. 즉 排律은 句數가 많아질 뿐 그 格률은 律詩와 같아야 하는데 이 詩는 第二聯 이하의 對仗과 平仄 및 黏·對法 등 모든 格률이 律詩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4. 최초의 絕句와 律詩

현전하는 다섯수의 三國의 五言詩는 〈太平頌〉이 五言古詩인 것을 제외하고서는 모두가 新體詩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이중에서 과연 최초의 絕句와 律詩로 간주할 수 있는 작품은 어느 것인가? 즉 〈鼻荊郎詞〉·〈與隋將于仲文詩〉·〈悼歎詩〉는 어느 것이 가장 이른 작품인가? 또 〈詠孤石詩〉는 五言律詩인가?

〈鼻荊郎詞〉·〈與隋將于仲文詩〉·〈悼歎詩〉는 모두 그 형식이 絕句이다. 格률상 〈鼻荊郎詞〉는 완전한 近體, 〈悼歎詩〉는 近體에 아주 가까운 齊梁體, 〈與隋將于仲文詩〉는 古體이다. 그러나 〈鼻荊郎詞〉는 상문에서 논급한

42) 「還漬影」과 「更上紅」은 對가 되지 않는다.

바와 같이 후대 近體詩律이 이땅에 성행한 이후 문자로 정착되었을 가능성이 짝이며 詩라기보다 인간의 呪術文의 성격을 띤 가요이고, 〈悼歎詩〉는 近體에 비록 가까우나 〈與隋將于仲文詩〉보다 시대가 뒤진다. 따라서 한국의 최초의 絕句는 〈與隋將于仲文詩〉이다.

다음 〈詠孤石詩〉는 黏對法과 對仗의 사용이 미흡하며 시기적으로도 唐代의 近體律詩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韻과 각구의 平仄의 배치가 정연하고 頷聯과 尾聯의 對仗이 工巧하여 일반 五言古詩보다는 훨씬 唐代律詩에 접근하였다. 따라서 〈詠孤石詩〉를 한국 최초의 律詩라고는 할 수 없을지라도 五言律詩의 기원을 이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 IV. 結 語

일반적으로 詩를 古體詩와 近體詩로 나눌 때, 近體詩는 다시 律詩와 絕句·排律로 구분한다. 이러한 분류법에 따르면 絕句는 近體에만 속하고 古體詩에는 絕句의 형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絕句는 결코 近體만 있는 것이 아니다. 五言四句의 詩歌形式은 漢代 樂府에서 비롯되어 晉代의 民歌에서 무수히 產生되면서 南朝에 이르러 일반 文人들도 이 새로운 체제를 모방하여 본격적으로 창작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짧은 詩體를 絕句라고 명명하였다. 따라서 絕句는 近體詩가 성립되기 훨씬 이전에 產生된 詩體이다.

律詩 역시 唐代에 갑자기 완성된 것이 아니다. 齊梁간에 聲律說과 對仗의 사용이 유행하여 詩句가 整齊化되면서 소위 新體詩가 등장하고, 詩의 격률은 점차로 唐代의 近體詩의 격률에 접근하여 갔으며 우연히 近體律詩의 격률과 완전히 일치하는 작품도 등장하게 되었다. 唐의 沈佺期·宋之問은 이러한 詩의 격률화를 최종적으로 마무리지은 자이다. 따라서 律詩의 기원 역시 齊梁 이후의 新體詩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中國의 五言詩가 도입된 것은 三國시대부터이나 현전하는 統三以前の 五言詩는 모두 다섯수로서 극히 그 숫자가 적다. 그러나 〈太平頌〉을 제외하고는 당시에 中國에서 유행하던 新體詩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니, 즉 〈鼻荊郎詞〉·〈悼歎詩〉·〈與隋將于仲文詩〉는 五言四句이고 〈詠孤石詩〉는 五言八句이다. 여기서 〈鼻荊郎詞〉는 그 격률은 완전하나 제작 시기가 의심스러운 뿐더러 詩가 아닌 呪術文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與隋將于仲文詩〉는 최초의 (古體) 絶句 작품이며, 그보다 시기가 늦고 격률이 거의 近體에 가까운 〈悼歎詩〉는 近體五言絶句의 효시를 이룬 작품으로 볼 수 있다. 한편 〈詠孤石詩〉는 陳末에 창작되어 그 제작시기가 가장 빠른 작품으로서 頷聯에서 對仗을 사용하지 않았고 後半首의 黏對法은 격률에 맞지 않으나, 各句의 平仄이 近體詩의 平仄과 일치하고 頷聯과 尾聯에서 工巧한 對仗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詠孤石詩〉는 최초의 律詩작품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律詩의 기원을 이룬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參 考 文 獻

- 一然《三國遺事》
- 《大東詩選》(韓國學文獻硏究會), 아세아문화사, 1980.
- 文暉奎《韓國漢文學史》, 평화당인쇄, 1961.
- 李家源《韓國漢文學史》, 보성문화사, 1983.
- 金台俊《朝鮮漢文學史》(朝鮮語文學會), 1931.
- 池浚模《新羅漢文學史》(新羅伽耶文化 4), 嶺南大, 1972.
- 徐首生《古代漢文學硏究》(漢文學硏究), 정음사, 1981.
- 金鎮英《移植期의 漢文學》(韓國漢文學硏究入門), 지식산업사, 1982.
- 馮惟訥《古詩紀》, 四庫全書本
- 徐師曾《文體明辯》, 許巖社, 1984, 서울
- 丁福保《全漢三國晉南北朝詩》, 世界書局, 1978, 臺北
- 徐陵《玉臺新詠》, 世界書局, 1978, 臺北
- 劉勰《文心雕龍校注》, 世界書局, 1978, 臺北
- 空海撰·王利器校注《文鏡秘府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3, 北京
- 金學圭教授《中國文學概論》, 新雅社, 1977, 서울
- 劉大杰《中國文學發展史》, 華正書局, 1971, 臺北
- 陸侃如《中國詩史》, 作家出版社, 1956, 北京
- 葉慶炳《中國文學史》, 自印本, 1978, 臺北
- 中國文學史硏究會《新編中國文學史》, 文復書店, 1964, 홍콩
- 劉師培《中國中古文學史》, 商務印書館, 1958, 홍콩
- 鄭篤《中國俗文學史》, 商務, 1978, 臺北
- 嵇哲《中國詩詞演進史》, 莊嚴出版社, 1981, 臺北
- 蔣祖怡《詩歌文學纂要》, 正中書局, 1975, 臺北
- 澤田總清著·王鶴儀譯《中國韻文學史》, 商務印書館, 1978, 臺北

- 王力《漢語詩律學》，上海教育出版社，1982.
- 黃勗吾《詩詞曲的研究》，華聯出版社，1975，臺北
- 余冠英《漢魏六朝詩選》，人民文學，1978，北京
- 邱燮友《唐詩三百首》，三民書局，1976，臺北
- 林尹《中國聲韻學通論》，世界書局，1980，臺北
- 姜亮夫《中國聲韻學》，文史哲出版社，1974，臺北
- 董同龢著·孔在錫譯《漢語音韻學》，법학도서，1975，서울
- 徐世榮《古詩文的部讀問題》（語文淺論集稿），安徽教育出版社，1984.
- 程希嵐·吳福熙主編《古代漢語》，吉林人民，1984.

# 《論語》中孔子文言之研究

蔡 根 祥\*

目次	
(一) 緒 言	(五) 孔子之文言理論
(二) 《論語》中文言之成份分析	(六) 孔子文言之技巧
(三) 孔子文言的基準	(七) 結 語
(四) 孔子文言的表現	

## (一) 緒 言

如果有人問，世界上擁有讀者最多的，是甚麼書呢？我認為大概只有兩本：一本是西方的《聖經》，另一本就是中國的《論語》了。我這個答案，相信並不會太離譜的，從時·空四個向度來看，實在是這樣子。而《論語》這一本書，每一個人多少都懂些，在古老的時候，還是教科用書呢！它不僅深植在中國人心中甚至還影響中國以外的東方國家一如日本，韓國。

《論語》雖然不是中國最古老的一本書，《論語》以前，有所謂六經原典，但是真正支配中國文化主流的，無疑就是《論語》這一本書。兩千多年來，研究、閱讀《論語》的人，真如恒河沙數，他們曾經從各個角度來探討，而都有某一程度的成就，或受到某一程度之影響；舉些例子來說吧——在思想上，姑勿論漢武獨尊儒術之後的思想界，單論先秦諸子中，亦無不受其影響（《論語》代表著孔子的生活，言論和思想，亦即儒家的思想）；孟子研讀論語自不必說，就是莊子之重言<sup>1)</sup>，寓言，亦常常借重孔子·《論語》，或類似的資料，來作為自己言論的根據；而時間最接近孔子的墨子，也是曾受孔子之業的人<sup>2)</sup>；而戰國末的

\* 東亞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專任講師

- 1) 《莊子寓言》篇云：「重言十七，所以已言也，是為著艾。」考《莊子》內·外·雜篇，均有籍孔子之言為說者。
- 2) 《史記孟荀列傳》云：「蓋墨翟者，宋之大夫，善守禦，為節用，或曰並孔子時，或曰在其後。」《淮南子》〈要畧訓〉云：「墨子學儒者之業，受孔子之術。」考孟子以闢揚，墨，則墨在孟子之前，時間較近於孔子為必然。

法家集大成者一韓非子，還是孔門大將一荀子一的學生。在政治上，中國古語有云：「半本論語可以治天下。」可見論語在政治上的影响力了。而在文學的這個題目上，它更有巨大的支配力，《論語》以前的六經，都是文學成品而已，而其中除了詩之外，還談不上有甚麼文學技巧，思想，有的只是一種文學具型。而《論語》卻展現了語文學上的指導方針一言理論，和表現了極高的文言技巧，這些雖然只是片斷的句子，但卻影響悠久而深遠；《孟子》〈趙岐注題辭〉云：「《論語》者，五經之管轄，六藝之喉衿。」也就是透過《論語》的觀點，五經·六藝才更顯出其價值。《文心雕龍》的作者劉勰，把文學的根源，有系統地歸納起來，以為除了天地化育，生物繁蕪的道之外，聖人(孔子)就是所徵的第二順位了<sup>3)</sup>，而聖人之言論在《論語》。韓愈學文，非聖人之志不敢存<sup>4)</sup>，當然也是受《論語》的影響。宋代理學家的文學觀念，重質輕文，無疑也是以《論語》的話作根據的<sup>5)</sup>。

在擬定這個題目的時候，文章主題是「孔子文言之研究」，但是，為甚麼要加上一個「論語中」的加詞呢？因為我以為研究一個論題，首先要考慮的是資料的可信性，根據不可信的資料來作研究，其結論之不可靠，這是每個人都知道的；而現在研究孔子，在資料上就有一個難題，就是孔子「述而不作」，孔子自己沒有親自著書立說<sup>6)</sup>，我們傳統上說孔子作《春秋》，也只是根據魯國史書加以修撰，正如孟子所說：「其事則齊桓·晉文，其文則史，其義則丘竊取之矣。」取其義不等於作，只是「筆則筆，削則削」，有所存，有所刪，就算是廣義的作吧，也不能從曾被譏為「斷爛朝報」的《春秋》經文上，看出甚麼「孔子文言」的頭緒來，頂多只能看出其「義」罷了。而今天，能看到記載為孔子的言論之資料，實在不少，這些資料可分成兩大類，一類是記載在非儒家的書籍之中的，一類就是在儒家典籍中；前者所記載的孔子言文，都是透過他們自己的思想所模擬出來的，用以攻擊，排憂，或扭曲儒家思想的，這些自不能視作真正的孔子文

3) 劉勰之《文心雕龍》五十篇，起始即論文學之根源，有〈原道〉·〈徵聖〉·〈宗經〉·〈正統〉四篇，則〈徵聖〉乃為道之第二順位。

4) 韓愈《答李翊書》中云：「始者·非三代兩漢之書不敢觀，非聖人之志不敢存。」

5) 《二程遺書》卷十八程頤云：「人見六經使以為聖人亦作文，不知聖人只據發胸中所蘊，自成文耳。所謂『有德者必有言』也。又〈卷二十五〉云：『孔子曰：『有德者必有言』，何也？和順積於中，英華發於外也。故言則成文，動則成章。』見郭紹虞中國文學批評史上卷三五頁引。

6) 相傳孔子為《易經》作〈十翼〉(《易傳》)，並作《孝經》，或以為孔子為曾子而言者今人多已證非孔子之作也。

言；而後者如《禮記》·《左傳》·《孟子》等，也有不盡可信的情形；就以《孟子》爲例吧，孟子的時代，距孔子約百年，爲時並不甚遠，但書中引述孔子之言，已經有不可盡信的；考孟子書中引孔子言近三十則，其中大部份是孟子本人所引述的，然而亦有他人所引述的，如《孟子萬章上》云：

咸丘蒙問曰：語云：盛德之士，君子不得而臣，父不得而子；舜南面而立，堯帥諸侯北面而朝之，瞽叟亦北面而朝之，舜見瞽叟，其容有威，孔子曰：於斯時也，天下殆哉乎！不識此語誠然乎哉？孟子曰：否，此非君子之言，齊東野人之語也。

孟子之時，已有「齊東野人之語」，明必非孔子之言。而在《孟子》書中，有數則引述見於《論語》，若把《孟子》所引和《論語》之文對戡一下，就可以發現除了〈公孫丑上〉篇引「里仁爲美」章與《論語》全同之外，其他的引述，少則一、二字多則衍生文辭幾倍於原文<sup>8)</sup>；猶有甚於此者，莫過於〈滕文公上〉篇引《論語爲政》篇中「生事之以禮，死葬之以禮，祭之以禮」一章，《論語》明言是孔子說的而孟子卻說是曾子說的，這分明是誤記了；還有孟子曾經說：「仲尼之徒，無道桓、文之事者，是以後世無傳焉。」(〈梁惠王上〉)而《論語》中孔子所明說：「晉文公譏而不正，齊桓公正而不譏。」<sup>9)</sup>；至於孟子所引而《論語》所無的孔子文言，更不無可議之處了。孟子是儒門嫡傳，時代又近於孔子，尚且如此，其他後出之書，就更難盡信了。還有僞書所引載的孔子言論，如《孔叢子》·《孔子家語》<sup>10)</sup>，自不待言。然而《論語》所記載的孔子文言，也不是孔子所自著，而是出於弟子門人的記錄；這一來，難道要研究孔子文言，就真的沒有資料了嗎？這我們大可以以下列觀點探求，作爲一個衡量之標準；第一，雖然《論語》

7) 如《莊子》所記者是也。

8) 如《論語泰伯》第17章：「子曰：『大哉堯之爲君也，巍巍乎，唯天爲大，唯堯則之，蕩蕩乎，民無能名焉。巍巍乎，其有成功也，煥乎其有文章。』」《孟子滕文公上》十章：「孔子曰：『大哉堯之爲君惟天爲大，惟堯則之，蕩蕩乎民無能名焉。』」又如《論語·憲問》第41章：「子曰：『何必高宗，古之人皆然，君薨，百官總已，以聽於冢宰三年。』」《孟子滕文公上》篇2章云：「孔子曰：『君薨，聽於冢宰。』」又如《論語陽貨》18章：「子曰：『惡紫之奪朱也，惡鄭聲之亂雅樂也，惡利口之覆邦家者。』」《孟子盡心下》38章：「孔子曰：『惡似而非者，惡莠恐其亂苗也，惡佞恐其亂意也，惡利口恐其亂信也，惡鄭聲恐其亂樂也，惡紫恐其亂朱也，惡鄉愿恐其亂德也。』」

9) 見《論語憲問》第十五章。

10) 《孔子家語》雖見錄於《漢書藝文志》，然今本家語非當時原本，顏師古注已言之矣。

是孔門弟子門人所記，但他們是親自聽到孔子說的，錯誤的機會比較少；第二《論語》中很多簡潔的文詞，比較易於記誦，而且孔門弟子對老師言論的記錄，必然是小心極力避免錯誤的；第三，孔子一生所說的，當然不止於《論語》所載之萬把字，然而《論語》所載的，應該是孔子言論最精警的部份，弟子對這些言論，印象當然深刻，記錄錯誤的機會也減少。而且我們還有一個很好的推證；就是對照《論語》之中，重複記載的言詞，大概有十一對<sup>11)</sup>，可知是出自不同弟子的手筆，而內容文字，或完全一致，或大體相同，所以我們推論如下；雖然《論語》不出自孔子之手，而是弟子的記錄，不過其記錄的傳真度極高，所以雖不是第一手的直接資料，仍足以採取作為研究的根據。至於其他儒者，儒典中的記載，其與《論語》能相發明者，當然也可以，也應該拿來參考的。《論語》中

11) 其重複記載者，亦可分為以下四類：

(1) 全同者：

〈學而〉3章：「子曰：『巧言令色，鮮矣仁。』」〈陽貨〉17章同〈泰伯〉12章：「子曰：『不在其位，不謀其政。』」〈憲問〉26章同

(2) 文辭稍異者：

〈雍也〉24章：「君子博學於文，約之以禮，亦可以弗畔矣。」〈顏淵〉14章：「子曰：『博學於文，約之以禮，亦可以弗畔矣夫。』」〈子罕〉16章：「子曰：『吾未見好德如好色者也。』」〈衛靈公〉12章：「子曰：『已矣乎！吾未見好德如好色者也。』」〈子罕〉27章：「子曰：『知者不惑，仁者不憂，勇者不懼。』」〈憲問〉28章：「子曰：『君子道者三，我無能焉。仁者不憂，知者不惑，勇者不懼。』」子貢曰：「夫子自道也。」

(3) 內容多寡不同者

〈學而〉8章：「子曰：『君子不重則不威，學則不固，主忠信，無友不如己者，過則勿憚改。』」〈子罕〉23章：「子曰：『主忠信，毋友不如己者，過則勿憚改。』」〈學而〉11章：「子曰：『父在觀其志，父沒觀其行，三年無改於父之道，可謂孝矣。』」〈里仁〉20章：「子曰：『三年無改於父之道，可謂孝矣。』」〈八佾〉14章：「子入大廟，每事問，或曰：『孰謂鄭人之子知禮乎，入太廟，每事問。』」子聞之曰：『是禮也。』」〈鄉黨〉14章：「入太廟，每事問。」〈陽貨〉6章：「子張問仁於孔子。孔子曰：『能行五者於天下，為仁矣。』請問之。曰：『恭·寬·信·敏·惠。恭則不侮，寬則得衆，信則人任焉，敏則有功，惠則足以使人。』」〈堯曰〉1章：「寬則得衆，信則民任焉，敏則有功，公則說。」

(4) 義理同而文辭異者：

〈子罕〉9章：「子見齊衰者，冕衣裳者，與瞽者，見之雖少必作，過必趨。」〈鄉黨〉16章：「見齊衰者，雖狎必變，見冕者與瞽者，雖褻必以貌，凶服者式之，式負版者。」〈憲問〉30章：「子曰：『不患人之不己知，患其不能也。』」〈學而〉16章：「子曰：『不患人之不己知，患不知人也。』」〈里仁〉14章：「子曰：『不患無位，患所以立，不患莫己知，求為可知也。』」〈衛靈公〉18章：「子曰：『君子病無能焉，不病人之不己知也。』」



還有很多不屬於孔子言論的記載，這都不是本題目的範圍，這一點，後面會有交待的。

我們既然知道孔子並未有把自己的思想形之於筆墨，則「孔子文言」中的「文」是否有點兒矛盾呢？事實本來就這樣，孔子只有言，《論語》中的文辭，是孔門弟子的手筆，不過，根據上述的觀念和標準，我們未嘗不可以視作孔子的表現。《論衡》〈定賢〉篇說：「口出以爲言，筆書以爲文。」言之與文，都是心思的外發，只是表達的工具不同而已；當然，表現媒體的不同，可以多少影響到技巧的運用，諸如語言要視環境，對象的不同而說，要在一定時間之內讓對方了解；而文學則可躍過較多的時空限制，可以反覆體味。《論語》中記的文言，又多少有弟子記言的安排在裡面，這也是無可如何的事，然而孔門弟子的記錄安排，不僅沒有妨礙我們對孔子文言的了解，而且可以幫助我們更清楚地知道孔子說話時間的對象，環境，說話的前因，後果，<sup>12)</sup>這無疑是在無可奈何之下的一件好事情。所以，我願意把孔子的言和弟子的文合觀，命之曰「孔子文言」，這是第一點說明。其次，從《論語》中，有相當多關於孔子對「文」理論的見解，這在文學文章上，雖然不是「文」的本身，但卻是「文」的幕後導演，這也是屬於文的部份；所以，我定名爲「《論語》中孔子文言之研究」，應該還說得通的。

本篇主要論點，一以分析《論語》文言之成份，二以說明孔子言文的表現，三以指出孔子文言的基本準繩，四以整理孔子對文言的理論，五以歸納孔子文言的技巧和方法；這些目標，每一個都很难完滿地解決的，不過，本著一片誠心，不辭駑資，對這題目作粗畧的研究，祈正於先達長者。

## (二) 《論語》文言之成份分析

《漢書》〈藝文志〉對於《論語》的內容，有如下的一段敘述。

《論語》者，孔子應答弟子，時人，及弟子相與言而接聞於夫子之語也。  
當時弟子各有所記。夫子既卒，門人相與輯而論卷，故謂論語。

這一段話，說明了兩件事情，一是《論語》成書的過程，一是《論語》的內容。首先我們了解——《論語》成書的過程罷！

12) 如〈雍也〉第九章：「伯牛有疾，子問之。自牖執其手，曰：『亡之命矣夫。斯人也，而有斯疾也；斯人也，而有斯疾也。』」，若不知其病者爲誰，則不知何以夫子之有重歎之意；夫子自牖執其手，亦可推知其病爲何，其禮爲何(如朱注者是也)。

〈藝文志〉云：「當時弟子各有所記。」這裏「記」是記在心裡，抑或「記」在文裏呢？這是應該也值得探討的一件事，因為如果記在心裡，則當他再傳弟子形諸筆墨的時候，所記錄的文言，失真的機會顯然會大幅度提高；尚幸根據考察，其結果似乎是弟子「當時各有所記」，是記在文字之中的較多，我們從《論語》〈衛靈公〉篇中可以找到線索：

子張問行。子曰：「言忠信，行篤敬，雖蠻貊之邦，行矣。言不忠信，行不篤敬，雖州里行乎哉！立則見其參之於前，在輿，則見其倚於衡也，夫然後行。」子張書諸紳。

從這一章裡，若就其語氣而推知，則一定不是子張自己所記的，而且子張問行的時候，一塊兒聽的人所記的，由於子張在匆忙之中沒有簡冊，只有寫在自己的大布腰帶上面，因為子張這種做法，並不是常態，所以記言的人也把這件事記上一筆，然則當時的常態，應該是在身邊隨時有記言的工具，當夫子有精警的話，就立刻記上，可能同時有不同的記言人，把同樣句話記下來，這一句話，在各人的筆記中，可能有一些兒不同，但大體是不差。<sup>13)</sup>所以，根據這一章，我們可以推知，「當時弟子各有所記」，是真的，而且是用文字記在簡冊上的。當然，現在的《論語》中，並不是全部都是這種成份，有一部份是門人記弟子討論夫子之言的，但是，我相信《論語》中文辭簡潔的而冠有「子曰」的章節，有大份是「當時弟子各有所記」的記言。至於今本《論語》是真是經過論纂而成的則答案否定的，試就書中重複的章節即麼多來看，就知道是「各不相謀」的集結不過，就在成書之際，經過刪訂也是可能的。今本《論語》經過兩次的集結而成的，這已經是很明顯的，如果把上論和下論作一比較，就一自了然了。<sup>14)</sup>

現在，我們來討論《論語》的內容成份。〈藝文志〉說：「《論語》者，孔子應答弟子，時人，及弟子相與言而接聞於夫子之語也。」這一段話，只說了兩種成份，一是孔子應對的話，一是弟子相與言其接聞於孔子的話，換句話說，就是追記孔子的話了。但是，我們分析《論語》二十篇，書中的成份，似乎並不如此簡單，根據分析的結果，《論語》的成份，有下列六種：

一、有孔子之言。這是《論語》中佔大部份的成份，也是最重要的資料。但是，如果把這一部份加以分析，其實還有若干可以注意的觀點：

1. 就記言的時間而言，有「當時弟子各有所記」的立刻現場筆記或整理後的筆記，如上面說「子張書諸紳」的情形；有弟子追述孔子之言，如〈季氏〉「陳亢

13) 參看註 11)

14) 參看陳大齊著《孔子學說》一書中，第一章第二節p. 20~p. 24所列舉的六個理由。

問於伯魚」章，裏面提到孔子曾經說：「不學詩無以言。」「不學禮，無以立。」又〈子張〉篇有兩章：「曾子曰：『吾聞諸夫子，人未有自致者，必也親喪乎！』」  
「曾子曰：『吾聞諸夫子；孟莊子之孝也，其他可能也，其不改父之臣與父之改，是難能也。』」這些顯然是追記的，時間較後，則言辭之可信度減低了。

2. 就孔子說話的時間而言。孔子大概在三十五歲時就有學生了<sup>15)</sup>，一直到七十三歲去世，其間門弟子之記言，當然隨時部可能有，但在孔子一生之中，他自己的學問也是與時俱進的。孔子曾經自述一生的學問進程說：「吾十有五而於學，三十而立，四十而不惑，五十而知天命，六十而耳順，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sup>16)</sup>在每一個階段中，學問的境界也都有所不同，而這一章也必然是孔子七十歲以後所說的話。舉個例子說罷吧，〈子張〉篇云

子夏之門人問交於子張。子張曰：「子夏云何？」對曰：「子夏曰：『可者與之，其不可者拒之。』」子張曰：「異乎吾所聞，君子尊賢而容衆，加善而矜不能；我之大賢與，於人何所不容，我之不賢與，人將拒我，如之何其拒人也。」

子張所聞，當然就是孔子的話，由此推知，子夏的話也是孔子的學說；子夏較之子張入孔門之時為早，子夏所說，可能是孔子早期的言語，大概在「不惑」的階段，而子張的記聞，則可能在「耳順」以後了，「可者與，不可者拒」，其道猶小，還在擇善固執堅守立場的階段，「尊賢容衆」，其道大蓋已經能包容善不善，打破了執守的界限<sup>17)</sup>。雖然這二觀念在思想上的分析比在文言上的分析為重要，但是，若就以這一段來說吧，子夏所述之言，顯然是直述肯定式，絕無迴環的餘地，語氣堅決，而子張所述，則有餘地，有彈性，而更有邏輯性，這顯然是因為境界的長進所導致的，所以，從這種觀點來分析，在文言上也自有其實質上的意義的。

3. 就孔子應答的對象而言。〈藝文志〉說有弟子，時人，而弟子之中，各有各的脾氣，性格，專長，所以孔子的言辭也常因之而變化；而時人之中有國君，有大臣，甚至有小孩<sup>18)</sup>，說話的語氣，身份，用詞，當然也是不一樣的。

15) 參看錢穆著《先秦諸子繫年》。

16) 見《論語為政》篇。

17) 這一章的不同，當然也可以說是孔子因材施教的表現，但根據《論語》記孔子對子張的批評，子張的性格是有好高騖遠的嫌疑的；如〈先進篇〉孔子曰：「師也過。」〈顏淵篇〉子張問士如何斯可謂之達章，孔子以為非達，乃是聞，朱注云：「子張務外。」若孔子針對的性格而言，是似不應該有如此說法，這可能是子張會聽孔子這樣說，而不是針對某人而發的，這可代表孔子自己的學問歷程的進展。

18) 〈述而〉篇云：「互鄉難與言。童子見，門人惑。」又孔子云：「有教無類。」又云：「自行束脩以上，吾未嘗無誨也。」一可以知之。

舉個學說吧。

哀公問弟子孰爲好學。孔子對曰：「有顏回者，不遷怒，不貳過，不幸短命死矣，今也則亡，未聞好學者也。〈雍也〉

季康子問弟子孰爲好學。孔子對曰：「有顏回者好學，不幸短命而死，今也則亡〈先進〉

朱熹注引范氏曰：「哀公·康子問同，而對有詳畧者，臣之告君，不可不盡，若康子者，必待其能問而告之，此亦教誨之道也。」這一點，我們是可以相信的。

二。有弟子之言。這一種似乎亦不在少數。如〈學而〉第二章就有有子之言曰：「其爲人也孝弟，而好犯上者鮮矣，不好犯上而好作亂者，未之有也。君子務本，本立而道生，孝弟也者，其爲人之本與。」第四章有曾子之言曰：「吾日三省吾身，爲人謀而不忠乎？與朋友交而不信乎？傳不習乎？」似乎記言的人對弟子之言也很重視；其他如〈子張〉全篇，均記弟子之言，也是屬於這一類。

三。有記者之言。前面兩種，都是以說話的人自己的話來加以敘述，而這裏的記者之言，是以第一人稱來記事的，不是記言的。比如說

齊人婦女崇。季桓子受之，三日不朝。孔子行。（微子）孺悲欲見孔子。

孔子辭以疾。將命者出戶，取瑟而歌，使之聞之。（陽貨）

這些都是屬於記者之言。還有〈鄉黨〉篇的絕大部份，都是記述夫子生活儀行的，也屬於這一類。

四。有記錄前賢之言論者。比如說〈微子〉篇第二章云：「柳下惠爲士師。三黜。人曰：『子未可以去乎？』曰：『直道而事人，焉往而不三黜，枉道而事人，何必去父母之邦。』」又同篇第十章：「周公謂魯公曰：『君子不施其親，不使大臣怨乎不以，故舊無大故，則不棄也，無求備於一人。』」這兩章中前一章朱注引胡氏曰：「此必有孔子斷之之言而亡之矣。」後一章曰：「此伯禽受封之國，周公訓誡之辭，魯人傳誦久而不忘也。其或夫子嘗與弟子言之歟？」雖然胡氏的說法不無道理，但按照論語的慣例，似乎不應該有這種型式的記言，可能柳下惠和周公，都是夫子口中常提到的人物，所以也被記入《論語》之中吧。〈堯曰〉篇的第一章，也和這種類似，但是屬於文獻的敘述<sup>19)</sup>，姑亦置於此。

五。有後人或依傳言而記者。這一類有點像莊周的寓言，重言。譬如〈微子〉

19) 〈堯曰〉第一章的前面，引有堯曰，舜曰等，其辭今多見於先秦諸子所引的尚書逸文中，不是如朱注的見於今本尚書，所以這是屬於文獻上的資料。

篇中的楚狂接輿，長沮桀溺，子路從而後，〈陽貨〉篇陽貨欲見孔子章等，就文辭上，思想上，都不與孔子之言同，可知爲後人根據傳言而作的；但是這篇章雖然對孔子有諷刺味，但是觀章中孔子和子路的發言，猶是孔門思想的典型，而記在儒者的立場發言的<sup>20)</sup>。

還有與事實舛誤的記載，也同樣是後人的筆墨。如〈陽貨〉篇公山弗擾以費誅章，崔述據春秋傳，以爲「是弗擾叛而孔子伐而敗之耳，初無所謂召孔子及孔子欲往之事也。」且「費之叛在定公十二年夏，是時孔子方爲魯司寇，聽國政。弗擾，季氏之家臣耳，何敢來召孔子？孔子方輔定公以行周公之道，乃棄國君而佐叛夫，舍方與之業，而圖未成之事，豈近人情邪？」又如〈佛肸〉章，崔述曰；「佛肸之叛，乃趙襄子時事。襄子立於魯哀公二十年，孔子卒已五年，佛安肸得有召孔子事乎？」孔子卒於哀公十六年，就時間而言，當然是不合事實的<sup>21)</sup>。

六。有雜記古今軼事，而與孔門絕無相涉的文字。這種內容，多在一篇的最末一，二章。如〈季氏〉篇末章云

邦君之妻，君稱之曰夫人。夫人自稱曰小童。邦人稱之曰君夫人。稱諸異邦曰寡小君。異邦人稱之亦曰君夫人。

朱注引吳氏曰；「凡語中所載，如此類者，不知何爲。或古有之，或夫子嘗言之，不可考也。」又〈微子〉篇末有

大師挾適齊，亞飯干適楚，三飯線適蔡，四飯缺適秦，鼓方叔入於河，播鼗武入於漢，少師陽，擊磬襄入於海。

周有八士：伯達，伯适，仲突，仲忽，叔夜，叔夏，季隨，季騶。

朱注於「大師挾」章云；「此記賢人之隱遁，以附前章，然未必夫子之言也。」其實，這些章節，當然不是夫子之言，只是古人書寫時，每篇是分開的，在篇末的餘簡上，常常附記一些自己的話，或者是讀書時的心得備忘，這幾章可能就是屬於這種情形，朱子說「以附前章」，倒是說對了。

〈論語〉中的文言成份，大蓋就是言六種。而和這篇題目有關的，當然是以第一種爲最重要的，是必然的資料；但是在第二類(弟子之言)中，也是需要引用的，而第三種(記者之言)，亦有參考的作用；而第四、五、六三類，則是在排

20) 長沮桀溺章，孔子言曰；「鳥獸不可與同羣，吾非斯人之徒與而誰與。天下有道，丘不與易也。」這是和孔子積極參與政治，救世的志向相同的；而子路從而後章，子路曰；「不仕無義，長幼之節，不可廢也；居臣之義，如之何其廢之；欲潔其身而亂大倫；君子之仕也，行其義也，道之不行，已知之矣。」這種章記人類社會的人際關係，和積極從政的思想，是和孔子所主張者是一樣的。

除之列，我想這應該沒有問題的。

### （三）孔子文言的基準

要了解孔子的文言，就要先知道他文言的基準是甚麼？所謂基準，就是能通貫全書文字的一個準則。我們試披尋《論語》似乎是沒有辦法找到一個通貫全書文字的準則，而且，在《論語》中所記載孔子的話裡，常常可以發現有很多前後矛盾的地方，例如

子曰：「人而無信，不知其可也。大車無輓，小車無軌，其何以行之哉？」《論語為政》

子貢問政。子曰：「足食，足兵，民信之矣。自古皆有死，民無信不立。」《論語顏淵》

子以四教：文·行·忠·信。

這些都可知道「言而有信」，是孔子對言的一個準則，而「言行一致」更是孔子為人的理想，如

古者言云不出，恥躬云不逮也。《論語里仁》

君子恥其言而過其行。《論語憲問》

但是，孔子亦有言論和這原則相違忤者；

子貢問曰：「何如斯可謂之士矣？」子曰：「行己有恥，不辱君命，可謂士矣。」曰：「敢問其次。」曰：「宗族稱孝焉，鄉黨稱 焉。」曰：「敢問其次。」曰：「言必信，行必果，硜硜然小人哉！抑亦可以為次矣。」《論語子路》

這一段對話中，「言必信，行必果」的人，祇配做第三級的士，而且被稱之為「小人」，雖然孔子並未貶斥，但不加重視是顯而易見的，這和前面的對「信」「言行一致」的觀念是相矛盾的；甚至孔子還說了假話，如

孺悲欲見孔子。孔子辭以疾。將命者出戶，取瑟而歌，使之聞之。《論語陽貨》

這一句「辭以疾」分明是假話，孔子既主張「言行合一」，但自己卻說了假話，這顯然更是矛盾。類似這種情形，並不在少數，這難免使讀《論語》的人感到疑惑，好像孔子的言論，就如俗語所說的「見人說人話，見鬼說鬼話」般鄉愿，這種情形，就連當時孔子自己的得意門生也不由得提出疑問了。《論語先進》篇云

子路問：「聞斯行諸？」子曰：「有父兄在，如之何其聞斯行之。」冉有問：「聞斯行諸？」子曰：「聞斯行之。」公西華曰：「由也問聞斯行諸，子曰有父兄在，求也問聞斯行諸，子曰聞斯行之。赤也惑，敢問。」

這也難怪公西華「惑」了，同一個問題，居然會有兩種截然相反的答案，但是，當我們往下看，就可以把這個矛盾的疑惑解開了。〈先進〉篇下面說；

子曰：「求也退，故進之；由也兼人，故退之。」

從這個孔子的解釋中，我們不單止解決了「聞斯行諸」的這一個問題，連帶上面所說的矛盾也可以解決；就是孔子的言辭，往往足因人，因時，因分，因勢來說的，這在表面上雖然有矛盾的情況，但在根本上，是有其一貫的原則的，這個原則，就是「因材施教」。子曰：「中人以上，可以語上也；中人以下，不可以語上也。」《論語雍也》就是很好的說明。但是我們不要地「因材施教」這一個原則用得太狹小，我們可以加以推廣為「因人施教」，「因分施教」，「因勢施教」，「因事施教」不單教人還要淑世呢！總之，我們可以以一個「教」字為原則，來貫串《論語》中孔子之文言，就可以解決掉所有類似的矛盾，衝突的言辭了。其實孔子被後世尊為「至聖先師」，不就是這一個「教」的原則的最佳證明嗎？最後，我們來看一個論語以外的資料吧。

有子問於曾子曰：「問喪於夫子乎？」曰：「問之矣。喪欲速貧，死欲速朽。」有子曰：「是非君子之言也。」曾子曰：「參也聞諸夫子也。」有子又曰：「是非君子之言也。」曾子曰：「參也與子游聞之。」有子曰：「然則夫子有為言之也。」曾子以斯言告於子游。子游曰：「甚哉有子之言似夫子也。昔者夫子居於宋，見桓司馬自為石槨，三年而不成。夫子曰：若是甚驕也，死不如速朽之愈也。死之欲速朽，為桓司馬言之也。南宮敬叔反，必載寶而朝。夫子曰：若是其貨也，喪不如速貧之愈也。喪之欲速貧，為敬叔言之也。」曾子以子游之言告於有子。有子曰：「然。吾固曰非夫子之言也。」曾子曰：「子何以知之？」有子曰：「夫子制於中都，四寸之棺，五寸之槨，以斯知不欲速朽也。昔者夫子失魯司寇，將之荆，蓋先之以子夏，又申之以冉有，以斯知不欲速貧也。」《禮記檀弓上》

這是一個很明顯的例子，孔子之言，常有為而發，我們不能執著隻字片言，就說孔子如何如何，應該先要明瞭孔子這些話所「為」的是甚麼，才可以下判斷。了解了孔子之「文言」皆以「教」為基準，那麼，我們才可以真的體會孔子文言精妙之處。

#### （四）孔子文言的表現

古人讀書的時候，往往有溫經的習慣，一生之中，每隔一段時間，必然把經

書重新溫燴，所以，每一本經書都讀過很多遍，尤其是《論語》，溫燴的次數最多；在這一次又一次的溫燴體味中，往往能夠對其中文言的表現，有了全盤的，普遍的了解和會心；如朱熹《近思錄》中，特設「聖賢氣象」一門，即是對論·孟文言表現的一個比較心得。我認為這一種全盤的，普遍的了解，實在可以幫助我們後學的人對孔子文言中的蘊義有更深的契合。所以，首先在這裡，也嘗試作一種鳥瞰式整理。

綜觀《論語》的文言，可以發現其中有七種可以通照全書的表現。現在分述如下：

1. 平易自然。孔子的話，說出來並不一定就是驚天動地的偉言，都是一些日常所易見的，生活上都可接觸到的，身心也可以實行的事和理，讀起來就如自己的生活中事一樣有親切感。「子不語·怪·力·亂·神。」「夫子之言性與天道，不可得而聞也。」所以，朱熹曾經說；「孔子居處恭，執事敬，與人忠等語，則就實行處做工夫。」人能夠實行的，當然都是平常的事。

齊景公問政於孔子。孔子對曰：「君君，臣臣，父父，子子。」〈顏淵〉

孟懿子問孝。子曰：「無違」。樊遲御。子告之曰：「孟孫問孝於我，我對白無違」。樊遲曰：「何謂也？」子曰：「生事之以禮，死葬之以禮，祭之以禮。」

顏淵問仁。子曰：「克己復禮，爲仁：一日克己復禮，天下歸人焉：爲仁由己，而由人乎哉」。顏淵曰：「請問其目？」子曰：「非禮勿視，非禮勿聽，非禮勿言，非禮勿動。」

孔子對問政，問孝，問仁的回答，都是一些每個人大致都能實行，踐履的事，爲政的能各安其位，爲孝的能無違於禮，爲仁者在己之克，和視，聽，言，動的合禮，這全部都是平易，自然的話。梁啟超曾經說；「讀《論語》如吃飯，讀《孟子》如吃藥。」梁氏對《論語》確實有很精到的會心。

2. 包涵精密。雖然《論語》的文字是平易自然，但其中道的道理，卻是周延精密，沒有漏洞和缺失。《朱子語類》說；「孔子言語，一似沒緊要說出來，自是包含無限道理，無些滲漏。如云；「道之以政，齊之以刑，道之以德，齊之以禮」數句，孔子初不曾着氣力，自是委曲詳盡，說盡道理，更走他的不得。」我們就從這一種精密來看吧。

子曰：三人行，必有我師焉。擇其善者而從之，其不善者而改之。〈述而〉

如果我們用邏輯分析一下，三人行，除了自己，就剩兩個人，兩個人的「善」和「不善」，按排列有四種情形，就是兩者皆善，甲善乙不善，乙善甲不善，兩者



皆不善；但是無論是那一種狀況，都可以以「擇其善者而從之，其不善者而改之」這個觀念來籠罩，所以孔子說「必有」我師，在邏輯上也是周延的。又如

子貢問曰：「鄉人皆好之，何如？」子曰：「未可也。」「鄉人皆惡之，何如？」子曰：「未可也，不如鄉人之善者好之，其不善者惡之。」（憲問）

這一章，更可以看出孔子邏輯思考之精密。蓋一鄉之人中，必然有善，有不善，如果全鄉的人都好的那一個人，那一定是那個人在善人面前表現成善，在不善人面前表現不善，所謂臭味相投，即這個人可能是面面俱圓的鄉愿，所以孔子說「未可」；而但全鄉的人都討厭的人，即一定是鄉中的善人覺得他不够好而不善的人又覺得他不够壞（至少是不能一塊壞），這種人一定是沒有主見，才能的人，這兩種人都有問題。孔子說「鄉人之善者好之」，則這個人在做好人面前是好人，所以好人都喜歡他。「其不善者惡之」，則這個人在不善者面前表現是「非不善」，不能投合，所以才討厭他；這從正，反兩面來肯定一個人的表現，比起只從一面來判斷的方式，更合理而精密。這一章如跟〈衛靈公〉篇「子曰：衆惡之，必察焉；衆好之，必察焉。」合觀，當然更能了辭其中的周密性。像這種表現，當然不只一兩章，《論語》中還有很多，看朱子曰：「聖人說話，磨稜合縫，盛水不漏，如一言衷邦，以直報怨，自是精密。」就知道了。

3. 言皆有徵。孔子說話，不會無的放矢，所說的話，都有著實的根據，這根據有時候是一己的真切體驗，有時候是有客觀事實的證明。前者如「子曰：仁遠乎哉？我欲仁，斯仁至矣。」如果不是有真切的體驗，是說不出這種話來的，但這比較抽象，有時候不易掌握；至於後者，是比比皆是而明確可見。

子曰：「管仲之器小哉」。或曰：「管仲儉乎？」曰：「管民有三歸，官事不攝，焉得儉」。「熱則管仲知禮乎？」曰：「邦君樹塞門，管氏亦樹塞門；邦君爲兩君之好，有反玷，管氏亦有反玷；管氏而知禮，孰不知禮。」（〈八佾〉22）

孔子對管仲的批評說「器小」，我們姑不妄測其原因，但孔子批評管仲「焉得儉」「管氏而知禮，孰不知禮」，很明顯地看出是有實事可以證明其不儉，和僭越不禮的。

子曰：「孰謂微生高直？或乞醢焉，乞諸其鄰而與之。」（〈公治長〉23）

人家都說微生高直，但孔子從他本人的行爲上，證明他不是真的直，只是曲意徇物，掠美市恩而已。

子曰：「孟之反不伐。奔而殿，將入門，策其馬曰：非敢後也，馬不進也。」（〈雍也〉14）

孟之反的事，在春秋哀公十一年左傳中也有記載，孔子稱他不伐（不誇功），確

是有證據的。

子曰：「孝哉閔子騫。人不問父母昆弟之言。」(《先進》4)

子曰：「臧文仲其竊位者與！知柳下惠之賢，而不與立也。」(《衛靈公》13)

子曰：「直哉史魚。邦有道如矢，邦無道如矢。君子哉蘧伯玉。邦有道則仕，邦無道則可卷而懷之。」(《衛靈公》6)

子曰：「臧武仲以防求為後於魯，雖曰不要君，吾不信也。」(《憲問》14)

孔子言皆有徵驗，也可以從論語中找到理論的根據。

子曰：「視其所以，觀其所由，察其所安；人焉廋哉；人焉廋哉。」(《為政》10)

子曰：「夏禮，吾能言之，杞不足徵也；殷禮，吾能言之，宋不足徵也，文獻不足故也，足則吾能徵之矣。」(《八佾》8)

子曰：「吾之於人也，誰毀誰譽，如有所譽者，其有所試矣。」(《衛靈公》23)

對於人的行為，能夠觀察入微，有所毀譽，一定經過一番試驗；而對於事的言說，也必定要求有徵信，才是最真實的，所以孔子雖然能言夏殷之禮，但不足徵，總有缺失不明之處，可能因為這樣，孔子才「從周」的，因為周禮最完備而可徵驗。從這幾章，都可以知道孔子言皆有徵驗的事實。

4. 辭不迫切。所謂不迫切，就是留有餘地，不把話都說絕了，說盡了，也不會有咄咄地「得理不饒人」的盛氣。對於這一點，如果把《論語》和《孟子》比較一下，更容易看出來。朱子說《孟子》有圭角，有英氣，就是有咄咄迫人的味道，而《論語》則沒有這種情形。

子曰：「巧言令色，鮮矣仁。」(《學而》3)

朱熹注云：「聖人詞不迫切，專言鮮則絕無可知，學者所當深戒。」「巧言令色」的人，事實上就是務外虛偽的人，這類人不可能「仁」了，而孔子只說「鮮」，就是不說絕，這也可以想像孔子還希望這些人有翻身改過機會的意思；從此可了解聖人的胸襟。

子曰：「事君盡禮，人以爲諂也。」(《八佾》17)

「事君盡禮」是得理的，「人以爲諂」是他人的誤會，大可以「得理不饒人」地反責回去，說他們錯，說他們「以小人之心，度君子之腹」，但孔子並沒有如此，只解釋自己的立場，不對誤會的人加以責備。朱注引程子曰：「若他人言之，必曰我事君盡禮，小人以爲諂。而孔子之言止於如此，聖人道大德宏，此亦可見。」這是很對的。而且如果對有錯誤的人嚴加苛責，有時會產生反效果孔子說：「好勇疾貧，亂也；人而不仁，疾之已甚，亂也。」孔子的目的，在使人改

過遷善，不在表現自己的得理，所以說話多留餘地。

子曰：「我未見好仁者，惡不仁者。好仁者無以尚之，惡不仁者，其爲仁矣。不使不仁者加乎其身；有能一日用其力於仁者乎！我未見力不足者，蓋有之矣，我未之見也。」（〈里仁〉6）

此章敷衍「我未見」，本就已經是不說絕，只是我未見，並不是世間絕無這種人，這雖然是退了兩步，但對聽者來說，卻是進了兩步，因為聽孔子說話的人，在孔子既見之列，就是「力足」者，當然更應該勉策上進了。

定公問：「一言而可以興邦，有諸？」孔子對曰：「言不可若是其幾也。人之言曰爲君難，爲臣不易，如知爲君之難也，不幾乎一言而興邦乎？」曰：「一言而喪邦，有諸？」孔子對曰：「言不可若是其幾也。人之言曰：予無樂乎爲君，唯其言而莫予違也。如其善而莫之違也，不亦善乎？如不善而莫之違也，不幾乎一言而喪邦乎？」（〈子路〉15）

這一章定公問「一言興邦」、「一言喪邦」，孔子先說「言不可若是」，而後又說「幾乎」，這都是委婉而不迫切的氣度表現。

5. 合乎邏輯論式。這一項是以現代的邏輯論式來了解孔子言辭的精妙，可知早在兩千多年前，孔子的語論就已經和邏輯論式暗合了。所謂邏輯論式，係指理則學的演繹推理或因明的比量而言。演繹推理成自三個名言與三個判斷，依據範圍較廣的道理，來推出範圍較狹的道理，並保證其結論之正確，這通常稱之爲三段論法。三段論法的正常形式是大前提，小前提，結論，但說話作文的時候，其排列的次第是可以名隨其便的，而不會影響論證的功能的。孔子自己對邏輯論式的功用，方法和理論，當然未有關說，但論語中卻有很多合乎邏輯論式的話。

三段論法之中的三個判斷，是可以有所省畧的，或省大前提，或省小前提，而結論在對話中也可省畧，只是這種情況甚少。而《論語》中所採的，都是省畧式。首先先舉單一論式的例子；

子曰：「吾未見剛者」。或對曰：「申枨」。子曰：「枨也慾，焉得剛。」（〈公冶長〉10）

這一章是一個省畧大前提的論式。「枨也慾」是小前提，「焉得剛」是結論，「枨」是小詞，「慾」是中詞，「剛」是大詞，據此我們可以補成大前提，依理則學的次序排列如下；「有慾則不剛。枨也慾，故枨不剛。」

子曰：「泰伯其至德也已矣。三以天下讓，民無德而稱焉。」（〈泰伯〉1）

這一章的大詞是「至德」，中詞是「三以天下讓」，小詞是「泰伯」，而省畧了大前提，現今加以補足整理，則可成爲以下一完整論式；「三以天下讓爲至德，泰

伯三以天下讓，故泰伯可謂至德也已矣。」

司馬牛問君子。子曰：「君子不憂不懼。曰：『不憂不懼，斯謂之君子已矣？』」子曰：「內省不疚，夫何憂何懼！」（顏淵）

這一章孔子原本只說結論「君子不憂不懼」，經司馬牛再追問，才把大前提說出來，是「內省不疚，則不憂不懼」，小前提省畧了，把文句補足整理，成一完整論式如下；「內省不疚者則不憂不懼，君子內省不疚，所以君子不憂不懼。」

下面再舉複名論式的例子，複合論式有很多種，舉例如下；

子曰：「伯夷，叔齊，不念舊惡，怨是用希。」（公冶長）

這一章，用爲小詞有兩個一伯夷，叔齊，所以是兩個單一論式的聯合，是聯合論式；中詞是「不念舊惡」，大詞是「怨是用希」，此文補充分析之後，可成兩個單一論式；甲式：不念舊惡，怨是用希，伯夷不念舊惡，伯夷怨是用希。乙式只有小詞伯夷變成叔齊，其餘與甲式相同，甲乙式合併成一聯名論式。

子曰：「鄙夫可與事君也與哉！其未得之也，患得之，既得之，患失之。」

苟患失之，無所不至矣。」（陽貨）

這一章中「鄙夫可與事君也與哉」是最終結論，小前提是「鄙夫無所不至」，大前提省畧，但當作「無所不至者不可與事君」可知；然小前提「鄙夫無所不至」，是由「爲患失之」而來，這一段應作「患失之則無所不至，鄙夫爲患失之，鄙夫無所不至矣」，全章的論證中，是論證之中帶有論證，所以稱之爲帶證論式。

還有連環論式，自較遠的理由層層推論，而推出最終結論的。這在《論語》中孔子的文言中也有；

子路曰：「衛君待子而爲政，子將奚先？」子曰：「必也正名乎？」子路曰：「有是哉，子之迂也，奚其正？」子曰：「野哉有也，君子於其所不知，蓋闕如也。名不正則言不順，言不順則事不成，事不成則禮樂不興，禮樂不興則刑罰不中，刑罰不中則民無所措手足。故君子名之必可言也，言之必可行也。君子於其言，無所苟而已矣。」（〈子路〉3）

這一章從「名不正則言不順」至「民無所措手足」，並沒有結論，但依其意，顯而易見的是「名不正則民無所措所足」，「民措手足」即是施政之事，孔子之於政也，正名爲先，實可從這個連環論式而得。當然這一章還說明了「於言無所苟」的精煉修辭的原則，這下面有敘述的。

6. 多用肯定的句式。儒家思想的觀念，都是從正面地肯定人生，用自己的生命，與世間一切事物作密切的契合，把自己生命中的真切體會，化爲人生行事的準繩，從而用此來引導後進，所以，在儒家的傳統中，對於表達其核心論

點一即真切的人生體驗時，往往用一種堅定篤實的語式來表達，因為這種體驗在他們的心中，也是堅定篤實的，可以直接地說「是怎麼樣」和「應該怎麼樣」；因此，《論語》中這種從堅定篤實的體驗而抒發的堅定篤實的肯定語式為最多。如「我欲仁，斯仁至矣。」（《述而》29）「子曰：朝聞道，夕死可矣。」（《里仁》8）「克己復禮，為仁。」（《顏淵》），都是可以體味其中的堅定篤實的心志的。這一點如果和老子一書的文辭加以比較，更是明白；老子道德經第一章即說「道可道，非常道，名可名，非常名，無名萬物之始，有名萬物之母」的否定句式，和「道之為物，惟恍惟惚」的隱晦，和儒家是截然不同的。

7. 用詞精鍊不苟。每一個字，都有它所能表達最達意義最完整的範圍，每一個詞，也有它最恰當合適的層次和內容，如果在說話的時候，能精確地掌握運用每一個字，每一個詞，當然能夠充份地表達自己的思想，也能使別人不致於曲解和誤會；而且，語言文字也是思維的媒體，如果掌握不當，可能影響思維的功能性。孔子在表達意念時對字詞的選擇，是非常精確而鍊達的。孔子曾經說：「君子於其言，無所苟而已矣。」可見其選詞用字的謹慎；所謂正名，就是鍊字，使名與實相符，達到最精準的意念表達，同時，先把用詞的意義確定，也能使互相討論的兩方有可以共同溝通的橋樑。

子張問「士如何斯可謂之達矣。」子曰：「何哉爾所謂達者？」子張對曰：「在邦必聞，在家必聞。」子曰：「是聞也，非達也。夫達也者，質直而好義，察言而觀色，慮以下人，在邦必達，在家必達。夫聞也者，色取仁而行違，居之不疑，在邦必聞，在家必聞。」（《顏淵》19）

這一章孔子首先要詰問子張對「達」這一個字的內容意義的了解，知其有不當之處，然後告訴他子張所了解的內容，應該是「聞」，而「達」應該是更高的一個層次。先這樣作一番正名之後，才能正式討論聞與達。孔子用詞之不同，往往也代表不同的境界，層次。

子曰：「吾十有五而志於學，三十而立，四十而不惑，五十而知天命，六十而耳順，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為政》4）

「立」「不惑」「知天命」「耳順」「從心所欲，不踰矩」這幾個詞，代表着不同的境界，「立」是始立，「不惑」是既立，然與外在是對立的，「知天命」是與外在溝通的開始，「耳順」是內外不相礙，「從心所欲，不踰矩」是內外的合一，這些詞不可能有更好的代換了。

子曰：「志於道，據於德，依於仁，游於藝。」（《述而》6）  
這一章「志」「據」「依」「游」幾個詞的境界和秩序，是不可更動的。「志」者心之所

之也，猶未能達到道，道是外在的；「據」者執守之意，則是既至而守之勿失，這已經是內外並同了；「依」者不違之謂也，這已經不在守執，而在涵養，是內外融滌了；「游」者玩物適情之謂，這是仁既爲我，我之全體莫非仁，動靜舒卷，皆是仁的表現，故可接於萬物萬事而無不自適，這是由內而再通於外了。

因爲孔子對用字選詞的精練，所以才能有「春秋辨理一字見義」<sup>21)</sup>，而「亂臣賊子懼」的功效。而把這「正名」的功夫用在政治上，使「君君·臣臣」，用在家庭上，便「父父，子子」，則政治與社會也能因之而有所修正，可達到救世的目的。

### (五) 孔子之文言理論

#### (1) 《論語》中文·文學·文章的合義

《論語先進》篇云；「文學；子游，子夏。」這裡所謂的文學，邢昺疏謂；「文章博學，則有子游，子夏。」可見這兒所謂「文學」，實兼「文章」「博學」兩部份，文章主於文辭，而博學近乎學問。《揚雄法言》〈吾子〉篇云：「子游，子夏得其書矣。」可見《論語》中這兒「文學」，比較是文獻上的，至於實際運用「文言」，則有待乎子貢，宰予的言語科了。

《論語》中提到「文」的地方很多，但是這些「文」，卻包涵著幾種下同的意義；有與「質」相對的「文」，如「文質彬彬，然後君子」(〈雍也〉)；有文飾是非的「文」如「小人之過也必文」(〈子張〉)；有指德行表現之「文」，如「敏而好學，不恥下問，是以謂之文」(〈公冶長〉)；有與「文學」同義的「文」，如「子以四教，文，行，忠，信。」(〈述而〉)「君子以文會友，以友輔仁。」(〈顏淵〉)「行有餘力，則以學文。」(〈學而〉)。前四種「文」中，與文學有關係的，是文質相對之文，和文學書籍之文；這兩種「文」，前者與文學理論有關，後者與文學概念有關。

《論語》中提到「文章」的有兩處；一是〈泰伯〉篇孔子頌堯功的「煥乎其有文章」一是〈公冶長〉篇子貢所說的「夫子之文章，可得而聞也」；前者謂堯有「文章」，乃指文物典章制度而言，後者稱孔子之「文章」，蓋指孔子的言談舉止而言，朱注云：「文章，德之見於外者，威儀文辭皆是也。」因此，可以推知，文與章字綴成一辭，乃就其表現於外的形象而言，也就是「文質彬彬」的「文」相近；而文學連用，則就其內容實質而言，近於「文質彬彬」的「質」了。

雖然《論語》中論「文」

有關的，多近乎學術，但孔子論到文學性格最濃的典籍一詩三百一時，所論

21) 語見《文心雕龍》〈宗經〉篇。

就較近於今日所謂的文學的意義，如〈陽貨〉篇云；「詩可以興，可以觀，可以羣，可以怨，邇之事父，遠之事君，多識草木蟲魚之名。」是論文學的涵養性情的功能，和文學的社會作用；又〈爲政〉篇云；「詩三百，一言以蔽之，曰思無邪。」這是有關文學批評的觀點；而〈季氏〉篇云；「不學詩，無以言。」則是指文學上修辭的訓練方法和學習對象；這些精簡的主張言辭，卻是後世文學理論（特別是論詩）所常常引以爲根據的，不過這都是專門論詩的，所以僅在這概畧一提，以俟專論時再加以申述。

## （2）孔子之文質論

《論語》中有關文學的論述，對後世文藝主張影響最大的，當推「文質論」了。文，就是指外在表現的「文章」，亦即是形式，型構，方法；而質，是指內容，本質，材料。

歷來論文的人，無不引用孔子有關「文」「質」的話，作爲自己立論的根據，但是，由於引用的主觀觀念不同，或對孔子「文質論」了解的偏差，在選擇取材上，形成兩大壁壘一就是「尚文」，「尚質」兩大截然不同的主張。

主張「尚質」的一就是注重內容而輕視形式的，以宋朝之理學家的文論爲最明顯。如周敦頤云

「文所以載道也。輪轅飾而人弗庸，徒飾也，況虛車乎？文辭，藝也，道德，實也。」（《文辭》二十八）

之後二程子更進一步把美的文辭與異端同科。

「今之學者有三弊：一溺於文章，二牽於訓詁，三惑於異端。苟無此三者，則將何歸？必趨於道矣。」（《一程遺書》卷十八）

而更進一層的，有作文害道之說。程頤有〈顏子所好何學〉論云；

不求諸己而求諸外，以博聞強記，巧文麗辭爲工，榮華其言，鮮有至於道者。（《伊川文集》四）

又云；

問作文害道否？曰：害也。凡爲文不專意則不工，若專意則志局於此，又安能與天地同其大也。書曰：翫物喪志。爲文亦翫物也。……古之學者惟務養性情，其他則不學，今爲文者專務章句，悅人耳目；既務悅人，非俳優而何。曰：人見六經便以爲聖人亦作文，不知聖人只摠發胸中所蘊，自成文耳，所謂有德者必有言也。曰：游，夏稱文學，何也？曰：游，夏亦何嘗秉筆學爲詞章也。（《二程遺書》卷十八）

這種言論，雖然只是他們自己的觀點，但是其觀點之發軔，則源文質論，且以

《論語》爲其證言。

然而，亦有「尚文」的一派，以《文心雕龍》爲代表。《文心雕龍》〈徵聖〉篇云；

遠稱唐世，則煥乎爲盛；近褒周代，則郁哉可從，此政化貴文之徵也。  
鄭伯入陳，以文辭爲功；宋置折俎，以多文學禮，此事蹟貴文之徵也。褒  
美子產，則云言以足志，文以足言；泛論君子，則云情欲信而辭欲巧，此  
修身貴文之徵也。

復以《文心雕龍》有〈風骨〉，〈通變〉，〈情采〉，〈麗辭〉，〈比興〉，〈隱秀〉諸篇，  
都是談論文章技法的，這更是尚文的明徵。但是何以同是孔子之言，會引發不  
同的理論呢？孔子本身的主張，究竟是「尚文」抑是「尚質」呢？這就得從孔子言  
文中，有關文、質的言論加以探討分析了。

《論語》中，有關「文質」的言論，大致可分爲三類；第一類是偏重「質」的，  
如；

有德者必有言，有言者不必有德。〈〈憲問〉〉

禮云禮云，玉帛云乎哉！樂云樂云，鐘鼓云乎哉！〈〈陽貨〉〉

君子恥其言而過其行。〈〈憲問〉〉

先進於禮樂，野人也；後進於禮樂，君子也。如用之，則吾從先進。〈〈先  
進〉〉

奢則不遜，儉則固，與其不遜也，甯固。〈〈述而〉〉

君子欲訥於言而敏於行。〈〈里仁〉〉

禮與其奢也，寧儉；喪與其易也，寧戚。〈〈八佾〉〉

人而不仁，如禮何？人而不仁，如樂何？〈〈八佾〉〉

巧言亂德。〈〈衛靈公〉〉

焉用佞。禦人以口給，屢憎於人。不知其仁：焉用佞。〈〈公治長〉〉

巧言令色，鮮矣仁。〈〈學而〉〉

子謂韶：盡美矣，又盡善也；謂武：盡美矣，未盡善也。〈〈八佾〉〉

另一類是偏向於尚「文」的，如；

知及之，仁不能守之，雖得之，必失之；知及之，仁能守之，不莊以涖  
之，則民不敬；知及之，仁能守之，莊以涖之，動之不以禮，未善也。

〈〈衛靈公〉〉

如有周公之才之美，使驕且吝，其餘不足觀也已。〈〈泰伯〉〉

恭而無禮則勞，慎而無禮則蕙，勇而無禮則亂，直而無禮則絞。〈〈泰伯〉〉

周監於二代，郁郁乎文哉！吾從周。〈〈八佾〉〉



還有是中性<sup>22)</sup>的，如；

君子義以為質，禮以行之，遜以出之，信以成之，君子哉。（《衛靈公》）

辭，達而已矣。（《衛靈公》）

質勝文則野，文勝質則史，文質彬彬，然後君子。（《雍也》）

在《論語》以外，引用孔子之言而論及文，質的，有；

情欲信，辭欲巧。（《禮記表記》）

志有之：言以足志，文以足言。不言，誰知其志？言之不文，行之不遠。

（《左傳》襄二十五年傳引孔子之語）

對於內容與形式的關係上，在言辭中是文與質，有行為上是儀與敬，這對應的關係是一樣的，取以把禮也納入這個範圍來說明。

看了上述的資料，不難發現一個現象，就是在《論語》的文言中，重質的顯然較多，重文的較少，而《論語》以外的則尚文，也就是說，孔子文言中有關文，質的資料，本身就有相反，矛盾的情況，也難怪後世論者，根據主觀對文，質的了解和取捨上的分歧，形成了不同的論說了。但是我們要探討的，是何以有這種現象呢？何以《論語》中重質的成份較高呢？

首先，我們得從孔子當時的社會背景開始了解。春秋末葉的社會，禮崩樂壞，名分舛違，言行不卒，巧亂蠱作。《論語八佾》篇中，多記其事。

孔子謂季氏：「八佾舞於庭，是可忍也，孰不可忍也。」

三家者以雍徹。子曰：「相維辟公，天子穆穆，爰取於三家之堂。」

季氏旅於泰山。子謂冉有曰：「女弗能救與？」對曰：不能。子曰：「嗚呼！曾謂泰山，不如林放乎！」

子貢欲去告朔之餼羊。子曰：「賜也，爾愛其羊，我愛其禮。」

由此可見當時禮樂崩壞和僭位越分的情形，是多麼嚴重了；孔子針對當時這種情形而發的言辭，並不是孔子本來的，理想的主張。《先進》第一章朱注引程子之云；

先進於禮樂，文質得宜，今反謂之質朴，而以為野人；後進之於禮樂，文過其質，今反謂之彬彬而以為君子。蓋周末文勝，故時人之言如此，不自知其過於文也。

當時，禮文太過的事實，是非常明顯的。如；

子曰：麻冕，禮也，「今也純，儉，吾從衆；拜下，禮也，今拜乎上，泰也，雖違衆，吾從下。」（《子罕》）

22) 所謂中性，是文，質兼而有之，或不明其所偏重者。

又〈八佾〉篇「林放問禮之本」章朱注云；

林放見世之爲禮者，專事繁文，而疑其本之不在是也，故以爲問。孔子以爲時方逐末，而放獨志於本，故大其問。

孔子大林放之問，乃是爲振醒當時對禮文末事太過的執著。〈述而〉篇「奢則不孫」章朱注引晁氏云；

不得已而救時之弊也。

爲「救時之弊」，不得已而用較偏激的言辭，所謂「矯枉」必需「過正」，也就是「不得中行而與之，必也狂狷乎」的退而求其次的現象。

孔子主張「言行合一」，而當時則多巧言，文過飾非連孔子的高材生也是如此；

宰予晝寢。子曰：「朽木不可雕也，糞土之牆，不可朽也：於予與何誅？」

子曰：「始吾於人也，聽其言而信其行，今吾於人也，聽其言而觀其行；於子與改是。」（〈公冶長〉）

所以，也難怪孔子對「巧言」「佞」如此深惡了。除此之外，當時社會中的家庭，也出現注重表面功夫的情形；

子游問孝。子曰：「今之孝者，是謂能養；至於犬馬，皆能有養；不敬，何以別乎？」（〈爲政〉）

社會到了這種地步，不單止孔子有這樣的反應，當時還有很多和孔子同樣反應的人。如

棘成子曰：君子質而已矣，何必文爲。（〈顏淵〉）

但他的主張，才真是過正。而孔子針對的「文弊」，「巧言」，「表面功夫」，而主張重「質」，「言行一致」，「心中誠敬」來加以矯正，調和，以求達到「無過無不及」的中庸之道；我們如果透過孔子文言的基準一教一來觀察，這種變型的因應，是可以理解的。

孔子既然不是單純地重「質」，那麼孔子是不是「重文」呢？這一點，我們只消翻一翻論語，就知道孔子重禮，並對周文有「郁郁可從」之慨，就可以肯定孔子並不忽視「形式」「技巧」。棘子成問子貢說：「君子質而已矣，何必文爲？」即告訴我們孔子重視「文」是的而且確的事實，但是，「文」也不是孔子理想中的標準，孔子的理想是「文質彬彬」。試分析一下前述的那些資料；「韶，盡美矣，又盡善。」盡善盡美，就是從內外兩方面來說的。「周監於二代，郁郁乎文哉，吾從周。」這不是說周文是純「文」而可從，而是在「監於二代」之後，所表現出來的文，亦即是周文是相對於夏，商的質而言的，周文之中，已經有質了。「知及之，仁不能守之」章，孔子最後說「動之以禮，未善也」，未善就是不够好，

但是如果沒有「知及」「仁守」「莊澁」之質，就絕對不善了。「君子義以為質」章，君子乃指一種高尚的人格表現，必需要有「義質」，再加上「禮行」「孫出」「信成」才能成就這一高尚人格修養。「恭而無禮則勞」，恭敬是質，禮是文，有禮儀而無敬心，一切動作都落於表面。《禮記表記》說「情欲信，辭欲巧」，就是文，質兼顧。左傳云「言之不文，行之不遠」，似乎只是重文，但前面已經有「言以足志」為前題，所以也是內，外兼備的論說。

總觀其要，質和文，都是理想中邏輯上的必要條件，有質無文，或有文無質，都是不健全的。然而，理想是一種導向性的形象，而實際上由於每一個人的稟賦不同，能達到的境界，就有相當的差異了；而在偏於「質」或偏於「文」這兩途中，孔子則較願意偏於「質」，因為「繪事後素」，禮在後，而在理則上，「皮之不存，毛將安附」，「質」又是「文」存在的先決條件，所以如果不得中道，那無寧偏於「質」了，偏於「質」是「未善」，偏於「文」則是「不善」或「無善」，而文可以隨世轉移，質乃百世不遷的。不過，孔子也未輕視「形式」和「技巧」，孔子「因材施教」，面對各種不同條件的人，各種不同的說話環境，都能够針對所需要的來說，使各得其宜，這就已經是一種極高的表達形式和技巧，我們不能不說孔子的「文」，已經是爐火純青的了；而孔門弟子親受其教，也是有注意達意的技巧的例子。孔門言語之科，以子貢，宰予為最優，宰予在「晝寢」事以前，孔子還「聽其言而信其行」，而宰予和孔子辯論「三年之喪」（見《陽貨篇》），也能够持之有故，言之成理，可見其言辭之技巧；而子貢的例子，更能表達這一點；

冉有曰：「夫子為衛君乎？」子貢曰：「諾，吾將問之。」入曰：「伯夷，叔齊何人也？」曰：「古之賢人也。」曰：「怨乎？」曰：「求仁得仁，又何怨。」出曰：「夫子不為也。」（《述而》）

子貢曰：有美玉於斯，韞匱而藏諸？求善賈而沽諸？子曰：沽之哉！沽之哉！我待賈者也。（《子罕》）

子貢這兩次發問，都用了旁敲側擊的手法；朱注云：「君子居是邦，不非其大夫，況其君乎！故子貢不斥衛君，而以夷，齊為問。」可見子貢還考慮到說話的對象，環境了。因之，我們不能說孔子「重質」或者「重文」，我們應該說孔子是「文質並重」的。

### （3）「辭達而已矣」章疏正

《衛靈公》這一章「辭達而已矣」，是《論語》中真正針對文言而發的一章，然而，由於它說得非常簡單，含義並不是很容易了解，由來說者多用以為是不重

華辭，尚質的根據。如司馬光〈答孔文仲司戶書〉中云；

今之所謂文者，古之辭也。孔子曰：辭，達而已矣。明其足以通意，斯止矣，無事乎華藻宏辯也。（《傳家集六十》）

朱子於這一章注云；

辭取達意而止，不以富麗爲工。

又何晏引孔氏注云；

凡事莫過於實，辭達則是矣，不煩文艷之辭。

他們都根據這一章來反對文辭之「文」「艷」，主張僅僅以「達意」爲其標準，而他們之所謂達意，就是把自己的話說出來，能够表達自己的意思就好了；但是他們並不了解，「達」如果僅止是這樣，實在不是一個完整的意義。

尋乎《論語》之中，對「達」這個字的運用，其涵義所包函的，就不只如上述如此而已。

樊遲問仁。子曰：「愛人。」問知？子曰：「知人。」樊遲未達。子曰：「舉直措諸枉，能使枉者直。」（《顏淵》）

子曰：「頌詩三百，授之以政，不達，使之四方，不能專對，雖多，亦奚以爲！」（《子路》）

子張問士如何斯可謂之達矣。「……夫達者，質直而好義，察言而觀色，慮以下人，在邦必達，在家必達。」（《顏淵》）

己欲達而達人。（《先進》）

君子上達，小人下達。（《憲問》）

上學而上達。（《憲問》）

行義以達其道。（《季氏》）

「樊遲問仁」章，孔子已經把話說得很明白了，但樊遲可以「未達」；「頌詩三百」章，「專對」就是「發言應對」的表達了，「不達」然後「專對」，則「達」不是僅僅止於說出話來而已；「子張問士」章，孔子對「達」有詳細的解釋，我們仔細分析一下孔子的話，是就內在而言，要「質直而好義」，就外擴而言，要「察言而觀色慮以下人」，然後施諸於邦家，能發揮其功能者，方可謂之達，如果對照「聞」來看，很顯然的，「聞」只具有外在，而缺乏內在；而其餘各章，無不是在一兩相對應的事上，由「達」貫事於其中。從這些章節歸納所得，「達」不只是「表達」也不只是單一方向的傳遞訊息就算數，而是「把內得諸己的領悟，透過言辭或其他媒介，使通貫於外在的對象，使之也能通明了解」，這才可算是「達」；「己欲達而達人」，這「達人」不是指開始或方法，而是指終結的目標；這個對「達」字的解釋，既能通貫論說中每一個達字，而且也合乎孔子言文基準一教一的功

能，因為要教人，不是自己說出自己的話就算，更重要的是使教的對象也能接受和了解；所以樊遲未達，孔子就用較詳細的，實在的話來加以補充說明，就是希望他真的能「達」。然而要達到這種含義的「達」，如果沒有豐富的經驗，學養和技巧，是很難做到的。

用這一涵義來解釋「辭達而已矣」章，其意義應該是「文辭的表現，在能正確地掌握自己的意念，而貫通及所說的對象，使之能明達其中意義，就可以了。」蘇東坡〈答謝師民書〉云；

夫言止於達意，即疑若不文，是大不熱；求物之妙，如繫風捕影，能使是物了熱於心者，蓋于萬人而不一遇也，而況能使了熱於口與手乎？是之謂辭達。辭至於能達，則文不可勝用矣。（《經進東坡文集事畧四十六》）

蘇東坡這一番解釋，是很有見地的，不過還有未善之處；第一，似乎只是自己主觀之契會，並沒有其他證論；第二，從內得於心，外達於手口而止，而沒有更推出一層，到所說的對象身上。

胡適之先生在審查郭紹虞的《中國文學批評史》一書時，曾經如是說；「第二篇中引禮記中孔子語『情欲信，辭欲巧』，因說孔子『尚文之意固顯然可見了』，孔子明明說『辭達而已矣』，作者不引此語，卻引那不可深信的表記以助成孔子尚文之說，未免被主觀的見解影響到材料的去取了。」<sup>23)</sup> 胡氏的批評郭氏取材態度，固然有理，然胡氏自己卻對「辭達」之義也有不够了解的缺失，因為他也認為「達」只是「說了出來」而已。

總之，辭要能「達」，技巧和方法是—定得講求的。在《論語》中記孔子的話語，也都是以這個「達」字為最高之表現。孔子文言，沒有後來諸子的爭鳴辯論，殺伐闢批的犀利鋒芒，雖然一言一語，不無辯論之處，但因並沒有「理論」上的爭衡，所以不必有強烈徹底的，摧陷郭清的破壞力，有的頂多只是一種指點與修正的措辭，這說明了孔子言語之所以多平鋪直敘的原因，因為重點在「建立」而不在「攻破」；這當然是和時代背景有關，也正因此，所以論語中的文言最現—達—就已經足以對應這個社會需要，也很能够達成—教—這個目標。

## （六）孔子文言之技巧

孔子文言，既以教育為其基準，又以能達為其要求，因材施教，相機指點，

23) 見郭紹虞著《中國文學批評史》序 p. 13.

是以孔子的文言，可謂經緯萬端，莫有定式。而教育之中，雖有「身教」、「言教」之別，然「言教」實為教之大宗，因為身教能呈現真實已知的現象，但對於一些學者所未知，而又抽象的理念，實在得透過言教才能加以指點；如果孔子只是身教，就像禪宗的無門關一樣，那相信真正能「達」的人，一定是所謂「上智」而寥寥無幾了。但孔子所教，所對，有「中人以上」，亦有「中人以下」，所以對文言的技巧運用很多，而這些技巧的運用，一方面顯示了孔子文言技巧的高度表現，另一方面也立下了言教的各種模範，作為後世為人師者的效法對象。下面就《論語》中孔子文言的技巧，加以分析歸納，並舉例說明。

1. 自陳法；孔子道大德宏，曾子曾經說；「仰之彌高，鑽之彌堅。」如果孔子一味自唱高調，則弟子會有可能望之不可及而萌生氣餒之意，所以孔子常常作自我表白，使弟子們感覺一份親切感，從而有探求道理的勇氣。程子曾經說「孔子教人常俯就，不俯就則門人不親。」正是這個意思。同時，自陳也可以建立一個可以效法的模式，給予弟子有可遵行的途徑。

子曰：「吾十有五而志於學，三十而立，四十而不惑，五十而知天命，六十而耳順，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為政》）

子曰：「德之不修，學之不講，聞義不能徙，不善不能改，是吾憂也。」（《述而》）

子曰：「十室之邑，必有忠信如丘者焉，不如丘之好學也。」（《公冶長》）

子曰：「若聖與人，則吾豈敢，抑為之不厭，誨人不倦，則可謂之爾已矣。」公西華曰：「正唯弟子不能學也。」（《述而》）

觀乎公西華的話，就可知道這自陳法的用處了。

2. 比喻法；這一方法，在文學上是運用得最多，最普遍的。《詩經》六義中有「比」，就可以證明。有很多事物，有時候是很難說明的，很難描述的，就只好找一個和這事物相類而容易理解的事物來加以說明。《文心雕龍·比興篇》云：「且何謂比？蓋寫物以附意，顯言以切事也。」而「比」中又有「比義」和「比類」，「比義」是「或擬於心，或譬於事」，而「比類」是「或擬於聲，或方於貌」，前者是理，後者是形。

子曰：「為政以德，譬如北辰，居其所而衆星拱之。」（《為政》）

子曰：「已矣乎！吾未見好德如好色者也。」（《衛靈》）

子曰：「譬如為山，未成一簣，止，吾止也；譬如平地，雖覆一簣，進，吾往也。」（《子罕》）

子曰：「色厲而內荏，譬諸小人，其猶穿窬之盜也與！」（《陽貨》）

這幾個例子，「為政以德」章近於「比類」，其他都屬於「比義」的，《文心雕龍》的

「比義」還分兩類，一是比理，一是比心，「譬如爲山」章近乎比心，「色蘄內荏」章近於比理。在比喻中，多用相同類的事物來相比，但也有用相異的事物來比的，《論語》中亦有；

吾豈匏瓜也哉！焉能繫而不食。（《陽貨》）

這將「吾」與「匏瓜」之不同相比，謂之異類比。

3. 暗喻法。比喻法通常都是把「能比」與「所比」的兩件事都說出來，很明顯可以看到的；但也有不如此明顯的，就是把「所比」的一部份省畧，如果不是當事人，或直說活的對象，可能並不了解。《論語》中有幾處這種例子，但它是暗喻則可確定的。

子謂仲弓曰：「犁牛之子，騂且角，雖欲勿用，山川其舍諸？」（《雍也》）

子曰：「苗而不秀者有矣夫，秀而不實者，有矣夫！」（《子罕》）

子曰：「歲寒，然後知松柏之後彫也。」（《子罕》）

子曰：「觚不觚，觚哉！觚哉！」（《雍也》）

子曰：「駿不稱其力，稱其德也。」（《憲問》）

「犁牛之子」章，如果不是記者說是爲仲而弓言的，我們真的就不知孔子爲何而說了；至於「苗而不秀」章，「歲寒」章，至今之注家還各憑自己的體驗來解釋，如司馬遷在《史記伯夷列傳》中說：「歲寒然後之松柏之後彫也，舉世混濁，清士乃見。」朱注引范氏曰：「小人之在治世，或與君子無異，惟臨利害，遇事變，然後君子之所守可見也。」我以爲他們的了解是對的。暗喻雖然把「所喻」省畧了，但還是有其固定的「所喻」對象的。《文心雕龍》〈比興篇〉云：「比顯而興隱。」又云：「觀夫興之託諭，婉而成章，稱名也小，取類也大……明而未融，故發注而後見。」其實文心所謂的「興」，就是「暗喻」。

4. 對比法。對比顧名思義，就是把兩個相對的事物並列，相互比較，從比較中，看出二者的差異，也就是說者的用心。這跟比喻有不同，就在比喻的目的較明顯而固定，而對比則是較不固定，可以讓聽者作自由意志的思考。而對比法中，又可分若干類；

甲·正對比法。把兩件地位相當的事並列比較，給予聽者有一個很明晰的印象，從而有自由意志的選擇或判斷。

子曰：「君子懷德，小人懷土；君子懷刑，小人惠」懷。」（《呈仁》）

子曰：「晉文公諷而不正，齊桓公正而不諷。」（《憲問》）

「齊景公有馬千駟，死之日，民無德而稱焉。伯夷叔齊餓於首陽之下，民到于今稱之，其斯之謂與！」（《季氏》）

子曰：「唯上知與下愚，不移。」（《陽貨》）

子曰：「古者民有三疾，今也或是之亡也。古之狂也肆，今狂也蕩；古之矜也廉，今之矜也忿戾；古之愚也直，今之愚也詐而已矣。」（《陽貨》）  
這些章節中有君子小人之比，有上下之比，有古今之比，有賢不肖之比，但兩者都是對等的。

乙·反對比法。兩個地位相等而相反的事物作對比也。

子曰：三軍可奪帥也，匹夫不可奪志也。（《子罕》）

葉公語孔子曰：「吾黨有直躬者，其父攘羊而子證之。」孔子曰：「吾黨之直者異於是：父為子隱，子為父隱，直在其中矣。」（《子路》）

子曰：「何也，其庶乎，屢空；賜不受命，而貨殖焉，億則屢中。」（《先進》）

反對比法在應對中亦有其作用，如孔子把「吾黨之直」和葉公所說的一比，就顯見孰優孰劣了。

丙·比土法。將一件事和更高一層的事物一比，可明顯地看出其缺失與不足，這個方法有壓抑的作用。

子路問君子。子曰：「修己以敬。」曰：「如斯而已乎？」曰：「修己以安百姓。修己以安百姓，堯舜其猶病諸。」（《憲問》）

子路性奢進取，過於好高騖遠，所以夫子以堯舜來比，把他的奢心抑制。

子貢方人。子曰：「賜也賢乎哉，夫我則不暇。」（《憲問》）

子貢務外，不求修己，似是已經修德有成，自滿自足，而作老師的還「不暇」如此，以之相比，則見子貢實在是不足的。

丁·比下法。把事物和較下的事物相比，可以刺激別人上進之心，或者在無可奈何的情況之下，可以作選取的標準。

子曰：「飽食終日，無所用心，難矣哉！不有博奕者乎？為之猶賢乎已。」（《陽貨》）

以博奕者和無所用心者比，則博奕者猶有賢能之處，這可使無所用心者知其可為而稍加用心。

5. 設喻法；有時候。要比喻的理，在現實世間上可能沒有辦法找到適切的例子，那就只有自己設計一個事情或狀況來加以說明了。

子曰：「如有周公子女美，使鬻且吝，其餘不足觀也矣。」（《泰伯》）

子路問成人。子曰：「若臧武仲之知，公綽之不欲，卞莊子之勇，冉求之藝，文之以禮樂，亦可以為成人矣。」（《憲問》）

這種技巧，多有「假如」「若果」詞語。

6. 興起法；對事物作一表面的說明，使聽者能被吸引而加以深思，這和「暗喻」最大的不同在於聽者可以有最大的自由意志來思考，而說者並沒有加以特



別的引導和限制。就是促使聽者的聯想思維。

子在川上曰：「逝者如斯夫，不金晝夜。」（《子罕》）

此章當然是孔子看到水而有所感觸，所說的話，但是聽者則可透過這一個提示，作多方聯想；如想到時間匆匆，想到「自強不息」，想到「一江春水向東流」想到「往事如煙水」，這就是所謂最大的自由意志聯想，因為孔子的活「其辭近其指遠，辭有盡而指無窮」。《論語》中還有一種情況是孔子先說出一件事，提與了弟子的問題，而孔子借此一問而有所闡述；

子曰：「子欲無言。」子貢曰：「子如不言，則小子何述焉？」子曰：「天何言哉？四時行焉，百物生焉。天何言哉！」（《陽貨》）

子曰：「莫我知也夫。」子貢曰：「何為其莫知子也？」子曰：「不怨天，不尤人，下學而上達，知我者其天乎？」（《憲問》）

孔子之言，並不一定要引出問題的，但既然有發問，也就表示這一興起的前題，有了反應，有了功效。《禮記學記》云：「開而弗達，則思。」此之謂也。

7. 開導法；說者說出一件事情，有目的地希望聽者朝一個方向，加以思考企圖得到答案，或者是當聽者沒有辦法得到答案時，說者再加以說明，如聽者有答案，說者可加評斷是非得失。在《論語》中，孔子總是先把事情的結論說出，然後再補充說明理由，其目的也是希望學生能先思考一番，藉以加強教學效果；雖然這在《論語》中是看不出時間分隔，但是這是可以推想得到的。

子曰：「參乎，吾道一以貫之。」曾子曰：「唯。」子出，門人問曰：「何謂也？」曾子曰：「夫子之道，忠恕而已矣。」（《里仁》）

子曰：「雍也，可使南面。」仲方問子桑伯子。子曰：「可也簡。」仲方曰：「居敬而行簡，以臨其民，不亦可乎！居簡而行簡，無乃大簡乎？」子曰：「雍之言然。」（《雍也》）

這兩章聽者都有答案，曾子的「忠恕一貫」，夫子沒有評論，因為夫子既知之矣；而仲方的答案，夫子是之。

司馬牛問仁。子曰：「仁者其言也訥。」曰：「其言也訥，斯謂之仁矣乎？」子曰：「為之難，言之得無訥乎？」（《顏淵》）

司馬牛問君子。子曰：「君子不憂不懼。」曰：「不憂不懼，斯之謂君子矣乎？」子曰：「內省不疚，夫何憂何懼？」（《顏淵》）

樊遲問仁。子曰：「愛人。」問知。子曰：「知人。」樊遲未達。子曰：「舉直錯諸枉，能使枉者直。」（《顏淵》）

這幾章弟子沒有結論，但是弟子一定曾經用心思於其間，所以才有問。題開導法和興起法的不同，在於開導法有思考方向導引，而興起法則沒有。

8. 重點法；有一些事情，包圍的範圍很廣，看起來茫無頭緒，教者就可以提出一個可以貫通窺窺全體的觀念，使學者能有重點掌握，就不致於心中邊邊不知何所之了。《論語》之中這種例子不多，但卻很重要；

子曰：「詩三百，一言以蔽之，曰思無邪。」（《為政》）

子曰：「賜也，女以予為多學而識之者與？」對曰：「然。非與？」曰：「非也。予一以貫之。」（《衛靈公》）

《詩三百》就有三百個主題，學者如果一一分離地了解，所得到的都是瑣碎的感受，如果教者不提示重點，是很難窺窺全局的；孔子之學，變化無端，不能一貫，又怎麼能有案背的了解呢！

9. 點破法；世上的事，往往有不止一層的面目，而人們常常只看表面，沒有辦法深求深層的內容，易為其表面的形象所蒙蔽，不過表面的層次，也必然有破解的關鍵，只是一般人較難做到。但在辯論，教學中，這卻是極犀利的工具。這和重點法不同的是一在破，一在立。

唐棣之花，偏其反而：豈不爾思，室是遠而。子曰：「未之思也，夫何遠之有。」（《子罕》）

子欲居九夷。或曰：「陋，如之何？」子曰：「君子居之，何陋之有。」（《子罕》）

子曰：「吾未見剛者。」或對曰：「申板。」子曰：「根也愆，焉得剛。」（《公冶長》）

只要把表面的阻礙破開一道裂口，讓他人直攻進去，則可勢如破竹了。

10. 喝破法；禪宗裡有「當頭棒喝」的故事，也就是在當事時直接用極強烈的氣勢，來徹底摧毀對方思想上的固執，如果氣勢不強，就不能徹底而有效。這和點破有兩個不同的地方，一是當事之時用，一是氣勢強烈，點破法可以在事後，而氣氛較緩和。

冉求曰：「非不說子之道，力不足也。」子曰：「力不足者，中道而廢，今女畫。」（《雍也》）

王孫賈問曰：「與其媚於奧，寧媚於竈，何謂也？」子曰：「不然，獲罪於天無所禱也。」（《八佾》）

這一種方法的運用，特別是在當對手的言論有他本身似是而非，或世俗公認的理論作背景時，亦即是如荀子所說「其持之有故，言之成理」時，更是非用這一方法不可，要不然是無法壓服和破解對方的。

11. 否定法；否定法與點破，喝破法是相當相似的，但是有一點是絕對不同的，就是點破，喝破的重點是針對所辯論的事情上，而否定法則在於使對方脫離該「事情」（如思想上的固執），使之轉移方向，擴展成一開放的範疇；舉個例子說明，就如集合中，A集合是該「事情」，點破，喝破都以A集合為唯一論

點，沒有延展性，而否定法雖以A集合為出發點，但A集合只是一定位對比點，而重點卻在「-A」集合之上，而「-A」集雖未指明是甚麼內容，也就是說雖沒有建立的作用，然而它能幫助排除A集合的限制，在思維路綫上得到解放，或可從而作更大的超越；這一種思想上的解放，可以認為是否定法的最大特徵和作用。在《論語》記載中，孔子也常用這一方法來作思想上的指引。

子曰：「衣敝褐袍，與衣狐貉者立，而不恥者，其由也與！不教不求，何用不臧。」子路終身誦之。子曰：「是道也，何足以臧。」（《子罕》25）

季路問事鬼神。子曰：「未能事人，焉能事鬼。」敢「問死？」曰：「未知生，焉知死。」（《先進》11）

這兩個例子，前者是爲了消除子路對現有成就的固執，進而希望他能更高的境界邁進，而如何邁進？進至那裡？並未有說明；後一例剛好相反是消除季路過份好高騖遠的念頭，而回歸到自己能力的份位之內，不過這一則也同時有作回歸的指引，就是「事人」「知生」，這是和前例差異的地方。如果從另外一個角度來分別點破，喝破與否定的不同，就是點破，喝破的回應是「不對」，而否定法的回應是「不够」「還有」。

12. 戲言法；這一方法是先提出一個錯的前題，使學生去指出錯誤的地方；這方法有兩個好處；第一足能够試探出學生學習信念的堅定程度，第二是具有幽默性；印象深刻。不過用這方法時，最好能預估學生的能力，不然，如果程度差距太大，弄假成真，以非爲是，就會弄巧反拙。《論語》中有用這種技巧。

子之武城，聞弦歌之聲，夫子莞爾而笑曰：「割雞焉用牛刀。」子游對曰：「昔者偃也聞諸夫子曰，君子學道則愛人，小人學道則易使也。」子曰：「二三子，偃之言是也，前言戲之耳。」（《陽貨》4）

孔子在事後指出所言爲戲言，就是反面肯定了子游的話的真實，如是經過這一反一正一合的辯證過程，學生的信念必然更堅定，而且子游的能力也正好能指出錯誤之處；我以為受益的一定不止子游一人。

13. 反言法；所謂反語，包含兩種精形，一是正言若反，二是反言若正。

子曰：「回也，非助我者也，於吾言無所不說。」（《先進》）

這是正言若反的例子，表面上說「非助我者」，似是說他的缺點，但補上一句「於吾言無所不說」，正點明其「缺點」正足優點，這一優點就是「受教」，雖然似不如子夏言「繪事後素」那麼有啓發，有衝激，然而這一種默識心通，正是授受之間的一種無形默契；《論語》又曰：「吾與回言終日，不違如愚，退而省其私亦足以發」，正可說明這一章的正面意義。

子曰：「道不行，乘桴浮於海，從我者其由與！」子路聞之喜。子曰：「由也好勇過我，無所取材。」（〈公治長〉7）

這一章是反言若正的例，表面上是嘉許子路的勇氣，所以子路也以爲得到賞識而喜在心頭，但是如果深思一下，這一種不經選擇，考慮的血氣之勇，實際上乃是一種缺失。

14. 正名法；語言的運用，往往能影響思維路線；能精準地使用語言文字，有助於思考的周密性，而語文的混含不精，除了使思想方向混淆之外，還會大大削減了語文溝通的功能，這不論在那一種層面的，那一種職業的人的腦子裡都是一樣。「正名」一詞，最基本的概念就是「名」與「實」的配合；在人類語言文字的運用中，給一件事實冠上一個名稱，只有一個，這是最基本的原則，而這一對一的配合，往往有其普遍價值定義和歷史背景，以不變爲原則，但人會變，社會會變，價值觀也會變，所以我們現在所運用的語文，常常有不是一對一的現象，也有本不對應的而變成配對，這往往是由於思想上的價值判斷混淆而導致的，而這一錯誤的配對型式，又會影響其他人的思想混淆，終而落入一個混淆的循環圈，而無論這一混淆以那一環節爲起點，都是一個嚴重的思維障礙；所以，在一切語文運用之前，最好能作這一基礎性的澄清「正名」，如果從文藝的的角度來看，十分近似修辭學上的鍊字，不過這一種嚴格的名與實配對的要求，在思想上的功能可能更大，且更可以因之

而推，行於政治社會結構上。《論語子路篇》曰：「名不正則言不順，言不順則事不成，事不成則禮樂不興，禮樂不興則刑罰不中，刑罰不中則民無所措手足」可見正名的重要性了。孔子在《論語》中就曾經有如下的使用例子；

冉子退朝。子曰：「何晏也？」對曰：「有政。」子曰：「其事也。如有政，雖不吾以，吾其與聞之。」（〈子路〉14）

這一「政」，原指是指國家的行事措施，在正常的情況之下，它的運作權力，應該是在國君之手的，而當時魯國政事措施的運作權力，卻落入季氏的手裡，這由大夫手中所施行的雖然和魯君施行的可以完全一樣，但這到底是不應該有的所以如果似以「政」一詞來命稱，似乎就等於是對「大夫執國政」這件事加以首肯認可，所以孔子以他思維的精密，以準確的語文來指出這「政」與「事」的差異，從而修正冉子因思想上的混含而引致的錯誤。

子張問士何如斯可謂之達矣。子曰：「何哉，爾所謂達者？」子張對曰：「在邦必聞，在家必聞。」子曰：「是聞也，非達也：夫達也者，質直而好義，察言而觀色，慮以下人，在邦必達，在家必達；夫聞也者，色取仁而

行遠，居之不疑，在邦必聞，在家必聞。」(《顏淵》19)

這一章，孔子先了解子張對「達」這個「名」的內涵實質，從而指出子張所說的實質，應用更精準的「名」一聞一來作命稱；也就是說子張犯了以A名來命B' 實的錯誤，兩孔子則分別以B命B' 以A' 配A，經過這一「正名」的歷程，相信誰也能明白「聞」與「達」的差別了。

15. 借題法；順着對方的題來加以發揮，也就是所謂借題發揮了。借題發揮的作用可以引導思路和反諷，其共同點在「題」都是在眼前的，而根據這個「題」作不同的發揮，就會形成正面—導引—和反面—反諷—的不同功能。正面的，我舉下面的一章為例子；

子張學干祿。子曰：「多聞闕疑，慎言其餘則寡尤；多見闕殆，慎行其餘則寡悔；言寡尤，行寡悔，祿在其中矣。」(《為政》18)

孔子順着子張求祿的主題，把內容來發揮轉換，使子張的干祿精神，也得到一個境界的提升。至於反諷的例子；

季康子問政於孔子。孔子對曰：「政者正也，子帥以正，孰敢不正。」(《顏淵》16)

16. 引重法；這一方法就是引用前人的話，作為自己論點的依據；其中有引言和引書兩種。

或謂孔子曰：「子奚不為政？」子曰：「書云：孝乎惟孝友，于兄弟，施之有故，是亦為政，奚其為為政。」(《為政》)

子曰：「南人有言曰：人而不恆，不可以作巫醫。善夫，不恆其德，或承之羞。」子曰：「不占而已矣。」(《子路》)

這兩章，前者是引尚書的文句，後者是引南人的語話，但是作用足相同的。

17. 遞進法；孔子教人，當然並不希望學生只固定留在一個階段，所以孔子之言，常有其延展遞進性，就是希望學生把眼光放高放遠。

子貢曰：「貧而無詔，富而無驕，何如？」子曰：「可也，未若貧而樂，富而好禮者也。」(《學而》15)

子曰：「聽訟，吾猶人也；必也使無訟乎！」(《顏淵》)

子曰：「知及之，仁能守之，雖得之，必失之；知及之，仁能守之，不莊以涖之，則民不敬；知及之，仁能守之，莊以涖之，動之以禮，未善也。」(《衛靈》)

18. 提問法；上面的十七種技巧，都是較被動的應對，而孔子之言，並不是全部都被動的，提問法就是主動的一種技巧，除了主動之外，標立主題也是這一方法的重要優點，這對以後的言談內容，具有引導性。

子謂子貢曰：「女與回也，孰愈？」對曰：「賜也何敢望回，回也聞一以知十，賜也聞一以知二。」子曰：「弗如也，吾與女，弗如也。」（《公治長》）  
子曰：「賜也，女以予爲多學而識之者與？」對曰：「然，非與？」曰：「非也，予一以貫之。」（《衛靈》）

這兩章中，前者主動地提醒子貢自省，後者則引導性地告訴子貢自己思想中的一貫性，這就是提問的功能。

19. 反問法；反問與提問的不同，在反問在對談的中間，爭取主動，而提問多在開始之時。反問的功能，其實和肯定的句法相同，而是把肯定加以變形，使之失去了肯定的主觀色彩，顯得比較客觀，較容易被接受；但雖然它是問的形式，但是有預設性，使對答者不得不點頭，這比純粹的肯定句式，更有實際功效。

子夏問孝。子曰：「色難。有事弟子服其勞，有酒食，先生饌，曾是以爲孝乎？」（《爲政》8）

司馬牛問仁。子曰：「仁者其言也訥。」曰：「其言也訥，斯謂之仁矣乎？」

子曰：「爲之難，言之得無訥乎？」（《顏淵》3）

子夏問孝，孔子先作一簡要的答案，然後再反問一句，相信只要懂得這一句反問的人，必然不能不說「不是」的。再看司馬牛，他覺得孔子的答案很奇怪，「其言也訥」，怎麼說是仁呢？於是再問，孔子於是點出司馬牛的缺點而反問一句，我相信司馬牛啞口無言，但心中有數了。

20. 設問法；這一方法是問題的內容是假設的，並非真的有這事情。在《論語》的記錄中，這種用法可以說極少，因為這種技巧的辯論性很強，以孔子的時代和孔子的心性修養，是不必要常用到這種方法的，倒是孔子一位善言語的學生宰子用了一次<sup>24)</sup>，到了孟子和別人辯論，這種技巧就常常被用到。《論語》中，這種方法記載爲孔子之言的，只有一處，就是《季氏》首章中「虎兇出於柙，龜玉毀於楨中，是誰之過與」一句，這一章前人多言爲非孔子之言，乃後人所作，不過，既然論語有載，姑且就備一格，作爲參考。甚至我們可以反過來說「因爲這種技巧不可能爲孔子所用的」，從而說此章是後人所作的，這也是另一種思路。

上述二十種技巧，只是粗畧地作一歸納，並不能說技巧就是這麼多，其實其他還有如語氣上的運用，也是一項重要的技巧，但文字的傳真度對這一項不能

24) 見《論語》《雍也》篇宰我問曰：「仁者雖告之曰：非有仁焉。其從之也？」此即是設問之辭。

給予很充裕的條件，所以這一點就常常有見人見智的想法，而宋儒在這一點上，卻有相當的成績，所謂「聖賢氣象」是也。

### (七) 結 語

經過前六章的分析，我們可以對《論語》中孔子的「文言」，有了一個大體的印象。其中第六章表面上雖然只是對於孔子「文言」技巧的一種分析性歸納，而實際上也可以作為第五章孔子不純尚「質」的證據；而第五章中，我們可以知道孔子也不純尚「文」，從而標示了孔子「文言」的最高理想——「文質彬彬」；第四章是對孔子文言的一個綜合性觀察，和宋儒們常常做的體會「聖賢氣象」相似，這和第六章可以並觀，一個抽象，一個實體；一個分析性，一個綜合性，一個指氣韻一個為方法；而第三章的基準問題，更是第四至第六章的關鍵，如果不透過這一個基準來審理《論語》，可以說整本《論語》和對孔子思想，行為的了解都會變型，變質；而第二章是考據性地作資料審選，這無疑也是論文的立足點。

《論語》這一本書，在中國文化的地位上，實在是無與倫比的，無論在思想上，政治上，社會上，文學上，都是如此；而拙文僅只從文學性觀點作一番粗畧的了解，還有很多地方，都需要更多的人，更多的時間，更多的精力投注發掘；光就文學性觀點而言，也還有很多有待補充；舉個例子說，孔子對文言技巧學習的理論如何呢？雖然孔子只是說了一句「不學《詩》，無以言」的話，而實際要做的，卻是要將《詩經》的文學技巧加以歸納，再和《論語》的文言技巧作一對比，然後方才可以說明清楚，這實在是一項大工程，所以有待來日了。

本文只是獻曝之作，但仍希望博雅鴻識長者，不吝賜教為幸。

中華民國七十四年九月廿九日修正稿

### 參 考 書 目

- |              |               |            |    |
|--------------|---------------|------------|----|
| 1. 《中國文學批評史》 | 郭紹虞著          | 盤庚出版社      | 서울 |
| 2. 《文心雕龍譯注》  | 劉勰著<br>王久烈等譯注 | 弘道文化事業有限公司 | 臺北 |
| 3. 《四書集注》    | 朱熹注           | 廣東出版社      | 臺北 |
| 4. 《莊子讀本》    | 莊周著           | 三民書局       | 臺北 |
| 5. 《孔子學說》    | 陳大齊著          | 正中書局       | 臺北 |

- |              |       |          |    |
|--------------|-------|----------|----|
| 6. 《先秦諸子繫年》  | 錢穆著   |          | 臺北 |
| 7. 《先秦典籍引書考》 | 許師欽輝  | 自印本      | 臺北 |
| 8. 《論語注疏》    | 邢昺疏   | 藝文印書館    | 臺北 |
| 9. 《中國思想之研究》 | 宇野精一編 | 幼獅文化事業公司 | 臺北 |



# 前期魯迅의 인식범주 비판

金 龍 雲\*

<목 차>	
1. 논술의 목적과 범주	2) 사회학적 다위니즘
2. 전기노신의 객체적 조건	3) 도덕적 니체니즘
3. 전기노신의 인식 범주	4) 史的 개인주의
1) 리비도적 과학주의	4. 결 론

## 1. 논술의 목적과 범주

인간을 객체적 조건과 주체적 근거가 구성하는 모순의 논리적 통일체로서 정의할 때 사회적 개별체로서의 한 인간에 대한 인식과 평가의 논리적 개연성은 개인과 해당 사회관계가 구성하는 개별체적·실존적 자기상황과 사회적·역사적 자기상황의 究明 및 그 상호의존적 轉化過程에 대한 조감의 총화으로써 객관적 실현의 기초를 확보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기의적 존재와의 상호전화를 통하여 생활관계를 실현해야만 하는 인간의 類的 속성은 세계에 대한 자기인식과 그에 대한 내적 반영 그리고 반영의 결과인 가치인식의 역사적·사회적 실현이라는 동시적·통시적 범주으로써 규정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논리의 외연적 적용에 입각해 볼 때 대만측의 정치적 논리 흑백주의로 인한 의도적인 의면과 터부지는 차치하더라도 1940년대로부터 80년대에 이르는 대륙의 노신연구도 전술한 논리적 전제의 객관적 기초위에서 진행되어온 것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1937년 제 2차 국공합작 이후 모택동의 抗日軍政大學에서 교양된 「노신정신」과 문화대혁명시기의 급진파파에 의한 노신의 평가절하, 그리고 문혁이후 최근의 객관주의가 노정하고 있는 노신의 평가절상등 지금까지의 노신연구는 목적별 논리절정

\* 동아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전임강사

주의 경향의 지배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고는 목적주의에 입각된 노신연구의 경향성을 지양하고 객관성에 입각된 노신연구의 기초를 확보한다는 시도아래 잡다한 경향의 미분화적 상태를 빚고 있는—세계·주체·인식·실천의 변증법적 자기통일 이전의—전기노신의 주체적 근거—그의 내적 모순—를 그 객체적 조건과의 관계에서 유형별로 재구성함으로써 1926년 이전의 노신이 노정한 가치·인식·실천상의 한계와 이후 전화의 내적 근거를 추론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의 국내 노신연구가 당면해야 하는 자료수집상의 어려움과 논리전개상의 한계로 인하여 본고의 구성과 전개가 전후기노신을 망라한 실증주의적 객관주의의 추구라기 보다는 전기노신에 국한된 논리적 객관주의의 확보에 근거해 할 수밖에 없었음을 먼저 변명해 두는 바이다.

## 2. 전기노신의 객체적 조건

양무운동·변법유신·신해혁명·5·4운동·국공합작·5·30사태등으로 집약되어지는 중국근대의 變的 격변기는 경제사회적 전락과 고전학습, 신학문습득과 일본유학, 그리고 귀국이후의 신해혁명과 반혁명·5·4 운동과 그 퇴조·북경여사대사건과 3·18사건등을 목도·체휨한 전기노신의 파란만장한 객체적 상황이었다. 전기 노신인식의 상호의존적 자기전화의 객체적 요인으로서 작용하였을 당시의 變的 현실을 프롤레타리아의 대두에 따른 사회의 내적분화와 그에 따른 양극화라는 측면에서 개략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 2.1. 제국주의와 중국침략

아편전쟁으로 인한 봉건중국의 자본주의 열강에 대한 군사적 약세의 노정은 강제적 수단을 동원한 열강의 중국강점과 특권탈취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점진적인 열강의 중국지배를 초래하게 되었다. 자국상품의 대중국수출에 의하여 주도되었다고 인식되는 1870년대까지의 열강의 중국지배는 그 당연한 귀결로써 전근대적 중국내 경제기초의 동요와 그로 인한 자급자족적 농·수공업경제의 파괴 및 봉건적 경제관계가 결과한 자본주의적 요소의 점진적 성장이라는 내적분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상

과 같은 내적분화를 통하여 실천된 중국부르조아지의 대두는 결코 사회의 내적분화와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제층구조 구성에 있어서의 주도적·발전적 역할수행이 가능한 수준의 성숙으로 외연되어질 수는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열강의 국내매판세력에 의한 기존봉건세력의 고의적 존속과 철저한 시장지배로 인하여 반봉건·반식민지적 상태로 진입하게 된 중국의 현실이 중국부르조아지로 하여금 국내적 봉건정치세력과 국외적 경제군사세력이 구성하는 이중적 압박하의 점진적 붕괴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1870년을 기점으로 자본주의 열강의 제국주의에로의 이행이 완료되자 전술한 중국의 반봉건·반식민지적 현실은 보다 깊은 史的 질곡과 사회내적 모순을 강요당하게 되었다.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침략형태가 상품수출로부터 자본수출의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열강에 의한 금융·생산재산업 분야의 독점과 전횡이 현실화하게 된 때문이었다. 결국 자본수출이 수반하는 이윤분할에 유관한 열강간의 합의에 따라 중국은 열강별 수개 세력 범주로 획분되었으며 경제의 거시적 명맥을 장악한 제국주의의 중국부르조아지에 대한 압도·종속의 실행이 강행되었다. 인구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내적 하부구조의 경제적 빈곤과 인간적 소외가 미증유의 것이었음은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열강의 제국주의적 전변과 그 중국내적 실현은 동시에 중국의 내적분화와 양극화의 원인이기도 했다.

## 2.2. 양무운동과 변법유신

제국주의의 군사력으로부터 봉건왕조의 유지·존속에 필요한 효과적인 민중제어수단을 발견하게 된 군벌·매관·관료결탁적 양무파는 외자의 독점에 의한 군수산업의 유치와 광공업·철도산업 위주의 일부 생산재산업의 착수로써 적대적 모순을 구성하는 민족부르조아지의 부분적 구제와 비정상적 프롤레타리아계층의 사회내적 출현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국강병을 주장하는 양무파의 자기실현은 외자의 독점과 외채부담의 타계층전가·군사적 대의 기회주의와 대내적 전횡등 하부계층 수탈에 의한 자기계층의 유지·존속만을 도모함으로써 광범위한 내적반발을 구성한데다 청일전쟁의 패배로 인한 정치사회적 퇴조를 노정하게 되자 수구부르조아지의 개량주의적 변법유신에 의한 史的 轉化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양무파가 초래한 사회경제적 모순의 정치사상적 반영이었던 수구부르조아지의 변법유신은 과연 어떠한 자기실현과정을 겪어야만 했던 것일까? 청일전쟁의 패배로 인한 양무파의 전반적인 퇴조에도 불구하고 관료·지주·富商계층을 기축으로 하는 중국부르조아지의 앞날은 결코 순탄한 것이 아니었다. 1898년 무술변법이 제국주의와 관료부르조아지에 대한 수구부르조아지의 역부족으로 그 실패를 고하게 되자, 1900년 북경에 진입한 제국주의 8강연합은 익년 신축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중국하부구조의 빈곤과 피탈을 가일층 심화시켰다. 막대한 양에 달하는 중국의 대열강 전비배상은 갖가지 형식으로 국내의 하부구조에 그 책임이 전가되었으며 국민은 제국주의에 대한 민중진압의 채무를 지게된 상부구조의 물리적 진압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 2.3. 신해혁명과 반혁명

양무·변법운동을 통한 중국봉건사회의 급격한 붕괴는 이에 상응하는 제층구조상의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관료부르조아지·수구부르조아지·민족부르조아지·인텔리겐차·프롤레타리아등 새로운 계층의 사회내적 출현과 정착을 실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에 의한 專制의 대체를 주장하는 민족부르조아지의 세계관과 반역사적·복고적 혁명의 반대를 표방하는 인텔리겐차 계층의 경향성은 민족·민권·민생등 삼민주의를 기축으로 중국내 하부구조의 자생적 생존투쟁을 총괄함으로써 신해혁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민족부르조아지에 의하여 주도된 신해혁명은 중국프롤레타리아의 미성숙과 혁명주도세력의 역부족으로 말미암은 제국주의 봉건세력의 타도불능으로 인하여 그 혁명적 실천의 퇴조를 보이게 되었다. 입헌군주파의 정치적 투기가 혁명내 권력절취를 실현하게 되자 구군벌·구관료계층에 의한 대권장악과 민족부르조아지 진보적 지식인계층의 축출로 그 현실적 귀결의 일단을 고하게 되었던 것이다. 1913년 혁신후르조아지에 의한 제 2차혁명의 계기가 실패로 돌아가자 정국은 帝制의 복귀, 군벌의 활거등 극단적인 퇴행을 보이게 되었다. 정권은 봉건군벌·관료정객들에 의하여 장악되었으며 새로운 대리인을 확보하게 된 제국주의의 민중수탈은 반봉건·반식민지적 상태의 중국을 더욱 심각한 역사적 질곡과 경제사회적 모순속으로 몰아갔던 것이다.

## 2.4. 54운동과 그 퇴조

세기말의 본원적 축적을 내적근거로하는 민족부르조아지의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제국주의 퇴조에 편승된 민족공업분야의 발전은 바로 중국부르조아지의 강화과정이었음과 동시에 프롤레타리아의 사회적 등장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국주의 및 관료·수구부르조아지의 중국내 직접경영에 의하여 발아·실현된 프롤레타리아의 사회내적 등장은 중국내 사회구조의 본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프롤레타리아적 성격의 최초적 가세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5.4운동이었다.

5.4운동으로 인한 중국프롤레타리아의 사회적 출현은 프롤레타리아를 기축으로하는 5.4계급세력의 질적분화를 재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프롤레타리아·민족부르조아지진영과 제국주의·봉건진영으로 분화해 가게된 민족부르조아지 및 신흥부르조아지 지식인 계층은 분화의 양극화로 인한 상호갈등의 제양상을 연출해 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국주의·봉건세력 주도하의 중국적 현실은 분화의 소수적 프롤레타리아·민족부르조아지 가담과 다수적 상대진영 가담을 결과시킴으로써 운동의 퇴조적 경향을 노정하게 되었다. 혁명에 대한 봉건군벌의 탄압과 진보세력의 문화활동에 대한 사찰과 감시가 강화되었으며 퇴행적 관료·수구부르조아지에 의한 국수적 북고주의가 강행되어졌다. 10월혁명의 승리와 그에 따른 초보적 마르크시즘의 중국내적 소개·프롤레타리아의 사회적 등장과 그에 따른 민족부르조아지의 정치세력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내적분화의 상호모순적 양극화는 제국주의·봉건정치세력을 상대할 만한 경제사회적 역량의 민족부르조아지·프롤레타리아측 이양을 실현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 2.5. 제1차 국공합작과 노동운동

이상과 같은 사회내적 계층분화의 결과로서 1920년대의 중국사회는 대자산·중산·소자산·반무산·무산계층등 5대계층에 의한 사회적 구성을 완료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계층분화의 양극화 현상으로서 大資產階層에 대한 중산계층 위주의 계층연합이 형성되었다. 중산계층을 半反革命으로 규정한 프롤레타리아의 입장과 오른손을 들어 프롤레타리아를 타도하라는 중산계층의 상호모순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매관·군벌·대지주계층의 압도적 군사·경제력에 의한 기타계층의 피탈과 피압은 적대적 모순의

보류를 통한 對大資產階層 계층연합의 구성을 서두르게 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계층분화와 그에 따른 양극화 현상의 직접적 동인이었던 5.4 시기 프롤레타리아의 20년대적 전변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 제국주의의 침략에 의한 중국의 반봉건·반식민지적 진화와 이에 따른 제국주의·국내매관세력의 철저한 착취·수탈에도 불구하고 5.4 시기를 전후한 계층으로서의 사회적 등장을 완결한 중국의 프롤레타리아계층은 1920년대의 총 135건, 참여노동자 40만, 사망 110여, 부상 240여를 기록한 노동운동을 통하여 독립된 정치세력으로서의 점진적 성숙을 실현해 가고 있었다. 왜냐하면 1922년 1월 홍콩 부두노동자 파업으로부터 동 5월 제1차전국노동자대회, 동 9월 安源탄광파업, 동 10월 開灤탄광파업, 1923년 京漢철로파업, 1924년 상해노동자 메이데이대행진, 1925년 5.30사태, 동 6월 홍콩노동자총파업, 동 6월 6.23사태등으로 이어지는 20년대의 노동운동은 제국주의 국내매관세력에 대한 투쟁의 유일무이한 구체적 실현이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중국프롤레타리아의 세력으로서의 독립과정을 공산당의 출현과 국민당의 국공합작으로서 개편된 광동의 정치세력이 수수방관할 리는 없는 일이었다. 노동운동에 대한 광동정부의 즉각적이고도 대규모적인 재정 및 이론진지원은 이에 상응하는 프롤레타리아의 광동정부내 세력구조화라는 상호침투적 상승현상을 결과하게 되었다. 독립된 정치세력을 구성한 프롤레타리아계층의 출현은 대중적 세력기반의 확보불능으로 인하여 정치적 무력감에 허덕이던 聯共합작하의 국민당을 중국근대사의 주도적 정치세력으로 부상시켰을 뿐 아니라 민족부르조아지·쁘띠부르조아지에 인각된 당내세력의 점진적인 분화·양극화를 조래하게 될 윤리적 결단을 촉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 3. 전기노신의 인식범주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객체적 조건—제국주의에 의한 중국의 반봉건·반식민지화 및 이에 상응하는 프롤레타리아계층의 대두와 사회내적작용—에 대한 노신의 객체인식과 그에 따른 자기결정의 성격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으며 결정의 주체적 근거를 구성하는 인식상의 범주는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

중국의 半封建·半植民地的 현실에 대한 전기노신의 자기결정은 무엇보다도 反封建·反帝國主義의 양대범주로서 파악되어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당시중국의 광면과제를 첫째 생존, 둘째 民生, 셋째 발전이라고 인식하고 「목적의 달성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은 제거되어야만 한다.」<sup>1)</sup>고 한 그는 당시의 현실을 「人肉파티를 위한 주방」과 「집승에 의한 중국침식」<sup>2)</sup>으로 규정함으로써 봉건세력과 제국주의에 대한 일관된 반대를 실천해 갔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와 종속봉건세력에 대한 근대사적 갈등의 최고형식이었던 5.30, 3.18사태에 대한 노신의 인식이 구조적 상부계층에 대한 분노와 경악의 극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었다.<sup>3)</sup>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반봉건·반제국주의적 자기결정의 논리적 근거가 되었을 전기인식상의 기본범주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전기노신의 생활관계에 입각된 자료의 정리로서 차기노신의 주체적 근거를 조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3.1. 리비도적 과학주의

봉건적 가족관계의 경제사회적 몰락과 이에 따른 향리내적 체험의 정체·퇴행으로 인하여 「내장까지도 원히 알 것 같은」 「S시물 떠나」 「종류가 다른 인간군」<sup>4)</sup>과의 접촉을 결행하게 된 노식은 鑛務鐵路學堂과 일본유학을 통하여 습득한 자연과학일반에 대한 번역·소개로써 1900년대의 대부분을 보내게 되었다. 그의 이상과 같은 자연과학에의 경향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한 복합적인 작용의 결과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제국주의의 중국침략과 봉건적 사회관계의 반봉건·반식민지적 상태로의 이행이 결과한 하부구조의 팽배된 史的 절망감으로 인하여 「미신의 광범위한 확산만이 국가적 위기의 구원책」<sup>5)</sup>이라는 논리가 출현할 정도로 범하부구조내적 붕괴미신경향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물론 노신의 소위 과학주의가 이상과 같은 史的 인식하에서 기초된 실천이론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미신적 경향의 반역사적 팽배라는 사회현실에 대한 그의 「중국적 위기의 구원은 미신에 의해서

1) <북경통신> 《노신전집》 제 3권, pp.40~41. (이하 《전집》)

2) <燈下漫筆> 《전집》 제 1권, p.315.

3) 同 2.

4) <늘함자서> 同 p.3.

5) 齊一 《魯迅思想探索》 p.63. 再引.

가 아니라 과학에 의해서 만이 실현되어질 수 있다.]<sup>6)</sup>는 주장이 그의 개인적 체험과 모순으로서의 현실인식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 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아무튼 과학일반에 대한 소개 자체가 정치사회적 색채를 지닌 행위일 수 밖에 없었던 당대적 현실에 입각해 볼 때 과학에 대한 노신의 다음과 같은 신념은 전기노신인식의 근간을 구성하는 논리적 기초였음과 동시에 그에 의한 반봉건투쟁의 직접적 실천형식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과학은 이치를 명백히 하고 사고를 명확히 하며 모호함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사상적 병리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과학이라는 기존의 치료제를 확보하고 싶을 뿐이다. 이 약에 의한 인간의 사상적 결함 및 인습적 병리의 치료를 통하여 중국적 혼란의 완벽한 치유를 희망하기 때문이다.<sup>7)</sup>

이상과 같은 과학주의의 논리기초적·반봉건투쟁적 경향의 상호침투적 일체화는 그 당연한 귀결로서 생활관계상의 실천주의적 경향을 초태하게 되었다. 노신이 언어형식의 연마를 위한 국학열독과 실천적 동기유발의 기초가 되는 양학열독을 言·行의 관점에서 비교하며 行을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노신적 경향의 반영일 것이다.

국학관계도서가 생활과의 유리를 요구함으로써 활기를 잃게 하는 반면 인도론 제외한 외국도서들은 생활과의 접목을 실현함으로써 종종 산력을 제공하곤 한다. 국학관계도서의 열독이 기껏해야 작문실력의 향상을 초래할 뿐임으로 나는 洋書의 열독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청년들에게 요긴한 것은 행동이지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sup>8)</sup>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인식상의 과학주의와 그 실천적 경향의 상호전화

6) <隨感錄 33> 《전집》 제 1 권, p.387.

7) 同 p.377.

8) <隨感錄 38> 同 pp.389~390.

9) <청년필독서> 《전집》 제 3 권, p.9.



가 결과한 전기과학주의의 세계에 대한 태도는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 전기노신의 기본범주를 구성하는 주요인식경향—과학주의·진화론·관념론·개인주의—의 개별체적 한계와 총화불능으로 인한 생산관계·사회관계, 제국주의·국내사회관계 및 상호함수관계의 현실적 전화등에 대한 총체적 필연으로서의 인식불능에도 불구하고 프롤레타리아의 사회적 등장과 정치적 독립에 따른 윤리적 결단의 연속속에서 존재해야만 했던 전기노신의 과학주의는 비록 그것이 추상적인 것이기는 해도 반봉건·반식민지적 사회관계가 구성하는 제모순에 대한 전체로서의 인식이라는 양질전화를 보이고 있다. 계층의 사회내적 분화와 그에 따른 계층갈등의 사회내적 집적으로 인하여 구조적인 모순이 사회악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자 존재와 세계를 객주대립의 적대적 관계로서 규정하고 발전적·합리적 존재실현상의 주요모순이 세계에 근거하기 때문에 세계의 개혁이 주요모순의 해결방법이라고 인식하게된 노신의 前述 轉化는 그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그 분명한 모습을 조감해 볼 수 있다.

사회에 대한 순응을 불가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은 아니다. 불건전한 사회가 생산하는 무수한 사회악에의 전반적 동조로써는 생활의 합리화와 그 전화에 역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직 사회개량뿐이다.<sup>10)</sup>

소위 사회악의 발생·발전과정에 대한 史的·사회관계적 인식의 절대적 결핍에도 불구하고 주요모순의 추상적·사회적 인식에 근접하고 있는 당시 노신의 과학주의가 실천을 결여한 영웅주의의 허장성세<sup>11)</sup>와 국부적 모순해결에 천착한 실리주의의 주요모순 극화에 대하여<sup>12)</sup>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던 것도 이상과 같은 리비도적 과학주의의 실천적·합리적 측면에 대한 史的 윤리의 상호규정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기노신의 자연과학적 경향성으로부터 비롯된 그의 실천적 과학주의가 사회관계의 변화에 따른 변증법적 역사윤리와의 결합을 통하여 이후노신의 세계에 대한 총체성 확보에 지극히 발전적으로 작용하였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

10) <어떻게 아버지 노릇을 할 것인가> 《전집》 제 1 권, p.255.

11) <太炎선생으로부터 생각나는 두 세가지 일> 《전집》 제 6 권, p.451.

12) 「講『實用主義』的人, 因爲市上有假洋錢, 便要在學校裏遍教學生看洋錢的法子之類……」 《노신사상탐색》 p.67 再引.

가 없는 사실일 것이다.

### 3.2. 사회학적 다위니즘

생물계의 현재적 상태가 물질계의 장기적 진화·발전의 결과임을 실증함으로써 철학적 머티얼리즘의 자연과학적 전제를 기초한 진화론의 전기 노신에 대한 충격은 가공할 만한 것이었던 것 같다. 실제로 1898년 鑛務鐵路學堂 입학으로써 접하게 된 진화론의 충격을 뒷날의 노신은 다음과 같이 슬회하고 있다.

아아 이 세상에는 헉슬리 같은 사람도 있구나. 서재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너무기 이런 신천한 사고로써. 나는 단숨에 잃어 내려갔다.<sup>13)</sup>

이상과 같은 노신의 다위니즘에 대한 충격은 일정사회의 질적 존속은 생태계의 진화와 마찬가지로 해당사회의 변화·발전에 의할 수밖에 없다는 변화당위론을 추론시킴으로써 전기 반봉건투쟁의 논리적 당위를 제공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진화론에 입각된 전체적 연계와 발전관념으로 인하여 청년의 육성·봉건적 구제의 해파·보수적 문화현상의 타파라는 노신의 현실적 목표가 史的·도덕적 당위관계속에서 그 실천의 기초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봉건·반식민지적 사회관계의 구조적 모순에서 신해혁명·5.4운동·노동운동등의 역사적 귀추를 지켜보아 했던 노신에게 權의 연장은 진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신진대사에 의한 새로운 것의 강화와 낡은 것의 약화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다위니즘의 사회적 적용은 바로 당시 노신의 史的 상황이 허락하는 유일무이한 신앙일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에 의하여 기초된 다위니즘적 발전론이 이론이라기 보다는 도그마틱한 신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준비한 말을 토로해 보자면 첫째 생존, 둘째 民生, 세째 발전이다. 그리고 이 세가지의 장애가 되는 것은 그 무엇을 막론하고 兇항·제거되어야 한다.<sup>14)</sup>

13) <瑣記>《전집》제 2권, p.268.

14) <북경통신>《전집》제 3권, pp.40~41.

주지하다시피 전기노신의 다위니즘 수용은 생물학적 다위니즘과 구조·사회다위니즘의 동시적 수용이 가능한 상황하에서의 접촉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서구 사회관계의 자본주의적 진화단계에 대한 진화론적인 해석으로서의 구조다위니즘과 사회다위니즘은 전자가 부르조아지에 의한 세계지배의 당위론으로서 후자가 니체적 초인—부르조아지 세계관의 부정과 파괴로서 출현하게 된 멀티플 부르조아지—에 의한 세계지배의 당위론으로서 격세 출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中·日內的 소개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다위니즘의 질적차이—생물학적 다위니즘의 생존경쟁과 적자생존을 수용하게 된 구조다위니즘의 질적진변에 대한 생물학적 부인에 따른 혁명의 반대와 계층갈등의 절충에 의한 부르조아지 지배의 영속화 유도 및 생존경쟁과 적자생존의 세계에 대한 당위론적 적용을 통하여 제국주의의 프롤레타리아·약소민족수탈을 당연시 하게 된 사회다위니즘의 차이—에 대한 전기노신의 지적이 全無하였다는 것은 차기노신의 한계를 보여주는 인식상의 모순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중국인들이 그 「種의 열등으로 인하여」 「동물적 상태로 퇴화해 버리지나 않을까」<sup>15)</sup>하는 <중국지질약론>상의 위기의식도 실은 척슬리와 헤켈의 구조다위니즘과 사회다위니즘에 대한 전도인식의 결과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위니즘에 대한 그의 인식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구조다위니스트나 사회다위니스트는 아니었던 것 같다. 제국주의의 중국 침략과 그에 따른 사회내적 모순의 가중화라는 현실속에서 진화론에 대한 노신의 자기수용이 목적론으로서가 아닌 방법론으로서의 자기수용이었기 때문이다. 진화론에 입각된 부르조아지·다국적 부르조아지의 변호에 반대하는 노신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그의 언급속에서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

강대국이 출현시키게 되는 야만적인 애국자는 강력한 세력에 기초된 전세계적인 위력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생존적 진화론에 입각된 약소국 공략으로써 세계를 혼란에 빠트리게 되며 異民族에 대한 정복이 완료된 뒤에도 만족해 하지 않는다.<sup>16)</sup>

15) <중국지질약론> 《진질》 제7권, p.217.

16) <破惡聲論> 同 p.245.

그러나 생물학적 진화론의 사회적 적용과 그에 입각한 문제해결의 접근이란 언젠가는 그 비과학적 적용의 한계—자연사적 진화론의 교집으로 인한 사회발전법칙과 혁명의 궁극적 양상에 대한 법칙성으로서의 추론·조감불능—를 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사회관계의 질적전화란 자연사적 진화와는 달리 생산관계·소유관계·신구대립·계층갈등등 생물계의 진화기축과는 전혀 다른 요소들을 자기변화의 기축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진화론 수용의 상대적 결과에도 불구하고—전기적 사상기초의 신선한 충격이었음과 동시에 그 변증법적 자기발전의 역행적 속박이었다는—다위니즘의 「발전관념」에 입각된 세계의 「변화」로서의 인식과 생태계의 「전체적 연계」가 요구하는 세계의 「구조필연적 총화」로서의 인식가능성」등은 다위니즘으로 인한 노식인식의 주요기축으로서 후기노식인식의 질적 所以를 구성하는 팔목할 만한 성과로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 3.3. 도덕적 니체이즘

5.4운동에 의한 프롤레타리아계층의 사회적 등장과 20년대의 노동운동을 통한 동계층의 정치적 세력화에도 불구하고 전기노신의 인식형태는 관념의 변화를 사회변화의 기본적 전제로서, 의식의 사회적 변화를 사회발전의 결정적 요인으로서 전도인식하는 관념론적 경향을 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기노신의 인식경향은 종교개혁과 사회발전에 관한 전도인식으로서 그 대표적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

종교개혁이 시작되자……사상의 자유가 확보됨으로써 학술일반이 흥기하였으며 흥기된 학문일반의 실용적 적용이 실현됨으로써 19세기의 물질문명은 지난 2천년간의 업적을 능가하게 되었다. 면화·철·석탄등의 생산이 배가되었으며 이의 다각적 운용에 의한 전쟁·제조·교통분야의 팔목할 만한 성장이 획득되었다.<sup>17)</sup>

존재·의식간의 관계규정에 있어서의 이상과 같은 반경제사적 의식우선주의적 경향은 극단적인 관념론인 니체이즘과 사회관계와의 전도인식에 있어서도 동일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17) <文化偏至論> 《전집》 제 1 권, pp.183~184.

주관과 의지를 중시하는 이 새로운 사조는 사회관계를 재정립하고 기존의 논리들을 동요시키는 등……노아의 방주만큼이나 위대한 역할을 발휘하게 되었다.<sup>18)</sup>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니체이즘의 출현은 부르조아지의 제국주의적 성격 노정과 프롤레타리아의 정치적 독립이 완료된 독점자본주의의 단계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었다. 다시말해서 빠리끄문의 출현으로 인한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위기와 이에 따른 부르조아지의 자기존속을 위한 급격한 제국주의화의 자기변호로써 출현된 논리였던 것이다. 따라서 극단적 관념론인 니체철학은 권력경쟁으로써 다아인의 생존경쟁을 대체하고 권력의지에 의한 생태계 및 사회일반의 보편적 지배를 긍정함으로써 권력을 확보한 초인의 선악을 초월한 무자비한 대중지배의 당연성을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철학의 권력과 개인 의지에 대한 극단적 강조의 목적이 제국주의적 자산계층에 의한 기타계층—국제적 의미에서의 후진·약소국—의 피수탈에 대한 제국주의 옹호론적 논리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근대 중국의 史的 조건을 자기조건으로 하는 노신의 니체이즘 수용은 과연 무엇때문이었을까? 전기노신에 의한 니체이즘의 수용은 아무래도 相異한 역사적 단계에서의 상이한 역사적 경험이 요구하는 모순의 주체적 수용으로서 파악되어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제국주의와 중국부르조아지의 중국내 직접경영으로 인한 중국내적 출현과 5.4운동·20년대 노동운동등을 통한 계층으로서의 사회적 등장 및 정치세력으로서의 자기존립을 완료하게 된 중국프롤레타리아의 사회관계에 대한 분화·양극화의 촉구 및 그에 따른 민족부르조아지·인텔리켄차계층의 史的 결단의 요구는 소시민적 인텔리켄차의 프롤레타리아적 경제관계 선상에 존속해온 노신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 계층의 사회내적 성숙으로 인하여 제기된 인텔리켄차의 내적 분화를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인식·수용할 수 없었던 당시의 노신은 민중역량의 史的 결정성과 사회발전의 객관적 법칙성에 대한 인식상의 결여로 인하여 인텔리켄차적 세계관에 입각된 주관주의적 결단—자기계층으로서의 인텔리켄차의 고수와 사회내적 계층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의 역할 부정의—을 내릴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다시말해서 사회변화의 결정적 요

18) 〈文化偏至論〉《전집》제 1 권, p.189.

인은 관념이며 인텔리겐차라고 믿고 있었던 전기노신의 史的 결단의 범주는 자기계층내적 결단에 국한된 것일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사회내적 계층분화의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전기노신의 반봉건투쟁이 주로 퇴행적 다수 인텔리겐차와 그 배후세력에 대한 민중혼시적 대현상투쟁의 양상으로 집약되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와 같은 노신에 의한 반봉건투쟁의 조건으로 인하여—그의 투쟁 대상이 주로 봉건부르조아지와 퇴행적 백부르조아지가 고수하는 봉건적 문화현상이었다는—혹독한 부르조아지 문화비판으로 일관된 니체이즘이 그의 호감을 사게 된 것 같다. 니체가 지향하는 궁극적 사회관계의 그렇게도 상반된 노신과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처한 사회적·주체적 조건의 차이와 노신에 의한 인간해방의 니체내적 발견은 그의 즉각적인 니체수용과 그것의 합목적적 발현을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방법론적 확산을 위한 노신의 니체수용이 그로 인한 퇴행적 영향의 余無를 결과할 수는 없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20년대 노동운동의 것처럼 격렬한 대제국주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노신의 20년대 말 민중인식이 샌다이 의전시절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아무래도 민중을 초인정치의 노예적 피지배대상으로 격하인식해 온 니체이즘의 퇴행적 경향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기노신의 질적 전변—인텔리겐차로부터의 계층이동과 사회발전의 법칙성 확보에 따른 전기 관념론적 경향의 극복—은 아무래도 그의 주체적 근거 때문이라기 보다는 근대사적 전변이 결과한 객체적 조건의 변화 때문이었다는 것이 보다 객관적인 귀결이 될 것이다.

#### 3.4. 史的 개인주의

전기노신의 자기계층 고수경향과 인식상의 관념론적 경향은 그 일체양면적 상호전화의 당연한 귀결로서 개별체적 지식인의 사회내적 역할수행을 발전과정상의 결정적 요인으로 간주하는 史的 개인주의의 광범위한 수용을 결과하게 되었다. 지식인·세계관계의 짜라투스트라적 설정으로서 이해되어지는 이상과 같은 관점의 대표적 실례로서 노신자신을 짜라투스트라와 동일시 했던 자기생활 관계상의 절망감을 표현한 <놀함자서>의 일부를 절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 《전집》 제 1권, p.5.

개인의 주장은 찬성을 얻게 되면 진전을, 반대에 부딪히면 분발을 추구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의 나의 절규는 그 누구의 반향도 얻지 못하는 것이었다.<sup>19)</sup>

자기 자신의 절규가 구름과 같은 인간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리라고 믿고 있었던 전기노신의 자기와 사회내적 존재일반에 대한 절망을 엿볼 수 있는 前載 절록외에도 그의 史的 개인주의에 대한 차기노신의 신념은 사회내적 모순의 근본적인 해결이 「정신」과 「개성」에 관한 해결로부터 비롯되므로 지식인의 양성이 문제해결의 기축이라고 역설한 同期노신의 기술로써 재확인 되어진다.

따라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열강과의 경쟁에 힘을 수박에 없으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의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인재의 양성으로서 인재의 양성은 바로 개성의 존중과 정신의 확대에 의해야만 한다.<sup>20)</sup>

봉건적 사회관계의 내적존재에 대한 일원론적 개성의 강요와 이에 상응하는 노신의 구제력파로서 주장되었음이 분명한 전기노신의 史的 개인주의는 관념론의 수용과 그 반봉건적 실천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차기노신이 노정한 경제·사회적 한계로 인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행적 경향을 빚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인텔리겐차적 세계관에 입각된 민중내적 봉건현상에 대한 노신의 모순인식은 비록 그것이 상호실현에 의한 극복이 가능한 비적대적 모순으로서의 인식이었다 해도 민중을 「영원한 최극의 관객」<sup>21)</sup>으로서 인식하고 대민중실현에 있어서는 「침착하고 끈질긴 싸움이 더 효과적」<sup>22)</sup>이라는 그의 내적규정은 민중과 개인이 구성하는 역사적 작용에 대한 자기인식결여의 반증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이상과같은 노신의 민중규정이 20년대 전반을 일관하는 것이었음과 20년대가 유일한 구체적 대제국주의 투쟁으로서의 노동운동이 가장 활발한 시대였음을 조감할 때 간헐적으로 상정되어지는 전기노신의 민중사관과 반개인주의적 경향의 표현은 일관성 없는 감정적 계층이동의 부분적 돌출로서 규정되어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지식인으로서의 자기인식과 반봉건투쟁이라는

20) <文化偏至論> 《전집》 제 1 권, p.193.

21) <隨感錄 38> 同 p.387.

22) <노라는 그뒤 어떻게 되었는가> 同 p.274.

모순의 일체화로써 파생된 史的 개인주의의 퇴행적 측면도 관념론의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조건의 변화와 노신의 자기계층고수의 또 기를 그 질적전화의 필요충분조건으로서 확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 4. 결 론

결론적으로 반봉건·반제국주의 투쟁의 질적 통일체로서 요구된 전기노신의 인식범주—리비도적 과학주의·사회학적 다위니즘·도덕적 니체이즘·史的 개인주의등—는 그 일원적 목적론의 동질적 기초에도 불구하고 범주의 개별체적 분화와 연계불능으로 인하여—특히 과학주의·다위니즘의 니체이즘·史的 개인주의등에 대한 적대적 모순의 본원적 구성등—세계에 대한 인식상의 총체성 확보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史的 轉變의 법칙성 추론과 同轉變의 결정적요인 인식상의 중대한 과오를 범하게 하였다. 후기노신의 술회와 마찬가지로 「중국사회 변혁의 궁극적인 양상」과 「사회발전법칙의 추론을 불가능하게 했던」 전기인식상의 주요원인도 사실은 전기인식범주의 개별체적 존립과 연계불능으로 인한 가치·인식·실천상의 자기한계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제인식범주가 현실관계의 史的 전변에 따라 관념론적 니체이즘·史的 개인주의의 용이한 소멸과 과학주의·다위니즘등의 발전적 해체가 노신내적으로 성취될 수 있었던 것은 각 인식범주의 내적 수용이 목적론으로서가 아닌 방법론으로서의 수용이었음과 노신의 변화에 대한 윤리적 결단으로서의 자기가치론이 본질적으로 휴머니즘적 요소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따라서 자체내의 발전적 측면으로 인하여 그것의 해체가 본질적 퇴행을 구성하고 있는 니체이즘·사적 개인주의의 방기보다 더 어려웠던 리비도적 과학주의 및 사회학적 다위니즘의 질적 전변을 인식이전의 근거인 그의 휴머니즘과 객체적 조건의 변화와의 삼중적 함수관계속에서 그 논리적 이해의 기초를 확보하는 것이 본고의 다음 과제가 될 것이다.

#### 참 고 도 서

1. 《노신전집》 제 1, 2, 3, 7권 人民文學出版社, 北京; 1958



2. 《魯迅思想探索》齊一著, 上海人民, 上海; 1981.
3. 《中國現代史》野村浩一著, 오상훈역, 한길사, 서울, 1980.
4. 《중국혁명의 해부》동경대출판부, 윤석인역, 이삭, 서울, 1984.
5. 《중국혁명의 전개과정》중국사연구회, 거름, 서울, 1985.
6. 《중국근대경제사 연구서설》다나까 마사도시著, 인간, 서울, 1983.



# 前期 魯迅의 역사인식

—신해혁명 전후 상황을 중심으로—

李 浚 植\*

.....〈목 차〉.....	
一. 문제의 제기	三. 신해혁명과 노신
二. 신해혁명 전기상황과 노신	四. 결론—역사 인식의 한계

## 一. 문제의 제기

중국 자본주의 경제의 형성·발전 과정 속에서 제기되었던 제문제—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중국경제의 식민지화와 봉건세력의 수탈강화 및 민중의 궁핍화—는 太平天國 이래 그 내부적 모순이 단계적으로 확대노출됨으로써 중국민중의 자기반성·현실개혁·구국의지 등 적극적인 의식변화를 초래하였다. 신해혁명은 이와같은 중국 해체화 과정에서 노정된 봉건적·제국주의적 질곡과 갈등을 극복하고자 하는 중국민중의 주체적 움직임의 한 단계로 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주체적 움직임으로서의 신해혁명은 당시의 주요모순구조—민중·봉건세력·제국주의의 모순—에 대한 혁명주체세력의 불철저한 인식과 그에 따른 그들의 부패와 내분으로 인하여 좌절되고 기존의 불평등·착취구조를 새로 확립하게 되었다.

전기 노신의 현실에 대한 자각적인 천착은 이러한 신해혁명 전후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당시 노신이 일정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전제에 기초하여—그가 중국현실을 철저하게 해석하고 구체적·실천적인 방향을 제시했다는 근거에서—가 아니라, 불충분하게나마 현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경향을 노정했다는 점에서—본고는 신해혁명

\* 동아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전임강사

이전에 발표된 일련의 논문들과 《눌함》—신해혁명 전후기의 중국사회현실과 민중현실을 배경으로한 제 1창작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을 중심으로 그의 역사인식을 개관하고자 한다.

## 二. 신해혁명 전기상황과 노신

### 1.

19세기 중반 이후 중국사회는 제국주의 열강의 정치·경제적 침투가 점점 증됨으로써 제국주의적 분할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제국주의 세력이 중국 내의 봉건세력과 결탁하여 각종 이권과 특권을 확대·심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야기된 중국사회의 갈등과 긴장은 중국의 민주·민족주의 세력의 출현을 촉진시킨 계기가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봉건세력과 反帝·反봉건세력 간의 대립은 필연적이었다.

이러한 史的 배경에서 등장한 태평천국은, 천제군주 존속의 부정과 농민해방이라는 창설기의 혁신적인 목표를 실현시키지 못한 채 퇴조하게 되었으며, 오히려 봉건권력의 절대적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洋務派의 출현을 초래하였다.

양무파는 태평천국이나 비밀결사에 의한 反淸운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세와의 동맹 및 軍備의 근대적 강화가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하에 급속하게 제국주의 열강과의 밀착을 시도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열강에 의한 종속화·해체화는 보다 본격화되고 봉건왕조 및 일부 주도적 관료의 독점적 특권 또한 가일층 확대되었다. 따라서 양무운동의 성숙기에 접어든 1870년 이후 20년 간의 중국경제는 급격히 피폐해졌다. 예를 들면 官督商辦기업과 招商局의 성립 결과 관료의 횡포적 개입이라는 퇴행적 경영방식이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국적 생산관계와 유통구조의 전반적인 붕괴가 실현되었다. 또 대외의존도가 지극히 높은 완제품 구입을 위주로 한 군사·철도·광산·전신관계사업에 주력함으로써 제국주의 열강에 종속하는 식민지 경제 체제가 확립되어 중소지주·佃農·일반 농민 등의 抗租(소작료 거부)·抗量운동과 도시노동자 및 산업자본가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양무파의 전횡은 청일전쟁의 패배로 인한 下關조약 체결(1895년)을 결정적 계기로 하여 반제·반양무의 변법운동을 유발시켰다.

하관조약을 통해 드러난 중국의 광범위한 분할 양도, 과도한 배상금, 일본산업의 중국내 특권화 등이 제국주의의 본질적 약육을 노정함으로써 양무파의 착취 대상이 되었던 일반민중은 물론, 양무파에 의하여 소외되었던 수구관료나 향신계층에 이르기까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위기의식과 反양무적 여론을 광범위하게 확산시켰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康有爲·梁啓超 등을 핵심세력으로 한 변법유신파는 경제·정치·사회적인 해결방안—자본주의적 생산경제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기업의 민영화와 정치사회적 진보를 위한 의회설립·입헌군주제적 내각책임제·과거폐지등—을 제시함과 동시에 열강의 제국주의적 중국분할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강유위 등이 변법사상에 기초, 強學會나 廣學會를 통해 추진했던 계몽교육활동은 실용적 서양사상의 광범위한 보급이 그 주안점이었다. 따라서 이것은 전통적 과거제를 혐오했던 당시의 진보적 청년 지식계층으로부터는 전폭적인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변법운동의 실천 배경이 光緒帝라는 봉건적 전제왕조로서 일반민중과 밀착된 사회개혁이 아니라 사회상층구조의 개선이었던 만큼 그 세력기반은 허약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변법운동은 西太后와 그 지지세력인 수구파 관료 및 전통지식인들에 의해 제지되고 북양군을 배경으로 한 袁世凱가 등장함으로써 제국주의 열강과 만청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양무파의 재집권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이에 상응하는 열강의 제국주의적 중국 통치 또한 보다 면밀하고 침예화되었다.

한편 당시의 중소지주·일반농민·佃農—양무파 지배 하의 公租局·租棧(지주연합)의 횡포와 착취로 인하여 인간적 생활환경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과 전통적인 생산자 계층—제국주의 열강의 철도부설에 따른 외국 상품의 원활한 유입과 지방 소시장권의 붕괴로 인하여 결정적으로 생활기반을 잃게된—을 중심으로 전개된 의화단운동은 「保清滅洋」의 강령을 내세워 열강에 의해 강요된 제불평등조약이나 협정의 파기를 주장하면서 변법파와는 달리 독자적인 양무파의 대항세력으로 활약하였다. 그러나 비교적 광범위한 민중 세력을 구축, 제국주의 침탈로 야기된 중국내의 갈등과 모순을 타파하고자 했던 의화단운동은 결국 제국주의 열강과 양무파의 연합 세력에 의해 「滅洋」의 과제를 실현시키지 못한 채 와해되었다.

양무파와 대립했던 또 하나의 세력인 혁명파는 의화단의 「保清滅洋」이라는 강령에 反해, 영국·일본을 배경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그들은 만청전제왕조의 타도를 주장하면서 孫文·黃興을 중심으로하여 중국혁명동맹회를 결성(1904년), 일본을 거점으로 중국의 공화혁명을 추진하였다. 이에 청조는 혁명파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전제로 수구·양무파에 비하여 다소 진보적인 입헌파를 발탁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의화단 운동과 노일전쟁 이후 일본식의 입헌제 도입·실시를 기도하였으나 결국 외국이권 회수정책을 주장하는 입헌파와 충돌하여 상호 적대세력화됨으로써, 혁명파를 주축으로 한 신해혁명을 계기로 붕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2.

봉건과 反봉건, 제국주의 침략과 반제 운동의 첨예한 갈등이 팽배했던 이 시기를 통해 노신이 노정한 역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어떠했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강유위 등의 변법파에 대한 그의 공감을 통해서 비교적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노신이 변법파의 유신사상을 접할 수 있었던 계기는 남경의 鑛務鐵路學堂 입학에서 비롯되며 그 이전에 그가 어떤 자각적 의식을 가지고 당대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희박하다. 왜냐하면 노신으로서는 최초의 사회적 진출이라고 할 수 있는 봉건적 대가족제도로부터의 탈출(南京行)이 집안의 몰락과 그로인한 개인적인 울분의 발로에 기인할 뿐이며 남경 水師學堂 입학 역시 봉건적 유가 수업의 연장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눌함자서>에서 노신이 「내가 N으로 가서 K학당에 들어가려고 결심한 것도 다른 길, 다른 지방으로 달아나 색다른 사람들과 사귀어 보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다」<sup>1)</sup>라고 한 것이 그 예다. 물론 이때 그는 「그 무렵은 경서를 배워 과거를 치르는 것이 올바른 길이었고 양학을 공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갈 곳 없는 사람이 할 수 없이 오랑캐에게 혼을 팔아 넘기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의 비난과 배척을 받아야 했다」<sup>2)</sup>라는 다소 진보적인 자각의식의 일단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그 뒤 전통적 과거 시험에 응시하지 했었다는 사실은 구생활·구도덕에 대한 일말의 미련과 그것에의 순응이라고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1) 《노신전집》 제 1권, p.3. (이하 《전집》)

2) 同 p.4.

그러나 노신이 광무철도학당 입학 이후 보여준 일련의 행위는 그가 변법파를 중심으로 한 진보적 운동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었으며, 민족의 운명이나 사회개혁에 대한 초보적 자각이 이미 태동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즉 아편전쟁(1840년) 이래 제국주의 열강이 행한 중국 해체화의 위기를 설명하고, 적자생존의 원리를 거론했던 嚴復 편역의 《天演論》을 탐독했으며<sup>3)</sup> 무술정변 당시 양무파에 의해 처형된 변법六君子 중의 한 사람이었던 譚嗣同의 저서 《仁學》을 탐독한 사실이라든지, 당시 변법파의 주장을 많이 게재했으며 뒷날 혁명파대로의 경향성을 보였던 《蘇報》의 탐독<sup>4)</sup> 등은 민족현실의 발견에 선행하는 노신 자아 발견의 일면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의 이상과 같은 행적을 상황인식의 진보된 일면으로서 간주한다는 것은 인식체계로서의 총체성을 상실한 단편적이고도 비연계적인 파악이 되고말 것이다.

노신에게 있어서 1902년의 渡日是 광무철도학당 시절의 초보적 자각을 보다 확대·심화시킨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당시 일본은 중국 혁명파들의 反淸 혁명 기지로서의 역할이 활발했던 곳으로서 노신은 여기서 손문을 위시한 혁명파와 양계초 등을 중심으로한 입헌보황파의 사상과 활동을 직·간접으로 수용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 지배라는 현실적 자각에 기초한 <中國地質略論>은 이 시기 그의 인식세계를 대변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인의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의 연구는 용납할 수 있어도 그들의 탐험은 용납할 수 없다. 그들의 讚嘆은 용납해도 그들의 탐욕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런데 그들은 갖은 고충을 무릅쓰고 이 땅에 들어와서 호시탐탐 장차 무엇을 하려 하는가?<sup>5)</sup>

「호시탐탐」 중국지배를 꿈꾸었던 제국주의 열강의 「탐욕」은 다음에서 보다 구체화되어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중국인의 태도에 대한 그의 불만과 자탄은 자못 심각한 것이었다.

3) 「一有閑空，就照例地吃倭餅・花生米・辣椒，看《天演論》。」《朝花夕拾・瑣記》

《전집》 제 2 권, p.269.

4) 丸山昇 《노진명전》 pp.42~43.

5) 《전집》 제 7 권, p.218.

열강의 영토에서는 장차 (석탄이)고갈될 것이며 중국은 바로 그들의 설비를 해결할 상황에 처해있다. 장래 열국 공업의 성쇠는 오직 중국 점령 여부에 달려 있으니 그들은 마침내 기를 쓰고 우선권을 장악하려고 한다. 게다가 그들은 세력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서로 합심하여 분할을 의논하고 철안이 되어 탄전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이 마비되어 있어서 무한의 자원을 가지고도 쓸 바를 모르고, 오직 小利에 희희낙낙하며 스스로를 해치고 있다. ……제국은 다부어 “채굴권, 채굴권”을 외치고 있으니, 오호라! 10년이 못가서 이 비옥한 중국은 우리의 고국이 되지 못할 것이며 탄광주인에서 채탄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sup>6)</sup>

그러나 이와같은 민족의 현실에 대한 구체적 현상 파악과 민족의 운명에 대한 자기 갈등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논리는 그 인식의 미숙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나는 장래를 예측해보고 은밀히 우리 절강을 위해 생각해 보았는데 북방인만큼 몽태하지 않았다. 저들(북방인)은 외국인의 탄압과 찬탈을 받으면서도 기꺼이 굴복·아부하며 미래의 聖主라고 좋아한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빼앗겨도 오히려 원망할 줄 모르는데 하물며 애착없는 그 땅에 대해서라! 그러나 우리 절강인은 그렇지 않다. ……벽안의 이 민족이 경영을 주도하고 매일같이 광광 우리의 땅을 파헤치는 것을 본다면……몽둥이를 들고 일어나 죽여버려야 속 시원해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절강인으로서의 본파주의적 경향을 노정한 것으로서 前段의 현실구조 파악의 논리와는 수미일관되지 못하고 있다. 「절강인 만큼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민족을 만나면 몽둥이를 들고 일어난다」고 해서 열강에 의한 종속화가 저지될 수 있으며 그들의 식민지적 지배권을 제거할 수 있을까? 결국 이것은 현실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구조 파악의 결여에서 기인된 인식의 불철저성이 그 근본원인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6) 《전집》 제 7 권, p.230.

7) 同 p.231.



### 3.

仙臺醫專을 중퇴한 뒤 등경 생활을 통해 발표한 일련의 논문은 <중국지질약론>에 비해 노신의 중국 민족에 대한 위기 의식이나 혁명의 핵심 문제에 관한 논조가 보다 심화된 접근임을 보여준다. 이것은 아마 노신의 객체적 조건과 주체적 근거의 상호규정적인 혈향관계—仙臺의전을 통해 터득한 사상면에서의 노신의 독자적 성숙, 보다 첨예화된 중국 시대상황의 갈등과 중국민족의 질곡이라는 외적 요인, 당시 일본에 머물렀던 청년혁명파(陶成章·龔寶銓·陶鑄)와의 부단한 교류, 그리고 孫文·章炳麟등 혁명주도세력의 在日 활약 등—가 현실에 관한 보다 심화된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노신의 <文化偏至論> <摩羅詩力說> <破惡聲論>등의 논문이 발표된 1907~8년의 중국에서는 의화단 운동이나 노일 전쟁을 통해서 청조가 자신의 존립 자체에 대한 위기 의식을 극심하게 실감했던 시기였다. 반면 청조를 배경 세력으로 한 입헌파에 대항해서 반청 공화정치를 주장하던 혁명파들의 활약 또한 두드러지게 활발했던 시기이기도 했던 만큼 노신의 혁명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신념이나 시대 상황의 분석은 前期에 비해 보다 면밀하고 총체적인 것이었다.

<破惡聲論>의 서두에서 노신은 식민지적 봉건중국 현실을 「적막」 「광기」 「非行」 「폭력」등이 단연한 「단한 세계」로 규정하고 있다.

근원은 소실되고 정신은 방황하여 중국은 장차 자손의 攻伐로 인하여 스스로 괴멸될 것이다. 그런데도 천하에는 반박의 외침이 없고 적막이 가득하여 천지는 단혀져 있다. 광기는 인심에 가득하며 非行的 무리가 날로 창궐하여 독을 뿌리고 칼을 휘둘러대니 마치 조국의 빠른 소멸을 바라고 있는 듯하구나.<sup>8)</sup>

또 <文化偏至論>에서는 열강의 제국주의적 수탈에 편승하여 자기 안일을 추구하기에 급급했던 청조 및 양부파 관료들의 매관적 부국강병책을 물자각적이고 자기장식적인 것일 뿐이라고 매도하였다.

중국은 여지껏 그 큰 자존으로 천하에 알려져왔다. 새로운 나라들이

8) 《전집》 제 7 권, p. 235.

서방에 많이 일어나 색다른 기술을 앞세우면서 들어와 한바탕 불어대니까 한꺼번에 무너지고 말았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위기를 느껴게 되었고 알팍한 지식을 지닌 자들은 다부어 軍備문제를 거론하였다. 그 후 이역에서 백은 자들은 가깝게는 중국의 사정을 모르고 멀리는 구미의 실정에 어두워 주위모은 먼지같은 지식들을 사람들 앞에 늘어 놓는다. 軍備야말로 국가 제일의 중대사라고 하며 또 문명적인 말들을 인용하여 자기를 장식하면서……<sup>9)</sup>

이와같은 현실에 직면하여 중국 혁명에서 이상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노신은 「독자적인 식견을 갖춘 인물」이 출현하여 「내요」가 밝혀져야 한다는 영웅숭배론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오늘날 귀증하고도 바람직한 것은 못 사람들의 소음에 동조함이 없이 홀로 독자적인 식견을 갖춘 인물의 출현이다. 그런 사람은 진상을 알 수 없는 감추어진 사정들을 통찰하고 문명을 비명한다.……하늘의 태양과 같은 광명으로 암흑을 밝히고 국민의 內曜를 발휘시킨다.<sup>10)</sup>

노신은 소위 「내요」를 「무지와 암흑을 깨뜨린 상태」이며, 그것은 초인적 「영웅」에 의해 「중국인의 정신이 개조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경지라고 파악하였다.

한편 그의 눈에 비친 제국주의는 본질적으로 「살육과 침탈을 일삼고 국위를 천하에 확장하고자」하는 自省이 요구되는 추악한 「獸性的 존재」였다.

용감하고 강력하여 전투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바람직한 일이다. 이것은 그러나 전적으로 자기개선을 위해서 싸야지 무고한 나라를 병탄하는게 서서는 안된다. 만약 자기기초를 공고히 한 후에도 여력이 있다면……자유를 위해 원기를 발휘하여 압제를 전복시켜 이 세상에서 (그를) 추방해버려야 한다.<sup>11)</sup>

제국주의적 논리의 실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결여를 반영하는 노신의

9) 《전집》 제 1 권, pp. 179~180.

10) 〈破惡聲論〉 《전집》 제 7 권, pp. 237~238.

11) 同 pp. 246~247.

이러한 도덕론적 휴머니즘은 제국주의 침투의 부당성을 비난하고 그들의 자제를 촉구함으로써 침략적인 야욕을 지양하고 정의의 실현으로 전변시켜가고자 하는 전기인식의 천진한 미숙성의 결과였던 것이다.

### 三. 신해혁명과 노신

#### 1.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지배와 청조의 전횡, 파상적 경제공황과 入超 및 의화단운동으로 인한 전배과다지불 등은 중국 도시와 농촌 경제의 급속한 해체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봉건잔재의 극복과 제국주의적 질곡으로부터의 해방을 목표로 한 민중 봉기의 출현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게다가 신해혁명을 전후하여 부단히 유발되어온 관료·지주·외국인에 대한 전국적인 반발은 宣統帝의 즉위(1908년)와 섭정 정부의 신헌법 공포로 인한 立·革兩派의 반청연합결성과 더불어 청조의 멸망을 급속히 재촉하였다. 청조로서는 그들의 利害를 저울질하면서 입헌파에 일말의 기대를 걸기도 했었지만 동맹회의 반청 투쟁이 효과적이고 광범하게 전개되면서—입헌파조차 혁명파로 경도됨으로써—속수무책으로 붕괴하게 되었다.

1909년, 침에화된 만청정부·입혁양파의 대립 속에서 귀국한 노신은 동년 항주의 兩級사범학당·紹興중학을 거쳐 11년 11월에는 소흥사범학당 교장으로 부임하였다. 철도국유화에 반대하는 혁명파의 무장·사천봉기가 발발하였던 것은 소흥사범학당 교장 부임 직전의 일이었다. 귀국 직후 노신의 사상이나 생활이 혁명파의 논리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投射였다는 증거는 분명하지 않으나 항주봉기 성공 뒤에 나타난 그의 행적은 그가 얼마나 확고하게 혁명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혁명의 여파가 소흥으로 전달 되었을 때 그는 소흥의 치안을 유지하면서 혁명 경과, 혁명파의 거사 의의를 설명한다거나 민중에게 혁명 의식을 고취하였는데<sup>12)</sup> 이는 일본유학 시절에 확립한 노신의 혁명 지향적 의지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실례가 될 것이다.

신해혁명 이후 袁世凱에게 이양된 입헌정치적 정부기구가 손문의 공화정으로 대체된 후 노신의 공화정에 대한 기대, 민중 구원의 사명감이 일

12) 《노신평전》 p.114 참조.

마만큼 강렬했었던가를 보여주는 《越鐸日報》 창간사는 다음과 같다.

공화정치가 되면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한결같이 모두 주인이 되어  
노예와 다른 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금후 천하의 흥망은 민중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들 못 대중이 앉아서 일의 성패를  
구경만하고 최소한의 마음조차 쓰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스스  
로 죽린 되기를 의연함과 같다. 여기에 본지를 창간하여 동포에게 호  
소하고 말을 써서 의견을 피력하고 세상을 바로잡아 볼 것을 원하는  
바이다. 자유로운 언론을 발설하고 개인의 권리를 다하고 공화제의 진  
행을 촉진하며 정치의 득실을 평가하고 사회를 계몽하여 勇毅의 정신  
을 진흥하게 하자. ……<sup>13)</sup>

공화정치와 관련된 민중의 미래와 국가운명에 대한 노신의 이와 같은  
낙관적인 기대는 그러나 정권이 손문에게서 원세개로 재이양됨으로써 완  
전히 퇴색되고 말았다. 황제의 퇴위, 공화국 성립이라는 혁명파의 목표가  
미처 전개될 겨를도 없이 혁명파의 내분, 군벌의 혁명파 제거, 反袁 봉기  
의 실패 등으로 인하여 정국은 다시 양무 군벌과 입헌파의 수중으로 귀착  
되고 원세개의 전제독재체제가 확립되었다. 당시 상황의 급진전에 대한  
후기 노신의 솔회는 다음과 같다.

신해혁명, 2차혁명, 원세개의 稱帝, 張勳의 復辟을 보고 나서 회의  
가 일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크게 실망하게 되었다.<sup>14)</sup>

《월탁일보》 창간사를 통해 노정했던 노신의 낙관적인 기대는 이처럼 극  
히 대조적인 절망과 무기력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袁의 집정 이후 노신  
이 고서 교정·불교물 탐독·古碑 수집에만 전적으로 침몰하게 된 가장 결  
정적인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 2.

작품집 《納臧》은 노신의 이러한 절망감을 배경으로 집필되었다. 그 작  
품이 「소리조차 지를 수 없게된 상황」임을 전제한 이 집필은 「용감한 것

13) 《노신평전》 p.117 再引.

14) 〈自選集自序〉《전집》제 4 권, p.347.

인지 슬픈 것인지 가증스러운 것인지 가소로운 것인지는 고려해 볼 겨를도 없이」<sup>15)</sup> 쓰여진 것이었지만 혁명 실패의 근본원인, 혁명 당시의 사회상, 민중의 암울한 운명, 그리고 중국의 장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 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눌함》에 노정된 신해혁명의 실패 원인은 혁명과 민중 간의 엄청난 괴리 및 反혁명 세력—청조의 지배권에 편승하면서 민중 수탈에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했던—에 대한 혁명 세력의 피상적인 제거와 무비관적인 타협을 들 수 있다.

혁명파의 개혁의지가 민중에게 전달되지 못했거나 와전되었을 때, 계층적 대립의 최대 희생자들인 민중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大清의 천하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는 혁명가의 논리가 민중에게는 「사람의 말」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sup>16)</sup> 〈藥〉에서의 혁명·민중 괴리는 同작품이 수차 암시하고 있는 바 혁명가의 처형을 미끼로 小利를 도모하면서도 득의양양해하는 康大叔의 언행, 혁명가를 밀고함으로써 保身을 꾀하는 그의 친척, 그리고 그 친척의 처지를 오히려 부러워하는—은 전 스물 닷양의 상금 때문에—이웃들 등등이 모두 같은 맥락에서 묘사되고 있다.

阿Q의 혁명에 대한 인식도 혁명파의 논리와는 단절된 봉건적 권위와 속박에 대한 반이성적인 반발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다 근거를 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혁명당은 모반이며 모반은 그를 곤란하게 한다는 견해를 가졌었다. 그래서 줄곧 「그것을 길이 중요해 마저 앉았는데」 뜻밖에도 그것이 백리 사방에 이름이 알려진 獵人 나으리에게 마저 이렇게 공포감을 갖게했으니 그로서도 어느 정도 「마음이 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未莊의 어중이며중이 남녀들의 당황해하는 꼴은 더욱 阿Q를 유쾌하게 했다. “혁명도 좋구나. ……나도 혁명당에 항복해야지”하고 阿Q는 생각했다.<sup>17)</sup>

모란? 재미있지. ……흰 투구에 흰 갑옷의 혁명당이 쳐들어온다. 저마다 청룡도며, 폭탄, ……을 들고서 사당을 지나며 “阿Q, 함께 가”라

15) 〈눌함자서〉《전집》제 1권, p. 8.

16) 〈藥〉同 p. 31.

17) 同 pp. 99~100.

고 부른다. 그래서 함께 간다.……<sup>18)</sup>

민중에게 있어서 혁명은 그들의 계층적 자각에 의한 반기로서의 성격을 전혀 갖지 못하고 「모반으로 재미를 보는 혁명」이었다. 따라서 혁명은 평소 적대 관계에 있었던 「거인 나오리」의 「공포감」을 조성한다거나 같은 피착취 계층의 「당황해하는 꼴」을 보여 주는 「마음이 끌리는」 성질의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객관적 현실을 부정하려는 민중의 주체적 의지가 배제된 혁명은 실패의 필연성을 내재한 것이었으며, 혁명파의 이념이나 실천 규범과는 철저히 괴리된 상황의 민중은 다만 일시적인 사회현상에 순응하다가 결국은 숙물화되거나, 왜곡된 희망만을 지니게 될 뿐—〈阿Q정전〉의 또 다른 부분에서 阿Q는 혁명을 자유로운 살육·약탈행위가 가능한 계기로 인식하고 있다<sup>19)</sup>—이었다.

혁명 실패의 또 다른 요인으로, 노신은 혁명의 타도 대상이었던 봉건적 지주·관료 등의 재등장을 지적하고 있다.

전해오는 소식에 의하면 혁명당이 성내에 들어왔으나 무슨 큰 이변은 없었다고 한다. 縣知事 나오리도 그 관명만 고쳤을 뿐 여전히 그대로 보이고, 게다가 거인 나오리도 무슨 관직—이러한 직명은 미장 사람들은 얘기해도 모른다—을 맡았으며 군대를 거느리는 자도 역시 이전의 把總 그대로였다.<sup>20)</sup>

이와같은 反혁명 세력의 재등장 뿐만 아니라 혁명 과정에서 빚어진 비타와 퇴행성은 봉건 세력의 교활성과 민중의 무지·반진취성으로 인하여 오히려 反혁명적 양태를 노정하게 되었다.

그(秀才)는 黃傘式(일종의 서신 격식)의 편지를 써서 「가짜 양놈」에게 성내로 가져가서 자기를 소개하여 자유당에 가입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가짜 양놈」은 돌아와서 은화 4원을 뜯어냈고 수저는 마침내 은제 복숭아 휘장 하나를 옷실 위에 달게 되었다. 미장 사람들은 모두

18) 《전집》 제 1 권, p.101.

19) 「好, ……我要什麼就什麼, 我歡喜誰就是誰. 悔不該, 酒醉錯斬了鄭賢弟, 悔不該. 我手執鋼鞭將你打……」. 同 p.100.

20) 同 p.104.

말과 남북하면서 이것은 楠油黨(원래 자유당을 의미하는데 무식한 시골 사람들이 비슷한 음으로 말한 것이 시유당이다)의 휘장으로서 翰林에 상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나오리는 이 때문에 자기 아들이 처음 수재에 급제했을 때보나도 더 의기양양해 했으며 따라서 눈에 띄는 게 없었다.<sup>21)</sup>

이상과 같은 반혁명적 변질의 결과는 피착취계층--혁명에 의해 구제되어야 할 대상으로서의--의 혁명에 의한 소외로서의 대상화·주변화를 들 수 있다. 반혁명적 소외의 전형적인 상황은 곧 阿Q의 처형이었다.

여론상 미장에서는 兪論이 없었다. 자연 모두가 阿Q가 나뉘었으며 총살당한 것은 그가 나쁘다는 증거이며 나쁘지 않았다면 왜 총살당했겠느냐고들 말했다.<sup>22)</sup>

### 3.

신해혁명 당시의 봉건적·반봉건적 사회상과 암울한 민중상에 대한 노신의 인식은 《늘함》 전체를 지배하는 중심적 테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중심적 테제」라는 사실과, 노신이 당시의 사회현실이나 민중현실을 혁명에 의한 변화의 주체적 근거로서 파악했었느냐의 문제는 직접적인 연계를 찾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sup>23)</sup> 다만 다음 세 측면의 고려를 전제로서 《늘함》에서 제시되는 노신 인식의 일단을 논술할 수 있을 뿐이다. 첫째 개혁의 모티프로서의 부정적인 사회상과 민중상의 확대 노출, 둘째 몰자각·몰주체적 민중에 대한 비판과, 피착취자로서의 계층적 자각을 고려한 계몽적 의지의 발현, 셋째 혁명 주도 세력의 민중현실에 대한 계층으로서의 괴리 등이다.

이와같은 세 측면을 《늘함》을 통한 중국 민중의 봉건적 속박, 봉건 사회의 추악한 인간 관계, 민중의 비참한 생활상 등을 위주로 구명하고자 한다.

〈광인일기〉는 신해혁명의 실패 이후 노신이 최초로 외친 「늘함」으로서 구중국 사회의 봉건적 예교를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역사의 끝레라고

21) 《전집》 제 1권 p.105.

22) 同 p.114.

23) 이 점에 관해서는 제 4장에서 再擧論하고자 한다.

규정 하였다.

책사는 연구해 봐야 알 수 있다. 옛부터 즐픈 사람을 먹는다는 사실은 나도 기억하지만 그다지 확실하지는 않다. 나는 역사책을 들추어 조사해 봤는데 이 역사에는 연대가 없었고 어느 페이지에나 「仁義道德」 따위의 몇몇 글자가 장황하게 적혀 있었다. 나는 어차피 잠을 못 자게 되었으므로 밤중까지 세밀하게 조사해 보았는데 글자와 글자 사이에서 겨우 글자를 찾아내었다. 책에는 온통 「식인」이란 두 글자가 쓰여져 있었다.<sup>24)</sup>

이 「식인」 예교는 「사천 년의 역사」를 통해 부단히 전개되어온 것으로서 거기서는 「참다운 인간을 보기 어렵게 되고」 이제는 「사람을 잡아먹어 본 적이 없는」 「아이를 구하는 것」만이 급선무라고 파악되었다. 노신은 또 「식인」 예교라는 대전제 하에 봉건적 현실에 하등의 모순이나 갈등을 느끼지 않는 인간 또는 인간 집단을 설정하여 그들의 무지·물자각을 제시하였다.

“책을 훑치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 없어.……책을 훑치는 것은……독서인의 일인데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어?” 이어서 알아 듣기 힘든 말로 무슨 「君子固窮」이나 「者乎」니 하는 따위를……<sup>25)</sup>

비극적인 몰락에도 불구하고 한 지식인의 구사회에 대한 애착이 이와같이 완강하다는 것은 자각없이 전락해버린 봉건적 예교 신봉자의 한 단면인 것이다. 또 〈阿Q정전〉에서 阿Q가 「가짜 양놈의 마누라는 변발없는 남자와 잠을 자니 좋은 사람은 아니야」라고 생각한다거나 吳媽는 「애석하게도 발이 너무 커」<sup>26)</sup>, 또는 「불효에 세 가지가 있는데 無後가 가장 크다」<sup>27)</sup>는 식의 발상도 노신의 봉건 예교에 대한 비판의식으로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노신이 인식한 봉건 사회 속의 추악한 인간 관계는 우선 그 자신이 봉

24) 《전집》 제 1 권, p. 12.

25) 〈孔乙己〉 同 p. 21.

26) 同 p. 102.

27) 同 p. 85.



전적 대가족 제도의 질곡에서 탈출하고자 시도했던 만큼 자신의 실제 경험이나 상황과 상당한 관련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술함자서>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윤백한 생활에서 곤란한 지경으로 전락해버린」 노신이 그 가정 몰락의 과정에서 보아야했던 「세상 사람들의 진면목」<sup>28)</sup>은 바로 사회적 현상에 의하여 왜곡되어져버린 민중계층의 인간성이었다고 할 수 있다. <故郷>의 楊二嫂가 보여주는 탐욕·불신·방자등은 사회적 현상이 결파한 인간성 실추의 실례인 것이다.

“아이구, 당신은 道臺(道長官)가 되었으면서 아직 출세를 안했다고?……홍, 무엇으로도 날 속이진 못해.……정말 부자가 될수록 인색하려들고, 인색해지니까 또 부자가 되고……”……천천히 밖으로 걸어나가는 길에 그녀는 어머니의 장갑을 바지춤에 쑤셔넣고 가버렸다.<sup>29)</sup>

노신에게 있어 이와같은 인간의 추악상은 <孔乙己>에서 咸亨 주점의 魯迅 사인 「내」가 「무료한 직무」로 밀려나는 동기의 설정에서 더욱 명료하게 드러난다.

그들은 가끔 (내가) 黃酒를 독에서 들 때 제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고 주전자 밑바닥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며, 주전자를 더운 물 속에 넣는 걸 직접 보고서야 안심을 한다. 이렇게 엄중한 감독 밑에서 물을 탄다는 것도 어려운 노릇이다. 이렇게 며칠 지나자 주인은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없다고 말했다.<sup>30)</sup>

이밖에 <藥>에서의 康大叔이 人血만두로써 華老栓을 기만한다거나, 夏三爺가 친족의 불행을 밟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장면 등은 모두 부정적인 인간상과 그 관계에 대한 노신의 증오·환멸이 노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민중의 비참한 생활상은 앞서 논술한 봉건적 예교에 의한 속박, 그들의 추악한 인간 관계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이 세 측면의 확대 노출과

28) 《전집》 제 1권, p. 3.

29) 同 p. 66

30) 同 p. 20.

노신 자신의 개혁 방법론 사이의 평가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언급이 될 것이다. 어쨌든 신헌혁명을 경과하면서도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도, 개선의 기미조차도 제시되지 않았다. 오히려 민중들이 자신의 무지·무능과 무기력으로 인하여 몰주체적·친봉건적 현실순응이라는 길을 택함으로써 노신으로서의 좌절과 체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아주 어려워요, 여섯째놈까지도 돕지만 그래도 먹기가 부족해요」라는 潤土의 기술—당시 농촌의 전반적인 궁핍상을 대변하는—을 당시의 노신은 분노의 한계를 넘어선 좌절과 체념에 외연시키고 있다.

나는 희망이라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갑자기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지금 내가 말하는 희망이라는 것도 내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닐  
 까? 다만 그의 소원은 아주 가깝고 내 소원은 멀 따름.<sup>31)</sup>

〈阿Q정전〉에서 阿Q의 말로써 체험하는 민중의 목격담은, 자신의 비참을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준상으로서 표현되고 있다. 潤土라는 개체가 자신의 파탄을 의식하고 있는 점과는 대조적이지만 한계 상황에 이른 비참한 민중상의 작품화가 각자의 좌절과 체념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은 일관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내의 여론은 되려 좋지 않았다. 그들 대부분은 불만이었으며 총살이 결코 참수만큼 불만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얼마나 가소로운 사형수인가 말이다. 그렇게 오래도록 거리를 돌아다녔으면서도 절곡 부를 수 안 부르다나! 그들은 한 차베 헛진음만 한 것이었다.<sup>32)</sup>

이밖에 〈孔乙己〉나 〈阿Q정전〉의 주인공들, 〈藥〉의 華老栓 부부, 〈風波〉의 七斤 가족, 〈明日〉의 單四嫂子등도 암울한 당시민중의 전형으로서 반봉건·반식민지적 중국근대의 왜곡된 인간 생태와 비참한 사회상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 4.

객관적인 사회 현실과 민중 현실에 의한 辛革직후 노신의식의 갈등에도

31) 《전집》 제 1 권, p. 71.

32) 同 p. 114.

불구하고 그의 《술합》 집필은 의의의 낙관적 계기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sup>33)</sup>

그렇다. 내 의록 스스로는 나날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희망을 제기했을 때 그것을 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희망은 미래에 있는 것이므로, 절대로 없다는 내 근거로써 있을 수도 있다는 그의 주장을 결코 꺾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나는 글을 쓸 것을 승낙했다.<sup>34)</sup>

「희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회와 민중의 장래에 대한 이 논리는 《술합》 전체를 두고 볼 때 지극히 부분적이고도 희망한 주장이었다. 식민지적·봉건적 수탈과 민중의 이에 대한 물자각적 순응을 증오함으로써 절망과 체념에로 의연해갔던 노신에게 있어서 〈一件小事〉의 마지막 장면은 극히 밝고 희망적인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이 때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번지부성이인 그의 뒷모습이 순식간에 커다랗게 느껴졌으며, 가면 갈수록 더욱 커져서 우러러 보아야 겨우 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가 일종의 위압으로 점차 변해갔다.……내가 인력거꾼을 평가할 수 있을까? 나는 자신에게 대답할 수 없었다.……이 사건만은 언제나 내 눈에 떠올랐고 때로는 오히려 더 선명해져서 나를 부끄럽게 하고 자기 역신을 재촉했으며 나의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었다.<sup>35)</sup>

대수롭지도 않은 사고임에도 성의를 다하는 한 인력거꾼의 양심에 대한 自愧와 위축을 인간에 대한 의경으로서의 「용기와 희망」으로 가정한다면, 유년기의 潤土·水生·宏兒 그리고 魯鎮의 어린이들은 순박함과 천진함으로써 구체화된 미래에 대한 「용기와 희망」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속물화된 개별체로서의 민중이나 구체할 길 없는 도덕적 타락물로서의 민중

33) 《술합자서》의 서두에서는 이 집필이 그로서는 「용감한 것인지 슬픈 것인지 가중스러운 것인지 가소로운 것인지는 고려해 볼 겨를도 없이」 쓰여진 「곡필」이라고 하였지만 그 직접적인 동기는 이와같은 낙관적인 기대를 배경으로 한다.

34) 《전집》 제 1권, p. 7.

35) 同 pp. 44~45.

과 대비되어지는 「용기와 희망」의 간헐적 존속이야말로 「모든 것은 다사 시작되어야 한다」<sup>36)</sup>는 전기노신의 신념에 상응하는 역사인식의 긍정적 편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四. 결 론—역사 인식의 한계

이상과 같이 신해혁명 전후의 시대·사회적 배경에 대한 선별적인 개괄과 일련의 논문 및 작품집 《눌함》에 대한 분석을 근간으로 노신 역사인식의 생성 및 변화 과정을 파악하였다. 留日 시기의 논문들과 《눌함》은, 그것이 봉건적·제국주의적 강탈에 의한 중국민중의 주체적 생존의 위기의식을 반영했거나 또는 중국혁명의 조건과 내용을 규정하는 핵심세력으로 서의 민중 계층의 봉건성과 몰락상을 집중적으로 천착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명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노신은 제국주의를 경제사회관계의 구조 내에서 필연적으로 출현하게 된 史的 존재로서가 아니라 단순한 정치경제집단 또는 인간집단으로 이해함으로써 제국주의 침략을 단순히 인간의 본성에 결부시켜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다. 따라서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중국·중국민족의 해체화는 개성의 해방·인간 본성의 해방(「內曜」)을 전제로 한 민중의 자성에 의해 저지되거나, 제국주의 열강의 「獸性的 애국」을 비난, 자각시킴으로써 착취·피착취의 비인간적 관계가 개선되리라는 신념을 견지하였다. 그러나 경제사회적 본질 규명이 결여된 노신의 이와같은 인식상황에서는 제국주의 세력(봉건세력까지도)의 중국수탈이 심지어 「적자생존」 「양육양식」의 자연사적진화론의 논리하에 옹호되거나 은폐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므로<sup>37)</sup> 계몽과 설득을 수단으로 하는 노신의 해결책은 제국주의 침탈에 대한 그의 폭로나 저항의식이 아무리 명확한 것이었다고해도 그것은 결국 문학적·관념적 과제로서의 의의를 지닐 뿐, 중국개혁의 본질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눌함》을 통해서 중국민중의 무명·무지와 몰락상에 대한 부각

36) <갑작스레 생각나는 것들> 《전집》 제3권, p.12.

37) 결국 노신의 이와 같은 비과학적 인식의 한계는 「사회발전 법칙과 혁명의 궁극적 양상에 대한 법칙성으로서의 추론·조감의 불가능」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기노신의 인식범주 비판> (김용운·부산경남중국어문화회지 제2집 참조)

에 집중함으로써 노신이 그들의 생존과 존엄이라는 역사적 명제를 전제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야하겠지만, 민중역량을 관념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간과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우선 부르조아 혁명으로서의 신해혁명에 대해서 그가 「광명과 희망에 찬 중국의 미래」<sup>37)</sup>를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물론 그가 민중과 혁명과의 철저한 괴리를 혁명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은 전술한 바 있지만 혁명 실패에 대한 그의 원인인식 속에는 민중을 개혁주체세력으로서의 역할수행이 가능한 史的 존재로서 파악하고 있었다 할만한 근거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노신은 그들의 史的·주체적 지위에 대한 경시와 그로 인한 절망을 노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 점은 신해혁명 이전의 그가 인간본성의 발전의 극치를 니체의 超人으로 파악하였음과 역사적 창조력의 원천을 이 신비적 초인과 관련시키려고 했던 그의 신념이 〈놀람자서〉에 재현되어 「적막의 한복관을 달리고 있는 용사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뒤를 엄려할 필요없이 앞장서 달릴 수 있게 해주고 싶다」는 발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 〈광인일기〉에서 「어린아이들을 구하라」라고 한 것과 〈고향〉에서 水生과 宏兒를 등장시킴으로써 「용기와 희망」을 건 것 등—〈一件小事〉에서의 인력거꾼만이 유일한 예외이지만—은 결국 기성세대로서의 민중세력에서는 개혁의 실현성을 발견하지 못했음을 반영해준다.

노신이 봉건적·제국주의적 압제의 핵심대상인 민중에게 주체적 대항의식을 구체화시켜 준다거나 사회적 실천규범을 제시하기보다는 「최로된 방에 갇힌」듯한 좌절감을 느끼거나 현실외적 유희에 침잠하였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구사회의 질곡과 갈등을 폭로하고 중국민족의 생존과 주체성 회복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 개인적 고뇌나 적막감으로 인한 것만은 아니었겠지만 노신의 자기실현이 당시 상황의 총체적 의미파악과는 일단의 간극이 존재했으며 문학적 성취에 상응하지 못하는 역사인식으로서의 취약성을 갖고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 참고 문헌

1. 《魯迅全集》제 1, 2, 3, 4, 7卷, 人民文學出版社; 北京, 1958.

37) 「說起民元的事來, 那時確是光明得多, 當時我也在南京教育部, 覺得中國將來很有希望。」〈兩地書· 卷 8 信〉《全集》제 9권, p. 26.

2. 《魯迅評傳》 丸山昇著, 韓武熙譯, 일월서각; 서울, 1982.
3. 《中國現代史》 野村浩一著, 吳相勳譯, 한길사; 서울, 1980.
4. 《신해혁명과 중국근대화》 菊池貴晴著, 엄영식譯, 한벗; 서울, 1982.
5. 《중국혁명의 전개과정》 중국사연구회편, 거름; 서울, 1985.

# 前期魯迅의 계층인식

金 龍 雲\*

〈目 次〉	
1. 논술의 시각과 범주	② 상승인텔리
2. 전기노선의 계층인식	③ 소인텔리
1) 부르조아지 인식	④ 봉건인텔리
① 관료부르조아지	3) 프롤레타리아 인식
② 수구부르조아지	① 도시프롤레타리아
③ 민족부르조아지	② 농촌프롤레타리아
2) 인텔리켄차 인식	3. 결 론—성격과 한계
① 혁명인텔리	

## 1. 논술의 시각과 범주

생산관계의 사회적 轉化에 대한 추상화로서의 계층의식은 사회관계의 史的 轉化에 대한 신념으로서의 역사의식과 함께 사회내적 개별체의 현실인식을 구성하는 일체양면적 범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정 수준의 생산력에 기초한 생산관계의 실현이란 전화된 사회관계의 계층적 실현이 아닐 수 없으며 제고된 생산력의 기존생산관계에 대한 갈등과 해소 또한 계층관계의 몰락과 재구성에 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할의 사회적 분화와 그 유기체적 총화의 모순관계에 대한 계층으로서의 인식수준이야말로 객체적 조건에 대한 史的 실현의 성격을 결정하는 현실인식상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 입각하여 본고는 중국근대의 일부를 자기생활의 객체적 조건으로 살아야 했던 전기노선의 계층인식을 성격과 한계의 측면에서 추론 비판하고자 한다. 그의 前期所作에 기초한<sup>1)</sup> 이상과 같은 작업이 此

\* 동아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전임강사

1) 노선의 생평에 대한 전후분회은 그의 이데올로기적 전변에 근거한다는 의미에서 1926년 이전과 1927년 이후로 구분하였다. 단 본고에서의 전기소각이란 1926년 이전 상황에 유관한 일부 후기 작품군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期노신의 객체적 조건에 대한 역사로서의 절망감과 이에 상응하는 전기후더니즘의 한계규명에 일조를 가할 수 있기를 바랄뿐이며, 논술의 편의를 위하여 인용은 《呐喊》《彷徨》《朝花夕拾》등 전기상황에 유관한 작품집으로 국한하려 했음을 부연하는 바이다.

## 2. 전기노신의 계층인식

새기말의 양무운동으로부터 20년대의 노동운동에 이르는 중국근대의 더 명기는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분할에 따른 봉건적 사회관계의 반봉건·반식민지적 전화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국주의 열강의 대중국침략이 군벌·대지주·대관료등 중국내 지배계층의 온존과 현지직접투자, 자본수출등 중국경제의 주변국화를 병행시킴으로써 토지소유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봉건적 사회관계와 이로부터 분화된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식민지적 양태—제국주의에 의하여 수행되는 현지자본의 원시적 수탈과정의 의한—를 공존시키는 사회관계의 이중적 모순을 정착시켜갔기 때문이다.

더우기 당시 중국의 주요생산재 산업이었던 철도산업의 열강에 의한 독점과 서들의 경제·경제외적 특권확보는 열강에 의한 사회관계의 반봉건 반식민지화의 전국적 실현을 효율화하게 되었다. 고농·빈농·중농·소지주계층에 의한 분화로서의 산업예비군·프롤레타리아·쁘띠부르조아지·민족부르조아지, 대지주·대관료계층에 의한 전화로서의 수구부르조아지·관료부르조아지등이 출현함으로써 봉건적 사회관계와 식민지적 근대사회관계가 병존하는 중국근대 특유의 계층관계가 실현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전기노신의 계층관계를 관료·수구·민족부르조아지·인텔리겐차 및 프롤레타리아 등으로 총괄한 후 분화된 계층의 현실관계상의 역할과 노신의 이에 대한 인식상태등을 분류·추론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부르조아지 인식

#### ① 관료부르조아지

제국주의 열강의 자본진출과 열강에 의한 중국내 지배세력 온존의 결과인 관료부르조아지는 군벌·대관료 계층으로부터 전화된 역할의 경제적 측면을 지칭한다. 따라서 중국근대의 소위 관료부르조아지란 정치권력을 이용한 이권의 대열강전매와 이에따른 차관의 私的轉用 및 차관계약수수



료의 점유등에 기초된, 계층의 사회적 실현자체가 반민족·반역사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도입차관에 대한 수여국의 지도감독과 생산재의 수여국 수입에 따른 중국경제의 수여국경제체로의 재편이 저들에 의하여 주도되었으며 징세·국공채·인플레이등에 의한 원리금상환의 타계층전가와 이에 따른 빈·고농계층의 산업예비군화, 기타부르조아지계층의 해체·몰락등이 또한 저들에 의하여 유도되어졌다. 구중국의 해체와 반봉건·반식민지적 상태에로의 史的 전화가 바로 저들의 사리사욕에 기초한 내적 전횡과 외적 종속에 의하여 실현되어졌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관료부르조아지의 매관·종속적 경향에 대한 노신의 인식형태와 관료부르조아지 존속의 질적 근거를 이루었던 제국주의 열강에 대한 그의 인식수준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

주지하다시피 전기노신의 객체적 조건을 구성하였던 세기말·세기초는 서구 자본주의의 신단계가 그 구단계를 확연히 대체해버린 시기였다. 세기말의 생산집적에 의한 독점지배체제의 확립에 따라 세기초 서구자본주의가 산업·금융자본의 총괄형태인 금융과두제의 단계로 진입해버렸기 때문이다. 계층의 양극화로 인한 과소소비와 과대생산은 중주국경제 시장규모의 상대적 축소를 초래함으로써 투자조건을 악화시켰을 뿐아니라 독점조직의 타자본진입배제로 인한 신규투자장애요인의 창출과 재고된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로 인한 이윤율의 저하등은 자본의 파잉자본화를 초래하여 주변국경제에 대한 중주국경제의 자본수출을 필수불가결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미시경제주체에 대한 생산자본수출 및 거시경제주체에 대한 대부 자본수출등 구단계 기간철도건설·산업화근본요인창출에 대한 대체를 겪게된 중국경제는 외국자본의 국민경제장악에 따른 민족경제의 전면적인 파멸—일부 제국주의의 수요에 부응하는 경제의 단편적 기형적 발전을 제외하고—과 그에 상응하는 제국주의·관료부르조아지·봉건주의등의 대민삼충수탈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일본과 독일에 의한 불균등 발전법칙의 실현이 완결되어진 1907년 이후의 중국은 후발독점자본의 선진독점자본에 대한 비교우월의 실현으로 인하여 세계분할을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의 직접적인 각축장으로 전변되었다. 결국 중국은 생산으로부터 격리된 중주국 부르조아지의 자본수출에 의한 독점이윤 수탈대상으로 전락함으로써—독점자본주의의 유지·존속을 위한 원료·노동력 수탈대상화, 제품판매시장화 및 그 제국주의적 팽창을 위한 전략기지화등—독점화 경향

이 결과한 자본주의적 史的 모순—자본의 유기적 구성도의 제고, 상대적 과잉인구 창출, 파소소비 과다생산, 사회의 양극화등—의 일시적 해소의 댓가로서 이에 상응하는 미증유의 내적 파탄을 겪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기노신의 제국주의 인식은 도덕론적 관념론의 수준에 계류되어 있었던 것 같다. 1900년대 노신인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破惡聲論>상의 제국주의 비판을 절록해보면 다음과 같다.

강대국이 출현시키게 되는 야만적인 애국자는 강력한 세력에 기초된 전세계적인 위력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自國重視 他國蔑시 的 적자 생존적 진화론에 입각된 약소국 공략으로써 세계를 혼란에 빠트리게 되며 異民族에 대한 정복이 완료된 후에도 만족에 하지 않는다.<sup>2)</sup>

자본주의적 금융과두제로의 전변을 완료한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을 소유욕과 지배욕의 결과로 규정한 후 저들에 의한 이와 같은 속물적 근성의 세속성을 비난하고 있는 차기노신의 제국주의 비판은 그가 처한 중국적 현실의 절박성과 제국주의적 수탈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독점자본주의의 자기논리에 대한 인식상의 과학주의가 결여된 유가적 君子論의 제국주의 비판에 대한 도덕론적 외연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파소소비와 과다생산에 의한 서구자본주의의 필연으로서의 제국주의적 전변과 불균등 발전법칙에 의한 제국주의 전쟁의 불가피성에 대한 인식을 결여하고 있었던 차기노신의 리미도적 경향은 3.18사건에 대한 그의 분노 속에서도 그 도덕론적 원인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금수같은 자들의 의하여 중국이 침식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신을 가진자가 없이 공부에 전념해야 할 일부 청년학생들이 불안한 시국을 보다 못해 참여하고 나서게 되었다. 당국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었다면 인간으로서 반성과 자책을 대신한 이와 같은 학살이 자행되어질 수 있었겠는가?<sup>3)</sup>

세기초의 史的 반역으로서 구체화된 군벌제층에 대한 차기노신의 계층

2) 《노신전집》 제 7 권 p.245. (이하 《전집》)

3) <꽃없는 장미 2> 《전집》 제 3 권, p.189.

인식은 제국주의와 군벌계층의 일체성에 대한 당시노신의 이상과 같은 일반인식에도 불구하고 단지 감정적인 것에 불과하였던 것 같다. 왜냐하면 3.18 사건으로서 구체화된 군벌계층의 야만성에 대한 차기노신의 깊은 증오와 분노에도 불구하고 당시노신의 군벌인식에는 관료부르조아지의 군사·정치적 전화로서의 군벌인식과 관료부르조아지의 중국내적 역할 및 대제국주의 관계등에 대한 인식으로서의 명료성과 총체성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3.18 사건을 중심으로 한 노신의 유래없는 증오와 분노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증오나 분노가 단세포적인 그의 史的 절망감으로 귀결되어버리는 것도 이 때문일 것 같다. 제국주의·관료부르조아지에 대한 차기인식의 비과학성과 그에 따른 방법론의 부재등이 차기노신의 깊은 분노와 증오를 질적전변을 겪지않은 인텔리켄치의 무력한 절망감으로 귀결시켜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기노신의 그 많은 작품집에도 불구하고 관료부르조아지를 형상화한 소설작품이 단 한편도 존재하지않는다는 것도 이상과 같은 논리의 외연선상에서 구명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관료부르조아지의 사적 반역—제국주의의 하수인이었던 저들의 반역사성과 반민족성—에 대한 차기노신의 무관심도 관료부르조아지에 대한 직접적 체험의 결여나 관료부르조아지 비관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보복의 가공성 때문이 아니라 중국 근대의 반봉건·반식민지적 계층구조전반에 대한, 총체적 인식의 결여와 관료부르조아지 매편성향의 사적 역할수행에 대한 명료한 인식의 부재때문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② 수구부르조아지

중국근대에 있어서의 수구부르조아지란 봉건적 사회관계의 반봉건·반식민지적 전화에 따른 봉건지배계층의 근대적·식민지적 전화의 경제적 측면을 지칭한다. 봉건관료·대지주·대상인계층의 근대 식민지적 전화의 결과로서 인식되어지는 소위 수구부르조아지는 대제국주의 관계에 있어서의 간접성과 대관료부르조아지 종속성 및 대하부구조 관계에 있어서의 직접성등으로 인하여 근대부르조아지로서의 개량주의적 속성을 면하기 힘든 계층관계를 구성하고 있었다. 기우찌 다까하루에 의한 다음과 같은 수구부르조아지의 대관료부르조아지·제국주의 규정은 이상과 같은 수구부르조아지 속성 이해의 일조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들은 주로 봉건권력의 비호하에 자본축적을 도모해왔지만 그들 자신은 권력자체로부터 소외되어 있었으며 정치적 입장으로도 봉건위정자와의 이해대립을 구성하기도 하였다. 제국주의와의 관련도 비교적 밀접하였으므로 매판성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열강이 그들의 이익을 침해하면 자주 그와 항쟁하기도 하였다.<sup>4)</sup>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수구부르조아지 계층의 대제국주의·대관료부르조아지 개량주의—자기이익의 비호를 위한 대제국주의·관료부르조아지의 존경향과 제국주의의 중국분할·경제 경제외적 특권확보 및 관료부르조아지의 경제정책변경·세계변경등 수구부르조아지 이권침해에 대한 대립경향의 모순—에 상응하는 수구부르조아지 계층의 대민중관계는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 수구부르조아지 존속의 실질적인 근거가 되었던 수구부르조아지·노동자 농민관계는 전술한 수구부르조아지·제국주의 관료부르조아지 관계와는 달리 일방적이고도 이중적인 착취·수탈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구부르조아지의 주요경제영역이 토지이윤의 공업투자와 공업이윤의 토지·고리대채투자 형식의 순환성을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차액지대·절대지대의 형식으로 수탈된 토지이윤은 잉여가치창출을 위한 산업자본으로, 잉여가치의 형태로부터 전환된 산업이윤은 다시 차액지대·절대지대의 창출과 고리대 이윤 창출을 위한 자본금으로 전화, 순환함으로써 빈·고농계층과 노동자계층의 경제·사회적 소외를 참혹화하였을 뿐 아니라 제국주의·관료부르조아지의 유지·존속을 위한 하부구조로서의 수구부르조아지 비호—專利보장·厘金면제·재정지원등—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의한 소상공생산경제의 전면적인 파멸을 초래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수구부르조아지계층의 대관료부르조아지 개량주의와 대프롤레타리아 수탈성향 및 소상공생산경제 파괴경향에 대한 차기노신의 인식형태는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

중국근대를 구성하는 수구부르조아지계층의 구체적 존속과 대민중수탈·정치적 개량주의등 그 광범위한 사적 영향력 행사에도 불구하고 20년대말까지의 노신은 관료부르조아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수구부르조아지의 역할과 성향에 관한 여하한의 기술도 남기고 있지 않다. 중

4) 기구찌 다카하루 《신해혁명과 중국근대사》 p.34.

국근대문학 반봉건투쟁의 기수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노신의 성망과 기대에 비추어 볼 때, 20년대 중국문단에 대한 평가의 아이러니로 생각되어지는 노신의 소위 반봉건투쟁은 봉건적 사회관계의 식민지적 진화에 따른 계층인식상의 연계가 아니라 반봉건·반식민지적 사회관계가 구성하는 봉건적 현실구조상의 지엽적인 부조리에 대한 문제 제기에 불과하였던 셈이다. 전기작품집에 수록된 반봉건적 문제의식의 대다수가 노·농·지식인 계층의 봉건적 정채와 無明에 대한 어찌할 수 없는 절망감으로 일관되어진 반면, 봉건적 사회관계의 대명사격인 수구부르조아지의 역할과 성향에 대한 여하한의 史的 비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차기노신의 인식부재로서 지적되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봉건적 사회관계하의 노·농 자체갈등이 지배세력의 자기존속을 위한 구조적 필연으로서 요구되어진 것이었음을 생각할 때, <孔乙己>·<風波>·<故鄉>·<阿Q正傳>·<祝福>등에서의 노동물락에 대한 인과론적 계층연계인식의 결여와 <常夜燈>·<離婚>등에서의 명료한 수구부르조아지·농민갈등설정의 부재등은 차기노신의 반봉건투쟁이 결코 연계론적 총체성에 입각된 주요모순에 대한 문제로서의 제기·해결과정이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또다른 실패인 셈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봉건적 부조리에 대한 전기노신의 일반인식이 결코 타협적·물관계적이었다는 것은 아니다. 수구부르조아지에 대한 추상화로서의 봉건주의를 상징할 때 봉건주의에 대한 전기노신의 윤리적 결단은 오히려 그의 전기를 일관하는 직접적인 관계로서의 증오와 경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의 전기소작의 대다수가 소위 「禮教」로서 대상화된 중국적 봉건주의와 그 반인간적 현실에 대한 「食人制」로서의 증오·비판과정이었기 때문이다. 「4천년 동안이나 사람을 잡아먹어온 역사를 가진 우리」<sup>5)</sup>는 「오늘부터라도 전력을 다해 마음을 고쳐먹고 안된다고 해야한다」<sup>6)</sup>는 <狂人日記>상의 기술이야말로 추상화된 수구부르조아지에 대한 전기노신의 진화론적 결단을 대변하는 일관된 자기추구형식이었던 것이다.

### ③ 민족부르조아지

중소지주·하층관료계층의 사회경제적 진화와 소상공생산자·중소상인 계층의 사회내적 상승결과로서의 민족부르조아지는 화교 중소자본가와의

5) <광인 일기> 《전집》 제 1권, p.9.

6) 同 p.17.

연합전선으로서 제국주의와 관료·수구부르조아지에 의한 삼중적 압박에 대한 경제사적 극복형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년대의 중국민족부르조아지는 평균자본금 10만원 고용노동력 17명 좌우의 메뉴팩처링 단계를 탈피하지 못한 것이었다.<sup>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근대의 격변기에 부가된 민족부르조아지계층에 대한 경제·경제외적 의무는 제국주의·관료·수구부르조아지로부터 이양된 삼중적 강제의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제국주의에 의한 민족부르조아지 해체의 강제로서 작용된 상품덤핑을 들 수 있다. 생산력수준의 차이로부터 비롯된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의 격차와 잉여가치, 특별잉여가치상의 괴리는 가격과 품질의 측면에서 중국 민족부르조아지의 시장경쟁력을 족달불급의 것으로 패퇴시켜버렸기 때문이다. 둘째는 관료·수구부르조아지에 의한 경제적 의무전가로서의 가혹한 조세제도틀 들 수 있다. 상품의 유통과정에 부과되어지는 厘金이외의 생산세, 상비군세, 학생보조세, 각종면장하부수수료, 평세, 악묘세 등은 가격상승의 직접적인 동기를 구성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열악한 민족부르조아지의 가치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관료계층의 타락으로 인한 조세징수상의 부조리는 사회내적 양극화로서의 민족부르조아지 몰락을 부채질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관료·수구부르조아지 우대를 들 수 있다. 생산가 대비 수십퍼센트의 민족부르조아지 7.5%의 제국주의·전리면세의 관료·수구부르조아지등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불형평성은 전술한 민족부르조아지의 위기를 해체·몰락의 방향으로 귀결시켜간 제도적 강제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민족부르조아지 존속의 열악한 조건은 그들의 혁명적 성향을 결정하는 근본요인이기도 하였다. 어떠한 보호조치도 강구되지 않은 민족부르조아지의 파산위험이 저들의 반제·반봉건적 혁명참여의 동기가 되었다는 기구찌 다까하루의 말<sup>8)</sup>이 아니더라도 노신전기의 민족부르조아지가 선택할 수 있었던 자기존속의 유일무이한 활로는 관료·수구부르조아지에 의하여 주도되는 기존사회관계의 전면적인 폐지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자기존속을 위한 민족부르조아지의 퇴행적 타협적 경향이 전무하였던 것은 아니다. 자금·설비·원료·기술·수송방면의 열강의

7) 《신해혁명과 중국근대화》 p.37.

8) 同 p.40.

9) 同 p.40.

과 조세경감을 위한 열강제화 위탁판매 및 열강상사 명의차용등 동계층의 제국주의 종속과 잉여가치의 확대재생산이란 부르조아지로서의 일반적 속성은 불가피한 것이었지만 일반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종속성향과 계층속성에도 불구하고 신해혁명의 주도과 노동운동의 보조등 1, 20년대 반제·반봉건투쟁의 기축으로서의 역할수행은 바로 동계층을 둘러싼 중국근대 특유의 사적 상황성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프롤레타리아 계층의 정치세력화 이전—민족부르조아지에 대한 분화로서의 윤리적 결단을 요구하던 30년대—의 민족부르조아지에 대한 차기노신의 인식형태는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 부르조아지로서의 계층적 동질성과 중국근대 특유의 혁명적 상황성에 입각된 동계층에 대한 차기노신의 인식은 과연 어느정도의 모순인식을 구성하고 있었던 것일까?

노신의 일본유학시기로부터 구체화 되기 시작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의 민족부르조아지 관계는 생활관계상의 변증법적 체화과정으로서가 아니라 주로 추상화된 동계층의 정치적 측면과의 이념적 관계로서 출발되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1900년대 중국내 계층분화의 정치적 귀결이었던 보황파·입헌파·혁명파간의 대립이 중국혁명을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일본내 중국인들의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미증유의 것으로 확대, 심화하고 있었음을 생각할 때 망명정객들의 정치강연, 유학생 회합등에 바빴다는 齊一의 기술<sup>10)</sup>과 章太炎에 대한 小學사사가 그의 혁명적 경향때문이었다는 노신의 기술<sup>11)</sup>이 아니더라도 당시노신의 민족부르조아지 관계가 망명정객과 유학생으로써 구성되는 이데올로기적 실현의 수준을 극복하지는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노신의 추상화된 민족부르조아지계층의 정치적 측면에 대한 이념적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中國地質略論>상의 일단을 절록해보면 다음과 같다.

인류역사를 논하는 자는 專制, 立憲, 共和의 순서를 정치진화의 공식으로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제가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 결단성있게 칼을 뽑아 피를 묻히고 용기있게 공화정의 대열로 참여하는 자를 역사에서는 볼 수 없을 것인가?<sup>12)</sup>

10) 齊一 《魯迅思想探索》 p.6.

11) <태염선생에 관한 몇가지 기억> 《전집》 제 6권, p.442.

12) 《전집》 제 7권, p.221.

그러나 이상과 같은 차기노신의 민족부르조아지에 대한 정치이념적 유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혁명파의 사회경제적 본질이었을 민족부르조아지 자체에 대한 의견으로서의 인식부재—그들의 중국내적 현실상황과 부르조아지로서의 계층속성에 대한—은 전기노신의 인식수준이 상부구조인식에 국한된 피상적인 것이었음을 반증하는 또다른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정치이념적 유대의 현실적 취약성은 신해혁명에 대한 노신의 기대와 절망속에서 재확인 되어질 수 있다.

1911년 신해혁명이 발발하자 紹興師範學堂 교장으로서 소흥시민대회 의장에 피입된 노신의 혁명참여형식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그는 유세대를 조직해서 혁명의 의의를 설명하고 혁명의식을 고취할 것도 민중의 무장이 필요하고 유세대도 무장해야 한다는 것등을 제안해서 찬동을 얻었다. 무장유세대로서 출발하는 학생들에게 그는 끝막한 훈시를 했다. 그때 대장인 학생이 “만일 거역하는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그는 서슴지 않고 “자네가 차고 있는 군도는 무엇에 쓰는건가?”라고 큰소리로 대답했다고 한다.<sup>13)</sup>

신해혁명에 대한 감정적 동조로서의 주관주의를 엿볼 수 있는 노신의 혁명에 대한 기대는 그러나 참담한 것이었다. 민족부르조아지에 의하여 주도되어진 신해혁명이 민족부르조아지의 계층으로서의 역량부족으로 인하여 혁명의 사적 퇴행을 초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혁명의 변질과 반봉건·반식민지적 관계에로의 구태의연한 회귀를 인식하게된 노신의 신해혁명의 현실적 귀결에 대한 개탄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곧장 백기가 눈에 가득한 길을 따라 내려갔다. 그러나 걸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鄉紳계층이 조직한 군정부에서 속뼈대는 옛날 그대로 무슨 철도주주는 行政司長·전당포주인은 軍械司長……들로 되어있었다.<sup>14)</sup>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되어야만 한다.」<sup>15)</sup>는 전기노신의 신념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회에 대한 史的 총체성—혁명주체세력으로서의 민족부르조아지

13) 丸山昇《魯迅評傳》p.114. 再引

14) <별애농>《전집》제2권, p.282.

15) <감작스페 생각나는 것들>《전집》제3권, p.12.



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과학으로서의 인식—을 결여하고 있었던 차기노신의 정치적 주관주의는 혁명의 퇴조와 부벽의 실현에 따른 극복할 수 없는 개별체적 절망감을 안겨주게 되었다. 혁명의 퇴조와 반혁명의 실현에 따른 그의 역사로서의 비판이 반혁명세력에 대한 감각적 씨니시즘과 봉건적 하부구조의 무지·무명에 대한 감정적 책임전가의 수준에 제류됨으로써 민족부르조아지의 혁명내적 비극성에 대한 작품으로서의 형상화나 자기실현의 새로운 현장을 확보하지 못한채 개별체적인 파절과 절망에 시달려야 했다는 것은 민족부르조아지의 史的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계층의 출현과 그 史的 진개를 인식할 수 없었던 차기노신의 부르조아지적 혁명주관주의의 한계로서 비판되어야 할 것이다.

## 2) 인텔리겐차 인식

중농·소시민계층의 교육재투자 및 부르조아지 유지·존속수단의 합목적적 전화결과로서의 인텔리겐차는 사회·경제적 계층개념이 아닐 뿐 아니라 세계인식에 기초한 계층결정의 변화가능성—자기계급에 대한 굴절적 반영으로서의 계층이동 성향—으로 인하여 존재·의식간의 직접적 일원론으로서의 개념규정이 불가능한 대상이지만 중국 근대의 전개과정에 따라 존재·의식관계상의 계층결정이 강요되었던 노신 전기의 다양한 지식인계층을 그 전화과정별 결과론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규정한 후 이에 대한 노신의 인식수준을 추론·구성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 ① 혁명인텔리

노신 전기의 혁명인텔리겐차란 입·혁양파의 대립으로부터 광동요문에 이르는 사적 필연으로서의 자유를 실천해간 혁명주도세력으로서의 지식인계층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군벌통치하의 문화·문학혁명, 5.4운동기의 노·농운동, 20년대 정당활동 등으로 대변되어지는 동계층의 질적 구체화 과정은 근대 인텔리겐차 분화과정에 대한 명료한 사적 인식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당시 인텔리겐차 개개인의 내적 복합성을 생각할 때 인텔리겐차에 대한 개별체적 변별논리로서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전반의 각단계를 관찰하는 공통된 혁명인텔리겐차로서의 속성이 첫째 발전으로서의 사적 신념, 둘째 명료한 세계인식, 셋째 상황을 불문한 실천등에 있었다는 것은 기타 인텔리겐차의 전화된 계층속성으로서

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혁명적 지식인의 구체적 존속과 노신의 이에 대한 부분적 동조에도 불구하고 혁명인텔리에 대한 차기노신의 인식수준은 질적 인식으로서의 구조·필연성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 같다. 왜냐하면 차기노신의 운동양식—혁명의 퇴조에 따른 사적 절망의 극복으로서의 문화운동, 예를 들어 노신의 《신청년》참여와 대학에서의 교육활동등—과 혁명인텔리의 실천방법—문화운동에 대한 발전적 극복으로서의 노·농운동과 정당창출—사이에는 당시 노신의 생활관계가 극복할 수 없었던 명백한 단절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혁명인텔리에 대한 노신의 문학적 형상화가 辛革지식인의 전형적 한계라고 할 수 있는 秋槿의 민중단절—엄격히 말하자면 신혁인텔리 물지각으로 인한 민중의 대추근단절—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도<sup>16)</sup> 혁명인텔리에 대한 노신인식의 비구조필연성을 반증하는 명백한 실례의 하나일 것이다.

## ② 상승인텔리

중국근대의 소위 상승인텔리케차란 중농·소시민·소지주계층으로부터 전화되어온 인텔리케차로서 반봉건·반식민지적 당시사회관계상의 명백한 상승욕구를 소지, 실현하고자 하는 지식인계층을 지칭한다. 이들의 소위 乘慾실현과정이란 사실상 관료·수구부르조아지 편승과정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군벌·정객·대자본가계층에 대한 자기매각과 그에 상응하는 경제·사회적 계층상승으로서 구체화하게 된다. 승욕으로 인한 계층일탈과 지배계층의 주구화로 요약할 수 있는 상승인텔리의 자기·세계 관계는 지배계층에로의 전화불능—생산수단의 독점화 경향으로 대변할 수 있는 관료·수구부르조아지의 상승인텔리에 대한 권리이양의 한계성—과 자기계급에 대한 관계로서의 반역사적 주구성 등으로 인하여 지식인으로서의 자기분열—지식인으로서의 양식과 사회내적 역할의 모순으로 인한—이 불가피하게 된다. 사회관계의 史的 진화에 따른 자기파멸이나 국민당 비호하의 존속 이외에는 현실적 계층으로서의 존속자체가 불가능하였던 동계층에 대한 전기노신인식의 형상화로서 <고독자>의 魏連歿를 들 수 있다.

소지주계층으로부터의 반봉건적 지식인화가 계층으로서의 몰락과정일 수밖에 없었던 노신의 <고독자>는 사회경제적 빈곤으로부터의 불가피한

16) <藥> 《전집》 제 1권 pp.25~34. 참조.

상승이었던 군벌막료화 이후의 자기갈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나는 실패 했다네. 이전에도 나는 스스로가 실패자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때는 그래도 실패가 아니었고 지금이 바로 실패자라는 것을 나는 이제야 알게되었다네.”<sup>17)</sup>

魏連受의 계층상승은 결코 자기욕구로서의 계층이동은 아니었다. 그러나 계층상승에 의하여 강요된 자기변화—대상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의경의 상실과 비노동자가로서의 재화에 대한 적대적 무절제, 그리고 자기황폐—를 못견뎠다는 것은 그의 계층상승이 자기욕구가 아닌 빈곤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점으로 인하여 상승인텔리의 갈등과 파멸에 관한 근대적 리얼리티를 더욱 명료히 하고 있다. 상승인텔리의 일반적 성향인 자기승욕의 사회내적 역할·사회관계로서의 史的 파멸과정의 부재등 작품구성상의 문제점이 지적될 수도 있겠지만 상승인텔리의 개별체적 갈등과 전략에 대한 노신의 전기인식은 전술제층인식에 비하여 상당히 구체화된 것이었다는 점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 ③ 소인텔리

소지주·중농·쁘띠부르조아지의 지적 전파로서의 소인텔리는 계층의 양극화로 인한 계층으로서의 귀속근거를 상실한 지식인 부류를 지칭한다. 빈농·고농·도시프롤레타리아의 비인간적 전략에 이은 뿌띠부르조아지 계층의 분화를 객체적 배경으로 하는 동계층의 속성은 자기계층의 史的 몰락으로 인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과거로서의 관념과 현재로서의 부조리한 현실이 구성하는 이율배반적 결과로서의—용렬성으로 정의되어질 수 있다. 계층상실에 따른 필연적 요구로서의 계층결정이 유보된 지식인의 전형적 양태랄 수 있는 동계층의 역할이 사라져가는 사회적 계층으로서의 공허한 부유가 아닐 수 없었던 것도 이때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기노신의 이상과 같은 소지식인에 대한 인식양태는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

구조필연적인 인텔리첸차 인식의 전반적인 결여에도 불구하고 차기노신의 소지식인 인식형태는 전술한 상승인텔리의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수준의 구체화를 보이고 있다. 方玄緯·呂緯甫를 통하여 형상

17) 《전집》 제 2 권, p107.

화된 소지식인 속성의 일부를 절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사회악과 싸울 용기가 없으므로 양심을 속이고 고의를 이런 도  
피로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是非를 가릴 마음이 없는거  
나 다름이 없는 것이니 고치는 것이 좋지않을까?<sup>18)</sup>

“자네가 정말 子曰·詩經曰 따위를 가르치고 있던 말인가?”

—中略—

“그 애들의 아버지가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를 원하니까. 나는 남이  
야. 못할 것도 없지. 이런 무리한 일들이 뭐 별건가? 그저 어물어  
물 넘어가기만 하면……” —中略—

“자네 그럼 금후에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금후? —모르겠어. 생각해 보게. 우리가 그때 예상했던 일들이 어  
느 하나 뜻대로 될게 있나?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어. 내일은  
고사하고 일본후조차도 말일세……”<sup>19)</sup>

소지식인 속성에 대한 이상과 같은 전형화에도 불구하고 소지식인에 대  
한 형상화 자체가 개인적인 범주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과 同속성의 구  
성과 해체에 대한 역사로서의 과정과 단계가 불투명하다는 것—두사람  
의 본질적 선량함이나 진취성등으로써 상징되어지는 몰락이전의 긍정적  
인간성과 현재의 용렬과 무기력에 대한 니체이즘적 경멸의 연계로서의 불  
투명성—은 차기 소지식인 인식의 주요한 한계로서 지적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 ④ 봉건인텔리

소지식인에 의한 부교·봉건적 경향의 계층적 전변을 지칭하는 봉건인텔  
리는 전화로서의 출현과정에 따라 소지주·중농적 봉건인텔리와 수구·민  
족부르조아지적 봉건인텔리로서 양분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봉건과거제  
치향적인 전자의 생활관계가 근대식민지적 전화를 인식하지 못한 시대역  
행적인 발상이었던 것에 반하여 후자의 그것은 중국근대의 전변에 대한  
계층성향으로서의 부교주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구 및 일부 민족부르  
조아지 인텔리층과의 수구주의가 동계층의 추상적 전화자체이거나 상승인

18) <단오절> 《전집》 제 1 권, p.115.

19) <주루에서> 《전집》 제 2 권, p.33.

텔리의 동계층에 대한 동조형식이었음을 생각할 때 계층으로서의 봉건인텔리란 아무래도 중농·소지주 봉건인텔리만을 지칭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중농·소지주 봉건인텔리의 비극적인 운명—구중국의 해체와 근대식 민지직 전변에 따른 중농·소지주 봉건인텔리의 계층상실과 전도부재로서의 비극적인 종말—에도 불구하고 계층으로서의 중농·소지주 봉건인텔리는 수구·일부민족부르조아지 및 상승봉건인텔리의 추상성과는 달리 존재로서의 구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존재자체가 「과멸」일 수밖에 없었던 동계층의 「헛된 소망」을 노신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秀才의 자격을 얻어가지고 省城으로 鄉試를 보러가서 차례로 시험을 통과한다. 그렇게 되면 사방에서 지방유지들의 혼담이 쇄도할 것이며 사람들은 神을 우러러보듯 나를 의경하여 지금까지 사람을 몰라보고 나를 업신여겨왔다고들 후회하겠지. ……中略…… 지위를 바라면 중앙의 관리가 되는 것이 좋고 아니면 지방관이 되는쪽이 더 낫겠지.<sup>20)</sup>

그러나 이상과 같은 봉건인텔리의 꿈은 「선조로부터 숨겨져 내려온다는 헛된 보물찾기」에 불과한 것이었다. 鄉試의 낙방으로 인한 상승적인 병리현상—가내 보물찾기—이 집안의 시체를 파헤치는 것으로 귀결되어지자 「자기상실」과 「전도부재」로 인하여 어지할 바를 모르게 된 陳士成은 세계—작품내적으로는 「城內」—를 일탈한 죽음으로써 전술한 자기갈등을 지양하게 된다. 봉건인텔리의 史의 비극성에 대한 형상화라기 보다는 동인텔리의 정신병리적 자기귀결에 의한 목적적 의도로서 인식되어지는 <白光>의 봉건인텔리인식은 그의 반봉건이 중농·소지주 봉건인텔리에 대해서가 아니라 수구 및 일부민족부르조아지 봉건인텔리의 추상화된 계층성향으로서의 수구주의에 대한 것이었어야 했다는 측면에서—왜냐하면 전자의 봉건주의가 구체적인 사적 반역이 될 수 없는 민중화과정으로서의 몰락이었던 반면에 후자의 그것은 구체적인 계층이해의 실현으로서의 사적 퇴행이었기 때문에—전기인식의 모호성을 노정하는 실례의 하나로서 지적되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陳士成의 죽음에 대한 <白光>말미의 탈감정적

20) <白光> 《전집》 제 1 권, p.124.

인 기술이야말로<sup>21)</sup> 리얼리티를 빙자한 반봉건 대상설정상의 착오때문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 3) 프롤레타리아 인식

중국근대의 프롤레타리아란 봉건적 사회관계의 식민지적 전변이 결과한 하부구조로서의 노·농프롤레타리아를 총괄하는 개념이다. 종주국 프롤레타리아와는 달리 중국근대의 프롤레타리아가 노·농을 총괄하는 개념일 수밖에 없는 까닭은 근대 중국사회관계의 반봉건·반식민지적 귀결의 상황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식민지적 근대와 봉건적 전근대가 공존하는 사회관계의 중국적 복합성이 이에 상응하는 하부구조의 이원화—전근대적 관계로서의 농민하부와 근대적 관계로서의 노동자하부—를 강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구조로서의 이원성에도 불구하고 중국프롤레타리아의 근대적 계층성향은 놀랄만큼 연계·혁명적인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들에 대한 경제·경제외적 수탈의 비인간적 삼중성—제국주의·관료부르조아지·봉건주의에 의한 수탈삼중구조—으로 인하여 이들에 의한 혁명으로서의 반제·반봉건투쟁을 노·농프롤레타리아 존속의 전제조건이 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중국근대의 신기원을 획분하는 프롤레타리아의 출현과 저들에 의한 혁명으로서의 반제·반봉건투쟁의 양태를 약술한 후, 이에 대한 전기노선의 인식수준을 조감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도시프롤레타리아

중국농촌경제의 파탄—地丁·地租·雜賦·鹽課·관세·常稅·厘金 등에 의한 대외경제부담의 농민전가와 농촌경제의 종주국경제에로의 재편등에 의한 빈·고농계층의 산업예비군화—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근대적 실현결과—열강의 중국내 직접투자, 수입자본에 의한 관료부르조아지의 官督商辦 및 민족부르조아지의 매뉴팩처링—인 도시프롤레타리아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임노동관계하의 노동자·산업예비군을 지칭한다.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도시프롤레타리아의 계층성향과 이에 상응하는 계층으로서의 史的 역할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

전체인구의 1%밖에 안되는<sup>22)</sup> 근대중국의 도시프롤레타리아는 그 숫적

21) 《전집》 제 1권, p. 129.

22) 장세노, 《중국노동운동사》〈가 상업별 노동자수〉, 《중국혁명의 전개과정》 p. 147 再引.

열세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조건으로 인한 계층으로서의 출현자체가 반제·반봉건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동계층의 출현과 정착이 바로 봉건·제국주의로서 추상화할 수 있는 사회상부구조에 의한 농민의 근대적 수탈대상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동계층의 반제·반봉건적 경향은 1895년의 경제투쟁으로서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저임금, 임금인하에 항의하는 1918년까지의 경제투쟁은 대부분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자연발생적이며 비조직적인 당시의 파업은 자본가와 군벌에 의한 무력진압과 지도자색출을 너무나도 용이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5.4운동을 통한 최초의 자기인식과 운동에 의한 혁명인텔리 상호집투의 결과로써 조합서기부를 구성하게 된 20년대의 도시프롤레타리아는 이전단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질적 전변을 겪게되었다. 서기부 설립으로 인한 21년의 반제·반군벌·반봉건투쟁의 설정과 25년의 경제·정치투쟁의 상호집투 그리고 5.30사건이후의 무장봉기와 농민연계등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운동권의 전이—경제투쟁·정치투쟁·무장봉기·농민연계등—와 홍콩선원파업·開灤탄광파업·京漢철도파업, 2.7사건, 5.30사건, 4.12쿠데타 등으로 의연되어지는 도시프롤레타리아 반제·반봉건투쟁에 대한 차기노신의 인식형태는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

150여전에 달하는 5.4이전의 경제투쟁과 20년대 도시프롤레타리아운동의 구체적 존속에도 불구하고 전기노신의 도시프롤레타리아인식은 존재자체에 대한 관념으로서의 인식조차도 구체화되지 않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도시프롤레타리아에 관한 차기노신의 언급으로서는 소지식인계층성향의 비연계적 개별체주의를 자성하기 위한 스타일의 「一件小事」가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 작품을 후기노신의 징후로서 평가하기도 하지만—프롤레타리아를 향한 의식연계적 동화의 전조였다는 식의—이는 결론에 입각된 절장취의에 불과할 뿐 총체적인 논리로서의 설득력은 구성하지 못할 것 같다. 제국주의 인식에 대한 결여의 일체양면적 결과일 수밖에 없는 전기노신의 도시프롤레타리아 인식은 바로 차기노신의 한계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노신전기의 존재양식을 지식인 중심의 계몽주의적 반봉건투쟁으로 제한해 간 주요동인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 ㉔ 농촌프롤레타리아

토지와 노동도구에 대한 불완전한 소유 및 소작료, 금리, 고용노동등에

의한 피탈트제 일반화되어지는 중국근대의 농촌프롤레타리아는 주로 전근대적 사회관계상의 빈·고농계층 및 일부자작농계층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중국에서의 혁명수행이란 실질적으로는 농민혁명이며 농민혁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의 문제는 농민을 어떻게 지도하는가의 문제이다」는 당시의 지적이 아니더라도<sup>23)</sup> 인구의 80% 이상이 농민이며 그 70% 이상이 빈·고농계층이었던<sup>24)</sup> 중국근대의 격변은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건 농촌프롤레타리아와의 연계를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도시프롤레타리아의 출현과 그들에 의한 구체적 실현으로서의 반제·반봉건투쟁에도 불구하고 중국근대의 실현은 도시프롤레타리아가 아닌 농민에 의한 것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근대의 사적 역량이었던 농촌프롤레타리아의 계층성향과 그 실천형태는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

중국근대의 농촌프롤레타리아는 사회관계로서의 존재자체가 반제·반봉건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봉건·반식민지적 사회관계로 인한 봉건·제국주의 세력의 농민수탈에 대한 減租·耕者有田의 실현없이는 동계층의 존속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태평천국의 난, 의화단사건등으로 대표되어지는 전근대적 농민운동은 차지하더라도 농업의 상업화—비료전대에 의한 고리대와 고리대에 의한 靑田去來<sup>25)</sup>등—와 매관적인 전기적 자본활동에 대한 해륙풍농민운동의 감조·잡조폐지경향과 국민당 개조기의 명백한 감조투쟁 및 북벌시기의 農會독제 출현과 북벌직후의 노동연계 무장투쟁등 농촌프롤레타리아의 단계적 실현은 바로 중국근대의 史的 전개 자체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농촌프롤레타리아의 史的 결정성에도 불구하고 전기노신의 농촌프롤레타리아 인식은 존재지향적이거나 보다는 의식지향적인 것이었다. 사회다위니즘과 니체이즘의 절장위의적 수용결과로서 인식되어지는 전기노신의 의식우선적 농촌프롤레타리아 인식경향은 그의 전기소작을 관찰하는 「단절」—예를들어 주민과 夏瑜·魯鎮의 농민들과 현실의 변화, 阿Q와 세계, 祥林嫂와 나를 포함한 그녀의 인간관계등—과 「경멸」—예를들어 阿Q의 비열함이나 魯鎮 농민들의 무지무명에 대한—로써 구체화 되고 있다.

23) 《중국혁명의 전개과정》 p.218 재인.

24) 同 pp.216~229.

25) 비료전대와 고리대에 의한 농작물 거래양식. 수확기 이전의 작물을 토지당 위로 매질 대석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들어보게나 눈팔경이 阿羲가 내담하러 갔더니 그놈이 도리어 그에 게 말을 거는거야. 그놈 말인즉 이 大清天下는 우리들의 것이라는거야. 생각해 보게 이게 사람의 말인가? ……中略…… (결국 화가 치민 阿羲는 그놈의) 따귀를 두대나 갈겼지.” ……中略…… “그런데 그 바보놈은 맞아도 두려워 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하다는 거야” 외갓희끗한 텃석부리가 말했다. “그따위 놈을 때리는데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康大叔은 그를 멸시하는 기색으로 냉소하며 “자네는 내말을 어디로 듣는 거야? 그놈 만에는 阿羲가 불쌍하다는 거야.” 듣고 있던 사람들의 눈빛이 갑자기 얼얼벌해졌다.<sup>26)</sup>

“阿Q 이것은 자식이 애비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짐승을 때리는 거야. 네 입으로 말해봐. 사람이 짐승을 때리는 것이라고.” 阿Q는 양손으로 머리채의 밑둥을 붙잡고 머리를 기울이며 말했다. “버리지 않을 때리는 거야. 됐지? 나는 버리지야—어제 놓아줘.<sup>27)</sup>”

“모란? 재미있다. ……中略…… 먼편저 죽일놈은 小D와 趙나으리다. 그리고 秀才, 이어서 가짜 양놈……똥놈이나 남저들까? …中略… 그리고 물건은…… 곧 뛰어 들어가 상자를 연다. 馬蹄銀·은화·모슬린 훈옷……수재마누라의 寧波침뎀 우선 사당으로 운반해 온다. 그리고선 錢家의 탁자와 의자를 벌여 놓고— ……中略…… 趙司晨의 누이동생은 정말 추물이저. 鄒七嫂의 딸은 아직 젖비린내가 나고, 가짜 양놈의 마누라는 머리채 없는 사내와 동침했으니 흥, 좋은 물건은 못돼, 수재의 마누라는 눈통이 위에 흉터가 있고……吳媽는 오래 못만나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코……그런데 발이 너무 크단 말야.”<sup>28)</sup>

개화인텔리성향에 입각된 의식우선적 농촌프롤레타리아 인식결과로서 이해되어지는 전기노신의 이상과 같은 인식 경향—〈故郷〉의 閩土에 대한 경멸의 부재는 유년기의 공유로 인한 감정적 동조때문으로 보아야 할것 같다. —은 그것이 비록 봉건적 사회관계의 모순에 대한 작품으로서의 문제제기였다 할지라도—사실은 지역적인 모순현상에 대한 인텔리켄차 중심의 문제제기에 불과하지만—동계층의 존재론적 결정성을 무시한 전도인식으로서의 비난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당시의 무지

26) 〈藥〉《전집》 제 1 권, p.31.

27) 〈阿Q正傳〉 同 p.77.

28) 《중국혁명의 전개과정》 pp.101~102.

무명에도 불구하고 존재로서의 동계층은 史的 결정역량으로서의 자기전화를 실현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구세계에 의한 「단절」과 「경멸」의 극복을 단기간내에 입증해 주었기 때문이다.

### 3. 결 론—성격과 한계

전기인식의 질적 근거로서 작용하였을 전기노신의 계층인식은 차기를 일관하는 그의 목적적 의도—반봉건위주의 반제·반봉건—에도 불구하고 인식으로서의 명료성과 총체성을 결여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기 인식범주—과학주의·다위니즘·니체이즘·史的 개인주의등—의 추상적 한계<sup>29)</sup>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노신 전기계층인식의 존재에 대한 의식으로서의 상응불가야 말로 이에 대한 명백한 실증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기노신에 의한 전기적 한계의 타개·극복이 아니더라도 전기의식의 계층관계에 대한 이상과 같은 한계—생활관계상의 體化不在로 인한 계층인식상의 주관주의적 전도와 이에 상응하는 반봉건위주의 지엽적인 문제제기에 불과한 경향—가 당시 노신의 내적근거로서의 수준차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전기계층인식에 대한 상호규정적 할항관계로서의 휴머니즘이야 말로 전기적 근거의 변증법적 자기전화를 구성하는 양대 기축의 하나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기인식의 후기적 전변에 관한 가치론으로서의 휴머니즘에 대한 상호연계적인 작업으로써 전기계층인식의 후기적 전변에 대한 질적 所以를 구명해보는 것이 본고의 다음 과제가 될 것이다.

### 참 고 도 서

1. 《노신전집》 제 1, 2, 3, 6, 7권 인민문학출판사, 北京; 1958.
2. 《신해혁명과 중국근대화》 기무찌 다까하루著, 엄영식譯, 한빛, 서울; 1982.
3. 《魯迅思想探索》齊一著, 上海人民, 上海; 1981.7.
4. 《魯迅評傳》丸山昇著, 한무희譯, 일월서각; 1982.12.
5. 《중국혁명의 전개과정》 중국사 연구회편, 거름, 서울; 1985.

29) <전기노신의 인식범주 비판> (김용운, 부산경남 중국어문학회지 제2집) 참조.

# 전기 魯迅의 휴머니즘

申 洪 哲\*

〈목 차〉

제 1 장 목적과 범주

제 3 장 전기 휴머니즘의 성격

제 2 장 주제로서의 휴머니즘

제 4 장 결론—전기 휴머니즘의 한계

## 제 1 장 목적과 범주

### 1

魯迅에 대한 연구를 처음 착수해 보는 국내의 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하여 거의 만족하지 못하며, 만족할 만한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도 불투명하다는 것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나 긍정하듯이, 그 원인은 연구자 자신의 인식과 판단의 한계에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魯迅이 이념을 달리하는 국가의 「가장 위대한 작가」라는 이데올로기적 제약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魯迅에 대한 —한때는 중국 공산당에 의해 「소자본주의 계급으로서 비사회주의적인 인텔리」이며 「반동분인」으로 비판받기도 했던—국내의 관심은 1945년으로부터 1985년에 이르기까지 수십 편의 평론과 작품번역의 출간으로 지속되어져 왔다.<sup>1)</sup>

제론의 필요없이 문학작품은 작가가 체험한 관념의 세계이며, 작가가 처한 인간적·사회적·역사적 환경에 대한 반응의 총화이다. 따라서 뛰어난 문학작품—작가의 지적 체험이 그만큼 객관적이고 독자와의 관계가 직접적인, 그리고 그러한 체험에 의하여 획득된 자기인식세계를 형상화함으로써 진정한 현실존재의 모순을 실천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과 이

\* 大邱大學校 人文大學 中語中文學科 助教授

1) 그 중의 상당수가 다음 목록에 수록되어 있음. 黃南翔 의 지음, 박재연 옮김, 《중국현대작가론》〈중국현대문학관계문헌〉 pp. 326~334.

러한 지적 체험을 거짓없이 판단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하여 이데올로기로써 제약하거나 배도하는 행위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그릇된 이해의 소치이거나 이데올로기에 의한 횡포임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가 인간현실에 존재하는 모순의 발전적 변화를 거부하는 한 그것은 현실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허위의식이자 기만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 2

역사로서의 휴머니즘이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양태로 발전되어 왔더라도 20C를 전후한 100년 만큼이나 심각하게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인식된 예는 드물다. 독립자본주의·제국주의·군국주의를 속성으로 하는 자본주의 열강에 의한 침략과 수탈이 강행되어진 세기말·세기초의 중국—한반도 및 동남아제국도 물론——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휴머니즘의 본질이 소외당한 인간들의 장래에 대한 신념으로서의 실천적 노력이었기 때문에, 독립국가로서의 주체성을 상실한——외적 폭력과 내적 매관으로 인하여——구중국은 새로운 중국에 대한 이상과 같은 신념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魯迅은 당시의 암담한 중국현실에서 정신개혁이 당면한 제일의 임무라고 말했으며 그 수단으로서는 문예가 제일이라고 판단하였다. 다시 말해서 魯迅은 문학을 통하여 민중과 사회를 변혁하고자 하였으며, 理想과 부정적 사회현실 사이의 모순을 정반합적 전화과정으로써 극복하고자 하였다. 인간이 역사의 주체이며 동시에 스스로의 창조자라는 신념이 발전된 휴머니즘의 본질이라면 魯迅은 분명히 휴머니즘을 실천한 작가였다. 그가 당시 지식인들의 속물적 실리주의와 헛된 영웅주의——현실적 안병을 위한 구체제의 관리가 되고자 하는 욕망과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서의 혁명회화화——를 경멸하고, 혁명의 무기력한 對군벌화해와 민중계층의 수동적인 노예성에 절망하며, 진실을 위한 선각자들의 죽음을 애통해하였던 것도——능동적이고도 실천적인 작가로서의 세계에 대한 애증을 분명히 하였던 것도——사실은 그가 휴머니즘에 입각된 작가였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魯迅이 46세가 되던 해인 1926년, 3·18 사건으로 북경을 떠나기 이전까지를 논술의 자기범주로 한다. 1926년 3월 18일은 魯迅의 기슭에 의하면 「민국(1912) 이래 가장 암흑한 날」이었다. 그의 사랑하는 제

자를 포함한 47명의 살상과 150명의 부상이 경찰과 군대에 의하여 자행된 날이었다. 현재의 「중국은 애국자의 멸망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라는 기술과 함께 그는 당시의 사건을 다음과 같이 슬회하고 끝맺었다.

이것은 일의 종말이 아니라 일의 시작이다. 먹으로 쓴 거짓은 피로 쓴 진실을 결코 덮어 감출 수 없다. 血債는 반드시 혈채로 갚아야 하며 그 채불이 오를수록 더욱 큰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sup>2)</sup>

(這不是一件事的結束，是一件事的開頭。黑寫的謊說，決掩不住血寫的事實。血債必須用同物償還。拖欠得愈久，就要付更大的利息！)

그의 사상적 전변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러나 유일한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 변혁을 요구하는 사회현실의 필연성이 이미 안팎으로 팽배해 있었으며 3·18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기 魯迅 연구를 위한 전제적 기초로서의 본고는 魯迅의 전기 작품을 중심으로 한 此期 휴머니즘의 성격(제3장)과 한계(제4장) 규명에 치중하였으며 본 논문의 주제가 되는 휴머니즘의 史的 본질과 辛革 전후 魯迅 휴머니즘의 형성과정을 먼저 조감해 보고자 하였다.

## 제 2 장 주제로서의 휴머니즘

### 1

휴머니즘의 근본은 인간해방이다. 그것이 인간위협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간은 그의 용기와 창조력으로써 인간에 대한 위협을 극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역사적 시기에는 일정한 집단의 경험만을 인간을 위한 절대적 진리로 맹종해 왔다. 인간이 현재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인간들은, 인간의 발전이 꿈이나 소망같은 안일한 정신적 행복(신으로의 귀의)이 아니며, 특정개인(전제 군주)이나 특정집단(소수 지배계급)의 주관적 욕망실현일 수 없다고 비판해 왔다. 무엇보다도 또 누구보다도 인간을 사랑하는 대부분의 휴머니스트들이, 완벽해질 수 있다는 인간의 가능성을 믿고, 그

2) 〈無花的薔薇之二〉《魯迅全集》제 3 권, pp. 189~190. (이하 《전집》)

것이 인간 자신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고해서 놀람거나 새롭게 여겨야 할 것은 아니다.

## 2

일본의 務台理作(1890~1974)이 설명한 휴머니즘의 史的 발전과정은 다음의 세 단계로 요약될 수 있다.<sup>3)</sup>

첫 단계는 고대 그리이스의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 「신화로부터의 인간해방」이다. 그는 자연과 신의 뜻이 인간을 지배함으로써 인간성을 구속하는 테두리를 타파하고 자연과 낯은 신으로부터의 독립된 모습을 자각하는 인간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단계의 휴머니즘이란 자유시민만의 보다 자유롭기 위한 인간해방이었으며, 노예와 시민의 분투에 의한 인간소외는 외면된 것이었다.

둘째 단계는 르네상스로부터 싹터 온 「봉건사회와 중세신앙으로부터의 인간해방」이다. 이는 영주와 농노라는 경제적 신분제도와 신을 매개로 하는 사회적 위계제도——승려·귀족·서민관계로부터의 인간해방이라는 부르조아적 개인주의적 휴머니즘의 대두이며, 아울러 절대주의에 대한 시민적 저항정신을 낳은 것도 이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생산수단의 私的 소유로 인한 새로운 계층적 분화와 그에 따른 인간 가능성의 부르조아적 독점으로 인하여 요구된 세번째의 인간해방을 들 수 있다. 務台理作은 이와 같은 제3단계를 「집단·계급·인류로서의 인간해방」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은 무신론을 낳게 한 다아윈의 진화론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부정하는 마르크스로부터 출발한다고 보았다. 인간 가능성의 極化라는 입장에 선 務台理作의 「인류 휴머니즘」<sup>4)</sup>이란 개념도——비록 관념론과 유물론을 변증법적 자기모순 관계로 전도인식함으로써 가치론으로서의 실천적 진화 가능성을 상실해버린 것이었지만——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인간 가능성의 부르조아적 독점에 대한 방법론으로서의 제기하고자 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할 수 있다.

## 3

魯迅의 인간해방은 전근대적 사회관계와 동사회의 식민지적 전변이라는

3) 《현대의 휴머니즘》 pp. 41~52.

4) 上掲書, p. 52, pp. 76~84.

중국근대의 史的 모순에 대한 것이었다. 객체적 조건으로서의 半봉건·半식민지적 현실에 대한 변증법적 자기전화과정이었다. 그의 사상적 전변을 「인간해방」의 시각에서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紹興의 전통적인 관료지주 출신이었던 魯迅의 外的 세계에 대한 모순으로서의 인식은 가족관계의 경제·사회적 몰락으로 인한 감정적 수준의 환멸로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1898년 당시로서는 常道를 벗어난 행위로서 인식되어지던 자신의 鑛務鐵路學堂 입학경위를, 20여 년 이후의 그가 「전당포와 약방을 드나들면서」 목격하게 된 봉건적 사회관계의 위선적이고도 추악한 「진면목」으로 인하여 「다른 길 다른 땅 색다른 사람들을 찾아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고 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魯迅의 同學堂 입학은 그의 리비도적인 입학동기와는 달리 자기 가치론의 일차적 전변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동기의 하나로서 작용하였다. 왜냐하면 同學堂 입학으로 인하여 康有爲·梁啓超 등의 세계관과 다윈의 진화론 등을 접하게 된 그는, 봉건적 사회관계에 대한 입현과 수준의 인식과 사적 전화의 진화론적 신념을 구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02년 鑛務鐵路學堂을 졸업한 魯迅의 일본 유학은 사상적 전변을 위한 그의 이차적 성숙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에 의한 재일기간의 자연과학소개——1903년의 〈라들론〉·〈中國地質略論〉, 1907년의 〈人之歷史〉·〈科學史教篇〉 등——와 계몽주의적 국민성개혁운동——1907년의 〈文化偏至論〉·〈摩羅詩力說〉, 1908년의 〈破惡聲論〉 등—— 및 洋務派와 改良派에 대한 혁명빙자 기회주의지식인이라는 비판 등은 그 모두가 전근대적 봉건중국에 대한 관념으로서의 해방실천이었기 때문이다. 1905년 환등기 사건을 계기로 「당시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고 자주 결석하던」 의학을 버리고 「국민의 정신개조」를 위한 문예의 길을 택하였던 그가, 뭇소 등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와 19세기말 독일 니체이즘에 심취하였던 것도, 제국주의 열강과 滿淸정부에 의한 史的 강제의 폐지를 위한 것이었으며 인간해방으로서의 구관념 타파를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09년 일본으로부터 귀국한 청년 魯迅의 辛革 전후 인간해방론의 성격을 《越鐸日報》창간사로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독립전투(신해혁명)가 시작된 지 70일이 지났다. 智者는 사려를 다 하고 용사는 목숨을 바치고 있다. 우리 대중들이 앉아서 일의 성과를

보고만 있고 최소한의 마음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국민됨을 포기함이다. 이에 본 지를 창간하여 동포와 상의하고 글을 써서 의견을 피력하여 세상을 바로 잡기를 원한다. 자유의 언론을 발표하고 개인의 권리를 다하며 共和政의 진행을 촉진하며 정치의 득실을 평가하고 사회의 계몽을 실천하고 용기의 정신을 진작시키자. (중략) 우리가 입을 다물어 중국으로 하여금 다시 적막으로 돌아가도록 방치함으로써 또 다시 해아릴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기를 원하지 않는다.<sup>5)</sup>

(獨立戰始，且垂七旬，智者竭慮，勇七放命，而吾儕庶士，坐視其成，憤不盡一得之愚，殆自放于國民之外，爰立斯報，就商同胞，學文宣意，希翼治化，紓自由之言議，盡個人之天權，促共和之進行，尺政治之得失，發社會之蒙復，振勇毅之精神。(중략)不欲守口，任華土更歸寂寞，復自負無量罪惡，以續前塵)。

그러나 제국주의 열강과 매관군벌세력에 의한 제2, 제3 혁명의 실패와 퇴조는 혁명에 대한 노신의 인식을 밑바닥으로부터 해체시키기 시작하였다. 「공리가 강권을 감당하지 못한」北京女師大사건과 3·18사건을 체험한 배다 胡適·陳源 등 개화인텔리의 군벌지지와 국민당정부의 반인간적 백색테러를 목격하게 된 魯迅으로서는, 개별체적 관념론으로서의 성격과 2인 제를 탈피하지 못한 자기신념——인간과 역사에 대한 자기 휴머니즘의——의 전면적인 붕괴를 체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줄곧 진화론을 믿었다. 결국 미래는 반드시 과거를 이기고 청년은 반드시 노인을 이긴다고.(중략) 그러나 후에 나는 내가 오히려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중략). 내가 廣東에 있을 때 같은 청년이 두 권영으로 나뉘어 후자는 투사로 밀고하고 후자는 관군을 도와 사람을 제포하는 것을 목도하였다. 나의 사상은 이로 인하여 폭파[轟毀]되었다.<sup>6)</sup>

(我一向是相信進化論的，總以為將來必勝于過去，青年必勝于老人(중략)，然而後來我明白我倒是錯了(중략)。我在廣東，就目睹了同是青年，而分成兩大陣營，或則助書告密，或則助官捕人的事實！我的思路因此轟毀。)

5) 《전집》 제 7 권, p.268.

6) 《三閑集·序言》《전집》 第 4 권, p.5.



### 제 3 장 전기 휴머니즘의 성격

#### 1

한 작가의 휴머니즘——세계관——이란 인간현실에 대한 그의 가치론적 반영을 의미한다. 중국 근대의 半봉건·半식민지적 전변에 대한 魯迅의 휴머니즘이 反제·反봉건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30대의 젊은 지식인으로서 구중국에 대한 혁명과 개혁의지의 전면적인 무산을 겪어야 했던 그에게 있어서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비록 전기 인식대상으로서의 비구체성을 노정하고는 있지만—란 진보와 발전에 역행하는 명백한 타도대상이었던 것이다.

휴머니즘이 존재의 사적 역행에 대한 요구의 분화 및 총화라면 적어도 魯迅은 휴머니즘에 입각된 작가이다. 구중국의 사회관계를 봉건지배계층, 지식인, 일반민중 등으로 분화 인식하였던 그의 휴머니즘이 이에 상응하는 가치론으로서의 태도를 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중일반에 대한 연민과 지식인에 대한 비판 및 봉건지배세력에 대한 증으로써 총괄할 수 있는 魯迅 전기의 휴머니즘을 반제·반봉건과의 외연관계 속에서 분류·논술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 2

휴머니즘이 대상으로서의 인간 및 사물에 대한 외경 및 연민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면 魯迅은 휴머니즘으로부터 출발된 작가이다. 중국사회관계의 반봉건·반식민지적 전변으로 말미암은 농민계층의 광범위한 몰락과 산업예비군화에 대한 그의 시선이 일관된 감정으로서의 연민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날씨가 몹시 추운 오후 나는 점심을 먹고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밖에 누군가 들어오는 기척이 있어서 돌아다 보았다. 그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놀라 벌떡 일어나면서 그를 맞으러 나갔다. 閩土가 온 것이었다. (중략) “아, 閩土형, 왔구료……”(중략) “나으리….” 나는 소름이 끼치는 것 같았다.”

7) <故郷>, 《전집》 제 1 권, p. 67.

(一日는天氣很冷的午後，我吃過午飯，坐着喝茶，覺得外面有人進來了，便回頭去看。我看時，不由的非常出驚，慌忙站起身，迎着走去。這來的便是閩土(중략)“阿，閩土哥，——你來了？……”(중략)“老爺！……”我似乎打了一個寒噤。)

봉건적 신분관계를 초월해버린 작가의 閩土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외경은 「閩土형」이라는 그의 호칭과 「나오리」라는 소름이 끼치는 듯한 閩土의 회담으로써 極化되어지고 있다. 魯迅 휴머니즘의 전기적 성격을 조감해 볼 수 있는 그의 閩土에 대한 이상과 같은 외경은——신분관계에 대한 극복으로서의 휴머니즘은——그러나 개별체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의 閩土에 대한 사랑이 공감으로서의 연민으로 전화되면서 안타까와지는 것도 이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애들은 많고 흉년인데다, 가혹한 세금·군대·도둑·관리·양반 등이 그를 무감각한 인간으로 망쳐버린 것이었다.<sup>8)</sup>  
(多子，飢荒，苛稅，兵，匪，官，紳，都苦得他像一個木偶人了。)

이상과 같은 작가의 신분관계를 초월한 공감으로서의 휴머니즘은 대상의 객관화를 그 전제적 조건으로 하고 있는 다른 작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상으로서의 객관화가 수반하는 현상으로서의 하부구조 경멸에도 불구하고——주로 무지몽매와 인간적 비열성 등에 대한——그의 하부구조 경향성은 그들에 대한 연민으로서의 휴머니즘을 배제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근대중국적 민중모순——무지·가난·인간적 비열 등이 구성하는——의 대표자격이랄 수 있는 阿Q에 대한 작가의 다음과 같은 기술은 이상과 같은 전기 휴머니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는가?”(중략)“없습니다.” 그러자 긴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 종이 한 장과 붓 한 자루를 가지고와(중략)그에게 서명을 하라고 했다. “저는……저는…… 글을 쓸 줄 모르는 엷쇼.”(중략) “그러면 너 좋을대로 동그라미라도 하나 그리도록 해.” 阿Q는 동

8) 《전집》 제 1권 p. 69.

그라미를 그릴려고 했으나 붓을 쥐 손이 떨리기만 했다.(중략) 그는 남들에게 웃음거리가 될까 두려워 동그랗게 그리려고 하였으나 붓이 지나치게 무거운데다 말을 듣지 않아서 손을 떨면서 거의 동그라미를 마무리려고 할 때, 붓이 바깥으로 쏙 나오는 바람에 수박씨 모양이 되고 말았다. 阿Q는 동그라미를 그리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 하였으나 그 사람은 문제삼지도 않고 재빨리 붓과 종이를 가지고 가버렸다.”

“你還有什麼話說麼?”(중략)“沒有”(중략)於是一個長衫人物拿了一張紙，並一支筆送到(중략)却又指着一處地方教他畫花押。“我……我……不認得字。”(중략)“那麼，便宜你，畫一個個圓圈”阿Q要畫圓圈了，那手捏着筆却只是抖。(중략)他生怕被人笑話，立志要畫得圓，但這可惡的筆不但很沉重，並且不聽話，剛剛一抖一抖的幾乎要合縫却又向外一聳，畫成瓜子模樣了。阿Q正羞愧自己畫得不圓，那人却不計較，早已掣了紙筆去。) ”

阿Q의 인간적 비열——어린 여승을 모욕하고 나약한 小D를 괴롭히면서도 자기보다 강한 자들에게는 특유의 비굴함을 보이는——과 혁명전도 의식——혁명을 욕망충족을 위한 임의약탈시기쯤으로 생각하는——에 대한 코케르니 쿠스적 전환이랄 수 있는 魯迅 휴머니즘의 이상과 같은 하부연민은 존재로서의 인텔리첼타적 측면을 초월하는 의식으로서의 아이덴티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기 휴머니즘의 존재를 초월한 의식으로서의 연계하부동질성은 <一件小事> 상의 자기회귀로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게 된다. 「날이 갈수록 사람을 업신여기게 된」 그를 휴머니즘 쪽으로 회귀시켜 주었던 <一件小事>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노파가 땅에 쓰러지자 인력거꾼은 걸음을 멈추었다. 그녀는 다진 것같지도 않았으며 계다가 보고 있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왜 인력거꾼이 공연한 일로 말썽을 일으킬까 하고 생각했다. 어쩌면 내 예정을 틀어지게 할 것 같았다.(중략)

“어떠세요?”

“넘어져서 다쳤단 말이야.”

꾸물거리다 넘어진 것이지 어찌 넘어져서 다쳤단 말인가?……그리

9) <阿Q正傳>《전집》제 1권, p.111.

나 인력거꾼은 노파의 말을 듣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노인의 팔을 끼고는 한발 한발 앞으로 걸어나갔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쪽을 보니까 거기에는 파출소가 있었다. (중략) 나는 갑자기 이상한 감동을 느꼈으며, 먼지투성이인 그의 뒷모습이 갑자기 커다랗게 느껴졌다.<sup>10)</sup>

(伊伏在地上，車夫便也立住脚。我料定這老女人並沒有傷，又沒有別人看見，便很怪他多事，要自己惹出是非，也誤了我的路。(중략)“你怎麼啦?”“我摔壞了。”我想，我眼見你慢慢倒地，怎麼會摔壞呢?(중략)車夫聽了這老女人的話，却毫不躊躇，仍然攙着伊的臂膊，便一步一步的向前走。我有些詫異，忙着前面，是一所巡警分駐所，(중략)我這時突然感到一種異樣的感覺，覺得他滿身灰塵的後影，剎時高大了。)

인력거꾼——연민대상범위로서——에 의한 휴머니즘의 발전적 회귀·수용을 보여주고 있는 이 사건의 연계동질성이야말로 전기 휴머니즘의 자기성찰을 가능하게 한 내적근거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을 의식전반에 대한 영향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건으로 인한 의식전반의 돌출로서 조감해 볼 때 사건 속의 한 지식인이 겪게 되는 무책임한 개별체주의의 해체야말로 지식인의 자기비판을 위한 선결조건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 3

휴머니즘이 대상에 대한 발전으로서의 비판과정이어야 한다면 魯迅은 휴머니즘을 실현한 작가이다. 왜냐하면 혁명의 좌절과 5·4의 퇴조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천이 퇴행과 변절에 대한 휴머니즘으로서의 비판과정이었기 때문이다. 辛革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타협을 모르고 희생적이며 아이들을 의경하는 동물학자이자 역사선생——군벌세력의 앞잡이로 전락해간 魏連受 비판으로서 그의 비판적 휴머니즘의 성격을 조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아시는 바와 같이 魏 선생은 운이 트이고 난 뒤에는 사람이 아주 달라져서서 말입니다. (중략) 저를 보고도 할머니라고 부르시더니, 후에는 ‘할당구’라고 부르셨고요. (중략) 사흘이 멀다하고 주연을 베풀고 떠들고 웃고 노래하고 마작을 하고 굉장했어요. (중략) 아이들이 그 양

10) 《전집》 제 1권, p.44.

반에게 뭔가를 사달라고 조르면 개 짖는 소리를 흉내 내게도 하고 마루에 머리를 딱하고 부딪히는 절을 시키는가 하면 호호호하고 웃고 떠들면서 그야말로 떠들썩 했지요.(중략) 게다가 저금같은 것은 한 푼도 안하고 물쓰듯 써버렸지요.”<sup>11)</sup>

(“你可知道魏大人自從交運之後，人就 and 先前兩樣了，(중략)見我是叫老太太的麼？後來就叫‘老家伙’。(중략)三日兩頭的猜拳行令，說的說，笑的笑，唱的唱，做詩的做詩，打牌的打牌(중략)。(孩子們)要他買東西，他就要孩子裝一聲狗叫，或者磕一個響頭。哈哈，真是過得熱鬧。(중략)他就不肯積蓄一點，水似的化錢。”)

장래와 삶에 대한 魏의 외경상실——그의 인간성 타락——을 주인공 할멈의 맹목적인 경이로써 비판하게 한 것은 소설 구성의 리얼리티를 위한 작가의 배려 때문이었겠지만, 魏의 변화를 개인적 범주로 국한함으로써 그의 제층이동에 대한 역사로서의 비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시각이 연민의 쪽에 더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전기 휴머니즘의 현실 연계상의 리비도성 때문일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전기 휴머니즘의 감정적 경향은 呂緯甫에 대한 그의 봉건적 퇴조 비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실란하니 자네가 그런 책을 가르치고 있다니……”

“나는 남이야. 좋다 그르다 할 수가 없지. 그저 어물어물 넘어가기만 하면(중략)한달에 20원이 들어와. 뭐(중략)못지낼 것도 없지.”(중략)

금사가 계산서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주었다. 그는 처음 만났을 때의 사양지심도 잊어버리고 힐끗 나를 쳐다보았을 뿐 담배를 피우면서 내가 지불하는 것을 모르는 척했다.<sup>12)</sup>

(“我實在料不到你倒去教這類的書(중략)”“我是別人，無乎不可的。(중략)只要隨隨便便，(중략)我每月二十元，也不大能夠敷衍。”(중략)堂信送賬來，交給我，他也不像初到時候的謙虛了，只向我看了一眼，便吸煙，聽憑我付了賬。)

11) <孤獨者> 《전집》 제 2 권, pp. 105~106.

12) <在酒樓上> 《전집》 제 2 권, pp. 33~34.

「대일같이 중국의 개혁을 논하고 나중에는 싸움을 하기도 했던」 한 천구의 「고복이나 다툼없는」 봉건적 「자기변화」와 「자기혐오」를 「불쾌감」으로서 비판하고 있는 전기 휴머니즘의 감상주의는 차기노선의 反封建우선을 생각하더라도 그의 가치론적 한계 때문이었다기보다는 인식으로서의 명료성·총체성의 결여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계층으로서의 속성과 역할에 대한 전기인식의 주관주의적 관념성이야말로 전기 휴머니즘의 리비도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孔乙己」「陳土成」으로서 대표되어지는 봉건인텔리의 몰락에 대한 전기휴머니즘의 시선이 비판이라기보다는 연민에 가까웠던 것도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1926년 일·비·영·불 등 8개 열강의 지원을 받고 있던 段祺瑞 군벌정부에 대한 학생계층의 집단항의가 발생되었다. 북경정부가 天安門광장에 모인 이들을 무차별 살상했음에도 불구하고 陳源 등 보수파 교수들은 사건의 책임이 군중지도자에게 있다고 공언하기에 이르렀다. 1926년 4월 10일 작가는 〈空談〉을 발표함으로써 보수파 지식인들의 반휴머니즘을 격렬히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작품내적 휴머니즘의 비판적 모호성과의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는 현실관계상의 전기 휴머니즘의 비판적 측면을 파악하기 위하여 〈空談〉의 일부를 절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어떤 자들은——나는 이들을 무엇이라고 불려야 할 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군중 지도자가 도의상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런 자들은 마치 맨손 대중에게 마땅히 발포해야 하고 집권정부의 앞은 원래 死地이며, 사망자는 스스로 그물에 투신한 거나 다툼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어찌하여 이런 엉큼하고도 악랄한 수단에 생각이 미친단 말인가? 이런 수단은 약간의 사람다운 점이 있는 자라면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군중의 과오를 압축해 보면 단 두 가지이다. 하나는 아직도 청원이 유효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고 하나는 상대를 너무 선량한 자들로 보았다는 것이다.<sup>13)</sup>

(有些東西——我稱之爲什麼呢，我想不出——說：群眾領袖應負道義上的責任。這些東西彷彿就承認了對徒手群眾應該開槍，執政府前原是“死地”，死者就如自投羅網一般。……怎麼能夠料到這陰險的辣手。這樣的

13) 《전집》 제 3 권, p. 202.

辣手，只要略有人氣者，是萬萬豫想不到的。我以為倘要鍛煉群眾領袖的  
踏處，只有兩點：一是選以請願為有用；二是將對手看得太好了。）

비판에 의한 동질성의 회복과 그 연계적 발전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적대적 양분——제국주의·군벌 연계세력범주로서——에 입각된 증오에  
가까운 전기 휴머니즘의 이상과 같은 태도야말로 반휴머니즘적 현상에 대  
한 전기적 성격의 집약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위 「愛憎分明」으로  
서 대표되어지는 魯迅 휴머니즘의 성격이 그 전기적 비판형식에 의하여  
유도되어진 것이었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는 사실일 것이다.

4

휴머니즘이 반인간적 현실에 대한 해방으로서의 실천과정이어야 한다면  
魯迅은 실천에 의하고자 한 작가이다. 세기말·세기초의 중국적 현실이  
구성하는 반휴머니즘적 기축을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로서 추상화할 때 魯  
迅은 반제·반봉건으로서의 양자에 대한 증오를 실현시켜간 작가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중국을 「고아」로 규정하고 제국주의를 「도둑」으로 규정한  
〈中國地質略論〉 상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전기 魯迅의 인간해방은 주로 봉  
건주의로부터의 해방에 관한 것이었다. 제국주의와 봉건적 수구주의와의  
사회내적 일체성 인식 결여로서 이해되어지는 전기 휴머니즘의 반봉건위  
주경향은 무엇보다도 봉건주의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증오대상화로서 구  
체화되고 있다.

만사는 언제나 연구해야만 비로소 알 수 있다. 옛부터 늘 사람을  
잡아 먹었다는 걸 나는 기억하고 있지만 그다지 확실하지 않다. 나는  
역사를 들추어 조사해 보았다. 이 역사는 연대가 없고 지면마다 모두  
‘仁義道德’ 따위의 글자가 꾸불 꾸불 쓰여 있다. 나는 이왕 잠을 이룰  
수 없었기에 밤중까지 자세히 살폈다. 그러자 글자들 사이에서 겨우  
글자를 찾아냈다. 책 가득히 온통 「吃人」이란 두 글자가 쓰여 있었  
다.<sup>14)</sup>

(凡事總須研究，才會明白。古來時常吃人，我也還記得，可是不甚清  
楚。我翻開歷史一查，這歷史沒有年代，歪歪斜斜的每葉上都寫着 ‘仁義

14) 〈狂人日記〉《전집》 제 1 권, p.12.

道德' 幾個字。我橫豎睡不着，仔細看了半夜，才從字縫裏看出字來，滿本都寫着兩字是“吃人”！)

경제·사회관계로서의 봉건적 모순을 「吃人」의 「禮敎」로서 추상화하고 있는 〈狂人日記〉상의 이같은 기술은 반휴머니즘적 실제의 역사적 존속을 인식하는 것으로써 문제의 제기를 완결하고 있다.

4천 년 동안 사람을 잡아먹어온 역사를 가진 우리. 처음에는 몰랐으나 이제 알았다. 참다운 인간을 찾기 어려움을!<sup>15)</sup>  
(有了四千年吃人履歷的我，當初雖然不知道，現在明白，難見眞的人?)

그가 봉건적 가족관계를, 「고귀한 어린아이들——가부장권보다도 더 유가치한——의 희생」과 더무늬 없는 강제가 강요되어지는 극복대상으로 인식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었으며, 봉건적 사회관계의 상부구조를 증오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할 일 없고 쓸모 없는 사람일수록 더 오래 살고 싶어하고 불후의 명성을 회구하며 자기 과시욕이 강해 질 뿐 아니라 더욱 더 타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며 월등한 허영을 더 잘 실현하는 법이다.<sup>16)</sup>  
(愈是無聊賴，沒出息的角色，愈想長壽，想不朽，愈喜歡多照自己的照相，愈要占據別人的心，愈善于擺臭架子。)

소위 중국의 문명이란 것은 결국 부자들을 위한 人肉파티장의 배열에 불과하며 소위 중국이란 것도 사실상 人肉파티를 준비하는 주방인 셈이다.<sup>17)</sup>

(所謂中國的文明者，其實不過是安排給闊人享用的人肉的筵宴。所謂中國者，其實不過是安排這人肉的筵宴的廚房。)

## 5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봉건적 강제에 대한 전기 휴머니즘의 인간해방론

15) 《전집》 제 1권, p.19.

16) 《古書與白話》《전집》 제 3권, p.154.

17) 《燈下慢筆》《전집》 제 1권, p.315.



은 과연 어떠한 것이었을까? 해방을 위한 실천의 제 1보로써 노신은 자기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너희들은 회개하는 것이 좋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다. 이제 사람을 잡아 먹는 인간은 세상에서 용납될 수 없으며 살아갈 수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스스로도 잡아먹힌다. 많이 낚아 보았자 참다운 사람에게 멸망된다.<sup>18)</sup>

(你們可以改了，從真心改起！要曉得將來容不得吃人的人，活在世上。你們要不改，自己也會吃盡。即使生得多，也會給真的人除滅了。)

자기 성찰에 상응하는 실천의 제 2보로서 「아이를 구하라」로써 상징되어지는 청년에 대한 교육을 들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의 양성이다. 양성된 인재가 있어야만 모든 일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재의 양성은 개성의 존중과 정신의 확장에 의해야만 한다.<sup>19)</sup>

(其首在立人，人立而後凡事舉；若其道術，乃必尊個性而張精神。)

관념적 계몽주의의 수준을 탈피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되어지는 이상과 같은 방법론들이 노·농운동과 정당창출 등으로 대표되어지는 20년대의 사적·전개에 상호침투적일 수 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 후기적 실천의 일반적 근거로서 작용하였을 魯迅 휴머니즘의 전기적 실천 정신을 차기의 대표적인 몇 마디로써 총괄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보다 나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발전의 가능성이 보이면 곧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며, 활동중에 발생하는 약간의 착오 또한 거리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살아 있되 진정 살아 있다고 할 수 없는 구차한 삶의 경우가 바로 전반적 착오를 의미한다. 그 구차한 삶은, 삶이란 허울속에 인간을 죽음의 길로 이끌기 때문이다.<sup>20)</sup>

18) <狂人日記> 《전집》 제 1 권, p. 18.

19) <文化偏至論> 《전집》 제 1 권, p. 193

20) <北京通信> 《전집》 제 3 권, p. 42.

(我以為人類爲向上，即發展起見，應該活動，活動而有若干失錯，也不要緊。惟獨半死半生的苟活，是全盤失錯的。因爲他掛了生活的招牌，其實却引人到死路上去！)

## 제 4 장 결론—전기 휴머니즘의 한계

### 1

휴머니즘이 인간해방으로서의 가치론이어야 한다면 그것은 현실인식의 가치론적 轉化이어야 하며, 현실에 대한 방법론으로서의 전화가능성이어야 한다. 가치론으로서의 휴머니즘이 자유와 필연의 문제로 귀결되어야 하는 것도 휴머니즘의 문제가 인간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문제이며 보다 나은 인간현실에 대한 신념의 문제인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근대에 대한 전기노신의 휴머니즘은 휴머니즘으로서의 총체성—가치·인식·실천의 총화—이 결여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제·반봉건에 입각된 그것의 비판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魯迅 휴머니즘의 전기적 속성 안에는 휴머니즘적 극복이 불가결한 상이한 두 개의 경향이 잔존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전기 휴머니즘이 수용하고 있는 관념론적 경향을 들 수 있다.

사람이 호머 이후의 대문학을 읽는다면 시와 친해질 수 있을 뿐더러 절로 인생의 심오한 분야에 접촉할 수 있어서, 그 장단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그것을 완전한 것으로 이룩하는 데 가일층 노력하게 된다. 이것이 문학의 효용이며 거기에는 교훈의 뜻이 담겨져 있다. 교훈이 되니 자연히 인생을 이롭게 한다. 그렇지만 그 교훈은 통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으며 용감한 정신으로 정진해야만 그 교훈을 살릴 수 있다. 조락되고 쇠퇴한 나라는 이 교훈을 살리지 못한 것이 반드시 그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sup>21)</sup>

(故人苦讀鄼謨(Homeros)以降大文，則不徒近詩，且自與人生會，歷歷見其優勝缺陷之所存，更力自就于圓滿。此其效力，有教示意，既爲教示，斯益人生；而其教復非常教，自覺勇猛發揚精進，彼實示之。凡蒼落頹唐之邦，無不以不耳此教示始。)

21) <摩羅詩力說>《진집》제 1 권 p.204.

다만 한 발만 방향을 바꿔서 지금 마음을 고치기만 하면 모두가 태평하게 됩니다.<sup>22)</sup>

(但只要轉一步，只要立刻改了，也就人人太平。)

휴머니즘은 존재에 대한 가치체제이어야 한다. 존재의 변화는 의식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지만 의식의 변화가 존재의 변화를 유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정신의 변화에 달려 있다」는 식의 전기적 관념경향이야말로 전기 휴머니즘 史的 절망의 주요원인이었을 것이다.

둘째로는 전기휴머니즘의 현상피리성을 들 수 있다. 현실의 史的 전개에 대한 인식의 괴리——제국주의 봉건세력에 대한 방법론부재와 지식인 계층에 대한 아이덴티티 부재 및 민중몰시경향 등——로서 명백해지고 있는 전기 휴머니즘의 현상일탈이 휴머니즘의 현상적 적용불능과 이에 따른 전기적 사상봉괴의 직접적 동인이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일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적 모순에 대한 노신의 다음과 같은 초인지향적 방법론 제기도 전기 휴머니즘에 의한 현상인식상의 전도 때문이었을 것이다.

오늘날 귀중하고 바람직한 것은(중략) 허망하고 맹목적인 자들과 시비를 함께 하지 않고 믿는 바를 향해 매진하며, 세상 모두에게 칭찬을 받아도 기뻐하지 않고 세상 모두에게 비난을 받아도 굴할 줄 모르며, 따르는 자 있으면 이를 거절하지 않고 욕설을 듣거나 세상에서 고립되어도 두려워 하지 않는 자이다. 세상의 어두움을 하늘의 빛으로 밝히고 국민의 숨겨진 영혼을 개발시켜서 사람마다 제각기 자신을 지키며, 풍파에 밀리는대로 방황하지 않게 되면 중국도 그로 말미암아 자립할 수 있게 된다.<sup>23)</sup>

(故今之所貴所望(중략) 弗與妄惑者同其是非，惟向所信是詣，舉世譽之而不加勸，舉世毀之而不加沮，有從者則任其來，假其投以笑侮，使之孤立于世，亦無懼也。則庶幾燭幽暗以天光，發國人之內曜，人各有己，不隨風波，而中國亦以立。)

## 2

그러나 이상과 같은 魯迅 휴머니즘의 전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魯迅은

22) <狂人日記> 《전집》 제 1 권, p. 17.

23) <破惡聲論> 《전집》 제 7 권, pp. 237~238.

휴머니즘을 완결한 작가이다. 휴머니즘의 자기완결이 현상관계에 대한 변증법으로서의 정반합과정이라면 그의 휴머니즘은 이와 같은 자기전화를 실천해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기적 성격——연민·비판·증오로서의——의 자기한계——관념경향과 현실과리——에 대한 극복으로서의 후기적 실천이 무엇에 의하여 어떻게 실현되어 갔는가를 구명하는 것이 본고의 다음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현실관계에 입각된 전기적 절망감의 후기적 극복이야말로 가치·인식·실천의 개별체적 총화이었던 후기휴머니즘의 질적 전화 때문이었을 것임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 참 고 도 서

1. 《魯迅全集》 제 1, 2, 3, 4, 7권 人民文學出版社：北京, 1958.
2. 《중국현대작가론》 黃南翔 외 지음, 박재연옮김, 은누리：서울, 1985.
3. 《현대의 휴머니즘》 務臺理作著, 풀빛편집부옮김, 풀빛：서울, 1983.
4. 《휴머니즘》 에리히 프롬편, 사계절번역실, 사계절：서울, 1982.
5. 《魯迅評傳》 丸山昇著, 韓武熙譯, 일월서각：서울, 1982.
6. 《중국현대사》 野村浩一著, 吳相勳譯, 한길사：서울, 1980.

# 魯迅과 辛亥革命

金 鍾 賢\*

〈목 차〉	
1. 서 론	3) 신해혁명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인식
2. 노신과 신해혁명	4) 지식인과 노동자 계층에 대한 인식
1) 노신의 혁명에 대한 기대와 좌절	3. 노신의 혁명인식 한계
2) 봉건관료·토지제도에 대한 인식	4. 결론

## 1. 서 론

문학현상은 사회현상과 분리될 수 없으며, 사회현상 또한 역사적 현상과 분리되어 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문학연구는 문학작품 속에 나타나는 현상과 그것들이 일어난 구체적 현실이 관련되어져 실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은 곧 사회학적이면서 동시에 역사학적인 어떤 방법을 가정하는 요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魯迅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의 주안점은 그가 묘사한 문학현상이 구체적인 사회현상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에 놓여져야 할 것이며, 동시에 문학작품—허구적 현실—속에 숨어있는 현실구조를 밝혀내고 그 속에 나타나있는 작가의 가치관·세계관 그리고 그것들의 한계 등을 밝혀내는 데에 놓여져야 한다.

魯迅이 그의 작품집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의학 수업을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던 그는 「병들거나 죽거나 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것을 불행하다고 까지는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저들의(중국인의) 정신을 뜯어 고치는 것이다. 그리고 정신을 뜯

\* 대구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어 고치는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는 문예가 가장 적합하리라』<sup>1)</sup>고 문예활동으로의 전환 동기를 밝히고 있다. 일본으로부터의 귀국이후에야 본격화하기 시작하는 魯迅의 문예활동이 신해혁명을 거침으로써 그의 前期所作<sup>2)</sup>을 혁명전후 사회현상의 반영으로서 점철중계 하였던 것도 이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本稿는 이러한 노신의 전기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그의 작품에 나타나 있는 사회현상이 구체적인 현실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작품을 통하여 나타나는 신해혁명에 대한 魯迅의 인식과 한계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 2. 魯迅과 신해혁명

신해혁명 당시의 주요 모순은 중국 민중과 제국주의 및 그에 매달린 청조 위정자의 연합세력 사이에 있었다. 19세기 후반, 독점단계에 들어간 제국주의 열강은 의화단사건 이후 심화된 중국 경제의 침체를 이용하여 그들의 경제적 이권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비록 여기에 대응하는 중국자본가가 형성되어 반식민지적·반봉건적 특성을 반영하지만, 제국주의와 봉건세력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료자본가와 민족자본가의 차이가 있을 뿐, 중국 농촌경제의 완전한 붕괴와 반제·반봉건의 성격을 띤 노동자 계층의 형성을 막을 수는 없었다.<sup>3)</sup>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하여 일어난 신해혁명은 민족부르조아계층과 소지식인 계층으로 형성된 주도세력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주도세력의 질적 복합성과 민중의 혁명적 에베르기에 대한 輕視등으로 좌절을 맛보아야 했다.

魯迅의 전기작품은 신해혁명을 전후로한 농촌경제의 붕괴, 봉건관료·토지제도의 모순을 고발하고 신해혁명을 통찰(洞察)함으로써 전기魯迅의 사회현상에 대한 인식과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주고 있다. 그렇다면 신해혁명은 魯迅에게 어떠한 기대와 좌절을 안겨 주었으며 봉건관료·토지제도와 혁명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魯迅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늘함자서> 《魯迅全集》 제 1 권, p. 5. (이하 《전집》)

2) 여기서는 《呐喊》과 《彷徨》을 지칭한다.

3) 기구찌 다카하루 《신해혁명과 중국근대화》 pp. 43~62.

### 1) 魯迅의 혁명에 대한 기대와 좌절

魯迅이 혁신사상에 접하게 된 것은 남경의 礦務鐵路學堂에 입학하여 嚴復이 주석을 가한 《天然論》을 읽게 된 때부터이나 혁명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의 표현은 일본 유학시절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남경에서 이미 혁신적인 흐름에 공감을 가지고 있었던 魯迅은 일본으로 유학하여 청조에 대한 혁명운동, 개량운동 사상이 무르익고 있었던 일본 유학생 사회에 몸을 담고, 개혁사상의 대변지였던 《清議報》, 《新民叢報》, 《讀書彙編》을 탐독하였다.

이름, 魯迅은 가장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혁명사상을 확인하였던 허수상과 많은 토론을 벌였는데 그들이 도달한 중국의 유일한 구제방법은 반노예화운동, 곧 反淸革命이었던 것이다. 이것으로 광무월로 학당 시절부터 시작된 민족의 운명에 대한 관심과 개혁에 대한 의지가 외국유학이라는 경험의 확장을 통하여 심화되고 열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학시절 노신의 혁명에 대한 경향성은 《民報》의 주간으로 있으면서 혁명사상을 고취시켰던 장명린의 국학강습회에의 참가를 회상하는 글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나는 《민보》를 애독했다. 별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선생의 글이 고건적이며 심오하고 어려웠다가 혹은 선생이 불법(佛法)을 해설하고 구분진화(俱分進化)를 강의했다는 까닭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청강하러 간 이유도 그가 학자라는 것 보다는 학문을 지닌 혁명가였다는 점에 있었다.<sup>4)</sup>

이렇듯 자기 자신의 당시 혁명에 대한 경향성을 시인하고 있으며, 또한 허수상이 편집하고 있었던 《浙江朝》에 〈스파르타의 혼〉·〈中國地質略論〉·〈라둠론〉등을 발표 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魯迅의 혁명에 대한 기대로서의 혁명인식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그가 당시에 발표한 〈중국지질약론〉에 드러나듯이 그의 혁명인식은 제국주의 열강이 침략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저항해야만 하는 것을

4) 丸山昇 《노신평전》 p.92 再引.

모르고, 좁은 세계 속에서 왜소한 다름과 충상을 일삼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혐오와 반발 위에 성립하고 있었다. 여기 그의 〈중국지질약론〉을 받게 인용해 보겠다.

우리 중국은 교아다. 남에게 채찍질을 당하며 먹히고 있다.……도둑에게 집을 빼앗기고도 자진해서 이들에게 재산을 준다. 주인이라는 자는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먹고 남은 찌꺼기를 받아먹으면서도 “친구여 네가 나를 먹여 살려 주는구나, 친구여, 네가 나를 먹여 살려 주는구나!”라고 감격하고 있다.<sup>5)</sup>

이러한 혐오와 반발은 당시 일본에서 혁명을 주창하는 유학생 집단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유학생의 태반이 법률과 경제를 배워서 귀국하면 관리가 되고자 하였으며, 혁명을 외치는 자도 혁명 그 자체 보다는 혁명 후의 신정부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쪽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에 대한 혐오와 반발이었다. 그러므로 魯迅의 혁명인식은 단순한 정치혁명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혁명을 내포하고 있었다 함이 옳을 것이다.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쉰다이의 의견에서 의학을 포기하고 문학으로 전환한 행위가 아닐까 한다. 그가 〈呐喊自序〉에서 幻燈사건을 얘기하면서 「어리석고 약한 국민이란 비록 채찍이 아무리 건장하고 오래 산다해도 기껏해야 무의미한 처형 재료나 그 구경꾼이 될 뿐이다」<sup>6)</sup>라고 당시의 중국인을 얘기하고 있다. 여기에서 魯迅이 말한 「어리석고 약한 국민」에 대해 丸山昇은 단순한 어리석음도 아니요, 정신적 빈곤이라는 말로 다 표현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좀더 근본적으로 인간을 인간답게 할 수 있는 생명력 같은 것이 결여된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sup>7)</sup> 그렇다면 인간을 인간답게 할 수 있는 생명력의 결여 상태에서의 혁명은 단순한 정치혁명이 아닌 어떤 인간혁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물론 정치혁명은 이러한 인간혁명의 실천과정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근본적인 것을 무시한 개

5) 《노신평전》 p. 50 再引.

6) 《전집》 제 1 권, p. 5.

7) 《노신평전》 p. 68.



량파나 입헌파의 대의제·부국강병·서구문명의 이식 등은 노신의 혁명인식 세계에서는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당시의 중국 민중에게서 이러한 인간성의 개혁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그의 <광인일기>에서 나타나는 인간관계의 암흑을 느꼈을 때 魯迅의 혁명에 대한 좌절은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신해혁명의 발발 이전에 벌써부터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은 아님이 확실하다. 이 점은 아직 논란이 되고 있어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지금까지 발견된 魯迅관계 자료에 의한 魯迅과 광복회의 관계라든지, 신해혁명 이전에 산적을 조직하기 위해서 그들과 왕래했다든지 하는 등의 마루야마(丸山昇)씨의 주장과<sup>8)</sup> 신해혁명을 맞을 당시 소흥으로 혁명군이 들어왔을 때에 스스로 혁명대회 의장에 취임하고 遊說隊를 조직하여 혁명의의를 설명하면서 혁명의식을 고취시킨 행위로 봐서는 더욱 분명하다. 孫伏園의 당시 魯迅에 대한 묘사와 일년 이후의 혁명에 대해서 魯迅 자신이 술회한 문장을 인용함으로써 신해혁명에 대한 기대를 알아보고자 한다.

노신 선생은 부임하셔서 전교 학생을 대면하시던 날 회색 면직의 스킨을 입고 머리에는 육군모를 쓰고 계셨다.……노신 선생의 이야기는 간결하고 힘찼다.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당시의 학생들이 신교장을 환영했던 태도는 마치 신국가를 환영하는 그것과 똑같았다. 그때의 열렬한 기분은 아직도 나의 추억 속에 똑똑하게 남아 있다. (憶魯迅先生, 1936)<sup>9)</sup>

민국 원년(1912년)의 일을 말한다면 그때는 확실히 광명에 차 있었습시다. 당시 나도 남경의 교육부에 있으면서 중국의 장래에 커다란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兩地書, 제 8신, 1925)<sup>10)</sup>

이렇듯 기대에 찬 혁명을 환희로 맞이하고, 중국의 앞날에 희망을 느꼈던 魯迅은 어떻게 좌절하고, 왜 좌절해야만 했는가. 우선 좌절의 큰 원인으로서 혁명의 변질을 들 수 있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서술하

8) 《노신평전》 pp.56~62. p.109 참조.

9) 同 p.115 再引.

10) 同 p.110 再引.

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의 좌절 양태만 말하기로 하겠다.

〈阿Q正傳〉이나 〈范愛農〉에서 얘기하듯 魯迅은 청조가 붕괴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의 권력 내용이 거의 변함없음을 목격함으로써 좌절하기 시작한 데다 혁명군으로써 도둑이 된 왕금발의 퇴행은 그의 좌절을 가속화 시키게 되었다. 게다가 그의 친구 범애농의 죽음과 그가 참여했던 미술교육을 임시교육회의가 삭제해버린 사실은 그를 더욱 깊은 좌절의 수렁으로 집어 넣었으며 퇴행세력인 원세개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었던 혁명파의 무력함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기대마저 상실케 하였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魯迅은 造像이나 탁본을 수집하는 행위에 몰두하게 되었다. 이것은 당시 원세개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택한 다른 사람들의 방법과도 동일하겠지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魯迅이 생각한 혁명이라는 것이 무언가 외부의 조직 혹은 정치세력에 대한 괴리나 충성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자신의 문제이었다고 볼 때에 긴 세월의 탁본 수집 행위는 혁명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만큼의 깊은 실망을 반증하고 있으며, 그런 실패혁명의 패배는 곧 자신의 패배이기도 했던 것이다.

## 2) 봉건관료·토지제도에 대한 인식

魯迅은 혁명이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인식아래 그는 봉건관료·토지제도야말로 인간과 인간사이의 투쟁과 증상 등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으로 여겼다. 그러므로 魯迅은 〈광인일기〉에서 피해망상증에 걸린 한 사람을 등장시켜 그가 처해있는 현실, 즉 봉건제도 아래서의 인간관계는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는 관계이며, 따라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일(吃人)」이라는 인간관계의 규정은 당시 지주계층이 소작인을 수탈하는 현실에 대한 상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소설 속에 나타난 주인공의 신분은 지주계층이지만 봉건제도 아래서의 모든 인간관계, 즉 지주와 소작인 사이와 같은 계층관계에 대한 자각을 광기(狂氣)를 빌어서 고발하고 있다.

사 천 년 동안 계속하여 사람을 잡아 먹어 온 곳에서 나 또한 오랜 세월 살아 온 것을 오늘에서야 알았다.

(四千年來時時吃人的地方，今天才明白，我也在其中混了多年)<sup>11)</sup>

11) 〈광인일기〉《전집》 제 1 권, p.12.

사천 년 동안 사람을 잡아 먹어 온 경력을 가진 나, 비록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이제는 분명히 알았다. 참다운 인간은 정말 보기가 어렵구나!

(有了四千年吃人履歷的我，當初雖然不知道，現在明白，難見眞的人!)<sup>12)</sup>

이와같이 魯迅은 봉건토지제도는 지주계층이 농민계층을 일방적으로 수탈하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제도라고 말한다. 또한 이러한 봉건 토지제도 아래서의 봉건지주와 농민은 서로 대립할 수 밖에 없는 관계이며 이것은 지배계층의 수탈욕과 계층의 유지를 위한 자기보호에서 연유한다고 보고 있다.

자기는 사람을 잡아먹고 싶어 하면서 또한 사람에게 먹힐 것을 무서워 한다. 그래서 모두는 극히 의심스러운 눈길로 서로를 훑기 훑기 쳐다보는 것이다.

(自己想吃人，又怕被別人吃了，都用着疑心極深的眼光，面面相覷。)<sup>13)</sup>

지주의 토지소유권과 전농(佃農)의 경작권이 협력내지 대항해가면서 전개되어 온 중국의 소작제도는 청조 중기 이래 전농이 먼저 열악한 경제조건 아래서 수확의 4~7할을 차지하는 생산물—화폐지대를 지불하고, 지주의 관혼상제에는 다양한 공물(貢物)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무상노동까지 강요 당했던 것이다.<sup>14)</sup> 이러한 농업경제의 구조 아래 청말부터 시작된 제국주의 침략은 어떠한 형태를 띠더라도 농업국이며 또한 대다수의 국민이 농민인 중국의 경우, 최후에는 모두가 농민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러한 당시의 농촌 상황을 魯迅은 〈故鄉〉, 〈風波〉등에서 날날이 고발하고 있다.

〈고향〉에서는 주인공의 어릴 적 친구인 윤토(潤土)의 입을 통하여 오랫동안 고향을 찾은 주인공에게 극도로 피폐해진 농촌의 상황을 얘기한다.

“정말 어려워요. 여섯 제 아이가 도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역시 버

12) 〈광인일기〉 《전집》 제 1 권, p.11.

13) 同, p.16.

14) 《신해혁명과 중국근대화》 p.51.

기에는 부족하답니다. ……또 세상도 태평스럽질 못하고……어떤 곳을 가더라도 돈이 필요해요. 정해진 법도 없고……농사도 또 엉망이에요. 농사를 지어서 팔러 나가면, 몇 번 석이나 세금을 내야하니 본전까지 팔리고, 그렇다고 팔지않자니 그저 썩힐 수 밖에 없고……”

(“非常難。第六個孩子也會幫忙了，却總是吃不夠……又不太平……什麼地方都要錢，沒有定規……收成又壞。種出東西來，排去賣，總要捐幾回錢，折了本。不去賣，又只能爛掉……”)<sup>15)</sup>

어머니와 나는 그의 형편에 탄식하였다. 자식은 많고, 흉년이 든데다, 지독한 세금, 군인·도둑·관리·양반들이 그를 고생시켜 마치 나무로 만든 인형같이 만들어 버렸다.”

(母親和我都歎息他的景況：多子，飢荒，苛稅，兵，匪，官，紳，都苦得他像一個木偶人了)<sup>16)</sup>

여기에서 魯迅은 군인·관리·양반 등을 당시 봉건토지제도 아래에서 농민을 수탈하는 지배계층으로 들고 있다. 실제로 당시의 滿淸 정부는 열강에 대한 배상금과 차관의 부담을 증세를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지정(地丁), 지조(地租), 잡부(雜賦) 등을 증액하여 농민에게 부과하고, 또한 염과(鹽課), 관세, 상세(常稅), 이금(厘金)도 결국은 농민에게 전가시켜 농촌경제의 붕괴를 가속화 시키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전농(佃農)은 점점 영세화하고, 고농(雇農=勞動者)을 증가시키는 농촌구조의 변화마저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고향>에서의 두 사람의 개탄 뿐만 아니라, <풍파>에서 말하는 농촌경제의 피폐상은 절망감을 내포하고 있다.

“난 일흔 아홉까지 살았다. 충분히 다 살았어. 눈뜨고 망하는 꼴은 보고싶지 않아. —차라리 죽는게 낫지. 곧 밥을 먹을 텐데, 또 볶은 콩을 먹어야 하니, 평생 가난이구나!”

(“我活到七十九歲了，活夠了，不願意眼見這些敗家相，一還是死的好。立刻要吃飯了，還吃炒豆子，吃窮了一家子!”)<sup>17)</sup>

15) <고향> 《전집》 제 1권 p.68.

16) 同 p.69.

17) <풍파> 同 p.52.

“대대로 나빠져만 간다!”

(“一代不如一代!”)<sup>18)</sup>

이상에서 나타난 당시 농촌경제 상황은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적 침략과 봉건관료·토지제도에 그 원인을 두고 있으며, 농민들의 봉건관료와 토지제도에 대한 불만을 심화시켜가고 있었다.

魯迅의 대표작 <阿Q正傳>에서는 주인공 阿Q를 통하여 혁명을 처음에는 모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봉건관료와 토지제도에 대한 불만이 생긴 뒤 혁명당원이 되겠다고 결심하기까지 이르는 심리과정을 나타내주고 있다.

우선 阿Q는 혁명당원이 살해되는 것을 보고 어디다 그 근거를 든 것인지는 모르나 혁명은 모반이라고 생각한다.

阿Q의 귀는 본래 벌써부터 혁명당이라는 한 마디를 듣고 있었고, 율해는 또 혁명당을 처형하는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기까지 한 것이다. 그러나 어디서 온 생각인지는 모르나 혁명당은 곧 모반이고, 모반은 그를 곤란하게 하는 것이어서 줄곧 매우 나쁜 것이며 완전히 없애 버려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阿Q의 耳朵裏, 本來早聽到過革命黨這一句話, 今年又親眼見過殺掉革命黨。但他有一種不知從那裏來的意見, 以爲革命黨便是造反, 造反便是與他爲難, 所以一向是“深惡而痛絕之”的。)<sup>19)</sup>

그러나 그가 살던 미장(未莊)의 봉건지주 세력인 거인(舉人), 수재(秀才)들이 혁명을 두려워하는 모습과 평소 그들에 대한 불만이 일치하자 혁명을 긍정하며 나아가서 그들에 대한 극심한 증오를 나타낸다. 阿Q가 혁명에 대해서 뚜렷이 아는 바도 없이 동조하게 된 것은 곧 거인과 수재들로 이루어진 지배층에 대한 반발이었던 것이며, 노신이 보여주고자 하는 신해혁명에 대한 하부계층의 참여는 이렇듯 감정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혁명당) 백리 밖에도 이름이 났다는 거인(舉人) 나오

18) 同 p. 53.

19) <阿Q正傳> 同 p. 99.

리로 하여금 이렇게 두렵게 할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는 약간의 기가 막힌 그런 기분을 던지기 어려웠다. 더구나 未莊의 그 X같은 자식들의 허둥대는 표정이란 阿Q를 더욱 기분 좋게 해주었다.

(殊不知這却使百里聞名的舉人老爺有這樣怕，于是他未免也有些“神住”了，況且未莊的一羣烏男女的慌張的神情，也使阿Q更快意)<sup>20)</sup>

“혁명도 좋지!” 阿Q는 생각했다. “이 빌어먹을 놈의 목숨 한 번 바꿔보자. 이 지경고 원망스런……나도 혁명당에 참가하지 뭐.”

(“革命也好罷。” 阿Q想，“革這伙媽的命，太可惡！太可恨！……便是我，也要投降革命黨了”)<sup>21)</sup>

“제일 먼저 죽어야 할 놈은 小D와 조씨나오리, 그리고 그 수재, 또 있어, 그 놈의 가짜 양놈……몇 놈이나 남기지? 털보 왕씨는 본래 남겨둘 만한데, 하지만 필요없어.”

(“第一個該死的是小D和趙太爺，還有秀才，還有假洋鬼子，……留幾條麼？王鶴本來還可留，但也不要了……”)<sup>22)</sup>

이상에서 인용한 작품에서 보듯이 신해혁명 당시의 토지제도에 입각된 신분관계는 농촌경제의 피폐에서 허덕이는 농민들에게 가장 먼저 철폐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이렇듯 魯迅은 그의 전기작품 속에서 토지관계에 의한 봉건적 신분관계와 농민 사이의 모순을 인식하고, 나아가서 이들의 해결을 위한 신해혁명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 3) 신해혁명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인식

신해혁명의 주도세력은 민주주의에 의한 專帝의 대체를 바라는 혁신부르조아지계층과 반역사적·봉건적 혁명을 반대하는 소시민적 지식인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러한 질적 복합성<sup>23)</sup>을 안고 일어난 신해혁명은

20) 〈阿Q정전〉 同 p.99.

21) 同 p.100.

22) 同 p.104.

23) 신해혁명의 주도세력은 부르조아지 계층 중에서도 민족부르조아지계층과 소지식인계층이 주도하여 일어났다. 소위 인텔리켄차 또한 부르조아지 계층에서 형성된 것이며 이 두 계층은 어떤 면에서 대립·모순의 관계가 아닌 동질성을 함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다. 신해혁명당시의 계층분류와 그에 관한 논술은 〈전기노신의 계층인식〉(김용운, 부산경남중국어문학회 지 2집)에 언급되어 있다.

하부구조인 노동자·농민에게 미치지 못하여 反革命세력에 의해서 좌절을 맛보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노신은 신해혁명의 이러한 내부모순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는 전기작품을 통하여 이러한 혁명주도세력의 구조적 모순과 그에 의한 혁명의 변질, 그리고 소지식인계층의 절망감등을 말해 주고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신해혁명 주도세력 자체가 질적 복합성을 안고 발발하였으며, 혁명당시의 《民報》와 《新民叢報》의 논쟁이 말해주듯이<sup>24)</sup>, 입헌파와 혁명파는 계층적 견지에서 혁명에 대한 이해의 대립을 보였고, 이 논쟁은 비록 혁명과 개혁의 기본적 차이를 명확히 하였다 할지라도 주도세력의 질적 복합성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신해혁명은 하부구조의 노동자계층까지 완전한 전달을 보지 못하였고, 결국 혁명의 변질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魯迅의 〈阿Q正傳〉과 〈范愛農〉에서는 혁명이후에도 지주와 구관료계층이 여전히 권력을 잡게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곧장 백기가 눈에 가득한 길을 따라 내려갔다. 그러나 길도 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鄉紳계층이 조직한 군정부이어서 속 뼈대는 아직도 옛날 그대로 무슨 철도 주주는 행정사장(行政司長), 전당포 주인은 군계사장(軍械司長)……들로 되어 있었다.

(我們便到街上去走了一通，滿眼是白旗。然而貌雖如此，內骨子是依舊的，因為還是幾個舊鄉紳所組織的軍政府，什麼鐵路股東是行政司長，錢店掌櫃是軍械司長……。)<sup>25)</sup>

魯迅이 혁명후의 정부를 「鄉紳들이 만든 정부」라고 묘사하듯 신해혁명 당시 각 성의 독립은 회당이나 신군 등 민중의 무력에 의하든가 그 압력에 의하여 성립되지만, 정권은 모두 조만간에 입헌파와 구세력의 수중에 떨어지고 만다. 예를들면, 혁명에는 성공하였으나, 지도자의 부재로 인하여 권력이 입헌부르조아지의 수중으로 떨어진다가, 혁명후 입헌파와 구세력의 반격으로 권력을 탈취당하거나, 청조 관헌의 자발적인 독립선언으로 권력이 구태의연하게 청조이래의 관료에게 장악된다든지 등으로 이 모두가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혁명의 성격이 변화됨에 따

24) 《신해혁명과 중국근대화》 pp. 119~127.

25) 〈범애농〉《전집》제 2권, p. 282.

라 농민과 하부계층이 소외되고 말았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낳고 있다.

〈阿Q正傳〉은 이러한 소외현상을 여실히 나타내주고 있다. 앞 글에서 얘기했듯이 주인공 阿Q는 봉건지주세력에 대한 증오와 혁명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다. 그런 阿Q는 혁명이 일어나자 제일 먼저 찾아간 암자에서 혁명의 대상이 되었던 계층이 오히려 혁명에 앞질러 참가하는 경우에 직면하게 된다.

“혁명이야……당신 알고 있나?……” 阿Q는 제멋대로 얘기하듯 말했다.

“혁명, 혁명, 벌써 혁명했어, ……당신들은 우리들을 어떻게 혁명하려고 하는거요?” 늙은 여승은 두 눈이 빨갛도록 얘기했다.

“뭐?……” 阿Q는 이상하게 느꼈다.

“당신 몰라요? 그들이 벌써와서 혁명했어!”

“누구?……” 阿Q는 더욱 이상했다.

“그 秀才하고 가짜 양놈!”

(“革命了……你知道?……。” 阿Q說得很含糊。

“革命革命, 革過一革的, ……你們要革得我們怎麼樣呢?” 老尼姑兩眼通紅的說。

“什麼?……” 阿Q詫異了。

“你不知道, 他們已經來革過了!”

“誰?……” 阿Q更其詫異了

“那秀才和洋鬼子!”<sup>26)</sup>

분명 혁명은 일어났으나, 구지배세력 역시 혁명에 참가하여 구태의연하게 지배세력으로 다시 잔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혁명의 변질에 대하여 阿Q는 혁명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절망감, 그리고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그는 여태껏 이렇게 무리한 기분을 느껴본 경험이 없었던것 같았다.<sup>19)</sup>  
(他似乎從來沒有經驗過這樣的無聊。)<sup>27)</sup>

26) 〈아Q정전〉《전집》제 1권, p.103.

27) 同 p.107.



하얀 투구와 하얀 갑옷을 입은 사람들은 분명히 왔는데, 아는 체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많은 좋은 물건을 날랐는데도 자기 몫은 없었다. —“이 모든 것은 그 죽일 놈의 가짜 양놈이 내가 보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이번에 왜 내 몫이 없어?” (白盔白甲の人明明到了，並不來打招呼，搬了許多好東西，又沒有自己的份，—“這全是假洋鬼子可惡，不准我造反，否則這次何至于沒有我的份呢？”)<sup>28)</sup>

신해혁명은 이와같이 지주 계층과, 구관료 계층이 주도하는 성질로 변화됨에 따라 농민과 하부계층은 혁명에서 소외되었으며, 이것을 정확히 인식한 魯迅은 이러한 신해혁명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거인 나오리와 趙수재로 대표되는 이들 계층이 신해혁명을 통해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부류이며, 이들이 이제는 청조의 遺臣 티를 내기 시작했다<sup>29)</sup>는 풍자로써 신해혁명의 구조적 모순을 얘기한다.

#### 4) 지식인과 노동자계층에 대한 인식

신해혁명의 구조적 모순을 인식한 魯迅은 전기작품에서 그로 인한 소지식인 계층의 타락과 청년과 노동자 계층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나타내 주고 있다.

魯迅이 전기작품에서 보여주는 소지식인 계층의 타락은 두 가지 양태로 볼 수 있다. 하나는 혁명후 퇴행세력과의 적극적인 타협으로 인한 타락, 다른 하나는 혁명의 좌절로 인한 소지식인 계층의 무력감과 적당주의이다.

전자의 경우는 <孤獨者>에서의 魏連受를 들 수 있다. 위연수는 혁명후의 퇴행세력과 타협하여 소위 출세를 한 뒤, 申飛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실패와 타락을 고백한다.

나는 실패 했다네. 이전에도 나는 스스로가 실패자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는 실패가 아니었고, 지금이 정말로 실패자인 것을 이제야 알았다네.

28) 同 p.108.

29) 同 p.114.

(我失敗了。先前，我自以爲是失敗者，現在知道那並不，現在才真是失敗者了。)<sup>30)</sup>

여기에 새로운 손님, 새로운 선물, 새로운 아침, 새로운 출세운동이 있고, 새로운 비굴함과, 마작과 파티, 경멸과 적의, 새로운 불편증과 자멸이 있다…….

(這裏有新的賓客，新的饋贈，新的頌揚，新的鑽營，新的磕頭和打拱，新的打牌和猜拳，新的冷眼和惡心，新的失眠和吐血……。<sup>31)</sup>)

위연수의 고백을 통하여 그의 타락과 그와 연결된 혁명후의 사회현상을 실패라고 자인하게 함으로써 魯迅은 실패혁명의 실패를 명백히 해주고 있다. 비록 魯迅이 이러한 소지식인 계층에 대해서 얼마간의 동정을 품고 있기는 하지만, 퇴행세력과 적극적인 타협으로 인한 타락은 魯迅에게 있어서 실패혁명 후 나타나는 절망감의 한 요소이기도 하다.

다음의 경우는 <주루에서>의 呂緯甫이다. 주인공과 같이 매일 중국을 개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하고, 맞붙어 싸우기까지 했던 여위보는 세월이 흘러 그런 의기를 뺏겨치고 무력감과 적당주의에 빠지고 만 것이다.

“그 애들의 아버지는 그 애들이 이런 것들을 공부하길 원해. 나는 남이야. 못할 것도 없지. 이런 무묘한 일들이 뭐 별건가? 그저 아무렇게나 적당적당히……”

(“他們的老子要他們讀這些：我是別人，無乎不可的。這些無聊的事算什麼？只要隨隨便便……”)

“그럼, 너는 이후에 어떻게려고 준비하고 있지?”

(“那麼，你以後豫備怎麼辦呢?”)

“이후?—나는 몰라. 너도 봐, 우리가 그때 예상했던 일들이 그 하나 뜻대로 된게 있나?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어. 내일조차도 모르겠고, 일 분 이후조차도……”

(“以後?—我不知道。你看我們那時豫想的事可有一件如意? 我現在什麼也不知道，連明天也不知道，連後一分…….”)<sup>32)</sup>

30) <고독자> 《전집》 제 2 권, p.100.

31) 同 p.101.

32) <주루에서> 同 p.33.

이러한 소지식인 계층의 무력감과 적당주의는 혁명에 대한 관념적인 동참과 실천의 결여로 인한 어쩔 수 없었던 좌절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양태가 魯迅이 지적한 혁명 좌절 이후 소지식인 계층의 타락이며 이러한 타락상은 魯迅의 전기작품 곳곳에 나타나는 절망감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魯迅은 〈一件小事〉에서 주인공과 인력거꾼을 대비시켜 실천력이 없는 소지식인 계층의 반성과 노동자 계층의 한 인력거꾼이 보여주는 인간성의 실천을 통하여 용기와 희망을 얻고자 하였다. 그러나 희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자기가 만들어낸 이상」<sup>33)</sup>이 아닐까 하고 회의한다거나, 「희망은 미래에 있는 것이므로 절대로 없다고 하는 내부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을 깨뜨릴 수 없는 것」<sup>34)</sup>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의 전기작품은 다음 세대인 청년들과 농민·노동자 계층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희망에 그치고 있다.

### 3. 魯迅의 혁명인식 한계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魯迅의 혁명인식상의 한계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다. 첫째, 신해혁명이 반봉건·반제국주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魯迅의 혁명인식이 반봉건에만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sup>35)</sup> 1900년대 후반 이후의 중국은 제국주의 열강의 직접적인 각축장으로 되어서, 결국 생산으로부터 격리되어 독점자본주의의 유지·존속을 위한 원료·노동력의 수탈대상, 제품의 판매시장 및 제국주의 팽창을 위한 전략기지로 전략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정치권력을 이용한 이권의 대열강전매와 이에 따른 차관의 사적인 전용(轉用), 그리고 차관계약 수수료의 점유 등에 의하여 형성된 관료부르조아지, 또한 이들 관료부르조아

33) 〈고향〉《전집》제 1권, p. 71.

34) 〈술함자서〉同 p. 7. 「是的, 我雖然自有我的確信, 然而說到希望, 却是不能抹殺的, 因為希望是在於將來, 決不能以我之必無的證明, 來折服他之所謂可有」

35) 노신의 제국주의에 대한 인식은 〈중국지질약론〉등에 나타나 있기는 하나 완전히 정리되어진 것이 아니며, 혐오와 반발의 감정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국지질약론〉《전집》제 7권, p. 217 참조.

지에 종속되어 자기 이익의 보호를 위한 하부구조에의 직접적인 관여와 수탈을 행한 수구부루조아지 계층은 직간접적으로 모두 제국주의 열강의 정치·경제적 중국 침략에 기초를 둔 것이다.<sup>36)</sup> 이런 점에서 볼 때에 魯迅의 제국주의에 대한 인식의 결여는 그의 혁명인식상의 한계로 지적되어 질 수 있다. 이 점은 제국주의의 타도 또한 혁명의 분명한 목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혁명후 동맹회가 대외선언을 통하여 청조가 체결한 제국주의 열강과의 모든 불평등조약·차관조약을 승인하고 말았다는 신해혁명 자체의 한계와 일치하고 있다.

魯迅의 신해혁명 인식상의 두 번째 한계는 혁명인식에 있어서의 관념적인 면을 제거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념적인 면은 魯迅 자신 또한 경계 하였던 것 같으나 역시 어쩔수 없는 한계이었음에 분명하다. <傷逝>에서는 한 남녀의 관념적인 애정이 생활의 변화와 현실의 압박 앞에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줌으로써 관념에서의 탈피를 이야기하려 하였으나 기타 작품에서는 여전히 그의 인식상의 관념론적인 면을 노출시키고 있다. 특히 <광인일기>에 나타나는 魯迅의 혁명인식은 상당히 관념적이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봉건지주와 농민 사이의 모순은 당장 마음만 진실되게 고치면 극복되어질 수 있다고 의치고 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어서 마음을 고치기만하면 모두가 태평하게 됩니다. 옛날부터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전력을 다해 마음을 고쳐먹고 안된다고 해야 합니다.”

(“但只要轉一步，只要立刻改了，也就人人太平。雖然從來如此，我們今天也可以格外要好，說是不能!”)<sup>37)</sup>

물론 한 狂人の 입을 통한 절규의 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마음만 바꾸면 된다는 식의 혁명인식으로 긴 역사의 뿌리를 가진 봉건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지 못한 魯迅의 관념적인 일면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노신의 혁명에 대한 관념성은 미래의 사회상을 이야기하는 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혁명이후의 제모순에 대한 그의 회고와 절망은 다음과 같다.

36) <전기노신의 계층인식> (김용운, 부산경남중국어문학지 제 2집)

37) <광인일기> 《전집》 제 1권, p.17.

희망이라는 것에 생각이 미쳤을 때 나는 갑자기 두려워졌다. ……내가 말하는 희망이라는것도 나 자신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닐까?  
(我想到希望，忽然害怕起來了。……現在我所謂希望，不也是我自己手製的偶像嗎?)<sup>38)</sup>

그들은 기념을 잊고, 기념도 그들을 잊은 것이야! 나도 기념을 잊어버린 한 사람이지.  
(他們忘却了紀念，紀念也忘却了他們！我也是忘却了紀念的一個人。)<sup>39)</sup>

이와같은 노신 혁명인식상의 한계는 신해혁명의 좌절과 함께 회의와 절망을 안겨주고 있으며, 魯迅의 전기작품 이면에 면면히 엿보이는 그의 史的 絶望감은 이러한 혁명인식의 한계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 四. 결론

봉건제도의 타파, 공화정의 수립, 민주혁명을 통한 토지제도의 개혁을 주요 목표로 일어난 신해혁명은 주도세력의 내부모순과 민중의 혁명적 에너지의 경시 등으로 인하여 좌절을 맛보아야 했다. 魯迅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그의 전기작품을 통하여 신해혁명을 전후로 한 농촌경제의 피폐상, 소지식인 계층의 정신적 타락, 신해혁명의 모순 등을 지적함으로써 신해혁명이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당위적 요소와 혁명의 좌절로 인한 시대적 절망감을 드러내 놓고 있다. 이점은 노신의 혁명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정치혁명에만 그치지 않고 인간혁명에까지 확산되어 있었다는 것과 자기 인식상의 한계로 인하여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혁명에 너무 많은 기대를 가졌었다는 것 때문이었다.

전기작품을 통해서 나타나는 魯迅의 혁명인식은 신해혁명을 전후로 한 사회현상의 제모순을 지적·비판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魯迅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상의 관념적인 면과 그에 따른 절망감 등의 한계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주지해야 할 것은 앞에서 말한 부정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신해혁명의 좌절은 魯迅에게 신해혁명이 가지고

38) <고향> 同 p.70.

39) <머리카락 이야기> 同 p.46.

있었던 제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혁명의지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아래에 인용한 문장은 노신의 신해혁명에 대한 인식과 혁명후의 제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나는 혁명 이전에 노예였고, 혁명 후 얼마되지 않아 노예의 속임수로 그들의 노예로 변하고 말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수 많은 민국(民國)의 국민이 바로 민국의 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수 많은 국민이 마치 독일이나 프랑스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같이 그들의 마음 속에 또 다른 국가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나는 수 많은 열사들의 피가 모두 사람들에게 밟혀 없어졌으나 그것 또한 고의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sup>40)</sup>

#### 참고 문헌

1. 《魯迅全集》 제 1, 2, 3, 7권, 人民文學出版社; 北京, 1958.
2. 《魯迅評傳》 丸山昇著, 韓武熙譯, 일월서각; 서울, 1982.
3. 《中國現代史》 野村浩一著, 吳相勳譯, 한길사; 서울, 1980.
4. 《신해혁명과 중국근대화》 菊池實晴著, 임영식譯, 한빛; 서울, 1982.
5. 《중국혁명의 전개과정》 중국사연구회편, 거름; 서울, 1985.

40) <갑작스레 생각나는것들> 《전집》 제 3권, p.12.

「我覺得革命以前，我是做奴隸；革命以後不多久，就受了奴隸的騙，變成他們的奴隸了。我覺得有許多民國國民而是民國的敵人。我覺得有許多民國國民很像住在德法等國裏的猶太人，他們的意中別有一個國度。我覺得許多烈士的血都被人們踏滅了，然而又不是故意的。我覺得什麼都要從新做過。」

## 魯迅의 美學思想

齊一 · 편집실譯

노신의 작품이 감동적이며 독자에게 자기성찰과 심오한 철리를 터득케 해주는 이유는 그것이 작가의 예술적 역량을 집중적으로 포괄하고 있으며 그에 반영된 특색이 그의 심미적 이상을 선명하게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시대상황 속에서 자신의 적대세력과 부단히 대립했던 노신이 체계적인 美學專書를 남길 수는 없었지만 창작활동 전반을 통하여 발표한 문학에 관한 정예한 논술은 적지않다. 실사 그의 문학이론에서 제기된 미학이 고도의 수준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은 작품들이 그의 미학사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미학의 중요관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바는 많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노신의 창작과 이론을 연결, 상호인증함으로써 그의 미학사상의 윤곽을 추출해내어 보다 깊이있는 토론의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 (一)

노신의 미학사상은 주로 문학작품을 통해 표현된 것으로서 그의 소설·이론·시·잡문 모두가 이 방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노신 연구에 있어서 명확한 이론과 방법에 입각, 그의 작품전반과 예술적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는 것은 확실히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며 이러한 기초 위에서 그의 문학적 경험에 대한 이해도 가능할 것이다. 그가 예술의 본질문제—사실주의·낭만주의·典型化·내용과 형식·미적 본질 등—에 관해서 어떠한 견해를 견지했었던가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는 미학에 관한 그의 기본사상을 탐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미학적 시각에서 그의 작품을 이해할 수 있고, 그의 작품이 바로 노신 미학사상을 밝히는 근거로서 작용하고 있음과 이론과 실천의 통일체로서의 노신 예술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노신의 작품은 애증이 분명하고 전투적 성격이 강렬한 바 그는 5·4전야의 반제국주의·反봉건주의적 상황을 배경으로 예술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문학이라는 유력한 무기를 사용하여 봉건적 전통에 도전하고 있다. 그가 발표한 첫 백화소설 <광인일기>는 중국현대문학사의 정수로서 여기서 노신은 뽀박받는 한 광인의 자술 형식을 통하여 「인의도덕」의 진면모를 폭로하고 선철이 낭자한 인간의 비극을 묘사하고 있다. 각성한 「광인」은 진실된 역사를 접하면서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다.

내가 역사책을 펼쳐보니 여기엔 연대는 없고 페이지마다 온통 「인의도덕」이란 몇 글자가 빼뺏하니 쓰여져 있었다. 어차피 잠은 못이루고 밤늦도록 자세히 살핀 결과 글자들 틈에서 겨우 글자를 찾아냈다. 책에는 온통 「식인」이란 두 글자가 쓰여져 있었다.<sup>1)</sup>

직접 봉건제도의 시련을 경험한 계몽사상가는 위선으로 뒤덮인 잔혹한 사회를 이와같이 절저히 증오하고 있는 것이다. 투철한 책임정신으로 연구에 전념한 결과 결국은 거짓과 진실을 간파해내고 중국 역사의 발전법칙에 접근함으로써 소설로서의 완벽한 형상화를 가능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광인일기>를 봉건제 타도의 격문이자 신문화운동 유도의 기치로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노신이 설정한 「광인」의 머리 속은 회의·공포·진지한 분석으로 충만하여 출판 생활 속의 비밀들을 발견해내고 있다. 한때 그가 「古久선생이 뽀뽀히 써온 낡은 장부」을 짓밟음으로써 「趙貴翁」은 동조자들과 약속하여 그와 적대관계를 맺게 된다. 그 중에는 각종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은 유혹에 빠져 남을 박해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통치집단이 만든 역사란 상대하지 못할 것임을 반영하고 있다. 만약 누군가가 우민정책을 목적으로한 서적에 관해서 왈가왈부한다면 필연코 반대자의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구질서를 옹호하는 문화적 주구들을 규합하여 계몽적인 신문화를 반박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 봉건사상에 물든 자들을 몽롱한 상황에 안주케하며, 반항은 커녕 오히려 구태의연한 망국의 길을 맹목적으로 추종케 할 것이다. 「광인」은 각종 食人的인

1) 《노신전집》 제 1 권, p.12 (이하 《전집》)



물—자기 형제를 포함하여 자기의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까지도—을 분석하여 의미심장한 추론을 설정하고 있다. 그들이 일단 남을 외면하면서 악인이라고 말하면 악인으로 불린 사람 역시 그를 먹어치울 이유를 갖게 된다. 노신이 생활했던 시기에는 많은 반봉건적 진보파 지식분자들이 악인으로 무고를 받아 박해를 받는다. 노신 역시 한때는 「학원깡패」로 매도되어 수난을 당한 바 있는데 이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면모란 실로 다양하다. 「광인」은 일기 속에서 그를 「치료」해주는 의사를 본래 사형집행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코 한 미치광이의 잠고대는 아니다. 그가 감정을 분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가가대소하며 아주 유쾌해진 것은 바로 「이 웃음소리 속에는 많은 용기와 정의가 배어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기」<sup>2)</sup> 때문이다.

〈광인일기〉의 초점은 사회를 쪼먹는 전통세력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수천년에 걸쳐 형성되어 요지부동인데다 사람들이 또한 당연시하며 그에 안주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인은 「지금껏 이렇게 해온 것이 과연 옳은가」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문제는 바로 사상해방의 관전으로서 만약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면 사람들이 낡아빠진 「완강한 굴레」에서 벗어나 화창한 미래로 향하기란 그야말로 불가능해지는데는 것이다. 봉건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역사무대에서의 인간관계란 「광인」이 기록한 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바, 그것은 「나 자신 남을 잡아먹을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남에게 먹힐까봐 모두 극도로 의심에 찬 눈초리로 서로의 동정을 살핀다」<sup>3)</sup>는 것이다. 봉건세력이 통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회에서의 민중이란, 경제적으로는 가혹한 착취를 당하고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며 사상적으로는 수탈을 금과 옥조로 여기는 일련의 학살에 노예화되기 마련이다. 봉건적 도덕규범을 근간으로 한 종법제도 하에서 야만적 습속이나 예법은 정당화되고 따라서 봉건소유제와 봉건통치권을 전적으로 옹호하는 법칙과 방식이 제정됨으로써 중국에서는 참담한 사회질서가 조성된다. 食人的 참극이 연출되는 이러한 역사적 조건을 직면한 노신으로서의 당연히 그 종식과 합리적 생활의 출현을 갈망하게 된 것이다. 당시 어떤 방식으로 사회개혁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 하는 점에 관해서 그가 과학적인 답변을 제시할 수는 없었지만〈광인일

2) 《전집》 제 1 권, p. 13.

3) 同, p. 16.

기)를 통해서 食人的 현실과 과거를 파악하고 그 미래까지 예견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와같은 식인적 상황 하에서 反淸세력이 겪는 좌절과 우여곡절을 지적하면서도 결국 혁명역량의 흥기와 더불어 봉건사회의 기초가 동요되고 따라서 식인제도 역시 소멸될 것이라는 신념은 확고하다. 특히 이미 「신세기의 서광」을 어렴풋이나마 바라보고 있었던 노신은 광인으로 하여금 「너희는 즉각 진심으로 마음을 고쳐야해. 장래에는 식인이 용납되지 않음을 알아야해」<sup>4)</sup>라고 큰소리치게 할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된 것이다.

노신의 민중에 대한 애정과 그 반대세력에 대한 증오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결집됨으로써 민중들에게 특별한 흡인력을 갖게 되고, 그의 작품이 지니는 심오한 철리는 시대정신과 민중의 이익에 부합되었기 때문에 확고부동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우리는 또한 그의 작품 속에서 정의감에 넘치는 기백을 감지할 수 있는 바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신랄한 질책은 있을지언정 저주나 위협은 찾아볼 수 없으며 그의 미학이 가지는 격정과 理智는 작품의 중요한 특색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생활과 작가의 사상이 변모함에 따라서 표현형식이나 직·간접성이라는 차이가 존재할 뿐 노신의 필봉은 시종 일관된 것으로서 요컨대 그 목적과 효과의 초점은 구제도 타파와 각종 폐단의 일소에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노신문학의 풍부한 성과는 그가 처했던 객관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청년시기부터 노신은 내우외환의 고난·변법유신의 실패·신해혁명 참가·袁世凱의 稱帝·張勳의 復辟 및 군벌할거 등의 혼란상을 목격함으로써 제국주의와 결탁한 봉건세력의 탐욕·잔인·오만불손한 제특성을 깊이 인식하게 된다. 이와같은 매국적 통치집단의 외고집과 기만술책, 혁명의 좌절로 인한 정신적 타격 등은 그에게 많은 문제를 상기시켜 주게 된다. 따라서 그의 활동은 역사에 부응하는 사유에 기초되어 동시대 선구자들의 의지와 겨의 일치하며, 예술적 언어를 통해 자연스럽게 시대정신에 부합되는 사상을 표현해냄으로써 당연히 진보적인 민중으로부터 강렬한 호응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만약 문학작품 속에서 작가의 창조적 상상력이 시대적 심미감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예술로서의 진정한 완성품은 결코 출현하지 않을 것이다. 깊은 감명을 주는 어떠한 예술형상도

4) 《전집》 제 1 권, p. 78.

그것이 사회적 배경과 유리될 수는 없다. 예술가는 모름지기 민중과 그 호흡·운명을 같이 해야하고 작품 속에 시대적 맥박이 보이지 않는다면 결코 심미적 가치를 지닌 작품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예술가 주위에 그와 인식을 같이하는 자가 없다면 그의 소리는 결코 공감을 불러 일으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구사회 타파와 시대정신의 확립을 위해서는 예술가와 민중의 밀접한 결합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렇게함으로써 작품 역시 역사적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불후의 명작이 될 것이다.

노신이 구축한 뛰어난 성과에는 자신의 주관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 그것은 그가 의학을 포기하고 분학으로의 전변을 기도함으로써 反봉건적 계몽운동이라는 명확한 목적성을 인식했다는 사실이다. 그가 26세 때 일본에서 쓴 〈摩羅詩力說〉은 그의 초기 미학사상을 중점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서 여기서 그는 바이런(Byron)·셸리(Shelley)·미케비치(Mickiewicz) 푸시킨(Pushkin)·레르몽토프(Lermontov)·페토프(Petőfi)등 이른바 「악마」 시인들의 생애·사상 및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부르조아적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하에서 창작활동을 해온 반항시인들로서 이들의 사상에 전적으로 공감한 노신은 중국민중에게 계몽주의 미학사상을 선전하는 본보기로서 이를 채택하게 된 것이다. 물론 전기노신의 사상적 한계성으로 인하여 서방 문학사조 수용에 있어서 그가 취사선택상의 약점을 노정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중국사회개혁의 실현을 전제로한 문학예술이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경향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노정되고 있다.

현재 중국을 살펴볼 때 정신계의 부사가 월만한 자가 있는가? 至誠으로 우리를 선량하고 강건하게 해줄 자가 있는가? 부드럽고 다감한 소리로써 우리의 飢寒을 구원해줄 자가 있는가? 5)

피압박민족을 중점적으로 다룬 《域外小說集》의 편집작업은 이러한 의도에 기초한 것으로서 문학에 임하는 정신자세, 현상개조의 방법, 실천과 이론에 있어서 그가 새로운 노신을 채택한 이유 등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물론 일시적으로 노선전환을 기도함으로써 사상적 모순을 노정하기도 했

5) 《전집》 제 1권, p. 234.

지만 일생동안 이 방향으로 부단히 매진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5·4운동은 그에게 있어서 영광과 시련의 기점이 된다. 훗날 그는 당시 자신의 창작을 「복종의 문학」이었다고 회고하는데 이는 민중의 계몽운동에 대한 복종을 의미한다. 또한 그의 창작이 개인적 명리나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명제와는 무관한 것임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예를들어 「왜」소설을 쓰는가라고 할 때 나는 역시 10여년 전의 「계몽주의」를 염두에 두면서, 「인생을 위한 것」이어야하고 또 이 인생을 개선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소설을 「심심풀이 서적」으로 간주한 이전 견해를 극히 중요하며, 「예술을 위한 예술」은 단지 심심파적의 또 다른 별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sup>6)</sup>

미술계의 형식주의 경향을 지적, 사상성을 강조하고 있는 다음의 견해 역시 상기 논리에 외연된 노신의 명확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미술가에게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진보적인 사상과 인격이 한층 더 요구된다. ……우리가 요구하는 미술품이란 중국민족의 지능의 극치를 나타낸 표본이어야지 수준 이하 사상의 평균치는 아니다.<sup>7)</sup>

이 논리가 후기노신의 사상에 비교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퇴행적이고 소극적인 집단에 대해서 명백한 한계를 규정하고 있음은 분명하며 5.4운동 주도세력이 매관문인이나 국수주의 인사들과는 대조적임을 지적하고 자한 의도가 엿보인다. 또한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당시 「과학·민주」에 반대했던 반역사적 인물들이 결국 구군벌 또는 신군벌의 주구로 전락했으며 그들의 「부화뇌동」적인 작품 역시 민중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버렸던 것이다.

1927년 이후 노신은 자기 사상을 보다 확대·심화하게 되고 미학이론이나 창작 역시 신국면을 노정하게 된다.

6) 《전집》 제 4 권, p.393.

7) 《전집》 제 1 권, p.404.

몇몇 과학적인 문헌론을 읽은 후 이전의 문학사학자들이 언급했던 많은 사실이 극히 모호한 의문점인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프릭하노프(Plekhanov)의 《에솔론》을 번역하게 되었고, 이로써 진화론을 맹신했던 나 자신—나로 말미암은 남들까지—의 편견을 수정하게 되었다.<sup>8)</sup>

20년대에서 30년대에 걸친 노신의 창작행위는 비교적 완곡한 것으로서 이 점은 그가 蕭軍·蕭紅에게 보낸 다음의 편지 속에 잘 나타나고 있다.

근래 문장에 대한 탄압이 더욱 엄격해져서 단문조차 거의 발표할 곳이 없다. 작년에 집필한 것을 살펴보니 短評·雜文이 각각 1권 분량으로 금년 내에 출판하려한다. 그러나 새 문장은 다시 쓰지 않겠다. 이 몇년동안은 정말 힘들다. 가까운 시일 내에 古書를 읽은 뒤 무슨 책으로든 만들어 써온 부분은 한번 도려내버리려고 한다.<sup>9)</sup>

이와같은 판단 하에서 완성된 몇편의 신편고사는 만년의 수작으로 거론되며 그의 예리한 필치·중국 혁명에 대한 확고한 신념·부패세력에 대한 첨예한 폭로정신이 잘 반영되어 있다.

9.18사변 이후의 일제침략, 집권세력의 두능, 제국주의 편승세력의 진횡을 체험한 노신은 각종 문학형식을 통하여 이를 반박하고 있다. 작품〈非攻〉은 不義의 전쟁에 대한 작가의 반전 사상을 《墨子》《戰國策》《淮南子》등 고전문헌의 사례를 빌어 토로한 것이다. 실천이 수반되지 않은 당시 위정자의 「구국합성」이 민중선동적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임을 간파한 그는 墨翟이 宋나라에서 管黔敖와 접견하는 장면을 설정, 당대 상황을 극명하게 비유하고 있다. 즉 管黔敖가 禽滑釐와 전쟁준비에 부심할 때 曹公子는 탁상공론만 연발하고, 관리가 된 후에는 옛친구조차 외면한다. 결국 상부구조의 항전지원 거부와 하부구조의 재정결핍이 구성하는 부조화 속에서 조공자는 전쟁참여를 선동하고, 목적은 민중 우선론을 주장한다. 이러한 매립적 상황은 당시의 실제상황과 완전히 합치하는 것으로서 국가존망·민중의 사활을 철저히 도의시한 고위직 관료와 재벌의 몰인정·사악·표리부동적 성향이 반영되어 있다. 당시의 소위 「민족문학가」들은 자신의

8) 《전집》 제 4 권, p.6.

9) 《노신서신집》 하권, p.717.

「회생」을 누차 강조했지만, 상부구조에 협력하면서 사상적 혼란만을 야기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판단 하에서 노신은 생생한 형상·적절한 비유로써 자기 나름대로의 근원적인 문제제기를 시도한 것이다.

墨翟은 楚王을 접견하여 宋에 대한 침공은 「도벽」과 같다는 사실을 교묘히 인식시킨다. 이 대면에서 목적은 논리정연한 반면 상대방은 완전히 궁지에 몰려 말문이 막혀버린다. 또 戰術 테스트를 가정한 게임을 통하여 楚가 宋을 공격하면 그들의 방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도 주지시킨다. 마지막으로 公輸般의 殺氣를 간파한 墨翟은 反戰을 고수하는 宋인들이 철저히 진을 치고 대비하고 있어서 墨翟 자신을 죽인다고해서 宋이 학락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한다. 결국 宋에 대한 침공이 취소됨으로써 정의가 불의를 이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非攻>의 결말부분에는 또 하나의 작은 삽화가 들어있다. 그것은 墨翟이 宋 首都로 들어오면서 구국모금 대원을 만나 다 떨어진 보따리를 빼앗기게 된 사실이다. 이는 당시 상부계층이 반계운동을 외면한 채 현금을 구실삼아 민중의 재산을 착취한 사리사욕적 작태를 노정했었음을 명백히 반영한 것이다.

노신의 최후 10여년은 국민당과의 대립이 가장 첨예화하였던 시기로서 이 시기에 발표된 그의 창작·이론방면의 변신은 민중문학에 대한 작가의 명백한 견해표명으로서 극화되어진다. 4.12정변으로 반국민당적 견해를 굳히게 된 노신은 지도층의 비호하에 「자신을 매도하고나선 상대방」과 그들의 문장 속에 출현하는 「타도」「살해」「피투성이」 등의 표현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노신은 그야말로 「위대한 영웅적 존재로서, 비판 대상자들이 감히 입을 못열게 할만큼 뛰어났던 것이다. 또한 그들의 작품이 「문장 도처에 혁신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눈먼 채점관이나 속일 수 있을 뿐」<sup>10)</sup>이라고 지적하였다. 민중문학과 반민중문학의 경계를 명백히 해둘 필요가 있었던 이 시기에 노신의 이와같은 언급은 「민중문학」의 진위를 명확하게 구별해낸 것으로서, 민중문학의 실천방향을 제시해주는 한편 자기 자신도 이 노선을 견지함으로써 민중문학대열을 구성하였던 것이다.

계층 간의 대립과 그에 관한 학설은 노신 미학사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하는데 이는 문학의 계층성에 관한 그의 언급에서 드러나고 있다. 당시 梁實秋는 민중문학이론이 계층적 구속력을 문학에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 하였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은 다같이 회로애락이나 연애감

10) 《전집》 제 3권, p.408.

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본가이건 근로자이건 간에 그 「본성」은 같다는 것이었다. 이 주장에 대하여 노신은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하였다.

문학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면 「본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당연 하나. 그러나 문학은 인간이 그 주체이기 때문에 계층사회에 있어서의 해당 계층성은 무시될 수 없는 것으로서 「속박」을 가할 필요도 없이 필연적으로 노정되기 마련이다. 「죄로애락이 인지상정이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국민자에게는 가게를 열면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따위의 근심이 없고, 석유부호가 석탄찌꺼기를 줍는 복경 노파의 고통을 알리 없으며, 빈민가의 이재민이 부호들처럼 난초를 심지는 않을 것이다. 賈氏 집안의 하인 焦氏 역시 그 주인의 사촌누이인 林小姐를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다.<sup>11)</sup>

이와같이 노신은 문학의 계층성을 입증하면서 양실추의 예술관을 설득력있게 비판하였다. 계층사회에서의 예술이란 필연적으로 일정한 계층의식을 표현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소위 「탈계급」적 작가라느니 「예술을 위한 예술」이니 하는 따위의 논리가 존재하듯이 민중계층 역시 민중을 위한 자신의 문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노신은 문학예술에 상표를 붙이는 대신 계층성을 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면서 작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쓰며 왜 그렇게 써야만 하는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진보적인 민중 계층이라면 그가 쓰는 것은 무엇이든지 예술품이 될 수 있다. 그것은 그가 무슨 일을 썼건, 어떤 소재를 선택했건 간에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틀림없이 어떤 공헌과 의의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sup>12)</sup>

이 말을 통하여 우리는 일경 계층의 미학원리는 절대 단순화·저속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문학예술이 당대의 사회현상에 기여도를 발휘하려면 그것이 역사상 어느 시기보다도 번창해야하며 한 작품이 실사 중대한 의미를 지닌 소재를 표현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만약 그것이

11) 《전집》 제 4 권, p.164.

12) 同 p.292.

감상자에게 미적 기쁨을 줄 수 있고 건전한 정신생활에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사회발전에 도 적극적인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노신은 또 하나의 생생한 비유를 제시하였다.

만약 한 전사가 수박을 먹는다면 일반적으로 먹는 자세에 대해서 고려를 할까?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 자신은 아마도 갈증과 먹었다는 욕망과 맛이 좋다는 사실만 느낄 뿐 그 외에는 다른 어떤 즐거움은 설교에도 관심이 없을 것이다. 수박을 먹은 후 심기일전하여 전투에 임한다면 목이 타고 혀가 갈라질 때와는 다를 것이다. 따라서 수박을 먹는 것은 분명 전투와 관련을 갖게 되지만, 上海 당국이 나름대로 필연성을 가지고 설정한 전략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온종일 얼굴을 찌푸리면서 먹고 마신다면 오래지 않아 위가 뒤집힐 것인데 전투가 다 무엇이겠는가?<sup>13)</sup>

이것은 당시 어떤 사람이, 수박을 먹을 때는 국토분단을 상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한 말로서 당시 정치와 예술에 대한 단순화·저속화가 어느 정도였던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개선하기란 상당히 힘든 과정이었지만 노신은 이미 30년대 초반에 이 점에 주목하여 그 시정을 시드한 바 있다. 소설 창작에 관하여 그는 「현재 쓸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쓰되 시대에 편승할 필요는 없다」 「다만 소재 선택은 엄격하게 해서 깊이있게 다루어야지 자질구레하고 무의미한 일로 메꾸어 넣어서 안 된다」고 말하고 투철한 역사 인식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안주해서는 안되며 개혁이 없는 자기멸망—시대에 대한 협력과 공헌을 과거하는 것이기도한—을 초래할 뿐이다」<sup>14)</sup>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견해는 정치와 예술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사성을 제시한 것으로서 만약 이 문제에 정확하게 대처할 수 없다면 문학예술을 통한 사회적 실천이란 거론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노신의 후기 저술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 예술본질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인식할 수 있다. 그는 예술이란 일종의 의식형태로서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반영일 뿐만 아니라 사회개혁에도 적극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서

13) 《전집》 제 6권, p. 488.

14) 同 pp. 293~294.



과약하고 있다. <sup>내</sup> 그는 예술이라는 의식형태는 고유의 특수성을 지  
 한다고 보고, <sup>작품은</sup> 예술가가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그 생활을 반  
 영한 결과이다. <sup>예술가는</sup> 또 자기 특유의 창조방법을 운용하여 생활을 충  
 실히 반영한 예술가가 생활을 통한 단련과 집중적인 개괄을 거쳐 박진  
 달린 능동적인 예술형상으로 창출해낸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강한 생동감과 실득력을 갖게되며 어떠한 의식형태보다도 더 용이하  
 롭은 민중에게 수용되어 사회혁신의 유력한 수단으로 전변되는 마 예  
 술의 본질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노신은 이러한 예술의 본질·법칙을 과  
 약한 뒤, 자신의 창작과 이론을 상호연계시켜 문제해결을 시도함으로써  
 중국미술 응용에 탁월한 공헌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그  
 본문  
 다 그  
 지  
 줄  
 학생  
 사상

(二)

노신의 작품은 정확한 관찰력과 理想에 기초, 역사와 현실을 깊이  
 분석비판하고 동시에 미래에 대한 조감을 수반함으로써 성공을 거  
 다.

중국인  
 눈가림  
 7 눈가림  
 4 실을 감  
 우리 작  
 명을 파악하  
 겠다. 따라  
 다. 15)

초기작품 <악>은 사실주의 정신과 적극적인 낭만주의 색채를  
 면서 혁명열사 및 신해혁명에 대한 총결산을 시도하고 있다  
 건적 미신의 피해를 입어온 華老陰 부부가 혁명가의 희생  
 나 격분은 못느끼고 오히려 부랑배를 통해 혁명가의 피로  
 다가 자기 아들을 구하려고 한다. 이러한 비참상은 그  
 을 관통하면서 부르조아지 혁명으로서의 신해혁명이  
 되고 있는가를 인식시켜 준다.  
 반면 혁명가의 기재와 수난상은 다음과 같이

노  
 서  
 세  
 련의  
 영합  
 하게  
 노신  
 그는 <4

“夏三爺는 정말 영리해. 자기가 먼저 冤이  
 문이 몰살되었을거야. 지금은 돈도 귀재되  
 돼먹지 않았어, 감옥에 감혀서도 여전히  
 다니!” 15)

! 사고방향이  
 눈 이와같이  
 다르서 어떻게

혁명가 夏瑜는 친척의 배신으로  
 15) 《전집》 제 1권, p. 31.

용하기 위해서 즉  
 관하여 노신은

맹스러운 것인가,  
 17) 것인가, 이는 전혀  
 18) :

어  
 16) 《전집》

상급도 타게된다. 육중지사로서 간수  
두의 것이라는-를 선전하는 것  
켜준다. 그러나 피비리  
은이는 하유의  
라며 보

합성이라고 하면 마땅히 주장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나는  
증종 간접적인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즉 작품 <藥>에서 夏瑜 무덤에  
근거없이 화환 하나를 갖다둔 것이 그것이다. ....이는 당시 주동자의  
주장이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sup>19)</sup>

노신의 이러한 적극적 낭만주의 수용과 응용은 <약>에서 그 구체적 면  
모를 찾을 수 있다.  
낭만주의와 사실주의는 18,9세기 서양에서 발전·형성된 문학 경향으로  
서 창작방법에 있어서도 그 고유의 특징을 갖는다. 낭만주의는 예술가의  
주관적 감정과 상상력을 중점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예술적 상상과 예  
술적 과장을 통하여 이상화된 형상을 추출해낸다. 또 작가의 理想이 현실  
개혁의 목적에 부합하느냐 위배되는냐에 따라 그것은 적극적인 것인가 소  
극적인 것인가로 구분된다. 적극적인 낭만주의 예술가는 현실의 기초 위  
에서 상상력을 발휘하며 소극적 낭만주의는 그 작가가 현실을 일탈하지  
않고서 허구적인 환상으로 변모시켜 독자에게 허무맹랑하다는 인식  
심을 줄 뿐이며 실사 理想의 표출에 신경을 썼다고해도 부자연스럽고

찰벽  
정을  
동달한  
반이할뿐  
:신의 작  
의 자연주  
독자에게  
천박한 눈  
으로써 노신  
의 창작방법.  
<臧自序>에서  
리석고 약한 국  
제 1권, p.33.

조라는 인상을 면치 못하게된다.  
사실주의란 객관적 현실을 중점적으로 반영하면서 현실생활의 본  
추적한다. 따라서 사실주의 예술은 사회적 실재를 통하여 배양된 실  
시 정신을 구현하며, 기본적으로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태도나 방법  
중한다. 사실주의 예술가는 깊이있는 관찰과 분석을 도입, 명백한  
식을 추구한다. 물론 사실주의와 낭만주의의 구별이 절대적일 수  
없고, 뛰어난 예술가의 경우 이 두 사조를 동시에 수용하기도 한다.  
낭만주의와 소극적 낭만주의 역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상호 규정  
계를 갖는다. 다만 문학작품 연구에 있어서 그 작가의 특정 시  
경향과 작품 속의 구체적인 표현이 어떠한 것인가는 명백히 해  
있다.

노신의 초기 창작과 논술에서 우리는 그가 바이런이나 셸리  
시인들의 영향을 받았으며 동구나 러시아 사실주의 소설가의  
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는 중국사회 개  
근거를 두고 비관적 사실주의와 적극적 낭만주의라는 예리한

19) 《전집》 제 1권 p.8.

파악하고 있다. 동시에 그는 예술이라는 의식형태는 고유의 특수성을 지닌다고 보고, 예술작품은 예술가가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그 생활을 반영한 결과이며, 예술가는 또 자기 특유의 창조방법을 운용하여 생활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과학적인 개념·추론·판단과는 달리 예술이란 예술가가 생활을 통한 단련과 집중적인 개괄을 거쳐 박진감있고 감동적인 예술형상으로 창출해낸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독창적인 생동감과 설득력을 갖게되며 어떠한 의식형태보다도 더 용이하게 많은 민중에게 수용되어 사회혁신의 유력한 수단으로 전변되는 바 예술의 본질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노신은 이러한 예술의 본질·법칙을 파악한 뒤, 자신의 창작과 이론을 상호연계시켜 문제해결을 시도함으로써 중국미술 응용에 탁월한 공헌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 (二)

노신의 작품은 정확한 관찰력과 理想에 기초, 역사와 현실을 깊이있게 분석비판하고 동시에 미래에 대한 조감을 수반함으로써 성공을 거두고 있다.

초기작품 〈약〉은 사실주의 정신과 적극적인 낭만주의 색채를 조화시키면서 혁명열사 및 신해혁명에 대한 총결산을 시도하고 있다. 오랫동안 봉건적 미신의 피해를 입어온 華老榕 부부가 혁명가의 희생에 대한 동정이나 격분은 못느끼고 오히려 부랑배를 통해 혁명가의 피를 적신 만두를 사다가 자기 아들을 구하려고 한다. 이러한 비참상은 그가 전체역사의 흐름을 관통하면서 부르조아지 혁명으로서의 신해혁명이 민중과 어떻게 괴리되고 있는가를 인식시켜 준다.

반면 혁명가의 기재와 수난상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夏三爺는 정말 영리해. 자기가 먼저 밥에 고발하지 않았다면 그 일이 몰살되었을거야. 지금은 돈도 귀게되었지! 그런데 이 애는 정말 돼먹지 않았어, 감옥에 갇혀서도 여전히 간수에게 모반을 권유하려들다니!”<sup>15)</sup>

혁명가 夏瑜는 친척의 배신으로 체포되고 밀고자는 오히려 화도 면하고

15) 《권절》 제 1권, p. 31.

상금도 타게 된다. 옥중지사로서 간수에게 혁명의지—대청 친하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를 선전하는 장면은 여혁명가 秋瑾의 장한 모습을 연상시켜준다. 그러나 피비린내나는 이 사건을 왈가왈부하면서 20여세의 한 젊은이는 하유의 간수에 대한 모반 권유 사실에 대해 「거 정말 지독하군」이라며 분개하고 간수가 하유의 빵을 두 차례 때렸다는 말에 한 곱사등이는 즐거워한다. 결국 이들의 의론이 담소 중에 끝남으로써 비극적인 분위기는 보다 고조된다. 소설 말미의 무덤에 대한 묘사는 혁명후계자의 존재를 부각시키면서 작성한 민중이 어떻게 발전적 혁명을 유도할 것인가를 다음과 같이 예고해준다.

무덤에는 때가 아직 완전히 덮이지 않은 채 군메군메 황토를 드러내고 있어서 정말 보기 좋았다. 다시 위로 자세히 보니……분명 최고 붉은 꽃들이 그 뽕족한 무덤의 꼭대기를 에워싸고 있었다.<sup>16)</sup>

〈약〉은 각성제적 성격을 띤 자극적인 작품으로서 독자의 현실인식과 미래 전망을 가능케 해 준다.

현실반영과 이상추구를 배경으로 한 이와같은 작품은 작가의 진지한 관찰력과 원대한 식견이 망라됨으로써 작가가 사상적으로 단계적인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감동력을 제고시켜 왔는가를 보여준다. 진실성과 동달한 모습으로 인하여 형성된 작가의 이러한 미학은 동시대 작가들과관이 할뿐만 아니라 역사적 시련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음을 반영해준다. 노신의 작품은 공상적 성격을 초월하여 理想的인 신념이 충만하고 모방으로서의 자연주의가 아니라 현실생활에 대한 개척으로서의 의미를 지님으로써 독자에게 인생을 보다 용감하게 대응할 수 있게 고무시켜주며 반면 일련의 천박한 문장들은 구악은폐와 개혁회피라는 대조적인 정신상태를 반영함으로써 노신과는 선명한 대조를 이루어 민중의 환영과 존경에서 일탈하게 된다.

노신의 창작방법은 자신의 문학과관과 긴밀하게 관련되며 이점에 관해서 그는 〈呐喊自序〉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어리석고 약한 국민은 아무리 그 체격이 정상적이고 건강하다고 해

16) 《전집》 제 1 권, p. 33.

도 아무런 의미없는 전시재료나 관객이 될 뿐, 얼마간 병사한다고해도 불행하다고 여길 필요가 없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의 정신을 개조하는 것이며, 당시 나는 정신개조물 위해서는 문학을 추진해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문학운동을 제창하리라 작정했다.<sup>17)</sup>

그의 이러한 견해는 일본영화를 본데서 출발한 것으로서 노일전쟁 당시 일본군의 중국인 학살에 대해서 많은 중국인들이 무감각하게 방관만 하게 되자 그는 큰 자극을 받게된다. 그가 仙台의전을 떠나 친구들과 함께 문학잡지를 만들게 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이러한 출발은 그 자신의 각성과 결심 그리고 창작방법의 발전방향을 잘 설명해준다.

문화생활의 실천문제를 언급한 다음과 같은 견해는 노신의 비판적 사실주의 사상을 제시해주는 적절한 실례가 될 것이다.

중국인은 즐픈 인생을 적시하지 못하고 슬기거나 숙여만 왔기 때문에 눈가림과 속임수의 문학예술이 탄생했으며 이로 인하여 한층 더 깊숙히 눈가림과 속임수의 높으로 빠져들게 되었고 굽기야는 자기 자신이 그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게 되기에 이르렀다. 세계는 날로 변하고 있으며, 우리 작가들은 가면을 벗고 진심으로, 깊이있게 그리고 대담하게 인생을 파악하여 자신의 진정한 내면을 묘사해야 할 시기도 이미 도래하였다. 따라서 진작 참신한 문단, 몇명의 용감한 투사가 출현했어야 했다.<sup>18)</sup>

계몽사상가적 사고방향이 여기서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비판적 사실주의의 창작방법은 이와같이 작가가 무엇을 지향해야하며 이상과 희망을 지닌 진보적인 작가로서 어떻게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개혁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작가는 또한 어떻게 적극적 낭만주의를 수용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노신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나의 합성이 용맹스러운 것인가, 비애로운 것인가, 또는 가증할만한 것인가, 가소로운 것인가, 이는 전혀 고려할 여유가 없다. 다만 기왕

17) 《전집》 제 1권, p. 5.

18) 同 p. 332.

합성이라고 하면 마땅히 주창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나는 종종 간접적인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즉 작품〈藥〉에서 夏瑜 무덤에 근거없이 화환 하나를 갖다둔 것이 그것이다. ……이는 당시 주창자의 주장이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sup>19)</sup>

노신의 이러한 적극적 낭만주의 수용과 응용은 〈약〉에서 그 구체적 면모를 찾을 수 있다.

낭만주의와 사실주의는 18, 9세기 서양에서 발전·형성된 문학 경향으로서 창작방법에 있어서도 그 고유의 특징을 갖는다. 낭만주의는 예술가의 주관적 감정과 상상력을 중점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예술적 상상과 예술적 과장을 통하여 이상화된 형상을 추출해낸다. 또 작가의 理想이 현실 개혁의 목적에 부합하느냐 위배되느냐에 따라 그것은 적극적인 것인가 소극적인 것인가로 구분된다. 적극적인 낭만주의 예술가는 현실의 기초 위에서 상상력을 발휘하며 소극적 낭만주의는 그 작가가 현실을 일탈하게 됨으로써 허구적인 환상으로 변모시켜 독자에게 허무맹랑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뿐이며 설사 理想의 표출에 신경을 썼다고해도 부자연스럽고 날조라는 인상을 면치 못하게 된다.

사실주의란 객관적 현실을 중점적으로 반영하면서 현실생활의 본질을 추적한다. 따라서 사실주의 예술은 사회적 실재를 통하여 배양된 실사구시 정신을 구현하며, 기본적으로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태도나 방법을 존중한다. 사실주의 예술가는 깊이있는 관찰과 분석을 도입, 명백한 현실인식을 추구한다. 물론 사실주의와 낭만주의의 구별이 절대적일 수는 없으며, 뛰어난 예술가의 경우 이 두 사조를 동시에 수용하기도 한다. 적극적 낭만주의와 소극적 낭만주의 역시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상호 규정적인 관계를 갖는다. 다만 문학작품 연구에 있어서 그 작가의 특정 시기의 주요 경향과 작품 속의 구체적인 표현이 어떠한 것인가는 명백히 해둘 필요가 있다.

노신의 초기 창작과 논술에서 우리는 그가 바이런이나 셸리 등 낭만파 시인들의 영향을 받았으며 동구나 러시아 사실주의 소설가의 제시에도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는 중국사회 개혁의 필요성에 근거를 두고 비판적 사실주의와 적극적 낭만주의라는 예리한 무기를 단련

19) 《전집》 제1권 p.8.

해는 것이다. 또한 기만적인 「문학예술」을 반대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을 정시하도록 하였다. 理想이 없는 퇴행적인 생활을 반대하고 사회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표현에 치중함으로써 일반민중의 진보를 도모하였던 것이다. 그의 문학활동에 입각된 공헌과 역할이 구사회의 암흑상을 폭로하고 지배계층의 수탈과 부패를 비판하는 비판적 사실주의를 노정하게 된 것도 이때문이었다. 물론 일부작품군에 내재된 진보적 낭만주의의 색채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그의 주요한 특색은 될 수 없을 것이다.

노신의 민중문학 경향은 과학주의에 입각된 역량제고를 결과함으로써 그의 창작과 미학을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하였다. 따라서 국민당의 민중작가 살해에 대한 노신의 반응은 분노일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민중문학은 태동과 동시에 탄압과 지탄의 대상이 됨으로써  
암흑 속의 선혈로서 첫문장을 써낼 수밖에 없었다.<sup>20)</sup>

이것은 민중문학에 대한 당시 지배계층의 탄압을 설명해주는 것으로서 同상황 하의 문예활동이 고도의 침략성을 띤 형식이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치못할 경우에는 성과는 커녕 작가로서의 존속조차도 어려움을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신의 정신세계가 이상과 같은 환경으로서의 조약성으로 인하여 폐퇴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史的 낙관론과 민중문학의 장래에 대한 그의 신념이 상황 이상으로 확고부동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적 상황에 대한 노신의 방법론적 실례로서 <理水>를 들 수 있다. <理水>는 《尙書》·《史記》상의 전설을 현실적 생활관계로서 재구성한 것이다. 첫장면의 수재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과 방황은 국민당 치하의 참담한 민중실태를 연상시켜준다. 수재 참극의 와중에도 불구하고 외래식품으로 걱정없이 학문연구에 전념해오던 文化山의 학자들은 治水에 관한 민중유리·관료지향적 탁상공론을 벌이게 된다. 이어서 수재조사관들이 출현한다. 그들은 山上의 학자와 신사들로부터 피해상황을 보고받은 후, 이튿날은 여독을 핑계로 공무와 면회를 사절한다. 다음날은 학자들의 초빙으로 頂上에 올라 老松의 美를 완상하고 오후에는 뱀장어 낚시를 즐기며 저녁까지 보내게 된다. 나흘째는 조사상의 피곤을 핑계로 다시 공무와 면회를

20) 《전집》 제 4 권, p. 221.

거절한다. 다섯째 오후에야 백성대표를 만나게 되는데 강제동원된 대표는 전혀럼 흑이 나도록 맞을까봐 먹고 마시며 놀고있는 관료들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게 된다.

“저희는 어쨌든 방도가 있습니다. 물이끼의 경우, 滑溜翡翠湯을 끓이면 가장 좋고, 느릅나무 잎으로는 一品當朝羹을 만듭니다.”...21)

하품을 하며 듣고 있던 관료들은 대표의 말을 가로막으며 공문형식의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다. 관료와 수재민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 장면은 역사와 현실의 추악함을 실감있게 반영한 것으로서 이것은 구사회 관료체제에 대한 노신의 명료한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我要騙人〉에서

분명 2, 3년전 엄청난 수재가 발생했었다. 내가 알기로 중국에는 「水利局」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매년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일을 하는 줄 아는데, 오히려 이런 홍수가 발생하더니.....22)

라고 기술하였는데 예술적 형상화의 역사적 일치는 자고이래의 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의 묘사는 사실로서 수용됨으로써 독자·작가간의 공감대를 심미감각으로 전환시키게 된 것이다.

두 관료가 수도로 돌아오자 수리국의 등료들은 큰 연회를 베풀게 되었다. 술이 몇순배 돌고난 뒤 두 사람은 갈대꽃이 눈같이 희더라는 등, 흙탕물은 황금과도 같았다는 등, 뱀장어는 살찌고 기름졌으며 푸른 이끼는 매끈매끈했다는 등 수재지역 연도의 풍경을 화제에 올렸다. 바로 이때 난폭해퇴는 한때의 사나이들이 달려들어 왔다. 얼굴이 검고 야윈 알장선 자의 모습이 馮임이 확인되자 모두들 술기운이 사라지게 된다.馮가 조사상황을 묻자 관료 한사람이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아직은 괜찮았습니다. 인상도 썩 좋았지요. 소나무 껍질이나 수초의 생산량도 적지않고……, 사람들이 모두 성실한데다 생활에도 익숙해져 있어서… 나으리, 그들은 고생을 견디는 것에 있어서는 가히 세

21) 《전집》 제 2 권, p. 337.

22) 《전집》 제 6 권, p. 396.



계 적이었음조.”<sup>23)</sup>

治水에 관한 한차례의 논쟁을 끝낸뒤 禹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山澤을 조사하고 백성들의 의견을 종합하는등 실정을 완전히 파악함으로써 생각을 정하게 되었다. 그것은 물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며, 여기 이 동료들도 모두 내 의견에 동의하였다.”<sup>24)</sup>

그리고는 손을 들어 양견을 가리키는데 거기에는 검고 야윈 남루한 사 람들이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웃지도 않은 채 구조물처럼 즐지어 서 있었 다. 禹와 그 동료들에게는 중국 고대의 민중일반과 위대한 인물들이 견지 해온 실사구시·고난극복의 미덕이 역력히 드러나 보인다. 반면에 禹에 대립적인 관료나 학자들의 언행에서는 역대 관료들의 일반민중에 대한 무 관심과 어용문인들의 아부근성이 확연하게 표출되고 있다. 그들의 소위 「천직」이란 극도의 사치행위로서 일반민중의 이익을 전적으로 외면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집권계층은 재난의 해소에는 무기력했을 뿐만 아니라 재앙의 근원이었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일반대중의 재난을 구제한 것은 실천적인 민중이나 그들의 이익을 대표했 던 탁월한 인물들이었던 것이다.

노신은 생활을 통한 혁신세력의 숭고한 정신을 목격함으로써 민중일반 이 제승해온 우수한 전통을 회고하게 되었으며 또한 구제타파의 가능성을 예견함으로써 혁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다. 그의 후기所作이 민족과 인류의 미래에 대한 自己理想의 반영이요 하였던 것도 노신후기 세계의 전기와는 다른 특징일 것이다.

사회발전법칙에 입각된 인류사회의 변화는 문학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다. 따라서 생활관계상의 법칙성에 입각된 사실주의 문학이 역사 적 사실과 사회내적 존재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사회와 인류의 미래를 예 측할 수 없다면 그것은 공상과 공론에로의 전락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주의의 미명하에 현실을 왜곡해온 논리들이 민중으로부터 외면당하고

23) 《노신전집》 제 2 권, p. 340.

24) 同 p. 342.

마는 것도 이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노신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품 뒤에 붙어있는 구호나 장식된 꼬리가 아니라 전체 작품 속의 진실된 생활, 살아움직이는 투쟁정신, 도약하는 맥박·사상 그리고 열정이다.<sup>25)</sup>

이렇게 함으로써 창백무력한 시체가 아닌 생기넘치는 영혼을 형상화할 수 있고 따라서 인류 속에 영원히 내재하는 예술적 형상을 표현할 수 있다.

낭만주의 역시 실제생활을 기축으로 할 때 근거있는 이상을 표현하고 객관적 사물의 본질과 법칙에 접근할 수 있다. 또 사회개조를 위한 역사 발전법칙의 파악도 주관주의적 개인의지에 기초한다면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작용 수행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만약 낭만주의를 단순한 차양막으로 간주하여 모종의 필요에 부응하는 꼭필을 휘두르게 된다면 문학이 민중과는 유리된 투기적 수단으로 전락하고말 것이다. 노신의 작가정신이 우수하다는 것도 그가 이러한 소극적 퇴행적 개념을 배제하고 현실을 충실히 반영하고자했음에 기인한다. 그의 풍자적 작품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사실 현존하는 소위 풍자적 작품은 대개 사실적이다. 비사실적인 작품은 「풍자」라고 말할 수 없으며 가령 비사실적인 「풍자」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무근한 뜬소문에 불과할 뿐이다.<sup>26)</sup>

이러한 논리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면 작가의 의도가 아무리 명백한 것이라고 해도 자기손상이나 反의도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진보적인 세계관은 창작방법에 대해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창작방법이 될 수는 없다. 창작방법은 복잡다단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거기에는 칠향이 있을 수 없으며 현실생활의 기계적인 복제단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도 아니다. 문학가·예술가의 창조적 활동은

25) 《전집》 제 6 권, p.477.

26) 同 p.220.

그것이 사실주의든 낭만주의든 간에 모두 사유법칙에 합당해야하며 날조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을 중시하는 사실주의나 주관울 중시하는 낭만주의라 하더라도 사유법칙에 합당한 진실을 표현하지 않으면 성공작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 이 점에 관해서 徐懋庸에게 보낸 서신을 통하여 피력한 노신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예술적 진실이 사적 사실과 다를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왜냐하면 후자가 사실 자체에 입각해야 하는 것에 반하여 전자는 사실의 문학적 수용에 의한 실감이 요구되어질 뿐 사적 진실에 일치되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문학적 수용이 어떻게 사회적 현실 자체에 대한 문학으로서의 괴리만에 국한될 수 있을 것인가? 사회적 존재와 사실 자체에 대한 문학적 전개는 괴리를 초월한 예언이 되곤하는데 이것은 이와같은 전개 자체가 사적 현실로서 입증되어지곤 하기 때문이다.<sup>27)</sup>

문학·예술사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이 역사저술보다 더 깊고 광범하게 개괄할 수 있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 일정한 시기에 있어서 일정한 의미를 논할 때 소설은 백과전서적 작용을 할 수 있어서 사회역사나 현실생활보다 훨씬 깊은 감동을 준다. 노신의 작품은 이러한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그가 생활했던 당대는 물론 오늘날까지도 중대한 사회문제를 인식케해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의 현실인식과 미래이상이 가지는 역량은 우리의 심미력을 제고시켜 주고 있으며 그의 창작방법과도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진보적인 사실주의나 낭만주의는 미학연구의 중요과제 중의 하나로서 완벽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직결되는 바 이것은 창작실천을 통해 부단히 탐구되어야 할 문제이다. 창작방법의 운용 과정도 하나의 창조과정이며 여기에 창조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문학예술의 발전은 물론 그것의 존립조차 위태롭게 될 것이며 새로운 미학이론의 도출은 결국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노신의 일생 중에서 최후 10년간의 저작은 팔목할만한 성장을 구축하였다. 이 시기 그는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사실주의 정신에 입각

27) 《노신서신집》상권, p. 465.

하여 창작방법을 설정하였다. 그의 창작과 이론은 강렬한 감동력과 설득력을 가지고 민중의 진보적 사상을 결정적으로 계도했으며 성공적인 문학가나 예술가는 그 창작방법이 결코 고착화되어있지 않고 능동적·창조적일 때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전형을 제시해주었다. 물론 모든 문학가·예술가는 개인적 경력·사상·예술적 소양의 차이에 따라 창작방법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사실주의든 낭만주의든간에 그것에는 반드시 인간해방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런 점에서 노신은 前人을 초월한 모범적 인물이 되고 있다.

### (3)

노신은 전형화에 입각된 영향력 있는 전형적 인간형을 창출함으로써 작품전반을 선명하고도 생동적인 것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阿Q의 정신승리법은 사회적 모순과 민중의 정신병리를 사진처럼 투사해낸 대표적인 실례라 할 수 있다.

阿Q가 타인과 다룰 때에는 항상 눈을 부라리며 「우리집도 예전엔 너보다 더 잘 살았어! 너 따위가 도데체 뭐냐!」라고 말하곤 한다. 진심이란 야유이든 남이 「잘한다」라고 칭찬하기만 하면 「그저 좋아한다.」 그는 자존심이 무척 강하여 소작농은 안중에도 없었을 뿐 아니라 성내 출입이 잦아진 뒤에는 자부심이 더욱 강해져서 성내사람들조차도 무시하곤 하였다. 阿Q의 이러한 과대망상과 독단은 그 자신을 침예한 현실적 모순으로 몰고 가게 된다. 「왕년의 부귀」·「높은 식견」·「뛰어난 능력」등 그는 거의 「완전한 인간」이었지만 애석하게도 육체적인 결점이 많았던 것이다. 특히 발생시기가 불확실한 그의 머리부스럼은 그의 생각으로도 「자신의 일부이지만 자랑거리가 못되었다.」 이에 따라 阿Q는 「癩」 및 그와 유사한 일체의 발음, 심지어는 「光」·「亮」·「燈」·「燭」등 까지도 입밖에 내기를 꺼려했다. 이러한 고도의 신경과민으로 인하여 쉽게 분노하고 쉽게 매도·구타하는 버릇이 생기게 되었을 뿐 아니라 남에게 모욕을 당해도 「나는 자식에게 맞은 셈이야」 「요즘 세상은 꼴같지가 않아……」<sup>28)</sup>라고 자위하게까지 되었던 것이다. 노신은 이와 같은 일련의 묘사를 阿Q 한사람에게 집중시킴으로써 「정신승리법」의 특징을 명확히함과 동시에 阿Q를

28) <阿Q정전> 《전집》 제 1권, p.75, p.77.

생생한 성격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노신이 <나는 왜 소설을 쓰게 되었는가>에서 「한 사람의 특징을 극히 간결하게 형상화하려면 그의 눈을 그리 는 것이 좋다」<sup>29)</sup>라고 한 것도 그가 중국고전소설의 화룡점정을 자신의 창작과정에 원용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신이 창조한 阿Q는 辛革時期의 농민으로서 봉건통치의 수탈·압박·기만·농욕등으로 인한 그의 자연발생적 반항성에도 불구하고 2천여년간의 봉건적 중압으로 인하여 전근대적 인식으로부터 탈퇴하지도, 상부구조로부터의 정신적 해독을 지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의 사고와 행위간의 모순은 당시사회의 계층갈등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阿Q정전>은 전형적인 상황 하의 전형적인 성격을 형상화함으로써 신해혁명의 역랑파 약점 및 부르조아혁명에 대한 민중수용상의 태도등이 묘사되어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신혁의 조류속에서 阿Q가 어떻게 행동했으며 그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를 조감할 수 있음과 동시에 상황과 성격의 접촉에 의한 전형적 인간형의 이상·현실통일 체적 삶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감성적 형상은 사상에 의하여 현현되어지는 법이다. 阿Q의 비극은 「불행에 대한 애도와 정면도전의 거부에 대한 분노」로서의 작가감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예술적 형상화는 현실에 근거한, 현실에 영향을 가하는 것일 수 밖에 없으므로 완벽하고 생동적일 수 밖에 없게 된다. 결국 시대정신에 상응하는 창작이야말로 개념화·공식화 탈피의 전제조건이며 이것을 무시한 민중예술은 존속할 수가 없는 것이다.

<阿Q정전> 발표 이후 혹자는 阿Q류에 의한 혁명당 결성시도와 소설 마무리에 있어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阿Q가 「상호모순되는 인격의 소유자」가 아닌가하고 주장하였다. 노신은 阿Q의 혁명당 결성의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내 견해로는 중국이 혁명할 수 없다면 阿Q도 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阿Q도 할 수 있다. 阿Q의 운명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인격의 이중성이란 성립할 수 없는 논저일 것이다.<sup>30)</sup>

29) 《전집》 제 4 권, p. 395.

30) 《전집》 제 3 권, p. 282.

이 답변은 阿Q가 속해 있는 상황을 무시한다면 그의 「인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이다. 아울러 혁명의 가증성, 봉건적 퇴행세력과의 불가피한 충돌, 阿Q가 처형될 수밖에 없었던 史的 법칙성도 이런 점에서 분명해진다. 阿Q의 비극이 우연적인 현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회의 본질과 필연적 추세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 소설의 중국 역시 다음의 몇가지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첫째 수천년간의 농민운동이 실패로 귀결된 원인은 무엇인가, 둘째 趙나오리와 같은 봉건세력의 논리가 어떻게 교묘한 착취를 수행할 수 있었던가, 셋째 일반민중 자신의 취약성과 봉건세력의 영향력이 역사발전에서 어떻게 부정적으로 작용해 왔는가 하는 것 등이다. 중국에 있어서 민중운동은 대개 실패했지만 간혹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운동의 주체세력이 상부구조를 형성한 뒤에는 민중의 희생으로 획득한 성과를 독점하고 「혁명불허」의 금지령을 재천명해왔다. 여기서 우리는 민중과 괴리된 여하한 움직임도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충분히 체득할 수 있다.

노신은 阿Q의 反봉건적인 적극성과 그가 가진 각종 정신적 병태로 인한 소극성을 동시에 묘사하였다. 阿Q의 장단점은 그 자신의 것이면서 타인의 것이기도 했다. 따라서 <阿Q정전> 발표 이후 「일부 정객들이나 하급관료들이 분노하면서 자신을 풍자했다고 역지를 부린 것」<sup>31)</sup>도 무리는 아니었다. 사회의식은 상대적 독립하에 있으면서 계층 상호간에 복잡다단한 상호침투가 존재한다는 진리가 여기서 증명된다고 할 수 있다. 阿Q의 정신세계는 하부구조 특유의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계층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가지는 교육적 효과는 지대하였다. 일정한 계층의식은 그것이 형성되고 후세에 계승되는 과정에서 사회제도의 개혁에 공헌하지만 舊의식의 잔재 또한 변형된 각종 형식으로써 계승된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불진전한 사상의 소유자들은 「阿Q의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신승리법」은 당시 상당히 보편화된 심리상태로서 봉건주의·제국주의에 의한 사상적 호도를 반영하고 있다. 제국주의 열강의 약탈·압박·능욕하에서도 퇴행적인 토착봉건세력은 굴욕적인 열세를 자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합리화·자타기만·맹목적인 자기과시에 급급하였다. 당시 주

31) 《전집》 第6卷, p.422.

도적 위치를 접했던 봉건세력의 의식형태는 광범하고 심각한 악의 근원이었던바 현재까지도 봉건관료적 허영에 사로잡힌 부도덕한 소인배들이 존속하고 있으며 하부구조에서도 이러한 퇴행적인 악습이 자연스레 노정되고 있다. 현재적 상황에서도 잔재하는 이러한 사상이 전달기질의 일개 농민인데다 자기약점이 허다했던 당시 阿Q에게 노정되었다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물론 신해혁명의 실패는 혁명 자체—부르조아지 혁명으로서의—의 취약성에 근거하는 것이지 阿Q류가 가진 약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의 반항의식을 무시할 수도 없지만 阿Q의 비극이 민족적 비극의 축소판이었음은 자명하다. <阿Q정전>의 이러한 개괄은 시공을 초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소설은 이미 여러나라에 번역되어 독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阿Q의 형상은 세계문학사상 불후의 전형으로 간주되고 있다.

<阿Q정전>의 이와같은 효과는 노신의 성공적인 전형화수법에 기인한다. 전술한 바와같이 노신의 창작은 명확한 목적성에 입각되어 있으며 이상실현을 위해서는 자신의 의지를 철저히 목적성에 부합시켜가면서 인물을 창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그는 소재의 엄선과 정련·집중·개괄이라는 예술적 수법을 통한 내용의 심화물 추구하였다. 이것은 예술전형 창조를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서, 개체적 개성이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阿Q의 전형성이 발휘하는 교육적 효과도 이 점과 연계되어진다. 노신이 「병폐제거를 위해 채택하는 유형」<sup>32)</sup>이 신랄한 풍자으로써 현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울분이 고평리보다 심각했음을 보여주며 자신의 전형화 수법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창작경험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기록된 사건은 대개 보고 들은 것이지만 전면적 수용보다는 내 의사에 합당한 일부만을 개조·확대시킨 것이다. 인물 모델 역시 한개인에 고착됨이 없이 절강인의 입, 북경인의 얼굴, 산서인의 복장 등의 방식으로 결합시킨 것이다.<sup>33)</sup>

32) 《전집》 제 5 권, p. 4.

33) 《전집》 제 4 권, p. 394.

이러한 예술적 허구성은 진실과 위배되지 않음은 물론 현실을 개괄·반전시킴으로써 현실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접근을 가능케 해준다. 실제로 작가의 모델 설정에는 노신이 언급한대로 두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한사람을 쓰느냐 혹은 다수를 통해서 한사람을 추출해내느냐의 문제로서 후자의 운용이 비교적 까다롭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인물·사건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여러가지 동일유형을 하나의 유기체로 구성해냄으로써 통일된 성격과 생명력있는 인물을 창출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관련되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예술적 기법의 한 예일 뿐이며, 다양하고 부단히 변화한다는 전제 하에서 볼 때 작품의 사상성·예술성에 대한 우열을 결정지우는 요인이 될 수는 없다.

예술은 객체에 대한 형상화로서 그것을 개념화하는 과학과는 다르다. 탁월한 예술적 형상화란 생활의 전형적 본질을 개별적 형상을 통해 어떻게 표현해내느냐의 문제이며,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작가의 제층적 태도·감정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미학사상의 발전과정을 고찰해 볼 때 후자는 「類型說」 「定型說」으로써 작가의 개성이나 변화를 부정하고 있다. 이 학설은 서양 봉건시대의 산물로서 봉건적 통치집단을 옹호하려는 의도에서 출발된다. 따라서 그들에 의하면 군주는 반드시 총명·위엄·광명정대한 것으로 묘사되어야 하고 우매·외설·간악이 폭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까지도 변형, 운용되고 있는 바, 악한은 악한대로 호인은 호인대로, 농민은 농민대로의 정형이라는 천편일률적인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정형화」라는 열악한 경향이 계속 범람한다면 예술의 전형화는 파괴되고말 것이다. 노신이 묘사한 인물이 선명하고 다양한 개성을 노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이 「정형화」의 구속을 탈피하여 풍자 수법을 이용한 현실폭로 중심의 사실주의적 예술을 지향했음에 기인한다. 노신의 작품에 형성된 또 하나의 독특한 성격은 유머의 미학으로서 그의 풍자성을 더욱 실감나게 하고 있다. 서양의 일부 회극도 웃음을 자아내지만 웃음 뒤에는 왕왕 공허·무의미만이 남을 뿐이며, 《論語》에서 말하는 시대적 분위기와는 괴리된 유머라든가 조잡하게 범람하고 있는 만담·해학류는 미감이 아닌 비속함과 저항감을 줄 뿐이다. 반면 노신 작품속의 조소와 풍자는 부패한 구세계의 해부 및 그 표본적 치료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그의 유머 뒤에는 눈물·분노 그리고 자기성찰을 유도해낼 수 있는 유익한 계시가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전형적인 인물·事



象은 독자의 정신영역 속에서 쉽게 망각되지 않는 기념비적 존재로서 장구한 생명력을 갖게 된다.

전형화는 사실주의 예술의 근본원칙이자 방법이다. 성공적인 예술작품이란 사실주의적 전통과 낭만주의의 적극적인 요소를 취합함으로써 그 전형화의 기법을 충분히 운용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신의 만년작품 〈出關〉등은 이러한 미학사상을 집중적으로 반영시킨 뚜렷한 예이다.

노신이 《史記》《莊子》에 근거하여 쓴 〈出關〉은 「無爲」의 전형인물을 창조한 것으로서 이 작품의 요지는 노자가 「흙사 나무토막처럼 꿈쩍도 않고 앉아있었다」는 것이다. 공자의 면회를 받고도, 소를 타고 函谷關을 지나면서도, 함곡관에서 강론할 때에도, 강론이 끝나고 휴식을 취할 때에도 「냉수 냇모금을 마시고는 흙사 나무토막처럼 꿈쩍도 않고 앉아있었다」<sup>34)</sup>는 노자 「無爲」의 형상을 초지일관 묘사하고 있다.

노신은 이렇게 무위도식하는 노자를 허황된 空談家라고 풍자함으로써 도가의 허무사상을 비판함과 동시에 실천성이 결여된 채 큰소리만 치는 당시의 풍조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出關의 關〉에서 노신은 단지 노자를 「회화화함으로써 그의 出關에 대해서 추호의 애석함도 없다」<sup>35)</sup>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노신이 〈출관〉을 쓴 1935년末은 일본 제국주의의 熱河·蔡哈爾 지구 침공, 항일 구국운동의 전국적 전개 등 중대한 역사적 사건 발생 직후시기로서, 국가적 위기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리공론을 일삼으며 민중에 대한 책임감이나 민족의 존망을 외면한채 자기안일을 추구했던 당시 지배계층의 소극적인 무위사상에 대한 비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처럼 역사·현실문제에 대한 노신의 관점은 모두 사실과 이론에 입각한 것으로서 무리한 문학적 유희나 단순한 영감에 의한 자의적·임의적인 의론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비판하고 선양한 것은 무엇이든 민중의 이익과 요구에 부응했으며 따라서 그의 작품을 통한 사상적 섭취는 독자에게 다 유익한 것이었다. 노신이 노자를 「회화화」한 것은 일종의 전형화 수법으로서 「회화화」에 대한 그의 언급은 다음과 같다.

회화란 일목요연하게 해주는 묘사법으로써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34) 《전집》 제 2 권, pp. 387~394.

35) 《전집》 제 6 권, p. 425.

「과장」이지만 그렇다고 규칙성이 배제되어선 안된다. ……「과장」이란 용어가 부적합하다면 「확대」라고해도 무방하다. 사건·인물의 특징을 확대시켜도 회화적 효과가 쉽게 나타나지만 비특정적인 것을 확대시키면 그 효과는 더 쉽게 나타난다.<sup>36)</sup>

전형화를 거쳐서 표현된 예술적 진실이 과장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예술적 과장이 현실에 기초해야함은 필수적이다. 임의적인 과장은 예술성과는 괴리된 허황된 것으로서 <출판>등 기타 신편집사들은 명백히 이 예술적 과장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노신의 신편집사는 고대와 현대의 인물·사건을 재구성한 것이지만 견강부회한 느낌이 배제된 채 생명력과 영향력을 동시에 내함하고 있으며 퇴행적 문인들의 오류나 열악성에 비추어 볼 때 그 동기나 효과가 완전히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예술적 형상은 현실생활과 사적 사실을 정면·개괄한 예술가의 창조적 노력에 근거한다. 어느 시대나 어느 계층의 정신상태를 집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예술적 형상의 창조는 가능하다. 이것은 구체적·생동적·개별적·우연적 현상을 통하여 사회생활 중의 일반적·필연적 본질을 표현해내기 때문이다. 사회의 발전·변화는 신구의 대립을 통하여 실현된다. 따라서 예술적 형상 역시 긍정과 부정의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 노신이 창조한 전형적 형상은 그것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간에 사회에 근본적 문제를 반영하면서 특수성과 보편성, 필연과 우연, 현상과 본질을 완벽하게 통일시킴으로써 작품의 생동감을 선명하게 구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심미적 이상에 근거하여 이상과 현실의 통일을 실현하고 교육적·사회적 효과를 발휘했던 것이다. 이와같은 예술적 형상만이 건전한 심미의식에 부합하는 것이며, 생활에 철저히 결부되어 적극적인 반향을 야기시킬 수 있다. 노신은 창작에 있어서 전형화의 본질적인 수법을 완벽하게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미학이론에 있어서도 정예한 견해를 발표함으로써 문학발전을 주도했으며 미래의 미학연구에 있어서도 귀중한 귀감이 되고있다.

#### (四)

노신의 작품은 뛰어난 형식과 내용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36) 《전집》 제 6권, pp.185~186,

문화유산의 정수를 수용하고 있다. 그의 창작에서 볼 수 있는 이와같은 깊은 사상적 내용과 숙련된 예술적 기교의 결합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 바 창작실천에 영향을 끼친 그의 미학에 대한 진일보적 이해를 위하여 그 내용과 형식에 대한 탐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그의 작품 〈祝福〉을 예로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작품 〈祝福〉은 가난한 농부의 아내인 祥林嫂가 당한 비참한 상황, 즉 봉건착취, 봉건종법 및 봉건미신등에 의한 부단한 고난을 겪고난 뒤 결국 봉건제도에 함몰되어 짧은 인생을 끝맺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을 그리고 있다. 깊은 애도와 의분으로 추악한 식인적 사회를 고발하고 있는 이 소설은 그 전체적 구조·줄거리·사건의 묘사와 언어운용등을 통해서 사상 내용과 예술기교의 교묘한 통일을 구축하고 있다. 구형식의 채용이 바로 신내용과의 융합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완벽한 소설적 구조와 합리적 스토리 전개를 특징으로 하는 이 소설의 주인공 祥林嫂는 본래 건강하고 선량한 젊은 농촌여성으로서 기타 불행한 근로여성과 마찬가지로 봉건통치하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녀가 극도의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정신분열의 상황에서 조금씩 인간세상을 떠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처음 노신집에 와서 일을 시작했을 때, 손발이 크고 눈을 내리뜨기만 하며 입을 잘 열지 않는 그녀를 본 여주인이 분수를 알며 힘든 일을 잘해낼 쓸만한 일꾼으로 여긴 것은 봉건수탈이 사회원리로 작용했던 당시적 상황으로 보아 또한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祥林嫂가 인질로 잡혀간 뒤 여주인이 자주 그녀에 대해 말하곤 했던 것은 단지 그녀가 남자보다도 더 일을 잘하였다는 까닭에서였다. 祥林嫂가 다시 노신집의 노비로 일을 하게 된 뒤 주인은 그녀가 제사 음식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라고 주의했고, 여주인은 이 명령을 엄격히 집행함으로써 祥林嫂로 하여금 막대한 정신적 타격을 받게 하였다.

祥林嫂의 불행한 가정생활은 봉건종법관계의 반역으로서 그녀를 끝없는 고난으로 빠뜨리고 죽음의 길을 걸게 만든 원인 중의 하나이다. 그녀는 처음 10세 연하의 남자에게 시집을 갔으나 남편이 16,7세 되던 해에 죽게 되자 사나운 시모에 의해 깊은 산골의 외딴집에 팔아 넘겨져 강제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녀가 낳은 아이의 아버지인 두번째 남자가 동사한 뒤, 봉건적 습속에 따라 수절을 하는 중에 아이마저 이리의 밥이 되는 겹겹의 불행으로 살길이 막연하게 되자 다시 魯씨의 집에 돌아와 학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봉건미신은 그녀의 모든 희망을 적어버림으로써 그녀가 쓸쓸하게 세상을 뜨도록 한 다른 하나의 원인이다. 그녀는 영혼이나 지옥의 존재는 물론 사후에 건가족이 재회하게 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저승에 가면 죽은 두 남편이 서로 싸우게 될 것을 걱정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털어 도교사당에 문지방을 헌납함으로써 이승의 「죄」를 대속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로써 정신적 번뇌가 해소되기는 커녕 그 부담만 가중되어 결과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노동력마저 상실하게 되고 말았던 것이다. 따라서 그녀가 구걸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지경에 처하여 끝내 흑한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은 봉건미신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소설의 명확한 사건전개 속에 생활중의 심각한 모순, 주요인물이 겪는 사상·감정의 변화, 작가의 사회문제에 대한 태도등이 반영되어 있는 바, 이점은 작가가 예술기교의 운용에 의해 작품에 중요한 사상적 의의를 부여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생활의 단순한 모방을 뛰어넘어 예술적 형상화에 의한 사회현상의 표출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인물의 성격 및 스토리나 사건의 전개에 보이는 발전성 또한 예술적 형상화에 의해 생활법칙을 발견한 결과로서, 〈祝福〉의 구조적 완벽성은 바로 이 내용과 형식의 통일에 의한 결과였던 것이다. 이처럼 노신은 구체적 사건들을 하나의 완벽한 구조로 조직함으로써 예술적 형상이 역사적 논리의 통일을 현현하도록 함과 동시에 내부적 사건의 묘사에 있어서도 더 큰 감동적 매력을 갖추도록 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 祥林嫂의 사상적·감정적 진전을 표현하기 위해서 魯迅은 그녀의 얼굴과 정신적 변화를 극히 세밀하고 생동감있게 서술하고 있다. 즉 처음 그녀가 魯씨집에 왔을 때 「그녀는 대략 26,7세로 얼굴에 푸른 빛이 돌고 있었으나 두 뺨은 아직 홍조를 띄고 있었는데」 다시 魯씨집을 찾아왔을 때는 「얼굴에 푸른 빛이 여전한데다 두 뺨의 홍조는 사라져 버리고 내리 뜬 눈자위에 눈물자국이 남아 있었으며 눈빛도 그전처럼 반짝이지 않았다.」 그리고 2,3일 후 「주인은 그녀의 행동이 그전처럼 민활하지 못하며 그 중던 기억력도 못해졌을 뿐만 아니라, 시체와 같은 얼굴에 종일 웃음기 하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가 지옥의 존재에 놀란 뒤에는 「눈자위에 검은 그림자가 생겨났으며」 제물을 나르는 일을 주인의

큰소리에 제지당한 다음날엔 「눈이 폭 꺼지고 정신마저 더 이상해진데다 접이 많아져 어두운 밤은 물론 그림자까지 두려워 하였다. 그래서 남을 만나면 그가 자신의 주인일 경우에도 마치 대낮에 곁에서 나온 쥐처럼 몹시 불안해 하거나 목각인형처럼 넋을 잃고 앉아 있거나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정신적 변화에 대한 묘사는 전체적 비극의 진행과 일치되는 것으로 祥林嫂의 행동이나 심리가 우연한 상황으로 표현되어 있으면서도 독자들로 하여금 필연적 귀결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몇개의 사건을 단순히 연결해놓은 것이 아니라 세부사건의 묘사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그것이 인과관계의 법칙에 의한 작용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祝福〉의 언어예술 또한 뛰어난 점이 있는 바, 예를 들면 노신은 마지막 문장에서 풍자시와 유사한 언어형식을 사용하여, 전편을 끝맺고 있다. 「나는 뭉뚱한 가운데 먼곳에서 은은히 들리는 끝없는 폭죽소리를 듣고 있다. 소리에 떨던 먹구름에서 눈발이 휘날려 전시가지를 감싸고 있다. 폭죽소리에 감싸여 나른함과 편안함을 느끼면서, 저물무렵까지 계속된 의혹과 우려에 축복의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다. 단지 천지의 신들만이 술과 향내음에 취해, 비틀비틀 하늘을 배회하는 동안, 魯鎮사람들에게 내려줄 축복이 준비되고 있다는 느낌만이 드는 것이다.」 간단한 몇 구절로 송년의 모습을 묘사해내는 동시에, 魯씨 집에서 각종 음식으로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폭죽을 터뜨리며 즐기는 상황과 눈속에서 쓸쓸히 세상을 뜨는 祥林嫂의 상황을 선명한 대조로 묘사하고 있다. 「고관대작의 집에 술과 고기냄새가 진동하고 길에는 얼어죽은 시체가 즐비한」 이전부터의 상황을 반영하고 봉건제도의 본질과 필연성을 설명함으로써 〈祝福〉을 대하는 독자가 총괄적으로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의한 것이다. 전과 다른 상황 특이한 언어예술을 구사, 표현함으로써 신선한 느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祝福〉의 예술형식을 통해 노신이 구형식의 일부분을 정선·채택함으로써 신내용과의 상응을 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그는 도치법을 사용, 상술한 선명한 대조를 더욱 극대화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노신은 우선 일인칭화법을 사용, 「나」와 이 비극과의 관계 및 동질적 인물과 적대적 인물과의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독자가 서막에서부터 魯씨집의 주인이 「新黨을 매도」하는 「늙은 국자감생」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정신적 속박하에 죽기만을 기다리는 祥林嫂에게 최후의 치명적 타격

일로서 객관적인 심미의 수요에 적응함으로써 자신의 특성을 끝없이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새로움의 창조없이는 예술도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역사의 발전이 새로운 단계에 이르르면 문학예술에도 새로운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바, 바로 노신의 만년창작에서 우리는 진보적 사상성과 아름다운 예술형식 간의 통일이 더욱 명확하게 현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또 보다 다양한 내용과 형식을 선택함으로써 독자들이 단조로움과 건조함을 느끼지 않고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중에 깊은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노신의 신편고사 〈起死〉는 《莊子》의 내용을 원용한 것으로, 여기서 그는 일종의 회극정신을 빌어 「옳고 그름의 구별이 없음」을 주장한 莊周의 자기모순적 딜레마를 파헤쳤다. 이것은 혁명과 반혁명의 투쟁이 전국을 석권하던 30년대 당시에 시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사상을 건립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노신은 당시 《莊子》《文選》의 독서를 주장하는復古적 경향이 「단지 그것으로써 기쁨을 얻는 방법으로 삼는데 불과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莊周를 향한 집중적 공격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莊周가 세상에 나온 뒤 一群의 귀신들의 반대에 봉착하자, 그는 귀신들에게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삶이 곧 죽음이요, 죽음이 곧 삶임을 안다면, 보잘것 없는 나자신이 또한 바로 주인공임을 알 것이다.」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은 궤변으로 司命大神을 설득시켰다. 「大神이여 뜻밖대로 행동하며 조금 더 융통성을 키우시오. 사람은 원만하고 유연성이 있어야 하며 神 역시 고식적일 필요가 없는 것이오.」 혼백이 돌아온 남자가 그를 잡고 의복을 요구했을 때까지도 그는 자신의 이론을 견지하면서 그 남자에게 잠시 자신의 말을 들도록 하였다.

“너는 먼저 의복만을 생각하는 태도를 버려라. 의복이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니……바로 이것을 「이 또한 하나의 시비요, 저 또한 하나의 시비」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옷이 없어야 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옷이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sup>39)</sup>

이처럼 모호한 말이 그 남자에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내 자신을 놓아주지 않자, 莊周는 그 현실에 부딪쳐 자신의 이론과 배치되는 다음과

39) 《전집》 제 2권, pp. 416~417.

같은 말을 하였다. 「……그러나 나는 지금 楚王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 도포를 입지 않거나 적삼없는 도포만 입고 있어서는 안된다.」 유연성과 융통성을 말하던 莊周가 더 이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 짧은 회극에서 노신은 흥미있는 대화를 통해 「옳고 그름의 동일시」가 갖는 허위와 기만을 폭로하는 동시에 유머러스한 풍자로 궤변도사의 신통력이 항구불변한 영기를 갖지 못하는 것이며 그에게서 풍기는 은화함은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엄숙한 진리를 표출해 내었다. 이 회극의 내용은 <文人相輕>에 나오는 다음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바이다.

《莊子》에서 그럴듯한 단어를 찾는다면 아마도 「이 또한 하나의 시비요, 저 또한 하나의 시비」라는 두 구절의 귀한 교훈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만일 이말을 위급할 때의 호신부로 삼는다면 그리 천박하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는 잠시동안의 구실로서 효용을 가질 뿐, 영원히 실현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격언과 이것을 이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정신적 격차는 발바리와老子간의 차이보다 심하다 할 것이다.<sup>40)</sup>

이것은 <起死>가 당시의 무모한 문인들이 계층적 초월을 주장하며 그 모호함을 수단으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던 것에 대한 혹독한 비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것처럼 경박하고 무책임한 태도는 혁명을 저지하고 와해시키는 부정적 작용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起死>의 내용은 老莊학파에 대한 노신의 인식 및 평가를 표현하는 것이면서 자신이 이 사상과는 정반대의 이상과 노선을 견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인 바 이것은 물론 역사와 현실생활로부터 추출·총괄해낸 것이다. 노신은 莊周의 자기모순적 태도를 회극적 형식으로 표출해냄으로써 그 파국을 더욱 드러나게 하고 그 비웃음에 멧진 흥취를 더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내용과 형식의 완전한 조화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형식과 내용의 동일은 작품이 심미적 가치를 갖추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이 조건은 생활의 진실에 기초한 예술적 진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졸렬한 형식과 가식적 내용으로 작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심미적 가

40) 《전집》 제 6 권, p. 237.

치를 가질 수는 없다. 이러한 것들은 사이버 문예인과 롬펜정치인들이 투기로 던지는 골짜짜과도 같은 것으로 결코 예술이라 칭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독자들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진보적인 문학예술은 구체적인 사회현실과 아름다운 예술형식 간의 통일을 요구하는 바,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실득력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제재라도 작가에게 충분한 예술적 교양이 결핍되어 있을 때는 역시 좋은 작품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노신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신문의 보도나 졸업한 소설속에 나오는 사건이 문예작품화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보도나 소설이 바로 문예일 수는 없다.」 문학예술의 내용과 형식문제에 대한 언급은 자연스럽게 문화유산의 계승이란 문제에 도달하게 된다. 이 문학예술유산의 계승이란 문제에 대해서 노신은 진보적인 사관에 근거, 치밀한 논술을 다수 발표하였다. 다음의 명확한 지적은 그 한 예이다.

새로운 계층과 그 문화는 하늘에서 떨어지듯 돌연히 출현한 것이 아니라, 이전의 지배계층 및 그 문화에 대한 반항·대립의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다. 따라서 신문화에도 계승되는 점이 있는 것이고 구문화에도 취해야 할 점이 있는 것이다.<sup>41)</sup>

여기서 그는 인류문화의 모순·발전의 법칙을 천명하고 신흥계층의 구문화에 대한 계승관계를 지적함으로써 「민중문화」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였다. 인류문화의 유장한 흐름을 어느 누구도 단절, 혹은 소멸시킬 수 없었음은 역사가 증명하는 바로서 문학예술을 압박하고 질식시키고자 할 때 결국 부끄러운 실패에 봉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옛것의 계승은 바로 새것의 생성과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유전되던 것에 대한 비판적 흡수만이 가능할 뿐이다. 노신은 이 원칙을 전제하면서 문학예술유산을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생동적이고 적절한 비유를 통해 그의 주장을 설명하였다. 즉 가난한 청년이 큰 저택을 얻었다고 가정할 때, 그것을 어떻게 얻었는가에 상관없이 우선 그것을 계승해야 하며 동시에 다음 세가지의 잘못된 태도를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첫째, 만약 이 저택의 옛 주인에 의해 그 자신이 더럽혀질까 두려워 문앞을 배회하면서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는 비겁자이다.

41) 《전집》 제 7 권, p. 586.



둘째, 벌칙 화를 내며 집을 태워버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결백을 보론했다고 여긴다면 그는 바보이다. 셋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흔쾌히 칩실에 들어 남아있는 아편이나 피우게 된다면 그는 폐물이다. 이처럼 그는 옛것에 대한 우선적 「점유」가 중요하며 그것의 사용·보존·폐기의 문제는 뒤의 문제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인이 새주인이 될 수 있고 집 또한 새집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침착·용맹·분별·공정함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또한 그는 「옛것의 계승이 없이는 새사람이 될 수는 없으며 신문예도 있을 수 없다」는 집을 명확히 지적하였다.

노신의 「계승」을 중시하는 정신은 그의 진보적인 사관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의 이론과 실천은 문화유산의 비판적 계승에 있어서의 철저함을 보여주고 있다. 노신은 신문화에 유익하다고 판명된 것이면 중국·외국의 것을 막론하고 정확한 방법을 운용, 채택함으로써 그것이 현실생활에서 적극적 효용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노신은 중국고전문헌의 「選本」 문제에 있어서 「작가의 진상」에 대한 전면적 이해를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문으로 명성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는 蔡邕에 대해서까지 긍정적 부분을 인정하였던 것이다. 즉 「망루를 짓는데 온 힘을 쏟다보니 백성들은 노숙하면서 이슬에 멀고 짐승만 뛰노는 농토에선 쌀 한톨 거들 길이 없구나」라는 구절을 쓴 蔡邕에 대해서 魯迅은 그가 단순한 노학자가 아닌 뜨거운 가슴의 소유자였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중국고대문화물 단순한 봉건적 잔재로 규정할 수만은 없으며 분석의 진행과 취사의 결정과정에 있어서 간단하게 조잡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이다.

노신의 외국문화유산에 대한 태도는 앞에서 언급한 적이 있지만 그가 목적하는 바가 외침과 반항이었던 까닭에 초기부터 러시아·폴란드·발칸 제국의 작품에 쏠린 경향이 있다. 만년에 그는 외국문화에 대한 일반적 거부감이 수입된 물건에 대한 두려움의 변형된 모습이며 이 「서양제」공포증은 각성된 청년들에게서까지 예외없이 발견된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기실 「계승」된 것이 아닌 「수입」된 것이기 때문인데 여기에 지성의 발휘·시각의 확대·주체적 수용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그는 특히 긍정적 측면 이외에 부정적 측면의 것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년들에게 제국주의자의 작품을 읽어 소위 「知彼知己」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하였다.

외국의 모범을 채용하고 일층 발휘함으로써 우리의 작품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것이 한 길이요, 중국의 유산을 채택, 새로운 기틀에 융합시킴으로써 장래의 작품이 신국면을 열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길이다.<sup>42)</sup>

중국 및 외국의 문화유산계승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노신의 사상은 극명하여 전반적 긍정이나 부정을 모두 반대하였다. 우수한 문화유산의 비판적 수용이라는 노신의 주장은 과거의 것보다 우수한 신문화를 창조하고 더 높은 단계로의 문화발전을 꾀하자는 내용에 다름 아니다. 同문제에 관한 탐구에 있어서 노신이 개괄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채용이 결코 잡다한 골동품의 진열이 아닌 신작품에의 완전한 융화를 뜻한다는 것은 웨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것은 소나 양을 식용할 때 그 발톱이나 털을 제거하고 고기만을 먹음으로써 사람의 몸을 살찌우고 발달시키지만 결코 소나 양을 탐지 않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sup>43)</sup>

이탈에서 우리는 비판적 계승은 반드시 미학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형식과 내용의 일치 및 자연스런 신·구의 융합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암시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행정명령식의 방법을 채택, 이전의 형식에 서로 어울리지 않는 새로운 내용을 수용시킨다면 노새도 말도 아닌 이상한 것이 되어 보고 듣는 사람들도 견디내기 어렵게 될 것이다. 즉 이러한 주관적 의도 또한 순식간에 사라지는 불거품같은 것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노신은 만년의 저작에서 문화유산의 계승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이때 이미 그는 각종 미숙한 사상에 대항할만한 나름대로의 문예이론을 정립해놓은 상황에서 미학이론의 계승과 발전에 관한 논거를 제기하였던 것이다.

노신의 창작실천과 문예이론에 관한 이상의 논술은 그가 문학예술의 영역층에서 내용과 형식의 문제에 대한 확실하고도 전면적이고 계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 방면에서 보여준 노신의 사상은 일반민중이 어떠한 문화생활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 제시해주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요구하는 문화가 현실적 투

42) 《전집》 제 6 권, p. 39.

43) 同 p. 19.

쟁을 반영하는 작품이며 유구한 역사와 광활한 자연과 같은 심미적 대상을 표현, 큰 흥미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작품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의 심미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인 동시에 보다 넓고 깊은 교육적 효과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어떤 제재를 가진 문학예술작품이라도 철학, 혹은 과학저작이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문학예술은 민중의 이익과 희망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하며 결코 객관적 법칙을 위배한 「행정명령」식이 될 수는 없다. 문학예술은 반드시 미학원리를 준수하여 내용과 형식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로써 생경한 격식의 이식이 아닌 예술가의 자작적·능동적 창작재능을 발휘하도록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문학예술의 건강한 발전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 (五)

노신의 작품은 美醜가 분명하며 심오한 교훈을 내포한다. 그는 창작을 통하여 인간의 탁월한 모습과 추악상을 동시에 폭로함으로써 美醜의 충돌과 대비를 통한 인간의 자각을 유도하였다. 특히 비이성적·소극적인 사회현상에 대한 그의 신랄한 풍자는 사람들에게 미의 향유와 고상한 지조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방면에서 이룩한 노신작품의 성과는 美的 본질에 대한 작가의 이해가 얼마나 깊었으며 시대의 발전에 따라 그의 미학사상 역시 부단히 진보해왔음을 반영하고 있다.

노신의 전기작품 중 〈一件小事〉는 한 인력거꾼의 위대한 모습을 형상화한 단편으로서 많은 평자들의 관심을 유발하였다. 이 인력거꾼은 탁월한 인품을 가진 도시근로자의 전형으로서 노신은 그에게 미증유의 찬사를 보내고 있다. 자신의 이해를 초월하여 할머니를 돕는 인력거꾼의 행위에 대한 「나」의 반응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나는 이때 들연 일종의 야릇한 감정에 휩싸였다. 먼지투성이가 된 그의 뒷모습이 갑자기 커보였으며 멀어질수록 점점 더 커져서 우러러 보아야 겨우 보일 것처럼 느껴졌다. 게다가 그는 나에게 있어서 차차 일종의 위압으로 변해갔으며 심지어 내 옷 속에 감춰진 「卑小」를 차낼 것 같았다. ……다만 이 사건만이 늘 내 눈앞에 떠올랐고 때로는 더욱 분명해져서 나를 부끄럽게 하고 새롭게 하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

었다.<sup>44)</sup>

5.4운동 이후의 지식인과 근로자 계층의 연합가능성을 시사하는 이 작품을 통해서 노신은 그 연합이 실현될 경우 자신의 사상도 근본적으로 변화하리라는 신념을 표명하고 있다.

인력거꾼의 이와같은 정신세계는 객체와 주체 사이의 모순을 극대화한 것으로서 세계개조에 대한 인간의 거대한 역량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성의 분발과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고귀한 인격은 진보적인 민중의 존경을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정신의 개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美는 善의 전제이며 양자의 통일을 통해서야 비로소 감동적인 힘을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善이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것과 관련된다고 볼 때, 美는 간접적이긴 하나 결국 善을 위한 것이며 美의 창조와 감상은 인간의 신념과 정열을 고무하고 지혜와 활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실천을 초월한 美—美를 위한 美—란 결국 일종의 환상에 불과할 뿐이다.

美善은 醜惡과 대립되는 개념이지만 양자는 모두 객관적인 존재로서 문학예술에 다같이 수용되어야 하는 바, 노신의 작품에서는 인력거꾼·禹와 같은 착한 인물도 있고 魯四老爺·감찰대원같은 추악한 인물도 출현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美醜의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이같은 묘사가 없다면 양자의 대조란 불가능 할 것이다. 추악성을 비판함으로써 美를 찬양하고, 현실생활의 美를 긍정함으로써 그 추악성을 부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건은 양자를 객관적 사물의 본질과 법칙성에 부합시킬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현실생활 속에서 참과 진실, 선악과 美醜는 상호의존적이며 상호대립적인 관계 속에서 부단히 발전한다. 작가와 예술가는 시대의 수요에 부응하면서 민중의 정의실현을 위해서 창작행위를 할 때 비로소 불후의 명작을 남길 수 있는 바, 사회번혁기의 민중해방을 목표로한 노신의 작품이 강력한 힘을 지니면서 민중의 미의식을 계도하고 추악한 사물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미학사상 어떤 미학가는 숭고함이란 美의 형태가 아니라고 간주하였지만 사실 숭고함과 우미함이 모두 심미대상인 것이다. 외국의 어느 사상가는 이 두가지 美를 구분하여 논술하였고 중국의 어느 사상가는 美를 강건성과 유연성으

44) 《전집》 제 1권, pp.44~45.

로 구분하였다. 숭고한 인격은 사회생활을 통해서 선진적인 역량을 구현하며, 예술작품은 이 현실생활의 숭고함을 성공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미래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작품은 정교하거나 세밀한 기교보다는 오히려 거칠고 웅장한 표현방식을 채택하기 마련이다.

노신의 많은 작품이 숭고한 미학풍격을 노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뛰어난 작가정신으로 사회발전법칙과 민중의 창조성을 반영했으며, 「사필귀정」의 원칙과 인류의 미래를 조감했다는데 기인한다. 여기서 우리는 숭고한 미학의 발휘가 결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령 역대 제왕의 「숭고한」 형상을 조대별로 서술했다고해서 그것이 민중의 호감을 얻을 리는 없으며 그 작가가 숭고한 특성을 창출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는 민중의 史的 역량을 무시하였으며 선악을 전도시켰고 무복적성에 입각하여 허위와 추악상을 서술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이 민중적 예술가에게 채택될 리는 없는 것이다.

노신은 진리탐구의 과정에서 진보적 사관에 입각하여 문학예술이론을 파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심미적 공리성에 대한 이해는 명확하였다. 브레하노프의 《예술론》의 역자서문에서 노신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사회인이 사물과 현상을 파악할 때는 우선 공리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심미적 관점으로 돌아온다. 인류가 美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이 인간자신의 생존·자연 및 다른 사회인에게 어느 정도의 의의를 지니는가 하는 점이다. 공리적 관점이 이성에 기초한 것이라던 美는 직감에 기초하고 있으며 美의 향유에는 공리라는 개념이 거의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적 분석에 논거하여 발견된 美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특수성·직접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美의 향유 속에 공리라는 개념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면 그 사물은 美와 무관한 것이 되고 만다. 왜냐하면 인간이 美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美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45)</sup>

진보적인 인간은 객관적 법칙에 의거, 세계를 개조하고 인류의 이익과 요구에 부응하면서 실천한다. 따라서 그의 문학도 능동적인 창조력의 기초 위에 진선미의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다. 노신의 만년작품은 이런 점에

45) 《전집》 제 4 권, pp. 207~8.

서 완벽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역사적 인물을 재평가하면서 전통관념을 대담하게 부정하였다. <采薇>에서 그는 수천년간 「賢人」으로 추앙받았던 伯夷·叔齊를 일반민중의 입장에서 재평가하고 미화된 귀족행위의 실체를 규명하였다.

춘추전국 시대 이후 공자·맹자·장자·한비자등이 백이·숙제를 칭송해왔고, 특히 《史記·伯夷列傳》은 이 두 세자가 서로 양위를 고집하다가 함께 도망하여 「周나라 곡식은 먹지 않겠다」며 首陽山에서 굶어죽은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후인들의 미담이 되어왔다. 역대 통치자들의 세에 비추어 볼 때 이 정도의 「양위」주장은 극히 드문 일로서 사실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미담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노신은 진보적 사관에 입각하여 그들을 또 하나의 「권위주의」로 규정함으로써 2천여년의 정설을 번복하였다.

백이숙제가 「운둔」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완벽하게 세상에 초연할 수는 없었다. 武王이 紂를 제압한 「시국」에 관심을 가지면서 불편한 심경을 표명한 근본적인 모순은 명백히 운둔의 허구성을 노정한 것이다.

“형님도 商王(紂)의 무도함에 대해서는 벌써 들으셨겠지요? 아침에 강을 건너면서 물이 차가워도 괜찮다고 발한 자의 다리뼈를 잘라 그 뼈속을 보았다느니, 比干王(紂의 숙부)의 심장을 도려내어 정말 일곱개의 구멍이 (성인의 심장에는 일곱개의 구멍이 있다는 설이 있다.) 있는지 확인했다느니 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그래도 소문에 불과했지만 소경들이 와서 사실로 입증해주었지요.”<sup>46)</sup>

직접·간접으로 이러한 소문을 듣게 됨으로써 몰락한 왕조의 포악상이나 부패상을 확인하게 되지만 이 두사람은 여전히 폭군에 대한 충성과 그들에 대한 공략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역사발전 법칙과 민중의 논리에 위배되는 사실로서 그들의 고집이 결코 미덕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周나라 곡식은 먹지 않겠다」는 사실조차 부गत집 하녀인 듯한 젊은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이 천하에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어디있오? 당신들이 먹는 고사리

46) 《전집》 제 2권, p. 347.

는 그러면 峯上의 것이 아니란 말이요? ”<sup>47)</sup>

여기서 그들의 정신적 지주는 무너지고 더 이상 살아갈 방도가 없게 되었다. 자가당착과 기만의 결과는 수양산에서 굶어죽는 것이었으며 이미 동정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따라서 진선미의 형상이 근본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노신의 시대는 황제는 퇴위했지만 봉건적 악폐가 잔존하던 시기였다. 국민당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일단의 정객이나 문인들은 민족운명을 도외시한 채 莊園·「조계」 및 학원에 칩거하여 유유자적 공론만을 일삼았다. 실제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봉건지주나 관료 정권이 민중의 역량보다 훨씬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칩거」란 것도 구술의 옹호에 불과하였다. 노신은 이와같은 소극적인 경향의 실체를 파악하고 당시의 민중투쟁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노신의 창작과정은 심미대상과 심미의식에 관한 일련의 근본문제에 천착한 것이었다. 특히 그는 美的 본질과 美的 감각에 관해서 적지않이 정확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문학예술은 사회생활의 부분적 구성체이며 인간의 사상감정은 정치·경제조건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문학 창작이나 감상 역시 외부현상과 분리될 수는 없다. 인간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생활환경에 따른 소속 계층을 갖고 있으며 미적 감각 역시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법이다. 따라서 미적 관념에도 계층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점에 관해서 노신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어수선한 시대에 누가 호박으로된 부채끈이나 비취반지를 감상할 여유가 있었는가? 그들이 설사 감상용으로 사막 가운데 견고하고 웅장한 건축물을 짓고자 한다면 그것도 그다지 정밀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야말로 만족하려고 한다면 예리하고 실제적인 비수나 창이 필요한 것이지 우아한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sup>48)</sup>

만약 노예생활을 하면서 「美」를 찾아내어 감탄하고 쓰다듬고 도취된다면 그것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노예나 하는 것이 될 것이며 자신

47) 《전집》 제 2 권, p. 363.

48) 《전집》 제 4 권, p. 441.

은 물론 타인까지도 영원히 노예생활로 안주케 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노예의 무리 속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차이가 바로 미래사회의 안정과 불안의 근원이 될 것이며 문학계 있어서 참여냐 마비냐 하는 문제와도 결부될 것이다.<sup>49)</sup>

노신의 이러한 논리는 결코 허황한 것이 아니다. 수천년의 중국역사를 통해서 무수한 문인학사들이 「식인예교」를 미화해왔으며民国 이후에도 적지않은 문화인들이 사회의 부패상을 호도해오지 않았는가. 그들은 잔혹한 노예제와 민중 수난의 통치체제를 극찬하면서 취생몽사 중에 「미의 향유」에 안주해왔던 것이다. 노신의 이처럼 정확한 논리는 대립하는 두개의 미적 관념을 확연히 구분해주고 있으며 나아가 미적 관념이 결코 사회생활과 유리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결국 서로 다른 미적 관념에 입각하여 창작행위를 진행했을 경우 그 사회적 작용 역시 완전히 상반되며 작가의 의도적인 전달이 어느 계층을 지향하든 그 객관적 효과는 작가의 말에 의해 분명한 평가가 내려질 것이다.

30년대 문학논쟁에서는 미학문제가 등장하였다. 당시 누군가가 「유유자적(Serenity)」을 내세워 「詩의 최고이상」이며 활달하고 대오각성한 심경의 반영이라고 간주하면서 도연명이 위대한 이유도 이 「유유자적」 때문이었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다. 노신은 이러한 사상에 강력한 반박을 제기하면서 특히 고대 시인의 평가에는 그 작품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이 전제되어야지 단장취의적인 구절해석으로는 작가에 대한 실제 구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도연명의 경우만 보더라도 「동쪽 울타리에서 국화꽃 따며 유유히 남산을 바라본다」는 구절 외에 「작은 새가 나뭇가지를 날라 창해를 메꾸고자 한다」는 류의 의지적 귀절이 존속한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그 역시 「종일토록 유유자적할 수는 없었음」을 증명하였다. 이 문제에 관한 그의 명확한 판단은 다음과 같다.

「보국의 의지가 굳건하다」는 것과 「유유히 남산을 바라본다」는 귀절은 같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사실이다. 만약 여기서 취사선택한다면 그의 전모를 파악할 수 없고 평가를 한다해도 진실과 유리될 뿐이다.  
.....자신의 시야를 넓혀서 비교적 많은 작품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역

49) 《전집》 제 4 권, p. 453.



때의 유명한 작가 중에서 평생 「유유자적」 할 수 있었던 자는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유유자적」의 한면만을 가지고 도연명의 위대성을 규정한 수는 없을 것이다. 오늘날 종종 그가 「유유자적」으로 존경을 받는 것은 비평가의 단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sup>50)</sup>

현존하는 회합시가를 두고볼 때 웅대한 호머의 서사시나 정열적인 사포의 연가 등도 모두 「유유자적」과는 무관하다. 「유유자적」을 시의 극치라고 하지만 그런 경지가 시에는 없다. 그것은 계란을 세워놓고 인체의 최고형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허황된 논리이다.<sup>51)</sup>

노신이 이처럼 「유유자적」의 심미안을 반대한 이유는 당시와 같이 어수선한 상황에서는 그것이 백해무익한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었다.

마취성을 띤 작품은 작가·독자 모두를 쇠멸시킬 것이다. 살아있는 소품문이라면 그것이 비수나 투창처럼 인간생존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그것이 즐거움과 휴식을 제시해주는 것이기도 해야 하지만 장식이나 위안·마비가 아닌 노동의 준비를 위한 즐거움과 휴식으로서 말이다.<sup>52)</sup>

이것은 물론 소품문의 위기에 대한 의견이지만 문학행위의 총체적인 경험에 입각한 명확한 미학논리 전개임을 가정할 때 문학예술 전반에 걸쳐서 보편타당한 의미를 지닌 작가정신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구사회에서 혁신적인 민중은 능동적인 창조성을 발휘함으로써 웅대한 사업을 진작시켰으며 그것은 필연적으로 美的 창조물이 되었다. 이와같이 현실에 바탕을 둔 문학적·예술적 미는 다른 이론으로서는 발휘할 수 없는 특수한 감동력으로 인간의 창조력을 제도할 수 있다. 이러한 감동력은 심미감과 이상적인 특징들을 구현함으로써 객관세계 개조를 위한 인간의 정신을 고무시킨다. 따라서 심미의식은 객관적 존재와 심미대상에 대한 반영이며 객관세계의 개조뿐만 아니라 인생과 예술의 발전을 촉진시키면서 보다 풍부한 심미대상을 또한 창출해낸다. 이에 관한 노신의 인식은

50) 《전집》 제 6 권, pp. 344~345.

51) 同 p. 342.

52) 《전집》 제 4 권, p. 443.

다음과 같다.

문학과 사회의 관계는 무엇보다도 문학이 민감하게 사회를 묘사함으로써 힘을 발휘하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변혁을 유발시키는데 있다.<sup>53)</sup>

노신이 진보적인 미학이론에 입각하여 예술적 실천을 지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이 법칙을 철저히 파악했었음에 기인한다. 예술은 사회의식의 한 형태라는 일반적 논리 역시 이것과 결부되며 노신은 인간의 미의식이 사회구조의 일정 원리에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2,30년대의 혼란기를 통하여 문학운동을 전개하였다. 노신 미학사상 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역사발전의 실제적 상황을 전제한 후 그의 창작과 논술에 접근해 감으로써 우리는 그가 美的 본질과 법칙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나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착안하여 당시 문화생활 연구에 있어서도 새로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역대 예술품들은 각 시대의 상이한 계층에 의해 전수되어 왔으며 인류 문화의 정수는 체제가 상이한 국가간에도 상호교류됨으로써 인간의 정신 생활을 풍족시켜왔다. 심미적 대상은 계층의식의 차이에 의해서 다소 그 색채를 달리 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상이한 계층에 의해 감상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노신의 경우 명청사대부들이나 좋아했을 《十竹齋箋譜》를 감상했다거나, 의식정립이 가능했을 만년에도 同書의 再版에 설명을 가했다는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노신의 작품이 세계 수십국가 다양한 계층에 의해 환영받는다라는 사실도 마찬가지 의미다. 세계는 부단히 발전·변화하며 인간의 심미감각 역시 필연적으로 변화한다. 생활이나 사회의식이 복잡다단해지면서 심미감각을 획일화한다거나 심미적 표준을 간단히 설정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노신 당시의 원칙적 논술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분석을 가하지 않는다면 형이상학적인 해석으로 전락되어 예술행위나 미학이론의 진정한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노신은 청년시절 서양제봉주의 미학사조의 영향하에 문학활동을 개시하여 5·4신문화운동을 계기로 그의 이상실현의 조건이 성숙되자 「일로매진」

53) 《노신서신집》 上卷, p.464.

함으로써 빈틈없는 문학행위를 추구하게 되었다. 특히 1920代 후반 이후 그가 과학적 사고에 기초한 미학관점으로써 소개한 브레하노프의 저서는 중국문학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술론》역자 서문에서 그는 브레하노프의 미학이론을 높게 평가하면서 동시에 그의 정치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총체적 분석방법은 당시로서는 탁월한 수준이었으며 과학적 태도가 아니고서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이와같은 논리전개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노신연구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전제는 무엇보다도 그의 사회적 활동이 사회발전법칙이나 민중의 이익에 기초한 진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학방면에 있어서의 그의 성과 역시 이러한 사상적 기초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그의 언론이나 행위가 중국신문화의 방향정립에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이유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서 우리는 노신의 실제 창작과 문학이론이 하나의 통일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예술의 본질·사실주의 및 낭만주의·전형화·형식 및 내용·미적 본질 등에 대한 그의 견해 역시 실천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의 소설·이론·잡문·서신 전반을 통해 노정되고 있는 미학사상에 대한 명확한 고찰을 위해서는 노신작품 전반에 걸친 전면적·계통적인 연구를 선행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사료된다.



## 노신의 문학이론—「拿來主義」

王永生 · 편집실 譯

문학이 과거의 遺産에 대응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문학의 발전가능성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관한 노신의 이론과 실제를 막론한 실천으로서의 공헌은 노신의 문학관 이해—특히 전통의 승계와 비판에 관한—의 관건이자 그의 문학이론 구명의 출발점일 것이다.

### 1

문학예술은 비판과 승계·혁신과 창조의 변증법적 자기진행과정이다. 따라서 새로운 생활관계를 반영하지 않는 문학적 수구주의와 전통적 해외 문학의 영향을 배제하는 예술적 폐쇄주의는 건강하고 발전적인 문학예술의 유치를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문학유산에 대한 역사적 단절—전대 문학으로부터의 자양섭취 홀시—이 예술적 정체와 퇴보를 초래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노신이 「새로운 계층과 그 문화는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지배·구문화에 대한 반항과 과거적 존재와의 대립속에서 형성·발전한 것이다. 따라서 여하한 신문화에도 승계된 부분은 존속하며 여하한 구문화도 취사선택할 부분은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문화적 전통을 선별 보존할 것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류의 과거를 승계한 존재이며 인류의 미래를 사랑하기 때문이며」 「과거적 창출속에는 새로운 계층이 선택할 만한 유가치성이 내함되어 있기 때문이다.」<sup>1)</sup> 예를 들어 唐代小說중에는 귀신을 언급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당대적 사회현실에 대한 投影이자 「六朝의 영향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宋代 說話의 영향은 지대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후대의 소설, 예를 들어 《今古奇觀》상의 서술은 宋의 小說을 모방한 것이며」 《삼국연의기》등 장회소설의 장편성은 「대개 講史에

1) 《集外集拾遺》〈浮士德與城後記〉

근거한 것이며」《大宋宣和遺事》상의 「양산박 상황서술은 《水滸傳》의 先聲이었던 것이다.<sup>2)</sup>

노신에게 있어서의 문학예술이란 전대의 유산에 대한 비판적인 취사선택을 통하여 부단히 계승·발전해가는 과정이었다. 전대문학으로부터 현대문학에 이르는 변화의 과정자체가 量質轉變의 과정으로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적 문학예술과 현재적 문학예술 사이에는 「변향성으로서의 질적전변은 있을지라도」 「一刀兩斷式의 획분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었다.<sup>3)</sup>」 문학예술의 새로운 출현이라는 것은 당시의 정치·경제적 요구에 대한 부응임을 생각할 때, 전통의 일부를 흡수·병합하고 새로운 내용을 첨가함으로써 有害·不要한 각부분으로부터 해방된 새로운 문학예술을 창출한다는 당연한 논리인지도 모른다. 이상과 같은 상황은 문학예술의 신형식 창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적 형식을 취하지만 반드시 삭제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형식의 출현 과정이며 변혁의 전도인 것이다<sup>4)</sup>」라는 노신의 언급도 전술한 바와 같은 주장일 것이다.

각개 민족의 문학예술 속에는 史的 계승관계에 유관한 민족고유의 전통이외에도 영향으로서의 해외문학관계가 존속한다. 한 민족의 진보적인 정신세계는 다른민족의 문학예술에 대한 계도·추진을 담당하곤 하기 때문이다. 노신은 이상과 같은 해외문학의 긍정적인 영향을 언급하며 「典範적이었던 것은 대체로 외국작가들이었다<sup>5)</sup>」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러시아·폴란드·발칸제국의 작품에 의한 영향으로 인하여 「지금껏 보아온 농촌상황을 더욱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상류사회의 타락과 하류사회의 불행은 연속적인 단편소설로써 발표하였던<sup>6)</sup>」 것이다. 1907년 그는 <文化偏至論>에서 중국의 부강을 위한 진보적 외국문화의 습득을 제창하면서 「유약과 온유에 입각된 구습만을 맹종한다면 세계내적 생존은 획득할 수가 없다.……」이것이야말로 「賢者가 세계의 추세를 명백하게 인식하고 편파적인 것을 제거함으로써 논리의 국가적 적용에 하자가 없게 하는 까닭인

2) 《中國小說的歷史的變遷》第三講·第四講

3) 《淮風月談》〈感舊以後(上)〉

4) 《且介亭雜文》〈論舊形式的採用〉

5) 《致董永舒》(1933. 8. 13)

6) 《集外集拾遺》〈英譯本短篇小說選集自序〉

것이다」<sup>7)</sup>라고 지적하였다. 그가 당시 문단의 「과소한 지적 섭취」<sup>8)</sup>에 불만을 품게 되었던 것도 이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타민족 문학의 우수한 전통에 대한 취사선택이야말로 그들의 현실적 갈등과 그에 상응하는 경험의 중국문학 유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중국민족문학의 새로운 창달을 추진시킬 것이기 때문이었다.

노신은 새로운 계층에 의한 새로운 문학창달에 대한 국내외적 전통의 중요성을 명백히 인식함으로써 「拿來主義」에 입각된 문학적 전통의 비판·계승과 혁신·창조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구명하게 되었다. 그는 문학적 전통을 생활관계상의 「대저택」에 비유한 후, 저택을 포함한 그 모든 것의 장악이 선행되고 난 이후에는 「그에 대한 선별과 점유가 실천되어야 한다」면서 「아무튼 우리는 장악으로서의 승계를 실현시켜야만 한다. 그리고는 그것의 현실적 적용·보존·소멸등을 결정함으로써 주인과 저택을 면모일신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拿來主義」에 입각된 새로운 문학창달 이론으로서 문학적 전통에 대한 동계 문학인들의 비판적 계승을 강조하기 위한 언급이었다고 할 수 있다. 「비판적 승계없는 새사람이 될 수 없으며 새로운 문학을 창조할 수도 없기」<sup>9)</sup> 때문이다.

《拿來主義》에서 노신은 문학적 전통에 대한 태도로서의 몇몇 오류를 다음과 같이 총괄하였다.

첫째, 이 「저택」의 계승자가 「주인으로부터 전수받은 것들에 의하여 더럽혀질까 두려워 문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전통에 대한 승계를 두려워한다면—구시대의 독소에 의한 피해를 염려함으로써—이들은 「비겁자」들이다. 둘째, 史的 변증법에 대한 몰이해와 승계전통에 대한 허무주의로 인하여 「모든 것을 소각시켜버림으로써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자 한다면 이는 『바보』짓이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주인에 대한 외경으로 인하여」 전통상의 불가치한 독소마저도 유가치한 것으로 전도인식함으로써 「절룩거리며 방안으로 들어가 남은 아편을 피우는 것은 명백한 「퇴행」」<sup>10)</sup>이다.

노신의 과거문학에 대한 비판적 정리는 그에 의한 새로운 문학의 실현만큼이나 유가치한 것이었다. 일본유학시기에 《太平御覽》등으로부터 《靑

7) 《墳》〈文化偏至論〉

8) 《集外集》〈奔流編校後記(2)〉

9) 《且介亭雜文》〈拿來主義〉

10) 同 9.

史子》등 小說逸文을 발췌하여 편찬한 그의 《古小說鈎沉》은 자료의 수집·나열·考據등이 매우 정밀하며, 1909년으로부터 1914년간에 편성된 《會稽郡故書雜集》도 前代 회계출신 작가所作의 일문을 다수 수록함으로써 중국 독자들의 민족적 자신감을 환기시켜주고 있다. 漢·魏·六朝文化에 대한 그의 관심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원세개에 의한 「尊孔復辟」이 한창이었을 즈음, 봉건통치의 압박하에서도 자신의 의지를 실천해간 《嵇康集》을 교정·출판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울분을 달래기도 했다. 이밖에 《小說備校》《唐宋傳奇集》·《小說舊聞鈔》·謝承의 《後漢書》·虞預의 《晉書》·《嶺表錄異》등이 그에 의하여 정리·교감되었으며 《中國小說史略》·《漢文學史綱要》등이 또한 그에 의하여 찬술되었는데 小說史略과 文學史綱要是 독특한 견해에 입각된 주요 문학사관계서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객체적 조건으로서의 중국근대에는 「선별적 섭취」에 대한 강조를 「계급투항」이나 「민족투항」으로 인식하는 급진좌파 청년세력이 존속해 있었다. 노신은 「새로운 예술은 돌연변이적인 것이 아니라 前代의 遺産을 승계한 결과이다. 전통의 수용을 투항이라고 인식하는 일부청년들의 사고방식은 수용과 모방을 동일시한 결과임이 분명하다. 中·日繪畫의 유럽유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상파를 어떻게 중국회화의 포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sup>11)</sup>라면서 국내적 전통과 외래적 영향과의 단절만이 진정한 신문화창달에의 길이라는 저들의 주장을 반역사적 龔頤行爲로 규정하였다. 사실상 내적전통과 외적영향에 대한 수용의 배제는 무지와 퇴보의 전제조건일 수 밖에 없는 법이다. 노신은 덴마크의 작가 프란데스의 말을 인용하여 당시의 문단을 「외국정신문명에의 단절로 인한 독창적인 창작의 부재에 상응하는 정신적 귀머거리 현상과 이에 따른 병어리 현상이 빛는」<sup>12)</sup> 빈곤의 악순환이라고 비판하였다. 1934년 노신이 「구미의 명화를 직접 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암중모색」 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 화단의 상황을 조감하며 미술의 발전에 「가장 불리한」 이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탁월한 화가의 출현이 어려울 것이다」<sup>13)</sup>라고 예상했던 것도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기성세대들의 청년들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출발된 청년과 전대의

11) 《致魏猛克》(1934. 4. 9)

12) 《淮風月談》〈由龔而頤〉

13) 《致姚克》(1934. 3. 24)



문화적 전통 및 외국작가군과의 접촉은 유해한 것이라라는 주장은 사실상 기우에 불과한 것이다. 국내외의 문화적 유산에 대한—어차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공유하고 있을 수 밖에 없는—발전으로서의 수용이란 그것들을 비판적으로 열독·감상하도록 여하히 청년들을 가르치느냐의 문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상반된 상대적 현실은 노신의 분개를 사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죽정이로는 청년들을 장대하게 할 수 없으며 장래의 성취 또한 보잘 것 없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는 니체의 「庸衆」 이외의 여하한 교육결과도 초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의 사조를 소개하고 세계의 명작을 번역하는 것이 정신적인 양식수용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자금의 농아제조자들에 의하여 폐쇄되어버린 것이다. ……농아가 되어 불품없는 庸衆으로 전락해버린 중국의 청년들은 춘화를 매입하여 그곳에 탐입하게되는 부잣집 건달의 양태를 작출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장래의 초석이 되고자 하는 작자와 역자의 노력이 요구되어지는 시대이다. 이것이야말로 절실한 정신의 양식을 청년들에게 수송해주고자 하는 노력의 所以이다.<sup>14)</sup>

사람들이 문화적 유산에 접근하고자 하는 까닭은 그곳에 흡수할 수 없는 인식상의 가치가 내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과거의 작품군을 읽는 까닭도 그들을 통하여 인물·사상·언행·풍속·습관 등 당시 생활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소한 고대의 그림일지라도 「비록 적은 양이기는 하나 회화와 조각의 당시적 상황을 수용하고 있다」<sup>15)</sup>는 것이다. 노신은 노신 당시의 일부 중국인과 외국화가들에 의하여 창작된 그림속에 「수천년전의 중국인들도 변발을 하였으며 청조와 동일한 말발굽형 소매의 長袍를 입었다」는 착오가 회화화된 것을 발견하고는 「그 그림 속의 인물·건물·기물이란 광둥지방의 그것」이어서 당시의 상황과는 현격한 차이를 빚고 있다고 지적하며 漢·唐 시대의 자료에 입각된 「인물화 몇부를 당해 외국화가들에게 우송하자」<sup>16)</sup> 그들의 목해가 중국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는 그들의 회신에 몹시 속상해 했

14) 《淮風月談》〈由龔而亞〉

15) 《集外集拾遺》〈北平箋語序〉

16) 〈致姚克〉(1934. 3. 24)

다. 그가 국내의 문학적 전통의 청년에 대한 유해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청년들의 접촉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으며 문제의 관점은 그와 같은 작품의 유해한 점을 명백하게 인식시켜주는데에 있다고 생각한 것도 이때문이었다. 작품과 독자간의 사상적 괴리에 상응하여 그만큼 더 현저해지는 작품의 유해성도 단 한번의 명백한 지적으로서 그 유해성이 격감되어버리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신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청년들이 제국주의자의 작품을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것이야말로 「知彼知己」적 과정일 것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호랑이를 보기 위하여 적수공권으로 입산을 하는 것도 바보짓이지만 호랑이가 무섭다고 해서 철책으로 구조된 동물원에조차 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더더욱 어리석은 짓일 것이다.<sup>17)</sup>

그가 예술청년들을 배양하는 당시의 「某예술학교가 고대중국의 삽화나 현대외국 삽화마저도 갖추지 않은」<sup>18)</sup>것을 불만스러워 했던 것도 이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일부 문인들은 현실과 괴리된 혁명적인 구호로써 혁명문학을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노신은 이러한 현상을 매우 싫어하였다. 그가 10월혁명의 관점에 입각된 평론들을 번역함으로써 중국의 독자들로 하여금 「중국비평가의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게 한」<sup>19)</sup>것과, 片上伸의 《현대신홍문학의 제문제》를 번역함으로써 명사뿐인 신사조의 중국수입에 따른 세력간의 주술적 공방과 용두사미적인 소멸등 당시 중국문단의 병폐를 개혁하고자 한 것도 이때문이었다. 그는 「중국내 해외신홍문학의 주술성을 극복해야만 중국문학신홍의 희망을 갖게 된다」<sup>20)</sup>고 생각하였을 뿐 아니라 「인류의 최고선은 공간을 초월한 상호관심이며 이것을 위한 최고의 방법론은 문학일 뿐이다」<sup>21)</sup>라고 지적하였던 것이다.

노신은 漢代와 唐代를 실례로 민족적 전성기에서는 해외적 영향요소에 대한 국내문학의 수용경향이 우세하지만 그 쇠퇴기에서는 그에 대한 거부

17) 《准風月談》〈關於翻譯〉上

18) 〈致姚克〉(1934. 4. 12)

19) 《集外集拾遺》〈奔流編校後記〉9.

20) 〈現代新興文學的諸問題小引〉

21) 《且介亭雜文末編》체코譯本

경향이 지배적임을 지적하였다. 그는 「漢·唐에도 번방의 소요는 존재하였지만」 「이민족의 노예로까지 전락하지는 않으리라는 민족적 자신감으로 인하여」 「외래문학을 포로처럼 자유자재로 구사하여 개의함이 없었으나」 「쇠퇴기에는」 「신경이 과민해진 나머지」 「해외적인 요소들을」 「나를 사로잡으려는」 대상으로 전도인식함으로써 「떨면서 자신을 패배시킬」뿐 아니라 「유별난 이유를 동원하여 은폐하려 들게 된다」<sup>22)</sup>고 주장하였다. 해외문학에 대한 이상과 같은 신경과민과 공포감을 오류라고 인식하였던 그는 누차 「중국이 세계의 일부인 이상 외국에 의한 어느정도의 영향은 면할 수가 없다. 따라서 유약하게 얼굴을 붉히기만 할 것은 아닐 것 같다」<sup>23)</sup>라고 강조하였다.

문예사는 일정시기 일정민족의 문예도 전대의 유산을 정확하게 존중·대응하며 해외적 영향을 자기발전적으로 수용할 수만 있다면 공전의 번영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다시말해서 국내의외의 문학적 전통을 정확하고 올바른 입장과 관점에 따라 여과 선별할 수만 있다면 그 결과를 국내신문학의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노신의 지적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상어지느러미」와 같은 진미는 「길위에 펼쳐진 흔히 있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무우나 배추처럼 한꺼번에 먹어치워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아편을 보더라도 그것을 변소 속에 내동댕이 치는 것이 철저한 혁명 의식의 구현이라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그것을 보내어 치료용 약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이겠지만 아편흡권용 도구를 「국보」로 오인하여 「일반화 시킨다는 것」은 더더욱 안될 일이다. 「박물관의 전시용 외에는 없애버려야 할 것이니까」<sup>24)</sup>

노신에 의하자면 古語와 외국어도 현재적 유용성을 갖고 있다면 비판적인 수용을 실천해야만 할 대상이었다. 따라서 「文言·白話, 심지어 외국어도 대중적인 언어·문자화의 대상이다」<sup>25)</sup>라는 그의 기술은 일반적인 서

22) 《墳》〈看鏡有感〉

23) 《集外集》〈奔流編校後記〉2.

24) 《且介亭雜文》〈拿來主義〉

25) 《花邊文學》〈大雪紛飛〉

구화·복고화의 주장이 아니라 그것들을 소화·흡수함으로써 「자기의 것으로 삼자」는 의도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계층에 의한 새로운 문학의 창달이란 내적 전통과 외적 영향에 대한 노신의 말과 같이 최대한 수용하고 최대한 소화·흡수함으로써 유가치한 것에 대한 계승과 무가치한 것에 대한 과감한 척결」<sup>26)</sup>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 2

문학적 전통에 대한 비판·선택·재구성은 문학행위의 필수불가결한 선결사항이다. 문학도 유아행위와 마찬가지로 「유익한 자양식품과 유해·무익한 불량식품을 유아들 앞에 섞어놓을 수는 없기」<sup>27)</sup>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문학의 창출과정은 추상적 통일체로서의 국내의 문학에 대한 長短으로서의 명백한 분류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소나 양은 잡아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생체의 발충을 위하여 발톱과 털을 제거하고 그 정수를 추출해야」<sup>28)</sup> 하는 것이다. 더우기 민중문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智力과 안목을 다하여 스스로의 실천을 강구해야만 하며」<sup>29)</sup> 새로운 문학과 전대적 전통 일체의 역사적·계층적·사상적 조건의 상이함을 인식함으로써 전통에 대한 승계의 과정이 분석·비판에 의한 정수추출과정이 되도록 해야만 한다. 해외문학적 유산에 대해서도 중국민중문학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것만을 선별·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사실일 것이다.

계층으로서의 사회내적 수탈과 이에 대한 헐랑관계의 존속은 문학적 반영의 주요객체를 구성한다. 「소비자가 있으면 생산자도 존재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예술이 존재한다면 생산자의 예술도 존속하는 법이다」<sup>30)</sup>라는 노신의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노신은 고대 근로대중의 문학작품을 작품으로서 긍정함과 동시에 근로대중이야말로 인류문명의 창조자임을 강조하면서 그들에 의하여 창작된 작품의 문학사적인 의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문맹인 근로대중의 작품은 문인所作처럼 섬세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참신·강건하여」 구문학에 대한 부단히 자극이 되었다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26) 《二心集》〈關於翻譯的通信〉

27) 《淮風月談》〈關於翻譯〉上

28) 《且介亭雜文》〈論舊形式的採用〉

29) 《且介亭雜文》〈拿來主義〉

30) 동 28.

구문학이 쇠퇴할 때에 민간문학이나 해외문학을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확보하게 되는 현상은 문학사상의 드문 예가 아니다.<sup>31)</sup>

그렇다고해서 그가 모든 봉건문학을 배제 대상으로, 모든 근로대중의 작품을 승계 대상으로 인식하였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근로대중소작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는 중국문학사상의 「山歌野曲」에 대한 그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그들의 고대문학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사대부계층의 사상체계를 자기계층의 것으로 전도인식하고 저들의 五·七言詩에 걸려진 나머지 대부분의 「山歌野曲」을 사대부계층의 五·七言形式에 준하게 하였다. 이것은 격률상의 형식을 논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작품의 구상과 取意도 그 형식만큼이나 진부한 것이었다.<sup>32)</sup>

지배계층의 문학작품에 대한 그의 인식경향도 이에 상응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지배계층의 자기조건에 따른 계층분화들 「在野」와 「在朝」로 구별한 후, 자기생활관계상의 현실적 불만에 대한 저들의 문학적 반영을 「廊廟文學」과 「山林文學」으로 인식하였던 노신은 전자의 성격을 「주인의 분망함을 돕지 않으려면 주인의 한가로움이라도 도와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에 반하여 후자의 그것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唐詩도 현대적 개념으로서의 在朝·在野의 구별이 가능하다. 후자의 경우는 도울만한 분망함이나 한가함이 없는 육신의 山林內的 상황에 도 불구하고 소위 정진의 宮內的 상황으로 말미암아 육체적 상황으로 인한 정신적 비애를 겪게 되는 법이다.<sup>33)</sup>

지배계층의 문학적 유산에 대한 전적인 거부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탈봉건적인 작가에 있어서도 계층적 시대적 상황으로 인한 봉건적 잔재의 수용이 불가피함으로 그에 상응하는 선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노신의 이상과 같은 주장은 인식으로서의 정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31) 《且介亭雜文》〈門外文談〉7.

32) 《而已集》〈革命時代的文學〉

33) 《集外集拾遺》〈幫忙文學與幫閑文學〉

수 있다. 실제로 후대문학에 대한 山林文學의 긍정적인 영향—봉건사회의 모순과 통치계층의 사치·음탕·안일·교만에 대한 폭로와 근로대중의 비극적 운명에 대한 공감으로서의 경향성등—과 중국문학사상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同文學의 봉건적 잔재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변별과 분석은 同文學 수용의 비판적 전제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인식의 실체적 적용으로서 굴원에 대한 노신의 다음과 같은 평가를 들 수 있다.

눈앞의 망망한 大海로 인하여 거리길을 멀쳐버린 채 세속적 혼미를 원망하고 자신의 뛰어난 재능을 노래하였으며 「전인들이 감히 말하지 못한 바를 말함으로써 美的 비극성으로서의 음전을 구성하였으나 도덕과 반항을 배제함으로써 후세를 감동시키는 역량을 격감시켰다.」<sup>34)</sup> 상부구조의 모순으로 인하여 포부를 펼 수 없었고 지배계층내부의 참소로 인하여 추방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懷王을 그리워 하였으며」 楚國의 貴族支配를 부정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그의 〈離騷〉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분평일 뿐이며」 「그의 內的 無罪에 대한 諷諫에 불과하다.」<sup>35)</sup>

굴원의 계층론적 한계구명에 입각된 이상과 같은 그의 전통 수용상의 태도는 문학에만 국한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古美術分野의 정리를 위한 수교를 아끼지 않았던 그는 목각예술의 진작을 위한 자료의 정리·발간 과정에서 「새로운 방법을 채택하여 중국고유의 장점을 가미하면」 「새로운 모색이 개척되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sup>36)</sup>라면서 「고금명화의 장점을 각별히 집적해 간다면 확실한 도움을 얻게 될 것이요」<sup>37)</sup> 특히 중국의 고목각은 「그 형상이 모래위의 회화처럼 졸렬하기도 하고 선이 가늘기도 하지만 여러차례에 걸쳐 화첩에 적어내면 무늬와 색채의 현란함이 눈을 현혹하기」<sup>38)</sup> 때문이다 라며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

漢代의 石刻畫와 明代의 서적삼화 및 민간의 年畫(실낱에 진 주위에 붙이는 그림)에 유년하여 유럽의 신기법을 결합시킨다면 질적으로 더

34) 《墳》〈離騷詩力說〉

35) 《且介亭雜文二集》〈從幫忙到扯談〉, 《漢文學史綱要》第四篇

36) 《南腔北調集》〈木刻創作法序〉

37) 〈致陳烟橋〉(1934. 3. 28)

38) 《集外集拾遺》〈北平箋譜序〉

욱 뛰어난 관화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sup>39)</sup>

그러나 노신 당시의 일부 퇴행세력들은 문학유산에 대한 이상과 같은 변별수용론을 거부하며 전대의 유산에 대한 무조건적인 추종을 주장하곤 했다. 20년대를 전후한 중국국민당의 잔혹한 대민수탈 속에서 제기된 「尊孔讀經」·「保存國粹」·「整理國故」 등의 구호가 그것이다. 노신이 전대적 전통에 대한 이상과 같은 국민당의 반역사성을 「滿載된 祖傳·老例·國粹 등을 길가에 쌓아두고는 모든 사람들을 파묻어 버리려는 것」<sup>40)</sup>이라고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가 청년필독서의 소개를 요청한 1925년 《京報》의 지면에 「중국의 서적을 적게 보거나 혹은 보지 않아야 한다」고 한 것과 익년 말의 「가능한 적게 가능한 보지 않아야 한다」<sup>41)</sup>고 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으로써 「수많은 고통의 냇가로서 획득된—일시적인 격분이나 감정때문이 아닌—사적인식」<sup>42)</sup>이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노신의 선별승계수용론은 다음과 같은 두 측면으로서 총괄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작품자체에 입각된 전면적인 평가를 우선시켜야 한다는 그의 주장을 들 수 있다.

그는 일면에 입각된 평가의 비총체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사회상황과 그의 입장·사상·감정 등에 대한 전면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작품내적인 사상과 예술의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노신이 전대적 문학유산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일차원적인 미화와 건강부회를 거부한 것도 사실은 이때문이었다. 그는 일부 문학가들의 古人에 대한 현대화를 반대하면서 《케토페行狀》의 中譯者가 「그에 대한 애정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두둔을 피할 수 없었으며」 민족·국민등을 현대적 의미의 민중으로 誤譯한 것을 지적하며 「이와 같은 의미의 현대화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와 같은 현대적 견해는 존재불능이었을 것이므로 취사선택에 의한 「투지」의 청년계층에 대한 고무적 실현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생각했어야 했다」<sup>43)</sup>고 하였다. 전대의

39) 〈致李樺〉(1935. 2. 4)

40) 《華蓋集》

41) 《華蓋集》〈青年必讀書〉

42) 《墳》〈寫在墳後面〉

43) 《集外集拾遺》〈奔流編校後記〉12.

문학유산에 대한 노신의 이상과 같은 태도는 평가의 상반된 측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동요되곤 하던 그의 정치적 견해」<sup>44)</sup>로 말미암아 평가절하되어 있던 당시의 브레하노프를 「문학에 의한 사회 리얼리즘의 초기적 실현자」<sup>45)</sup>이며 「사회학적 미학의 고전적 문헌으로서 피칭되어질 수 있는 자」<sup>46)</sup>라고 평가한 것등도 그의 변별승계수용론에 입각된 작가·작품관계 이해의 전면적인 요구였던 것이다.

둘째로는 문학유산에 대한 그의 엄밀한 변별의 요구를 들 수 있다.

노신은 宋玉의 사상·예술방면의 對屈原 後進性—「아홉번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정신의 부재와 예술표현상의 모방성과 화려성등—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九辯〉을 「정신력과 상상력의 측면에 있어서는 〈離騷〉만 못하지만 처절과 원망의 수준에 있어서는 뛰어난 작품」<sup>47)</sup>이라면서 宋玉의 楚國 정치현실에 대한 부패로서의 분만은 채택할 만한 예술성으로서 인식된다고 평가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문학유산에 대한 연구는 복잡한 작업과정일 수 밖에 없다. 우수한 문학유산일수록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그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당시 민중들의 요구와 소망에 부응하는—美的 요구로서의 적절한 형식과 기교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작품의 당시적 진보성이 역할의 현재적 진보성에 직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문학작품의 사회가치란 그것의 생활에 대한 영향가능성의 문제이지만 이 소위 영향이란 영원불변의 것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작품들에 근거한 구체적인 분석—작품에 대한 승계유용성의 추출도 그 작품의 현재에 대한, 또 현재에 대하여 가능한 제작용의 분석에 입각하여야 한다. —과 전대 작가들의 창작경험에 대한 비판적인 수용이 요청되어지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사실상 고대문학의 표현 기교는 고대적 생활관계와 인물관계의 표현에는 적합했을지 모르지만 현재적 사회관계의 재현에는 한계를 갖기 마련이다. 중국회화에 대한 노신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야말로 이와 같은 고대적 한계에 대한 명백한 지적이 될 것이다.

唐이전의 형태는 조감할 수 없지만 故事를 제재로 한 회화형식이었

44) 《二心集》〈藝術論譯本序〉

45) 《二十年間》第三版序譯者後記

46) 同 44.

47) 《漢文學史大綱》第四篇



다는 것은 본받을 만한 점이다. 唐朝佛畫의 화려함과 스케치의 명쾌함도 취할 만한 점일 것이다. 宋畫의 완약성과 무기력은 捨象해야 할 점이지만 주도면밀한 신중성은 취할 만하며 山水를 미립자로서 절절하는 형식은 쓸모없는 것이었다. 후대의 文人畫는 기교의 현실적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sup>48)</sup>

이밖에 그는 일부 中·外文學유산에 대한—비록 그것이 당시생활관계에 대한 인식으로서의 사상적 자료제시에 불과하다 할지라도—문학관계자들의 성실한 소개를 요구하곤 하였는데 見祐輔의 《思想·山水·人物》 번역에 즈음한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본서에 대한 나의 번역은 아래와 같은 사건·인물·사상·언론의古今을 통한 존속자체를 일부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에 불과할 뿐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言動의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sup>49)</sup>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중문학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적 수요에 입각된 中·外文學遺產에 대한 엄격한 변별이 필요하며 그 현실적 적용을 위한 취사선택의 구체적인 작업과정이 필수불가결한 법이다. 노신이 비판적 선별과 전통적 정수승계를 가능케 하는 문학비평의 역할을 논하면서 「한글기의 탁류는 한잔의 淨水만 못하다. 그러나 탁류를 정제하게 되는 어느부분에서는 수만잔의 淨水가 존속하는 법이다」<sup>50)</sup>라고 기술한 것도 민중문학의 창달을 위한 그의 엄격한 비판적 정수승계론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 3

中·外文學遺產에 대한 비판적 승계는 중국내 신문학의 창달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노신은 문학형식의 계승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구래의 형식을 취하는 것은 「단편적인 골동품의 잡다한 진열이 아닌 새로운 문학에 의한 융화과정이어야 하며」<sup>51)</sup> 구문학에 의한—예술로서의 형식과 사상

48) 同 28.

49) 《思想·山水·人物》〈題記〉

50) 《淮風月談》〈由變而啞〉

51) 同 28.

으로서의 내용—구속으로 인하여 「과거의 질곡으로 몰입해 가서는」<sup>52)</sup>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노신이 陶元慶의 그림을 「새로운 형태와 새로운 색채로써 자신의 세계를 묘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에게는 중국의 혼, 다시말해서 민족성이 담겨져 있다」<sup>53)</sup>라고 격찬한 것도 그가 중국회화의 전통을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서양화의 장점을 갖춘 민족회화로서의 독특한 경지를 창출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민족문학은 각자의 형식과 특성을 갖는 법이다. 문학적 전통에 대한 비판적 계승이란 중국인을 위한 중국적 창작의 문제임과 동시에 새로운 문학작품의 민중에 의한 수용과 가치평가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해외문학적 전통에 대한 수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 또한 중국신문학의 발전이 그 궁극적 목표인 것이다. 노신이 「새로운 중국의 목각은 외국의 구도와 조각법을 채용할 수도 있다」<sup>54)</sup>라고 긍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그것을 답습해서는 안된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에 의하면 외국작품을 관람하는 까닭은 조각법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자기조각의 참고를 삼기 위한 것이었다. 「외국의 진보적인 방법을 수용·발휘함으로써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도 좋지만 중국의 그것을 비판적으로 승계·수용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이 결합된 작품으로서의 신기원을 수립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sup>55)</sup>라는 그의 기술도 이상과 같은 논리의 외연선상에서 언급된 자기전해였음이 분명하다.

노신의 당시는 일부 복고주의자들에 의한 國粹論과 이에 상응하는 전면서구화론이 공존하던 시기였다. 민중문학 발전의 저해요인이었던 이상과 같은 경향을 경멸하였던 노신은 문학유산의 비판적 승계란 새로운 창달을 위한 귀감으로서의 유가치성 때문이지 현실적 창작 전체로서의 대체를 위한 것일 수는 없다면서 「典範으로 삼을 만한 전대적 유산이 존속하지 않는다면 改創할 수 밖에 없다」<sup>56)</sup>고 주장하였다. 그가 晋代의 《笑林》·《世說》등에 대한 맹목적인 모방으로서의 《笑林廣記》를 「발전적인 것이 全無한 모방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외형적인 滑稽로 전락하였으며」 「경박함으로 인하여 滑稽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한 것과 《世說》에 대한 모방으로서의 易宗夔의 《新世說》을 당대적 사회상황으로부터 피리되

52) 《而已集》〈當陶元慶君的繪畫展覽時〉

53) 동 52.

54) 〈致何白濤〉(1933. 12. 19)

55) 《且介亭雜文》〈木刻紀程小引〉

56) 《集外集》〈奔流編校後記〉 10.

맹목적인 古人 추종의 「가소로운 결과」<sup>57)</sup>라고 비판하였던 것은 부단한 사회생활로부터의 우리는 전대적 수용의 창조·혁신적 측면으로 인하여 새로운 체제의 작품화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예술적 생명력만은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언급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 볼 때 노신의 창작행위는 작금의 탁월한 귀감이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도 그의 소설은 中·외의 민주주의와 반항정신에 대한 비판적 승계·수용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행동적이고도 반항적이었던 바이런·셸리등 摩羅詩派와 고골리·체홉등 현실고발파등이 바로 그의 경향적 수용대상이었으며 「공평무사에 입각하여 당시적 현실을 비판한」<sup>58)</sup> 吳敬梓, 「사상적인 묘사와 간결한 서술형식에 입각된」 「근근대적 양태의 타파」<sup>59)</sup>에 탁월하였던 曹雪芹등이 그의 비판적승계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노신의 이상과 같은 수용과 승계는 맹목적인 답습이나 추종이 아니었다. 그것은 반제·반봉건의 당대적 요구에 입각된 새로운 기법으로서의 융화 자체였으며 중국내적 현실관계에 대한 모순으로서의 해부·고발이었던 것이다. 「가족제도와 禮敎의 폐해를 폭로한」<sup>60)</sup> 그의 소설들은 고골리나 중국고대소설가들의 우려와 분개를 초월하는 혁명적인 뇌성이었으며 5·4신문학운동의 기념비적인 先聲이었던 것이다.

노신의 잡문, 특히 후기의 잡문들은 제종의 史的 관점에 입각된 中·外文學의 전적인 유산—특히 중국 고대 小品文—을 비판적으로 승계한 혁신적인 성과였다. 다시말해서 중국 고대의 小品文—특히 「항쟁과 격분으로 일관된」 唐代 羅隱의 《譏書》와 「진흙속의 광채요 날카로운 기상이라」는 皮日休의 《皮子文藪》·陸龜蒙의 《笠澤叢書》, 그리고 풍자적이고도 공격적인 명말의 小品文에 대한—을 승계·수용하고 혁신·개조한 민주적 정화였던 것이다. 중국고대산문의 탁월한 묘사력을 승계한 그의 소품문으로 인하여 舊來의 小品文은 「비수」와 「투창」으로 轉變되었을 뿐아니라 「독자와 함께 혈로를 찾아나가는 그 무엇이」<sup>61)</sup>되었던 것이다. 노신은 전대적 문학유산의 민주적 정수를 비판적으로 선별·수용하고 그것을 융화시켰기 때문에 正史·野史·小說·筆記등 각종 역사지식과 典故의 임의적 운용이

57) 《中國小說的歷史的變遷》第二講

58) 《中國小說史略》제 23편

59) 동 57. 第六講

60) 《且介亭雜文第二集》〈中國新文學大系小說二集序〉

61) 《南腔北調集》〈小品文的危機〉

가능할 수 있었다 한다. 소품문에 의한 그의 장르혁신과 현실비판이 가능했던 것도 이때문이었던 것이다.

노신의 이상과 같은 경향은 창작방법과 표현기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소설과 희곡의 「白描」층계—상황·성격·스토리등의 형상화에 등원된 간결하고도 생동감 있는 문체—와 東北歐 작가들의 기교 수용—「한개의 반점으로써 표범을 인식하고 한번의 눈짓으로써 全精神을 구현하는」<sup>62)</sup>, 특히 성격과 상황의 묘사에 유관한—의 응화였던 노신소설의 표현기교는 신소설의 중국적 수준을 혁신시킨 신기원이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藥>의 대단원 같은것은 안드레프의 표현수법을 수용한 것으로서 「안드레프식의 음산함을 지닌」<sup>63)</sup> 것이었다. 夏씨네 마님과 華씨부인의 묘지조우를 통하여 두여인의 고통과 夏瑜의 민중단절을 극화시키고 있는 <藥>의 대단원이 「끝없는 분묘」·「늦가을의 청백색 꽃더미」·「황토가 드러난」 분묘·「구리철사같은」 마른풀·「쇠불이 같은」 까마귀·「죽은 듯한 적막감」에 의한 극도의 처절함을 연출해 냄으로써 작품으로서의 비극적 효과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영광된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문학적 유산의 보존자였으며 동시에 개척자이고 창조자였음을 입증할 것이다」<sup>64)</sup>라는 그의 큰소리도 사실은 이상과 같은 자기실천에 입각된 신념으로서의 자부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62) 《三閑集》〈近代世界短篇小說集小引〉

63) 《且介亭雜文二集》〈中國新文學大系小說二集序〉

64) 《集外集拾遺》〈引玉集後記〉

■ 附 録

魯迅關係主要資料目録

I. 日 本 (1945~1977)

〔圖 書〕

- ・ある中國特派員——山上正義と魯迅 丸山 昇 中央公論社 '76(中公新書)
- ・〔書評〕丸山 昇：魯迅友の會會報 65['76]
- ・近代中國の思想と文學 東京大學文學部中國文學研究室編 大安 '67 62p 年表8p
- ・新編魯迅雜記〔正〕續竹内 好 勁草書房 222p, 300p '76, '78
- ・竹内好と魯迅 松枝茂夫〈魯迅文集第4卷月報4 筑摩書房 '77)
- ・中國の近代と日本の近代 竹内 好 〈東洋的社會倫理の性格 白日書院 '48(東大東洋文化社研究所東洋文化講座3)〉
- ・ふたたび「魯迅日記」を續む 今村與志雄〈魯迅文集第3卷月報3 筑摩書房 '77)
- ・二つの魯迅像——竹内好と太宰治のばあい 荒井 健〈文學理論の研究 桑原武夫編 岩波書店 '67(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報告)〉
- ・「福建章命」と魯迅 丸山 昇〈岩波講室・世界歴史第12卷月報 岩波書店)
- ・補足,そして魯迅の渡日のこと 今村與志雄 〈魯迅文集第4卷月報4 筑摩書房 '77)
- ・好さんの中の魯迅 杉浦明平〈魯迅文集第4卷月報4 '77)
- ・魯迅 竹内 好 日本評論社 '46 192p
- ・魯迅 竹内 好 世界評論社 '48 338p 圖版(世界文學はんどぶっく)
- ・魯迅 竹内 好〈中華六十名家言行錄 弘文堂 '48)
- ・魯迅 竹内 好 創元社 '52(創元文庫)
- ・魯迅 竹内 好 河出書房 197p '56(河出文庫)
- ・魯迅 竹内 好 未來社 '61 209p

- ・魯迅——その文學と革命 丸山 昇 平凡社 '65 248p (東洋文庫)
- ・〔書評〕西 順藏：歴史評論 188['66.4] p.28~32
- ・〔書評〕丸山松幸：東京支那學報 12['66.6] p.185~187
- ・魯迅 檜山久雄 三省堂 '70 221p
- ・魯迅——沈黙とことばへの抗い 上野昂志 三一書房 '74 192p (三一  
新書)
- ・魯迅——中國文化革命の巨人 姚 文元著 片山智行譯 潮出版社 '75  
400p
- ・魯迅案内 増田 涉, 松枝茂夫, 竹内 好編 岩波書店 '56 314p
- ・魯迅回想 馮 雪峯著 鹿地 亘, 吳 七郎譯 ハト書房 '53 240p
- ・魯迅回想録 許 廣平著 松井博光譯 筑摩書房 '68 233p (筑摩叢書)
- ・〔書評〕今村與志雄：群像 23(11)['68.11] p.221~223
- ・魯迅研究 坂本徳松編 八雲書店 '48 263p
- ・魯迅研究 川上久壽 くらしお出版 '62 292p
- ・魯迅語彙の編纂 猪俣庄八〈文部省科學研究費研究報告集録 文哲史學  
研究現狀調査委員會 '51〉
- ・魯迅語彙の編纂 猪俣庄八〈文部省科學研究費による各個研究報告集  
録 日本學術振興會 '53〉
- ・魯迅語録舒 士心編 香坂順一譯 中日青年協會 '46 180p
- ・魯迅雜記 竹内 好 世界評論社 '49 236p
- ・魯迅, 徐懋庸宛の手紙・その後 竹内 實〈入矢教授・小川教授退休記  
念中國文學語學論集 '74 p.665~677〉
- ・魯迅詩話 高田 淳 中央公論社 '71 270p (中公新書)
- ・〔書評〕寛 文生：野草 5['71.10] p.64~70
- ・魯迅的屈原像——そのリアリズムとロマンティズム 山田敬三〈入  
矢教授・小川教授退休記念中國文學語學論集 '74 p.691~704
- ・魯迅傳 小田巖夫 乾元社 '53 251p
- ・魯迅傳——その思想と遍歴 山田野理夫 潮文社 '64 198p
- ・魯迅傳 小田巖夫 大和書房 '65 215p (大和選書)
- ・魯迅傳 パズネーエワ著 川上久壽譯 波書房 '71 350p
- ・魯迅と 大庭みた子〈魯迅文集 第3巻月報3 筑摩書房 '77〉
- ・魯迅とエロス 中島長文〈入矢教授・小川教授退休記念中國文學語學

- 論集 '74 p. 679~690)
- ・魯迅と革命文學 丸山 昇 紀伊國屋書店 '72 166p, 年表26p (紀伊國屋新書)
  - ・〔書評〕北岡正子：野草 7['72.4] p. 78~81
  - ・魯迅と彼をつぐ人々 岡崎俊夫 <現代文學十二講 ナウカ社 '51>
  - ・魯迅と現代 佐々木基一, 竹内 實編 勁草書房 '68 361p
  - ・魯迅と終末論——近代リアリズムの成立 伊藤虎丸 龍溪書舎 '75 379p
  - ・魯迅と初期左聯 吉田富夫 <吉川博士退休記念中國文學論集 '68 p. 795~810>
  - ・魯迅と漱石 檜山久雄 第三文明社 '77
  - ・魯迅と傳統 今村與志雄 勁草書房 '67 541p
  - ・魯迅との對話 尾崎秀樹 南北社 '62 284p 圖版
  - ・〔書評〕米田利昭：日本文學(日本文學協會) 12(5)['63.5]
  - ・魯迅との對話 尾崎秀樹 増補版 勁草書房 '69 408p
  - ・魯迅入門 竹内 好 東洋書館 '53 239p 圖版
  - ・〔書評〕鶴岡冬一：中央公論 ['53]
  - ・魯迅の印象 増田 涉 講談社 '48 254p
  - ・〔書評〕岡本隆三：中國語雜誌 4(6)['49.5]
  - ・〔書評〕波多野太郎：中國語雜誌 4(6)['49.5]
  - ・魯迅の印象 増田 涉 角川書店 '70 326 (角川選書)
  - ・魯迅の原稿のこと 陳 舜臣 <魯迅文集第3卷月報3 筑摩書房 '77>
  - ・魯迅の故家 周 遐壽著 松枝茂夫, 今村與志雄譯 筑摩書房 '55 333p
  - ・〔書評〕松井博久：北斗 1(4)['55.4]
  - ・魯迅のころ 新村 徹 理論社 '70 204p(Junior Library)
  - ・〔書評〕竹内 實：野草 1['70.10] p64~67
  - ・魯迅の言葉 増田 涉 創元社 '55 164p
  - ・魯迅の言葉 近代文學研究會編 芳賀書店 '66 243p
  - ・魯迅の思想——民族の怨念 横松 宗 河出書房新社 '73 361p
  - ・魯迅の生涯 小田巖夫 鎌倉文庫 '49 236p (人間選書)
  - ・魯迅の生涯 石 一歌著 金子二郎, 大原信一譯 東方書店 '77
  - ・魯迅の世界 山田敬三 大修館書店 '77
  - ・魯迅の短刀について 竹内 實 <吉川博士退休記念中國文學論集 '68

p. 779~794)

- ・魯迅評傳 鹿地 亘 日本民主主義文化連盟 '48 180p 圖版(文連文庫)
- ・〔書評〕野澤俊敬：熱風 4〔'75〕
- ・魯迅評論集 竹内 好譯 岩波書店 '53(岩波新書)
- ・〔書評〕檜山久雄：新日本文學 8(8)〔'53.8〕
- ・魯迅・藤野先生・仙臺 半澤正二郎 仙臺魯迅會 '67 84p(圖版共)

〔雜誌〕

- ・アジア的近代——魯迅序説 岡庭 昇：ユリイカ 76(4)〔'76〕
- ・新しい口譯「魯迅選集」 波多野太郎：中國語雜誌 5(2)〔'50.5〕
- ・廈門時代における魯迅と林語堂 永末嘉孝：長崎造船大學研究報告 11(2)〔'70.10〕 p. 205~211
- ・廈門と魯迅 中嶋幹起：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所通信(東京外大) 14〔'71.12〕 p. 4~7
- ・廈門における魯迅——魯迅傳覺書 猪俣庄八：北海道大學文學部紀要 17(2)〔'69.11〕 p. 1~29
- ・新たに公表された魯迅の書簡 丸山 昇：新潮 6〔'74.6〕
- ・新たに発見された魯迅の題詩 周 建人：人民中國 〔'76.9〕
- ・ある日の夫・魯迅 許 廣平：文學界 10(12)〔'56.12〕
- ・醫學志願をめぐる——〈日本留學時代の魯迅〉—1—細谷正子：中國文學研究(中國文學の會) 1〔'61.4〕
- ・異端・覺書—1—須藤洋一：熱風 2〔'71.7〕 p. 27~32
- ・惟魯迅先生——今日に生きる魯迅 内山完造：改造 32(11)〔'51.11〕
- ・いわゆる中國整風運動の一側面——周揚批判と「魯迅全集」の注釋 今村與志雄：中國 33
- ・叢知と復讐 小野田耕三郎：中央評論(中央大) 8(6)〔'56.6〕
- ・エロシエンコと魯迅 伊藤敬一：北斗 1(2)〔'54.13〕
- ・エロシエンコと魯迅 水田翠月：魯迅友の會會報 64〔'76〕
- ・往事の思い出——魯迅の書簡その他 曹 靖華：人民中國 〔'76.10〕
- ・大でろぼうの話 高畠 穰：北斗 2(4)〔'56.8〕
- ・尾崎秀樹著「魯迅との對話」と魯迅友の會編「魯迅友の會會報」 米田利昭：日本文學(日本文學協會) 12(5)〔'63.5〕
- ・思師魯迅先生 増田 渉：ユリイカ 〔'76.4〕



- ・ 回憶魯迅(回想の中國人—1—) 清水安三：樹美林大學中國文學論叢  
1['68.3] p.1~10
- ・ 回顧 小田巖夫：ユリイカ ['76.4]
- ・ 學匪派ロジシ學歩田泰淳氏 「恐怖症患者の獨白」 をヒョーセツする  
中野美代子：ユリイカ ['76.4]
- ・ 革命詩人殷夫と魯迅 宇田 禮：北斗 1(1)['54.10]
- ・ 革命と文學(對話) 竹内 好，橋川文三：ユリイカ ['76.4]
- ・ 花鳥風月 竹内 好：新日本文學 11(10)['56.10]
- ・ (戯曲)魯迅・その詩と愛 霜川遠志：本の本 2(10)['76]
- ・ 舊中國と魯迅 高田 淳：魯迅研究 3['53.7]
- ・ 境界の上の魯迅——日本留學の軌跡を追って 細野浩二：朝日アジア  
レビュー 7(4)['76.12] p.66~71
- ・ 許廣平との再會 増田 涉：圖書 84['56.9]
- ・ 近數年來魯迅中國文獻覚え書 志賀正年：中國研究 1['56.9]
- ・ 翟秋白批判について——魯迅逝去32周年に思う(世界文學展望——中  
國文學) 立間祥介：文學界 22(12)['68.12] p.165~167
- ・ 「黒い男」と魯迅 立間祥介：北斗 2(5)['56.11]
- ・ 食われぬための文學——魯迅の狂人日記 竹内 好：隨筆中國 3['48.4]
- ・ 軍閥時代 天野元之助：中國研究 3['56.10]
- ・ 群盲象をなでて，なお盡きぬ謎——竹内好譯「魯迅文集」第1卷「魯  
迅と現代」(思想と潮流) 陳舜臣：朝日ジャーナル 18(51)['76.12.  
10] p.57~59
- ・ 嵇康と魯迅—1—嵇康集の校訂からみた魯迅 林田愼之助：中國文學  
評論 1['62.1] p.10~14, 19
- ・ 現今の新文學の概観 魯迅研究會譯：魯迅研究 3['53.7]
- ・ 現代における魯迅ブームを探る：現代の眼 17(6)['76.6] p.31~33
- ・ 現代の魯迅(講演) 丸山 昇：中國迅研(日中出版) 77['76]
- ・ 現代文學と魯迅 岡崎俊夫：Demos ['50.11]
- ・ 高校生と魯迅 木畑通晃：魯迅友の會會報 65['76]
- ・ 抗日統一戦線結成過程の魯迅 松本 昭：現代中國 23['53.10]
- ・ この十五年——今日に生きる魯迅 齋藤秋男：改造 32(11)['51.11]
- ・ 小林多喜二と魯迅 奈良和夫：多喜二と百合子 4(9)['56.12]

- ・これか私の感想である——丸山昇氏の「魯迅・周揚と國防文學論」を  
読む 今村與志雄：書報(極東書店) ['67.1]
- ・作家と筆名——魯迅の横顔 志賀正年：亞東文化 59['53.1]
- ・雜文と創作 宮森常子：中國研究 2['56.10]
- ・左翼作家連盟と魯迅(誌上講室) 檜山久雄：新日本文學 24(2)['69.2]  
p.132~147
- ・三・一八事件と魯迅 魯迅研究會：魯迅研究 2['53.3]
- ・詩人としての魯迅 山田敬三：伊啞 9['77]
- ・師道について——章炳麟と魯迅 高田 淳：理想 464['72.1] p.27~39
- ・出發における「恥辱」(「羞恥」)の契機について——民族的自己批評と  
しての魯迅文學 丸尾常喜：北海道大學文學部紀要 25(2)['77.3]  
p.235~270
- ・徐懋庸と魯迅 丸山 昇：文學 44(4)['76]
- ・徐懋庸に答え、あわせて抗日統一戦線問題にかんして——評論に即し  
ての魯迅(講演) 竹内 實：文學 44(5)['76.5] p.712~736
- ・新刊「魯迅書言集」について(書評) 今村與志雄：文學 45(4)['77.4]  
p.502~514
- ・新版魯迅全集 平岡武夫：讀書春秋 8(1)['57.1] p.8~9
- ・人民文學出版社「魯迅全集」, 増田涉他共編「魯迅選集」尾崎雄二郎：  
中國文學報(京大) 6['57.4]
- ・「世界文庫」覺書——鄭振鐸と魯迅 伊藤漱平：明清文學言語研究會會  
報 8['67.2] p.27~41
- ・先驅者の道——魯迅の狂人日記 大芝 孝：中國資料 40['52.2]
- ・仙臺時代の魯迅 山田野理夫：文學 24(10)['56.10]
- ・仙臺時代の魯迅 山田野理夫：ユリイカ ['76.4]
- ・仙臺の魯迅と私 拓植秀臣：本の本 2(10)['76]
- ・「莊周韓非の意」[魯迅の言葉] 木山英雄：一橋論叢 69(4)['73.4]  
p.50~64
- ・漱石と魯迅 伊藤正文：文學 22(4)['54.4]
- ・ソ連人の魯迅論—1—バズネーエワ 川上久壽紹介：小樽商科大学人  
文研究 16['58.7] p.69~92
- ・ソ連人の魯迅論—3—サロキン 川上久壽：小樽商科大学人文研究 20

- [ '60.7] p.103~125
- ・ソ連と魯迅論—4—ペトロフ 川上久壽：小樽商科大学人文研究  
23[ '62.1] p.43~81
  - ・ソ連版畫家にあてた魯迅の書簡 川上久壽：小樽商科大学人文研究  
39[ '69.10] p.1~17
  - ・タイクツの對話——野草その他をめぐって 竹内 實：北斗 2(5)[ '56.  
11]
  - ・高橋和巳に於ける魯迅の意味 立石 伯：ユリイカ [ '76.4]
  - ・竹内好著「魯迅」の傳記の部分について 津田 孝：魯迅研究 1[ '53.1]
  - ・竹内好の回轉軸——「魯迅」とその周邊 田坂 昂：現代の眼 18(11)  
[ '77.11] p.292~303
  - ・竹内好の文學思想——魯迅論をめぐって 鹿地 亘：民主文學 28[ '68.  
3] p.70~88
  - ・[竹内好譯・魯迅作品集] (書評) 伊藤正文：青銅 9[ '53.6]
  - ・[竹内好譯・魯迅作品集] (書評) 竹内 實：中國文藝 17[ '53.7]
  - ・[竹内好譯・魯迅作品集] (書評) 浦松佐美太郎：文學界 7(8)[ '53.8]
  - ・竹内好譯「魯迅作品集」(書評) 西野辰吉：近代文學 8(8)[ '53.8]
  - ・竹内好譯「魯迅評論集」「魯迅作品集」(書評) 檜山久雄：新日本文學  
8(8)[ '53.8]
  - ・[竹内好譯・統魯迅作品集] (書評) 富士正晴：Viking 66[ '55.10]
  - ・闘う魯迅を支えるもの 長谷川良一：中國語學 24[ '49.2]
  - ・中國革命と國民精神——魯迅の阿Q正傳を中心として 竹内 實：文學  
評論 [ '53.6]
  - ・中國革命と魯迅 檜山久雄：現代の眼 6(11)[ '65.11]
  - ・中國近代文學の誕生と魯迅・胡適・陳獨秀 相浦 泉：野草 1[ '70]  
p.1~13
  - ・中國近代文學のなかの魯迅——上、中——魯迅の觀點・「仁」の轉移 杉  
森正彌：北海道學藝大學紀要(第一部) 4(2)[ '53.12] p.40~46,5  
(2)[ '54.12] p.10~20
  - ・中國的「近代意識」のひとつの表徴としての魯迅の意識の問題 大阪外  
語現代中國研究會：現代中國研究 3[ '53.2]
  - ・中國における文字改革と魯迅 石山曙生：駒澤大學研究紀要12[ '77]

- ・ 國のゴリキー魯迅とは 野田 禮：新讀書 40〔'52.11〕
- ・ 中國の“文化革命”後における魯迅作品の運命 Zhelkhovtsev, A. N. 著  
川上久壽譯：小樽商科大学人文研究 48〔'74.9〕 p.25~48
- ・ 中國文學に於ける魯迅 増田 涉：泊園 7〔'68.6〕 p.36~45
- ・ 中國民話と魯迅 竹内 實：文學 26(8)〔'58.8〕 p.99~108
- ・ 陳紹禹(王明)とその魯迅論 川上久壽：小樽商科大学人文研究 43  
〔'71.11〕 p.165~181
- ・ ドイツから見た魯迅 好村富士彦：魯迅友の會會報 63〔'76〕
- ・ 東京時代の魯迅 さかもと：民鐘 3(1)〔'46.1〕
- ・ 盜跖と宴之敖者と 高畠 穰：北斗 2(5)〔'56.11〕
- ・ 東大における沙汀——この中共の作家が日本の學生に親しく語る魯迅  
との出會い、竹内 實：文學界 15(6)〔'61.6〕
- ・ 黨は魯迅に力を與えた——回想斷片：中國文學藝術通信 7〔'51.9〕
- ・ 独自の角度からの魯迅への接近——尾崎秀樹「魯迅との對話」宮本  
研：文藝 8(11)〔'69.11〕 p.184~186
- ・ 特集・外國における魯迅 ソ連・チェコ・フランスにおける魯迅 金岡  
熙光：魯迅友の會會報 62〔'76〕
- ・ 日本における魯迅——どんなものを讀めばよいか 丸山 昇：中國  
〔'56.10〕
- ・ 日本における魯迅 許 廣平：新日本文學 12(3)〔'57〕
- ・ 日本における魯迅 山田野理夫：朝日アジアレビュー 1(2)〔'70.6〕  
p.64~68
- ・ 日本文學との關係 千田九一：文學 24(10)〔'56.10〕
- ・ 日本歴史の問題 なかの しげはる：新日本文學 11(10)〔'56.10〕
- ・ 人間魯迅 内山完造：桃源 4(3)〔'49.6〕
- ・ 霸道悠久——創作・民國15年魯迅の手記 中野美代子：日本及日本人  
1532〔'75.11〕 p.16~23
- ・ 爸爸，媽媽，弟弟 内山完造：圖書 84〔'56.9〕
- ・ 火を盜む者——魯迅とマルクス主義文藝 山田敬三：神戸大學文學部  
紀要 6〔'77〕 p.147~185
- ・ 批判に應えつつ 竹内芳郎：ユリイカ 〔'76.4〕
- ・ 病床の魯迅 河野さくら：文化評論 3〔'62.2〕

- ・「批林批孔」運動と魯迅 安藤彦太郎：新日本文學 30(12)〔'75.12〕  
p. 11～21
- ・ふたたび魯迅の原稿について 今村與志雄：本の本 2(10)〔'76〕
- ・二葉亭と魯迅 波多野鹿之助：文學 22(10)〔'54.10〕
- ・二人の先達と魯迅——増田渉，竹内好兩先生の靈前に 檜山久雄：現代の眼 18(5)〔'77〕
- ・文學革命——魯迅の文學史的背景 竹内 好：中國文學 106〔'48.5〕
- ・文豪「魯迅」の一面を語る——小論二篇 林 盛道：北九州大學外國語學部紀要(1) 5〔'60.11〕
- ・茅盾から見た魯迅——第一次國民革命期を中心にして 菅原正義，是永 駿：野初 1〔'70.10〕 p. 40～46
- ・骨はかたい——魯迅回想の一 鹿地 亘：日中文化 41〔'58.11〕
- ・武者小路實篤と魯迅・周作人の交流 杉森正彌：諸學文學(北海道教育大) 7〔'69.3〕 p. 19～30
- ・無抵抗主義(何幹之：魯迅思想研究より)：中國語雜誌 6(4・5・6)〔'51.6〕
- ・冥府蒼茫——創作1977魯迅の手記 中野美代子：日本及日本人 陽春號〔'77〕
- ・毛主席と柳亞子，魯迅(私自身のための中國—3—) 白石 凡：朝日アジアレビュー 3〔'70.9〕 p. 96～101
- ・毛澤東と魯迅 小野信爾：ユリイカ 〔'76.4〕
- ・毛澤東の魯迅論：中研連月報 10〔'50.10〕
- ・毛澤東「魯迅論」中國研究編集部譯：中國研究 2〔'58.10〕
- ・幽鬼は死なない 大内兵衛：世界 123〔'56.3〕
- ・歪められた鏡——昭和10年代と魯迅 松本健一：ユリイカ 〔'76.4〕
- ・要無愧於作魯迅先生的後代(谷峪) 南雲道子譯注：中國語(江南書院) 5 〔'55.10〕
- ・四人組に對する徹底的批判のあらたな戦果——新しく發見された魯迅の茅盾あて手紙七通を喜びのうちに讀む(雜誌「革命文物」1977年第4號より譯載) 魯迅研究室著 大山 茂譯：中國研究月報 357〔'77.11〕 p. 26～29
- ・ルーシェインの手紙(世界文學展望)竹内 實：文學界 16(10)〔'62.10〕

- ・禮教喫人 目加田 誠：文學研究(九州大) 56〔'57.7〕
- ・老舎と魯迅 小川環樹：東北文學 2(6)〔'47.6〕
- ・魯迅 小川環樹：東北文學 4(6)〔'49.6〕
- ・魯迅——人間の教師 齋藤秋男：新しい學校 3(11)〔'51.11〕
- ・魯迅 檜山久雄：近代文學 8(3)〔'53.3〕 p.42~47
- ・魯迅——作家小傳「天地人」編集部：天地人 6〔'53.10〕
- ・魯迅——小説と雜文 岡崎俊夫：婦人公論 39(6)〔'53.6〕
- ・魯迅——新中國を作った人人--その7— 新島淳良：中國語(江南書院) 16〔'56.10〕
- ・魯迅——抵抗の姿勢 近藤晴彦：國際政經事情(愛知大) 22〔'57.5〕  
p.31~38
- ・魯迅——その文學と革命 竹内芳郎：文藝 6(5)〔'67.5〕 p.150~180
- ・魯迅——革命時代の文學 檜山久雄：新日本文學
  - ・ — 1 — 「狂人日記」と狂氣 24(7)〔'69.7〕 p.155~163
  - ・ — 2 — 五四文化革命に對する態度 24(8)〔'69.8〕 p.64~70
  - ・ — 3 — 民衆の戯畫阿Qの幸福 24(9)〔'69.9〕 p.58~64
  - ・ — 4 — ある孤獨者の死 24(10)〔'69.10〕 p.124~130
  - ・ — 5 — 彷徨の嘆きと怒りと 24(11)〔'69.11〕 p.71~79
  - ・ — 6 — 野の草その影の告白 24(12)〔'69.12〕 p.121~129
  - ・ — 7 — 厦門から廣東へ 25(1)〔'70.1〕 p.122~129
  - ・ — 8 — 文學と革命 25(2)〔'70.2〕 p.122~128
  - ・ — 9 — 文學と革命—續— 25(3)〔'70.3〕 p.106~112
  - ・ — 10 — 「故事新編」の世界 25(4)〔'70.4〕 p.81~87
  - ・ — 11完 — 「故事新編」の世界—續— 25(5)〔'70.5〕 p.118~126
- ・魯迅『ある青年の夢』(武者小路實篤)譯者序(譯注) 野澤俊敬：熱風 5  
〔'76〕
- ・魯迅いかに學ぶべきか(張天翼・關於學習魯迅的一兩個問題的要約)：  
中國語雜誌 6(4・5・6) 〔'51.6〕
- ・魯迅佚文のこと 山田敬三：中國語(大修館書店) 212〔'77〕
- ・魯迅をいうこと 富士正晴：ユリイカ 〔'76.4〕
- ・魯迅を生かす道——竹内氏の中國觀について 幼方直吉：中國研究 10  
〔'49.12〕

- ・魯迅を想う スメドレー, アグネス著 高杉一郎譯:世界 126〔'56.8〕
- ・魯迅を語る 増田 渉:亞東資料 54〔'52.10〕
- ・魯迅覺書——肉體の思想化 佐々木基一:中國文學 96〔'46.6〕
- ・魯迅覺え書——中國革命の底にあるもの 奈良和夫:歴研評論(早大) 8〔'57.5〕 p.46~51
- ・魯迅をめぐる對話 おかわ おつお:北斗 1(6)〔'55.10〕
- ・魯迅を読む 竹内 好:文學 45(4)〔'77.4〕
- ・魯迅を読む(講演) 竹内 好:文學 45(5)〔'77.5〕 p.553~562
- ・魯迅開眼 半澤正二郎:新文明 5(11)〔'55.11〕
- ・魯迅が生きていたならば——或る種の否定面について 荒 正人:文學 24(10)〔'56.10〕
- ・魯迅回顧二十年 内山完造:中國語(江南書院) 16〔'56.10〕
- ・魯迅回想 八幡光丸:野州國文學 3〔'69〕
- ・魯迅が示した「同感」——正宗白鳥「モラエスと魯迅」 釜屋 修:静岡大學教養部研究報告(人文科學篇) 12〔'77〕 p.167~176
- ・魯迅がデモ行進の先頭に立っている 倪 海曙:中國文學藝術通信 7 〔'51.9〕
- ・魯迅から毛澤東文藝路線へ かわかみ ひさとし:華僑文化 53〔'53.4〕 54〔'53.5〕
- ・魯迅・瞿秋白・茅盾 松井博光:ユリイカ 〔'764〕
- ・魯迅研究の現段階と方向性論考——アメリカにおける動向と魯迅思想の選輯(logic)性について 志賀正年:天理大學學報 104〔'76.9〕 p.119~137
- ・魯迅「研究」の問題 大阪市立大學中國研究室:中國研究(大阪市大) 1 〔'56.9〕
- ・魯迅故居記 多田裕計:早稲田文學 20(1)〔'59.1〕
- ・魯迅故宅記 奥野信太郎:三田文學 14(10)〔'55.10〕
- ・魯迅再現 半澤正二郎:新文明 7(1)〔'56.1〕
- ・魯迅作品と外文譯 志賀正年:新中國 3〔'57.2〕 p.45~47
- ・魯迅作品の文體論的アプローチ——「將」「把」「便」「就」および「好」像を中心として 川本榮三郎:集刊東洋學(東北大) 37〔'77.9〕 p.69
- ・魯迅雜感 安藤彦太郎:ユリイカ 〔'76.4〕

- ・魯迅雜感選集序(瞿秋白) 新島淳良譯：魯迅研究 4〔'53.8〕
- ・「魯迅雜感選集序言」の理論的前提——左連前期における瞿秋白文藝理論の位置 丸尾常喜：東洋文化(東大東洋文化研究所) 56〔'76.3〕  
p.65~91
- ・魯迅雜記 増田 渉：中國文學 99〔'47.9〕, 100〔'47.10〕, 101〔'47.11〕  
102〔'47.12〕
- ・魯迅雜攷 尾花午郎
  - ・ —〔1〕—絶望と希望と：商學論纂 12(3.4)〔'71.3〕 p.245~276
  - ・ —2—啓蒙的文學者から革命的的文學者へ：ドイツ文化(中央大)  
16〔'73.3〕 p.107~126
- ・魯迅雜文・書簡二種 丸尾常喜譯注：熱風 4〔'75〕
- ・魯迅雜文のロマン・ロラン 佐藤一郎：藝文研究 23〔'67.2〕 p.299~  
311
- ・魯迅雜文の發想の諸形式——「野草」をめぐる精神分析的一考察 中野  
美代子：現代中國 34〔'59.6〕 p.45~58
- ・魯迅さん 内山完造：圖書 73〔'55.10〕
- ・魯迅さんを偲ぶ 内山完造：文庫 46〔'55.7〕
- ・魯迅氏語る——一九二九年北京より パートレット, R.M. 著 守屋雅  
代譯：魯迅友の會報 63〔'76〕
- ・魯迅私感 藤井良藏：作家 42〔'51.11〕
- ・魯迅思想研究——無抵抗主義 何 幹之著 岡本隆三譯：中國語雜誌 6  
(4.5.6)〔'51.6〕
- ・魯迅思想研究ノート—1~6完— 横松 宗：八幡大學論集 20(1.2)  
〔'69.11〕 p.1~48, 20(3.4)〔'70.3〕 p.345~390, 21(1.2)〔'70.  
11〕 p.257~293, 21(3.4)〔'71.3〕 p.131~154, 22(1.2)〔'71.11〕  
p.159~197, 22(3.4)〔'72.3〕 p.1~17
- ・「魯迅思想の展開」から 伊藤秀一：中國研究(大阪外大) 1956(12)  
〔'56.12〕 p.29~32
- ・魯迅・周揚と“國防文學論戰” 丸山 昇：書報(極東書店) 5〔'66〕
- ・魯迅小傳 スノウ, エドガー：中國文學 97〔'46.7.8〕
- ・魯迅初期の論文に関するバズネーエワの所論 川上久壽：小樽商科大  
學人文研究 31〔'66.1〕 p.1~23



- ・魯迅所見書考 勝村哲也：鷹陵(佛教大) 43[’72]
- ・魯迅序論 伊藤正文：青銅 4[’52.7]
- ・魯迅精神と實存主義 中里龍彦：理想 127[’54.10]
- ・魯迅精神の開花 内山完造：ことばの教育 18(9)[’56.10]
- ・魯迅精神の繼承 猪俣庄人：明日 [’48.8]
- ・「魯迅選集」の特色 竹内 好：圖書 78[’56.3]
- ・魯迅先生 内山完造：日中文化 41[’56.11]
- ・魯迅先生への追憶 内山完造：中國事情 [’52.11]
- ・魯迅先生への追憶 内山完造：崑崙(天理大) 1[’53.2]
- ・魯迅先生を憶う 巴 金著：中研連月報 10[’50.10]
- ・魯迅先生から受けた教えを憶う 魏 建功：人民中國 [’76.10]
- ・魯迅先生のことば 内山完造：中國語雜誌 3(2)[’48.9]
- ・魯迅先生の手紙 山本初枝：新中國 2[’55.2]
- ・魯迅仙臺書簡について 仙臺における魯迅の記録を調べる會：野草 19 [’77]
- ・魯迅総合研究について——その趣旨と方法 魯迅総合研究會：中國研究 1[’56.9]
- ・魯迅追憶 辛島 驍：桃源 4(3)[’49.6]
- ・魯迅的思考・竹内好 尾崎秀樹：日本 8(2)[’65.2]
- ・魯迅傳(中國基本資料解題 16) 中國文化研究會：大安 5(9)[’59.2]
- ・魯迅傳覺書——日本留學時代を中必として 猪俣庄八：北海道大學文學部紀要 6[’57.3] p.139~174
- ・魯迅傳覺書——その沈潜期を中心として 猪俣庄八：北海道大學文學部紀要 9[’61.3]
- ・魯迅と兄完造と木刻と 内山嘉吉：本の本 2(10)[’76]
- ・魯迅とある軍國少年——今は昔に如かざるか 小野田耕三郎：ユリイカ [’76.4]
- ・魯迅と郁達夫 ペトロフ, ヴェ・ヴェ 著 川上久壽譯：小樽商科大学人文研究 42[’71.3] p.1~15
- ・魯迅とエスペラント：魯迅友の會會報 64[’76]
- ・ — 1 — 魯迅をエスペラントで讀む會 池本盛雄
- ・ — 2 — 利根光一

- ・魯迅と越社——辛亥革命期の一側面 坂出祥伸：關西大學文學論集 22  
(2)〔'73.2〕 p.(右)1~24
- ・魯迅と郭沫若の日本留學時代——救國，實學，留學，そして文學 上  
垣外憲一：比較文學研究(東大) 26〔'74.11〕 p.140~146
- ・魯迅とカラシ醬油 石上玄一郎：ユリイカ 〔'76.4〕
- ・魯迅と漢字改革 許 廣平著 さねとう けいしゅう譯：ことばの教育  
18(9)〔'56.10〕
- ・魯迅特集(五・四以後の中國現代文學作品 2)：大安 5(10)〔'59.10〕
- ・魯迅と翟秋白 新島淳良：魯迅研究 4〔'53.8〕
- ・魯迅と屈原 樫木裕子：熱風 1〔'71.1〕 p.34~38
- ・魯迅と厨川白村 楠原俊代：中國文學報(京大) 26〔'76.4〕 p.79~107
- ・魯迅と景宋のてかみ 竹内 實：ばんせ 1〔'50.6〕, 3〔'50〕, 5〔'50.10〕
- ・魯迅とケーテ・コルヴィッツ 小野田耕三郎：北斗 2(1)〔'55.11〕
- ・魯迅と現代——過渡的な覺え書—1, 2— 儀我壯一郎：中國研究  
3〔'56.11〕, 1957(1)〔'57.1〕 p.8~12
- ・魯迅と光復會 福田 經：中國資料 4〔'48.2〕
- ・魯迅と「光復會」 増田 涉：文學 44(8)〔'76.8〕 p.1094~1107
- ・魯迅と古書 新島淳良：現代中國 29〔'54.8〕
- ・魯迅と胡適 森都有人：中國研究 3〔'56.11〕
- ・魯迅と語文運動—1—魯迅と白話文 大原信一：毛澤東著作言語研究  
(大阪市大) 4〔'70.2〕 p.1~26
- ・魯迅と30年代の中國文學：文學 44(4)〔'76.4〕 p.401~630
- ・ 日本における魯迅の翻譯 竹内 好 p.401~420
- ・ 日中戦争前夜——茅盾主編「中國の一日」をめぐって 野原四郎  
p.421~438
- ・ 1930年代の政治と文學(對談) 針生一郎, 尾崎秀樹 p.439~458
- ・ 中國の1930年代と魯迅 竹内 實 p.459~486
- ・ 徐懋庸と魯迅 丸山 昇 p.487~500
- ・ 魯迅の結婚——「結婚後數日にして渡日」説に對する疑問 黎 活仁  
著 阿辻哲次譯 p.501~510
- ・ 30年代の許地山——ある作家・學者の後半生 今村與志雄 p.511~528
- ・ 廣野の詩人・李陸史——朝鮮文學と魯迅 金 學鏞 p.529~541

- ・ 日本文学における1930年代—上—ひとつの見取圖 祖父江昭二  
p. 544~554
- ・ 談話と獨語——魯迅にふれて 橋川文三 p. 556~559
- ・ 鹿地亘と中國——ナルプと「日本人民反戦同盟」 飛島井雅道  
p. 560~565
- ・ 魯迅と版畫——中國初期木刻運動と交流に寄せて 小野忠重  
p. 566~569
- ・ 「余計な事」を読む——轉向・瞿秋白の場合 井口 晃 p. 570~590
- ・ 丁玲轉向考 高畠 穰 p. 591~605
- ・ 「國防文學」の一側面——夏衍作「賽金花」の場合 藤本幸三 p. 606  
~619
- ・ フランス, 1936年夏——よろこびと不安の季節 渡邊一民 p. 620  
~624
- ・ 村松定孝・紅野敏郎・吉田熙生編「近代日本文学における中国像」  
飯倉照平 p. 625~630
- ・ 魯迅と柔石—1, 2完— 竹内 實：文藝 8(11)〔'69. 11〕 p. 145~163,  
8(12)〔'69. 12〕 p. 176~199
- ・ 魯迅と將無同 小島醉雨：桃源 4(3)〔'49. 6〕
- ・ 「魯迅と女性の解放」について 島田由紀子：集刊東洋學(東北大)  
29〔'73. 6〕 p. 194~204
- ・ 魯迅と「白樺派」の家たち 山田敬三：文學論輯(九大教養部) 23〔'76. 3〕  
p. 83~117
- ・ 魯迅と辛亥革命 北山康夫：大阪學藝大學紀要(A人文科學)13〔'65. 2〕  
p. 100~107
- ・ 魯迅と進化論 新島淳良：新日本文學 11(10)〔'56. 10〕
- ・ 魯迅と「政治的遠見」について 鹿地 亘：文化評論 12〔'62. 11〕
- ・ 魯迅と「宣言一つ」——「壁下譯叢」における武者小路・有島との關係  
丸山 昇：中國文學研究(中國文學の會) 1〔'61. 4〕
- ・ 「魯迅と仙臺」おもうまま 村田俊裕：熱風 2〔'71. 7〕 p. 22~26
- ・ 魯迅と仙臺時代 山田野理夫：自由 5(6)〔'63. 6〕
- ・ 魯人と漱石 檜山久雄：文藝
- ・ 一序説— 14(4)〔'75. 4〕 p. 236~249

- ・ 一續—中國の人生・日本の人生 15(4)[’76.4] p.212~229
- ・ 魯迅とその影たち『魯迅日記』 第二版を読む 中野美代子：本(講談社) [’77.8]
- ・ 魯迅とその時代(對談) 竹内 好, 尾崎秀樹：本の本 2(10)[’76]
- ・ 魯迅とその弟子たち 竹内 實：新日本文學 9(10)[’56.10]
- ・ 魯迅と大衆語論争 松尾善弘：漢文學會會報(東京教育大) 26[’67.6] p.48~58
- ・ 魯迅と中國文學 丸山 昇：中國研究(日本中國友好協會) 25[’74.4] p.23~34
- ・ 魯迅と中國文藝の傳統——「故事新編」についての手控え 吉田 恵：人文學(同志社大) 44[’59.10] p.14~31
- ・ 魯迅と中國料理——文明批評の一典型 伊藤正文：近代(神戸大) 13 [’55.12]
- ・ 魯迅と抵抗 杉森正彌：文化と教育(静岡大) 3(2)[’52.1]
- ・ 魯迅と丁玲——一九三〇年の斷面 丸山 昇：ユリイカ [’76.4]
- ・ 魯迅と陶淵明——文學遺産の問題 伊藤正文：文學 22(4)[’54.4] p.73~82
- ・ 魯迅と藤村 水本精一郎：長崎造船大學研究報告 9[’68]
- ・ 魯迅とニーチェ 尾上兼英：日本中國學會報 13[’61]
- ・ 魯迅と日本 増田 涉：中華 1(1)[’48.1]
- ・ 魯迅と日本語：中國語雜誌 4(1)[’49.1]
- ・ 魯迅と日本文學 竹内 好：世界評論 3(6)[’48.6]
- ・ 魯迅と人間改造の問題 北山康夫：中國研究(大阪外大) 1957(1)[’57.1] p.4~8
- ・ 魯迅との距離 細谷草子：野草 19[’77]
- ・ 魯迅とのふれあい 角野充武：野草 1[’70.10] p.32~39
- ・ 魯迅との隔り——魯迅と陳天華 上野昂志：新日本文學 31(3)[’76.3] p.64~72
- ・ 魯迅と白話文運動 大原信一：人文學(同志社大) 38[’58.1] p.105~117
- ・ 魯迅と遊覽費についてのノート 今村與志雄：北斗 1(3)[’56.2]
- ・ 魯迅と「批孔」 片山智行：人文研究(大阪市立大文學會) 26(7)[’74.

- 11] p. 431~445
- ・魯迅と美術：魯迅友の會會報 62[’76]
  - ・ — 1 — 魯迅のまいた一粒 吉田 漱
  - ・ — 2 — 魯迅と美術(斷章) 小野田耕三郎
  - ・ — 3 — 魯迅の美術活動について 奈良和夫
  - ・魯迅と民間文藝—上, 下の1~6— 志賀正年：天理大學學報 11(2)  
[’59.12], 12(2)[’60.12], 12(3)[’61.3], 13(2)[’61.12], 13(3)  
[’62.3], 15(2)[’63.12], 15(3)[’64.3]
  - ・魯迅と民間文藝—上, 中, 下1~7, 結1~6— 志賀正年：天理大學學報  
30[’59.12] p. 52~73, 31[’60.3] p. 36~45, 33[’60.12] p. 1~17  
37[’62.3] p. 113~126, 42[’63.12] p. 32~51, 43[’64.3] p. 23~  
38, 45[’64.12] p. 15~26, 51[’66.3] p. 200~214, 52[’66.6]  
p. 71~96, 54[’67.3] p. 32~58, 55[’67.6] p. 16~32, 58[’68.3]  
p. 42~76, 62[’69.3] p. 39~46
  - ・魯迅と毛澤東 竹内 好：新日本文學 2(9)[’47.9]
  - ・魯迅と毛澤東—1~11—續・自傳的文學運動史 鹿地 亘：近代文學 16  
(1)[’61.1], 16(2)[’61.2], 16(3)[’61.3], 16(4)[’61.4], 16(5)  
[’61.5], 16(6)[’61.6], 16(7)[’61.7], 16(8)[’61.8], 16(9)[’61.  
9], 16(10)[’61.10], 16(11-12)[’61.11]
  - ・魯迅と毛澤東—12, 13—思想闘争の問題 鹿地 亘：近代文學 17(2)  
[’62.2], 17(3)[’62.3]
  - ・魯迅と葉籟士 コマ マサハル：中國語學 15[’48.5]
  - ・魯迅と留日學生の啓蒙革命運動 北山康夫：中國研究 1[’56.9]
  - ・魯迅と林語堂 竹内 好：朝日評論 [’47.11]
  - ・魯迅と歴史學についての感想 奈良和夫：歴史評論 66[’55.5]
  - ・魯迅とローマ字運動 藤堂明保：ことばの教育 18(9)[’56.9]
  - ・魯迅とロマンティズム 武田泰淳：中央公論 68(14)[’53.12]
  - ・魯迅と私たち——討論會雜感 新村 徹：野草 5[’71.10] p. 42~51
  - ・魯迅における「愛」と「寂寥」 芹澤俊介：ユリイカ [’76.4]
  - ・魯迅における革命の意味 丸山 昇：文學 32(12)[’64.12] p. 75~83
  - ・魯迅における主權の考察 かわかみ ひさとし：小樽商科大学人文研究  
5[’53.1]

- ・魯迅における女性像 永末嘉孝：長崎造船大學研究報告 9〔'68.10〕  
p.85～93
- ・魯迅における抵抗感覺 竹内 好：國土(國土社) 2(5)〔'48.5〕
- ・魯迅におけるナショナリズム 横松 宗：ユリイカ 〔'76.4〕
- ・魯迅におけるニーチェ思想の受容について 伊藤虎丸：外國文學研究  
(廣島大) 19〔'73.3〕 p.115～153
- ・魯迅における「文學」と「革命」について 片山智行：現代中國 42〔'67.  
7〕 p.36
- ・魯迅における文學と政治 華 崗：新時代 41〔'54.8〕
- ・魯迅におけるペテフィー——絶望之爲虚妄，正與希望相同 今村與志雄：  
展望 220〔'77.4〕 p.108～121
- ・魯迅における民衆と改革者 細谷草子：集刊東洋學(東北大) 16〔'66.  
10〕 p.100～110
- ・魯迅にちなんで 中村 哲：新中國 3〔'57.2〕
- ・魯迅について——今日に生きる魯迅 中野重治：改造 32(11)〔'51.11〕
- ・魯迅についで 小田仁二郎：文學者(十五日會) 48〔'54.10〕
- ・魯迅について 伊藤敬一：人文學報(都立大)16〔'57.3〕 p.165～194
- ・魯迅に向かう姿勢 新島淳良：魯迅研究 1〔'53.1〕
- ・魯迅の歩んだ道 岡本隆三：中文學報 1〔'48.8〕
- ・魯迅の歩んだ道 岡本隆三：中國語雜誌 3(3)〔'48.11〕
- ・魯迅の維新派批判——中國の近代思想の一側面 高田 淳：中國研究  
(大阪外大) 1967(3)〔'57.3〕 p.7～12
- ・魯迅の懊惱と勇氣(私の人物觀—11—) 池田大作：潮 222〔'77.11〕  
p.222～227
- ・魯迅ノート——コトバから見た近代中國の成立 岡本隆三：中國語雜  
誌 5(1)〔'50.1〕
- ・魯迅ノート・左連成立の反響 竹内 實：ユリイカ 〔'76.4〕
- ・魯迅の革命思想——辛亥革命前における 中山義弘：大下學園女子短  
期大學研究集報 10〔'73.2〕 p.83～96
- ・魯迅の鬼氣 岡崎俊夫：北斗 3(2)〔'57.12〕
- ・魯迅の「起死」について 駒田信二：中國文學研究(早大) 2〔'76.12〕  
p.1～7

- 魯迅の舊形式の結婚をめぐる——架空の戀人たち 尾崎秀樹：文學  
28(5)〔'60.5〕 p.58~67
- ・魯迅の教員時代——新舊思想のはざままで 山田敬三：野草 3〔'71.4〕  
p.72~83
  - ・魯迅の「強靱」な革命精神に學ぶ——魯迅逝去四〇周年を記念して 周  
建人：人民中國〔'76.10〕
  - ・魯迅の曲筆と暴露——魯迅逝去三十周年を記念して 川上久壽：小樽  
商科大学人文研究 33〔'67.1〕 p.27~53
  - ・魯迅の限界 儀我社一郎：中國研究(大阪外大) 1957(4)〔'57.4〕 p.3~  
10
  - ・魯迅の言語—1, 2— 尾崎 實：人文研究(大阪市大) 21(4)〔'70.3〕  
p.43~56, 22(11)〔'72.1〕 p.40~57
  - ・魯迅の古典研究——特にその前半生における 小川環樹：野草 1〔'70.  
10〕 p.14~20
  - ・魯迅の五・三〇事件觀 井貫軍二講：史學研究 69〔'58〕
  - ・魯迅のことなど(對談) 許 廣平他：世界 130〔'56.10〕
  - ・魯迅の語文—[1], 2— 香坂順一：中國研究 2〔'56.10〕, 1957(1)〔'57.  
1〕 p.24~25
  - ・魯迅の作品から學んだこと 董 占元：人民中國 ('76.10)
  - ・「魯迅の作品について」から 大阪市立大學中國文學研究室：中國研究  
(大阪外大) 1956(12)〔'56.12〕 p.25~28
  - ・魯迅の雜感文——散文の傳統と變革 大原信一：人文科學(同志社大)  
2(3)〔'74.7〕 p.67~87
  - ・魯迅の雜文 川上久壽：小樽商科大学人文研究 2〔'51.10〕
  - ・魯迅の死——三通の手紙 増田 涉：圖書 180〔'56.5〕
  - ・魯迅の仕事部尾「老虎尾巴」での談話 馮 至：人民中國 ['76.10]
  - ・魯迅の自己反省 大塚繁樹：愛媛大學紀要(人文科學) 3(2)〔'57.12〕  
p.27~39
  - ・魯迅の死生觀の片影 原田正己：東方宗教 33・34〔'69.11〕 p.48~60
  - ・魯迅の思想形成をめぐる——章炳麟との關係を中心に 伊東昭雄：  
日本大學文理学部研究年報 14〔'65.11〕
  - ・魯迅の思想と文學——近代理解への手がかりとして 竹内 好：學鐙

53(12)〔'56.12〕

- ・魯迅の思想と文學——その文化大革命との關連 鶴田義郎：熊本短大論集熊本短期大學 37〔'68〕
- ・魯迅の思想の展開——進化論とその消滅 相浦 泉：中國研究(大阪外大) 1957(2)〔'57.2〕 p.3~9
- ・魯迅の時代と作品 高中利惠：鈴峯女子短大研究集報 1〔'54.4〕
- ・魯迅の兒童觀 増田史郎亮：長崎大學藝學部教育科學研究報告 5〔'59.3〕
- ・魯迅の詩二篇 宇田 禮譯：北斗 2(5)〔'56.11〕
- ・魯迅の社會評論 エリ, パズドネーエワ著 川上久壽譯：中國研究(大阪外大) 1957(1)〔'57.1〕 p.15~20, 1957(2)〔'57.2〕 p.20~24
- ・魯迅の修學時代—上, 下— 山田敬三：野草 1〔'70〕, 18〔'76.4〕 p.67~80
- ・魯迅の生涯と中國革命 萩原正三：中央公論(中央大) 18(6)〔'56.6〕
- ・魯迅の紹興 中村 哲：圖書 79〔'56.4〕
- ・魯迅の小説 高田昭二：岡山大學法文學部學術紀要
  - ・—〔正〕—作品制作の力動的構造の考察 33〔'73.3〕 p.51~65
  - ・—續—怨念の文學學から反抗の文學へ 34〔'74.3〕 p.135~155
- ・魯迅の小説における知識人 尾上兼英：東京支那學報 4〔'58.6〕 p.109~119
- ・魯迅の小説について 駒田信二：午前 〔'47.3〕, 〔'47.4〕
- ・魯迅の書簡——左翼作家連盟から「抗日統一戰線」への問題をめぐって 中川 俊：野草 5〔'71.10〕 p.25~41
- ・魯迅の精神を形成するもの 田中清一郎：東京外國語大學論集 2〔'52〕
- ・魯迅の寂莫 駒田信二：大華藝文 1〔'47.10〕
- ・魯迅の「寂莫」 桶谷秀昭：ユリイカ 〔'76.4〕
- ・魯迅の足跡をたどる 寒 琴：人民中國 〔'77.2~12〕
- ・魯迅の手紙—7— 中島長文：飄風 9〔'76〕
- ・魯迅の毒 洲之内 徹：中央評論(中央大) 〔'53〕
- ・魯迅の讀者 竹内 好：文學 29(10)〔'56.10〕
- ・魯迅の奴隸について——魯迅の自覺の發展について 井貫軍二講：史學研究 54〔'54.4〕 p.54



- ・魯迅の日本譯 なかの しげはる：圖書 78〔'56.3〕
- ・魯迅の人間性 小田嶽夫：桃源 1〔46.10〕
- ・魯迅の人間批判 大塚繁樹：愛媛大學紀要(人文科學) 3(1)〔'56.12〕  
p. 69～89
- ・魯迅の場合(兒童文學讀本——おとなはどのように兒童文學にかかわ  
っている) 竹内 實：日本兒童文學 21(2)〔'75.1臨増〕 p. 111～115
- ・魯迅の墓 その他 堀田善衛：文學 24(10)〔'56.10〕
- ・魯迅の鼻 州之内 徹：中央評論(中央大) 8(6)〔'56.6〕
- ・魯迅の美術活動 大田耕士：教育 13(11)〔'63.1〕
- ・魯迅の「美術の普及をはかる意見書」について 奈良和夫：未來 121  
〔'76〕
- ・魯迅のヒューマニズム かわかみ ひさとし：小樽商科大學人文研究  
7〔'54.1〕
- ・魯迅の評価をめぐる 竹内 好：新日本文學 7(7)〔'52.7〕
- ・魯迅の評論と作品 檜山久雄：新日本文學 8(8)〔'53.8〕
- ・魯迅の婦人觀 中山養弘：天下學園女子短期大學研究集報 9〔'72.2〕  
p. 61～79
- ・魯迅の“復讐”は面白くない 内村剛介：本の本 2(10)〔'76〕
- ・魯迅の文學 馮 雪峯著 大河内康憲譯：中國研究 3〔'56.11〕
- ・魯迅の文學觀と「革命文學」 片山智行：人文研究(大阪市大) 23(3)  
〔'72.1〕 p. 50～67, 24(2)〔'72.9〕 p. 41～56
- ・魯迅の文學と思想の本質——魯迅沒後三十周年を記念して 鹿地 亘：  
文化評論 60〔'66.10〕 p. 66～80
- ・魯迅の文章と語法 望月八十吉：人文研究(大阪市大) 10(11)〔'59.11〕  
p. 74～95
- ・魯迅の文體——その古文性 高橋君平：神戸大學文學會研究 7〔'55.3〕
- ・魯迅の北京、厦門、廣州、滯在時代 横松 宗譯：八幡大學論集 27(3-  
4)〔'77〕
- ・魯迅のペンネームその他 今村與志雄：ユリイカ 〔'70.4〕
- ・魯迅の翻譯研究 志賀正年：天理大學學報 8(2)〔'57〕
- ・魯迅の翻譯文體 植田渥雄：櫻美林大學中國文學論集 2〔'70.12〕  
p. 94～117

- ・ 魯迅の魅力の一端——中國文學革命の一等星 金親清：中國研究(日本中國友好協會) 23[’72.2] p.29~32
- ・ 魯迅の目にうつった日本人——本多静六 尾上兼英：日本文學(日本文學協會) 11(2)[’62.2]
- ・ 魯迅の譯業に對するベルジンの批判 川上久壽：小樽商科大学人文研究 45[’73.3] p.19~29
- ・ 魯迅の役人時代——その蹉跌から呐喊まで一上，下一 山田敬三：野草 4[’71.7] p.65~76.5, [’71.10] p.71~81
- ・ 魯迅のリアリズム 片山智行：人文研究(大阪市大)
- ・ 一〔正〕，續一「痛打落水狗」的思想と『慶祝遼寧克復的那一邊』について 28(4)(中國語・中國文學) [’76.10] p.52~66, 28(4) [’76] p.295~309
- ・ 一3一「反虚偽的精神」について 29(7)[’77]
- ・ 魯迅の留學時代——その文學と英雄の系譜一上，下一 山田敬三：野草 1[’70.10] p.21~31, 2[’71.1] p.87~98
- ・ 魯迅筆名考 志賀正年：中國語學 87[’59.6] p.3~8
- ・ 魯迅筆名の由來：中國資料 4[’48.2]
- ・ 魯迅評言編年抄(1920~1949) 飯倉照平：ユリイカ [’76.4]
- ・ 魯迅復興 矢島鈞次：中國評論 2(2)[’47.2]
- ・ 魯迅文學 竹内好：世界評論 3(6)[’47]
- ・ 魯迅文學における「モラル」——竹内と日本浪漫派の問題に寄せて 伊藤虎丸：ユリイカ [’76.4]
- ・ 魯迅文學の劇化映畫化 大芝孝：中國研究 2[’56.10]
- ・ 魯迅文學の根源 かわかみひさとし：華橋文化 49[’52.12]
- ・ 『魯迅文集』について 長谷川四郎：海 [’77.5]
- ・ 魯迅文體の一樣相 志賀正年：中國語學 61[’57]
- ・ 魯迅翻譯研究 志賀正年：天理大學學報
- ・ 一1一譯歷總說 19[’55.12] p.71~92
- ・ 一2一翻譯理論——初期~後期 21[’56.8] p.91~112, 22[’56.12] p.45~62, 9(1)[’57.10] p.103~118, 27[’58.11] p.100~111, 64[’69.12] p.52~70
- ・ 魯迅翻譯理念へのアプローチ——『一個青年的夢』(武者小路實篤著)を

- 素材として 志賀正年：中文研究(天理大) 6[’66.1] p.13~20
- ・ 魯迅翻譯論考 志賀正年
  - ・ ——その性格について：中國研究(大阪外大) 1957(2)[’57.2] p.9~14
  - ・ ——その姿勢について：中國語學 60[’57.3] p.11~16
  - ・ 魯迅問題の討議の経過 編集部：日中翻譯資料通信 17[’53.6]
  - ・ 魯迅譯業試論—[正], 續—志賀正年：天理大學學報 39[’62.12] p.85~108, 40[’63.3] p.50~62
  - ・ 魯迅譯「地底旅行」について 南雲 智：季節 2[’76]
  - ・ 魯迅譯文體の一樣相——『與幼小者』(有島武郎原作)をめぐって 志賀正年：中國語學 61[’57.4] p.3~7
  - ・ 魯迅禮讚 郭 沫若著 編集部譯：日中文化 39[’56.5]
  - ・ 魯迅論 毛 澤東著 波多野乾一譯：中國文學 96[’46.6]
  - ・ 魯迅論 柴田鍊三郎：三田文學 37(12)[’47.12], 38(1)[’48.1]
  - ・ 魯迅論 瞿 秋白著 檜山久雄譯：新日本文學 8(10)[’53.10]
  - ・ 魯迅論 毛 澤東著 中國研究編集部譯：中國研究 2[’56.10]
  - ・ 魯迅は生きている 胡 風：中研連月報 10[’50.10]
  - ・ 魯迅はどう讀まれているか 市川 宏：中國語(大修館書店) 192[’76]
  - ・ 魯迅はわれわれの手本 郅 想鎖：人民中國 [’76.10]
  - ・ 論争における魯迅 杉浦明平：文學 24(10)[’56.10]
  - ・ わが伯父魯迅のこと 周 曄：中國資料 1[’46.11]
  - ・ 若き日の魯迅——讀書に關連して 今村與志雄：中國語(江南書院) 16 [’56.10]
  - ・ わたしたち農民は魯迅の作品が大好き 魯 加祥：人民中國[’76.10]
  - ・ 薇は食わぬ——魯迅文學をめぐって 武田泰淳, 竹内 好：世界 126 [’56.6]
- [書 誌]
- ・ ソヴェト同盟における魯迅關係文献 川上久壽：小樽商科大学人文研究 14[’57.7]
  - ・ 魯迅關研究論文目錄 魯迅研究會編：魯迅研究 1[’53.1]
  - ・ 魯迅關係資料 中川登史：中國研究 3[’56.11]
  - ・ 魯迅關係文献(解題と覺書き)内山完造著『花甲録』その他 丸尾常喜：

- 熱風 5〔'76〕
- ・魯迅業績年表—上, 下— 志賀正年: 天理大學學報 6(1)〔'54.7〕 p.69  
~86, 6(2)〔'54.12〕 p.113~131
  - ・魯迅研究文獻目錄—〔正〕, 補遺— 魯迅研究會編: 文學 24(10)〔'56.10〕, 24(12)〔'56.12〕
  - ・魯迅小說語彙索引 上野恵司編 龍溪書舎 '70
  - ・魯迅小說雜文作年月日對照表 中川登史: 中國研究 1〔'56.9〕
  - ・魯迅全集注譯索引 丸山 昇編 東京大學東洋文化研究所附屬東洋學文  
獻センター刊行委員會 '71 261p(東洋學文獻センター叢刊 13)
  - ・魯迅『中國小說史略』固有名詞索引 東北大學文學部中國文學研究室編  
東北大學文學部中國文學研究室 '72 112p
  - ・魯迅著譯書目錄, 參考文獻〈魯迅案内 岩波書店 '57〉
  - ・魯迅に関する書物 日中翻譯資料通信編集部: 日中翻譯資料通信 22  
〔'53.12〕
  - ・魯迅年度 竹内 實〈魯迅と現代 勁草書房 '68〉
  - ・魯迅年表 横松 宗〈魯迅の思想——民族の怨念 河出書房新社 '73〉
  - ・魯迅年譜 中川 俊: 大阪外國語大學學報 15〔'65.2〕 p.73~128
  - ・魯迅年譜 中川 俊編 大安 '65 56p
  - ・魯迅年譜 高橋和巳〈世界の文學 47 中央公論社 '67〉
  - ・魯迅年譜 松井博光〈豪華版世界文學全集 19 河出書房 '67〉
  - ・魯迅年譜 竹内 好〈世界文學全集 54 筑摩書房 '68〉
  - ・魯迅年譜 浜崎浩子〈日本現代文學全集 15 講談社 '69〉
  - ・魯迅年譜〈魯迅傳 パズネーニフ 岸 川上久壽譯 醫事藥業新報社 '71〉
  - ・魯迅年譜考—上, 下— 横松 宗: 八幡大學論集 18(4)〔'68.3〕 p.79~  
101, 19(1.2)〔'68.9〕 p.81~92
  - ・魯迅年譜補遺——その沈潜期を中心として: 北海道大學文學部紀要  
9〔'61.3〕
  - ・魯迅美術關係年表, 主要參考書目 森 明美, 小野田耕三郎〈魯迅美術  
論集 下 未來社 '76〉
  - ・魯迅略年譜——美術活動を中心として 太田耕士: 教育 13(1)〔'63.1〕
  - ・魯迅・老舍年表〈カラー版世界文學全集 35 河出書房 '69〉

。。(作品)

〔圖書〕

- ・門外文談 藤堂明保譯注 江南書院 '56 72p

〔雜誌〕

- ・小説史略について 桑山龍平：中國研究(大阪外大) 1957(1)〔'57.1〕  
p. 20~24
- ・「スバルタの魂」に見る魯迅の民族主義 赤星惠美：熱風 1〔'71.1〕  
p. 1~2
- ・「中國小説の歴史的變遷」(魯迅)について——その補訂を中心に 猪俣  
庄八：東京支那學報 6〔'60.6〕 p. 79~82
- ・熱風について——五四前夜の魯迅 かわかみ ひさとし：小樽商科大学  
人文研究 3〔'52.1〕
- ・「摩羅詩力説」覚え書—1— 北岡正子：關西大學中國文學會紀要  
6〔'76.3〕 p. 1~14
- ・「摩羅詩力説」材源考—1—8~10— 北岡正子：野草 18〔'76.4〕  
p. 81~94, 19〔'77〕, 20〔'77〕
- ・「摩羅詩力説」と魯迅の小説 中野美代子：北斗 2(5)〔'56.11〕
- ・「摩羅詩力説」と魯迅の青春 中野美代子：北斗 2(5)〔'56.11〕
- ・魯迅「科學史教篇」譯文，譯註ならびに解題—1, 2— 伊東昭雄：日本  
大學文理學部研究年報 15〔'66.12〕 p. 94~105, 17〔'69.3〕 p. 17~24
- ・魯迅壽詩『自題小像』考——その「打油」詩としての試論 山田敬三：中  
國文學論集(北大) 4〔'74.5〕 p. 131~140
- ・魯迅「古小説鈎沈」の問題點——六朝小説の資料に關して 前野直彬：  
東洋文化(東大東洋文化研究所) 41〔'66.3〕 p. 63~78
- ・魯迅「自嘲詩」略解 金子二郎：中國研究 2〔'56.10〕
- ・魯迅「上海・南京奪回祝賀のもう一面」(譯注) 須藤洋一：熱風 5〔'76〕
- ・魯迅「中國小説の歴史的變遷」について 竹内 實：文學 26(3)〔'58.3〕  
p. 97~106
- ・魯迅文學の根源的なもの——熱風に現われたる かわかみ ひさとし：  
華僑文化 49〔'52.12〕, 50〔'53.1〕

。。 呐喊

[雑誌]

- ・「一件小事」を會讀して 伊地智善繼：中國研究(大阪外大) 1957(2)  
[’57.2] p.24~29
- ・「兎と猫」・「あひるの喜劇」を書いた魯迅 三室政美：富山大學人文學部紀要 ’77
- ・會讀「孔乙己」をめぐる 中川登史：中國研究(大阪外大) 1957(1)  
[’57.1] p.12~15
- 「藥」の世界——革命と文學とそして青春と 野澤俊敬：熱風 1[’71.1]  
p.2~28
- ・「藥」の世界——若き魯迅と革命黨 野澤俊敬：熱風 2[’71.7] p.2~2
- ・『孔乙己』論 谷 行博：野草 20[’77]
- ・『故郷』の位置——子どもの情景から 山田敬三：國語の授業(兒童言語研究會) 21[’77.8]
- ・短篇「明日」より 中島長文：滋賀大國文 15[’77]
- ・『呐喊』の評価をめぐる 小林陽子：有瞳(お茶の水女子大) 2[’73.7]  
p.1~8
- ・文學教育の課題(魯迅：故郷) 青木 繁：文學 21(12)[’53.12]
- ・魯迅「一件小事」に就いて 大山正春：明治學院論叢 45[’57.6] p.17~  
28
- ・魯迅「呐喊」に於ける構成と表 宅間園子：中國文藝座談會ノート 15  
[’65.7] p.28~51
- ・魯迅ノート——『故郷』を中心にして 横山永三：山口大學文學會誌 16  
(1)[’65.7] p.29~43
- ・魯迅の「故郷」について(教材研究) 大久保隆郎：福島大學教育研究所  
所報 32[’70.2] p.1~5
- ・魯迅の小説の側面——主として作品「藥」について 相浦 泉：中國文  
學報(京大) 10[’59.4]

。。。 狂人日記

[雑誌]

- ・狂人日記に於ける「便」について 田中 潔：高地中國學會報 1(3)[’53.9]

- ・狂人日記について 荒木 修：高知中國學會報 1(1)
- ・狂人日記論 伊藤正文：近代(神戸大) 1〔'52.12〕
- ・狂人文學と「狂人日記」 儀我壯一郎：中國研究(大阪外大) 1956(12)〔'56.12〕 p.3~9
- ・恐怖の本質——アンドレーエフ「血笑記」と魯迅「狂人日記」 中野美代子：野草 5〔'71.10〕 p.1~12
- ・「難見眞的人！」考——「狂人日記」第十二節末尾の讀解をめぐる覺え書き 丸尾常喜：熱風 4〔'76〕
- ・二つの狂人日記 岡崎俊夫：中國文學研究會報(お茶の水女大) 創刊號附録〔'56.7〕
- ・魯迅『狂人日記』における「吃人」の發見 松村 昂：大阪教育大學紀要(人文科學) 22〔'74.2〕 p.105~119
- ・魯迅「狂人日記」について 高田昭二：東京支那學報 5〔'59.6〕 p.94~105
- ・魯迅傳覺書——狂人日記發表(1918)から女師大事件(1925)まで 猪俣庄八：北海道大學文學部紀要 12〔'64.3〕 p.139~180
- ・魯迅における「狂人日記」の位置 牧戸和宏：野草 5〔'71.10〕 p.13~24
- ・魯迅の狂人日記に就いて 笠原正明：中國文化 2〔'48.9〕

### 。。。阿Q正傳

#### 〔圖書〕

- ・阿Q正傳——魯迅の人と作品 ダイジェスト・シリーズ刊行會 ジョーブ社 '50 156p (ダイジェスト・シリーズ)

#### 〔雜誌〕

- ・阿Q正傳 近藤春雄：果實 7〔'48.9〕
- ・「阿Q正傳」をめぐる 高 義政：熱風 1〔'71.1〕 p.28~33
- ・「阿Q正傳」をめぐる何其芳・李希凡論争について 瀬戸 宏：中國文學研究(早大) 1〔'75〕
- ・「阿Q正傳」劇化について 霜川遠志：魯迅友の會會報 65〔'76〕
- ・『阿Q正傳』日本語譯に對する魯迅の注釋 才 寶權：人民中國〔'77.11〕
- ・「阿Q正傳」日本語譯について(未發表書簡) 丸山 昇解説：海 7(9)

〔'75.9〕 p.246~264

- ・阿Q正傳の成立について 工藤 篁：中國文藝 14〔'53.3〕
- ・「阿Q正傳」の摸持兒 波多野太郎：中國語雜誌 4(4)〔'49.9〕
- ・「阿Q正傳」論 石井敏之：横濱市立大學學生論集 5〔'58.3〕 p.172~180
- ・阿Q的性格 小竹文夫：天地人 3〔'53.1〕
- ・阿Qとその悲劇〔「論阿Q和他的悲劇」1957刊〕—上，下一 王 西彦著  
横松 宗譯：八幡大學論集 23(1・2・3)〔'72.12〕 p.39~56, 24(1)〔'73.7〕 p.139~159
- ・阿Qの蛻變——近代中國文學に理われた人間像 小野田耕三郎：天地人 6〔'53.10〕
- ・阿Qの人間像 大芝 孝：神戸文學 8〔'54.8〕
- ・阿Q殮葬——創作・民國17年魯迅の手記 中野美代子：日本及日本人 1518〔'73.7〕 p.2~9
- ・屈原と阿Q 工藤 篁：現代中國 15〔'53.1〕
- ・淪陷區にいた阿Q 中國英助：中央評論(中央大) 8(6)〔'56.6〕
- ・魯迅「阿Q正傳」——その今日的な意味 泉 大八：新日本文學 16(6)〔'61.6〕
- ・魯迅における〈比況表現〉——『阿Q正傳』を中心に 谷 行博：野草 18〔'76.4〕 p.54~66

## 。野 草

〔雜 誌〕

- ・「秋夜」に見られる魯迅の一断面 野間正雄：鐸 2〔'56〕 p.38~43
- ・復讐論——「野草」的魯迅に對する一つの接近 須藤洋一：熱風 1〔'71.1〕 p.38~60
- ・野草——その一つの讀み方 駒田信二：文學 24(10)〔'56.10〕 p.10~15
- ・「野草」的形成的論理ならびに方法について——魯迅の詩と “哲學”の時代 木山英雄：東洋文化研究所紀要(東大) 30〔'63〕
- ・野草と地火 上野昂志：ユリイカ 〔'76.4〕
- ・「野草」における希望 小野田耕三郎：北斗 1(1)〔'54.10〕



- ・「野草」について——一つのみかた 中川登史：中國研究(大阪外大) 1957(4)〔'57.4〕 p.10~14
- ・魯迅の〈復讐〉について——『野草』「復讐」論として、併せて魯迅のキリスト教論について 高田 淳：東京女子大學論集 18(1)〔'67.9〕 p.1~33
- 魯迅「野草」論 吉田富夫：中國文學報(京大) 16〔'62.4〕 p.64~108
- 露譯『野草』の注釋について 川上久壽：小樽商科大学人文研究 44〔'72.8〕 p.1~20

## 〇〇 彷徨

[雑誌]

- ・女の運命——祝福より 烏山 瞳脚色：新中國文學 3〔'55.9〕
- ・「孤獨者」を読んで 宮田成生：熱風 2〔'71.7〕 p.32~35
- ・「孤獨者」について 前島淳一：熱風 1〔'71.1〕 p.60~63
- ・「祝福」の書かれた頃 目加田 誠：東京支那學報 13〔'67.6〕 p.33~50
- ・傷逝 原田黎子，佐藤融子，藤澤満里子：中國文學研究會報(お茶の水女子大) 創刊號〔'56.7〕
- ・「傷逝」試論 太田 進：人文學(同志社大) 94〔'67.3〕 p.1~21
- ・「彷徨」について——全體的把握の試み(共同研究) 梅津邦彦他：集刊東洋學(東北大) 16〔'66.10〕 p.111~122
- ・魯迅「孤獨者」について 高田昭二：岡山大學法文學部學術紀要 13〔'60.5〕 p.178~189

## 〇〇 朝花夕拾

[雑誌]

- ・仙臺醫專における魯迅と「藤野先生」 李 獻璋：文學 40(2)〔'72.2〕 p.90~107
- ・『朝花夕拾』の世界——その連続性について 永末嘉孝：九州中國學會報 20〔'75〕
- ・藤野巖九郎と魯迅 藤野恒宅：中國研究(大阪外大) 1957(4)〔'57.4〕 p.15~18
- ・藤野先生を發見した雑誌『文學案内』——資料編纂の中間報告をかねて

- 日本人の回想集編集委員會：魯迅友の會會報 67〔'77〕
- ・藤野先生小傳 藤野恒道：中國文學報(京大) 4〔'56.4〕
  - ・「藤野先生」における眞實 駒田信二：ユリイカ 〔'76.4〕
  - ・魯迅『藤野先生』を讀んで——落差と文學教育 弘 英正：日本文學(日本文學協會) 21(8)〔'72〕

・・故事新編

[雜 誌]

- ・いわゆる故事新編と魯迅 三澤玲爾：Viking 67〔'55.11〕
- ・故事新編—1, 2— かわかみ ひさとし：小樽商科大学人文研究 9〔'55.1〕, 10〔'56.1〕
- ・故事新編 花田清輝：文學 24(10)〔'56.10〕
- ・“故事新編”おぼえかき 檜山久雄：北斗 50(1)〔'54.10〕
- ・「故事新編」會讀から 香坂順一：中國研究 3〔'56.11〕
- ・「故事新編」について——その成立に関する試論 三寶政美：集刊東洋學(東北大) 10〔'63.10〕 p.33~45
- ・「故事新編」の會讀をめぐる 吉田 恵：中國研究 1〔'56.9〕
- ・「故事新編」の哲學——序説及び「補天」論 伊藤虎丸：東洋文化研究所紀要(東大) 68〔'76.3〕 p.179~263
- ・「告事新篇」の冒險性 榎木恭介：新日本文學 12(3)〔'57.3〕
- ・故事新編論 かわかみ ひさとし：小樽商科大学人文研究 9〔'55.1〕 p.61~85, 11〔'56.1〕 p.35~57, 13〔'56.12〕 p.75~94
- ・故事新編論—1—「補天」について 野中和行：中國文藝座談會ノート 14〔'63.12〕 p.55~69
- ・嫦娥はなぜ月へ逃げか——「奔月」にえがかれた魯迅の自畫像 吉田 恵：人文學(同志社大) 26〔'56.11〕
- ・嫦娥奔月考 君島久子：武蔵大學人文學會雜誌 5(1,2) 〔'74〕
- ・鑄劍 藤野和實：魯迅友の會會報 67〔'77〕
- ・「鑄劍」と厦門時代 永末嘉孝：長崎造船大學研究報告 13(2)〔'72.10〕 p.87~91
- ・「鑄劍」の素材について 西野貞治：新中國 3〔'57.2〕 p.42~44
- ・「鑄劍」論 伊藤正文：文學 22(4)〔'54.4〕

- ・「鑄劍」論 伊藤正文：近代(神戸大) 15[’56.5] p.1~20
- ・奴隸史觀と『故事新編』 檜山久雄：ユリイカ [’76.4]
- ・魯迅「出關」について 三寶政美：日本中國學會報 29[’77] p.155~173
- ・魯迅「鑄劍」について 細谷草子：京都女子大學人文論叢 25[’77.12]  
p.61~94
- ・魯迅の『鑄劍』について 駒田信二：中國文學研究(早大) 3[’77]
- ・魯迅の「非攻」と「墨子」 駒田信二：櫻美林大學中國文學論叢 1[’68.  
3] p.11~36

〇〇 兩地書

[雜 誌]

- ・兩地書 鶴見和子：文學 24(10)[’56.10]
- ・「兩地書」と「十二年の手紙」とについて なかの しげはる：多喜二と百合子 5(3)[’57.3]
- ・兩地書にみる魯迅精神 かわかみ ひさとし：華僑文化 37[’51.12]
- ・「兩地書」論——魯迅の消極性と「彷徨との訣別」 永末嘉孝：長崎造船大學研究報告 10(2)[’69.10] p.80~89
- ・魯迅許廣平往復書簡「兩地書」を読む 山岸智恵子：多喜二と百合子 4(8)[’56.8]
- ・魯迅の「兩地書」 大内兵衛：圖書 82[’56.7]

## II. 香 港 (1949.10~1966.5)

### 一九四九

- 〈魯迅與新文學運動〉 葉德，廣州，培英中學員工供應社出版：緒言，魯迅在近代文壇，魯迅評傳，魯迅著譯述評，魯迅與中國近代文學，結論，魯迅著譯對於近代文學之影響，將來的眺望。
- 〈魯迅與木刻〉 陳烟橋，上海，開明書店。〔附錄〕 魯迅精神與美術家的任務。
- 〈回憶魯迅先生〉 蕭紅，北京，三聯書店。〔附錄〕 許壽裳：魯迅先生的生活，景宋，魯迅和青年們。
- 〈魯迅論俄羅斯文學〉 (蘇)羅果夫編，北京，時代出版社：羅果夫；魯迅與俄羅斯文學，馮雪峰；魯迅和俄羅斯文學的關係。
- 〈文藝鬭爭〉 鐵馬，上海，正風出版社：評所謂“集團主義的文學”論，評《感天咬子傳》，論詩底現實主義，批判與讚頌，真摯與朴素。

### 一九五〇

- 〈魯迅和陶行知的軼事〉 何公超，上海，光芒出版社：胡羊尾巴，爲白娘娘抱不平，向滿洲人示威，從電影裏得到教訓，不肯爲了辮子屈服，皮鞋踢鬼，一條褲子穿二十年，永遠睜硬鋪板，好好的用武器對付敵人，嚴厲地批評自己，不肯在病人面前抽煙，出門不帶門上的鑰匙，他的演講爲什麼吸引人，“爸爸可不可以吃的？”，不可抹殺小孩的意見，認真真地工作。
- 〈論文學教育〉 李廣田，上海，文化工作社：紀念魯迅，魯迅的思想和創作，魯迅和聞一多。
- 〈到群眾中去〉 方紀，上海，文化工作社：今年紀念魯迅先生的意義——在天津魯迅先生逝世十三周年紀念會上的開幕詞。
- 〈四十年來的北京(第二集)〉 黃萍蘇，上海，子曰社出版：賡先；魯迅在北京教育部的時代。
- 〈關於現實主義〉 何其芳，上海，海燕書店：魯迅的方向。
- 〈繪畫魯迅小說〉 豐子愷，上海，萬葉書店。有《祝福》，《孔乙己》，《故鄉》《明天》，《藥》，《風波》，《社戲》，《白光》等插圖。

- 〈論新語文運動〉 曹伯韓，上海，文光書店：論魯迅對新文字的貢獻。
- 〈魯迅思想研究〉 向干之，三聯書店：魯迅和中國人的鏡子，人生思想，社會思想和政治思想，文藝論，作品和鑑賞，表現思想的方法和形式，文化遺產問題，古文學的研究和著作。
- 〈魯迅作品及其他〉 胡今虛，上海，泥土社：魯迅論《毀滅》與革命戰鬥，對魯迅詩篇的一點認識，魯迅最早的作品，魯迅和中蘇文字之交，《華蓋集》與“三一八”慘案，魯迅被反動統治者通緝的一回事，《語絲》讀者關於復旦大學的爭論，魯迅和杭州，魯迅對青年的熱愛，魯迅和青年的通信，魯迅畫像的遭遇。〔附錄〕 許廣平；《魯迅作品及其他》讀後感。
- 〈關於文學修養〉 茅盾等，中國青年出版社：景宋《吶喊》中的幾個女性，陳涌；《阿Q正傳》是怎樣的作品。
- 〈魯迅先生逝世十四周年紀念特刊〉 洛陽市文學藝術界聯合編輯出版。任毅：有一分熱，發一分光（木刻），史克；偉大的導師——魯迅（歌曲），蕭三：魯迅——偉大的現實主義作家，中國新文學的創立者，劉禾；發揚魯迅反帝精神（木刻），王璋：獻（詩），冷文：我們的方向，我們的旗，高仲英：談談魯迅先生的“橫眉冷對千夫指，俯首甘為孺子牛”兩句詩，任毅：魯迅先生教育着我，尚修禮：學習文化最當先（快板），沙蹊：俯首甘為孺子牛，刁一：中國新木刻的導師——魯迅先生，霞：魯迅，我們的導師（詩），李振山；魯迅先生教導我們怎樣改造舊藝術，溫劍：學習魯迅戰鬥精神，加強自我改造，張祝良：永遠向“戰鬥的方向前進”（詩），胡次元：要多讀魯迅先生作品，潘清園，蕭杰：紀念魯迅先生（雜感二章），蕭杰：朝着魯迅的方向前進（木刻），岳任夫：我們是新文化的戰鬥兵（歌曲）。
- 〈雜格嘸冬集〉 倪海曙，上海，北新書局：題《彷徨》，題《吶喊》，哭揚銓，所聞，二十年元旦，自題小像，報載患惱炎戲作，無題四首。
- 〈新的歷程〉 勞榮，上海，文化工作社：民族魂。
- 〈爲了明天〉 胡風，上海，作家書屋：以《狂人日記》爲起點。
- 〈魯迅〉 林維仁，上海，商務印書館：關於魯迅研究的書（代序），魯迅的時代與他的一生，魯迅的著譯，阿Q正傳，魯迅的方向。
- 〈新美術運動及其他〉 陳叔亮，上海，商務印書館：從務紀念魯迅談起。
- 〈新北京〉 黃裳，上海出版公司：老虎尾巴。
- 〈在思想戰線上〉 杜高，上海，文光書店：魯迅論文藝的階級性與傾向性，雜文應該屬於誰。

- 〈中國小說論集〉 趙景深，上海，永樣印書館：評介魯迅的古小說鈞沈，中國小說史略勘談。
- 〈中國人民文學史〉 蔣祖怡，上海，北新書店。

#### 一九五一

- 〈魯迅和他少年時候的朋友〉 雪峰，中國青年出版社。
- 〈劇藝日札〉 阿英，上海，晨光出版公司：魯迅先生的道略。
- 〈人物與紀念〉 蕭三，三聯書店：魯迅先生與中國文壇，魯迅與中國青年，反對對魯迅的侮辱。〔附〕整風學習中讀魯迅，魯迅在蘇聯，紀念魯迅逝世一周年，祭魯迅六十五歲冥壽，魯迅的骨頭是很硬的。
- 〈魯迅傳〉 鍾子芒，上海，太平洋出版社。胡羊尾巴，書塾和鄉村，父親死去的前後，在南京讀書，在日本的時候，回國，第一篇小說，他和勞動人民受到反動派的壓迫，他的青年朋友被害了，工作，深夜裏也工作，十月十九日，他是最最疼愛小朋友的。
- 〈新的時代與新的風格〉 王西彥，上海，海燕書店：魯迅，偉大的戰鬥者——為紀念魯迅先生逝世十四周年作，魯迅生活和思想發展的道路，魯迅的創作小說的時代意義，從魯迅的小說看農村的土地問題，論魯迅的愛國主義，生命和工作。
- 〈欣慰的紀念〉 許廣平，人民文學出版社：研究魯迅文學遺產的幾個問題，魯迅先生的日記，略設魯迅先生的筆名，魯迅先生與女師大事件，魯迅和青年們，魯迅先生的寫作生活，魯迅先生的日常生活，魯迅先生的娛樂，魯迅先生的香烟，魯迅先生的學習精神，魯迅先生與家庭，母親，魯迅先生與海嬰，忘記解，在欣慰下的紀念。
- 〈魯迅精神〉 李齊野，上海，文化工作社：魯迅先生的精神，魯迅先生的愛與憎，魯迅先生的態度，魯迅寫作同生活，魯迅先生的故事。
- 〈新中國的木刻〉 陳烟橋，上海，商務印書館，魯迅與中國新木刻
- 〈魯迅教論〉 雪葦，上海，華東人民出版社：代序：紀念魯迅的話，導師的喪失，論魯迅先生的轉變，魯迅先生的寫作理論，魯迅先生的思想概觀，《野草》的《題辭》，論《野草》，魯迅先生年譜。
- 〈中國新文學史稿〉 王瑤，北京，開明書店。
- 〈魯迅小說講話〉 許杰，上海，泥土社：《藥》，再談魯迅的《藥》，《明天》，《故鄉》，《狂人日記》，《孔乙記》，《祝福》，《離婚》，阿Q新論，談談怎樣

寫人物。

〈魯迅的精神〉 瞿秋白，北京，中國人民大學。

〈魯迅〉 王士菁，三聯書店：魯迅的時代，魯迅的幼年，魯迅在南京，留學日本，回到故鄉，魯迅在北京，廈門——廣州——上海，上海十年。

〈中國新文學史研究〉 李向林，《新健說》雜誌社

〈魯迅選集〉 馮雪峰，上海，開明書店：《魯迅選集》代序——魯迅生平及其思想發展的梗概。

### 一九五二

〈魯迅雜感選集〉 何凝，上海出版公司：《魯迅雜感選集》序言。

〈魯迅與中國文學〉 王瑤，上海，平明出版社：魯迅對於中國文學遺產的態度和他所受中國文學的影響，魯迅與中國新文學的成長，魯迅和北京，魯迅的國際主義精神，關於魯迅的筆名與“阿Q”人名問題。

〈我所認識的魯迅〉 許壽裳，人民文學出版社：我所認識的魯迅，懷亡友魯迅，回憶魯迅，懷舊，魯迅的人格和思想，魯迅的精神，魯迅與民族性研究，魯迅與避難生活，關於《弟兄》，魯迅的遊戲文章，《民元前的魯迅先生》序，《魯迅舊體詩集》序，《魯迅舊體詩集》跋，編後記(王士菁)。

〈感觸與聯想〉 安危，上海，文化工作社：愛魯迅與魯迅愛——魯迅逝世十二周年紀念，熱烈的憎和熱烈的愛——紀念魯迅先生十四周年忌辰，更嚴肅地正視現實鬭爭——紀念魯迅先生七十誕辰。

〈回憶魯迅〉 馮雪峰，人民文學出版社。一九二九年：我怎樣去見魯迅先生·觸到他自己談話之一，觸到他自己談話之二，我關於他的思想方法和他的天才的特徵的一二理解。左聯時期：魯迅先生對左聯的態度，這個時期所表現的思想毅力之一，這個時期所表現的思想毅力之二，關於他和群眾的聯系，民族的感情和階級的感情，關於他和瞿秋白同志的友誼。一九三六年：在病中和在新的政治形勢下的他的情緒之一，二集，思想上又有新的發展的徵象之一，二，逝世。

〈從源頭到洪流〉 胡風，上海，新文藝出版社：從源頭到洪流，魯迅還在活着，不死的青春，祖國愛。人民愛。人類解放，關於論高爾基。

〈論新語文運動〉 曹伯韓，上海，東方書店：魯迅對新文學的貢獻。

〈論文集〉(第一卷) 馮雪峰，人民文學出版社：魯迅和俄羅斯文學的關係及魯迅創作的獨立特色，談談雜文，思想的才能和文學的才能——魯迅逝世

十四周年感想，黨給魯迅以力量——片斷回憶，魯迅生平及其思想發展的梗概，論《阿Q正傳》，怎樣讀魯迅的雜文——為《中國青年報》寫。

〈中國新文學史講話〉 蔡儀，上海，新文藝出版社。

〈西苑集〉 向其芳，人民文學出版社：學習魯迅先生的工作作風。

〈論文二集〉 雪葦，上海，新文藝出版社：“五四文學革命及其他。左翼文學的一個問題，赫爾岑及其他。張衡的“四愁詩”(魯迅《野草》中〈我的失戀〉所擬古詩)

〈魯迅對民間文學的主張和運用〉 秦風，西安，西北藝術生活社。

〈關於魯迅的短篇小說《藥》和《祝福》〉 傅魯，西安，西北藝術生活社。

### 一九五三

〈短篇小說剖析〉 葉竟耕，北京，開明書店：析《狂人日記》。

〈文章剖析〉 葉竟耕，北京，開明書店：魯迅的精神(瞿秋白)，人生識字胡塗始，不應該那麼寫，什麼是諷刺，寫於深夜裏。

〈文學評論集〉 陳涌，人民文學出版社：一個偉大的知識分子的道路，魯迅文藝思想的幾個重要方面。

〈朱子清文集〉 朱子清，北京，開明書店：魯迅先生的中國語文觀

〈魯迅的故家〉 周遐壽，上海出版公司：百草園，園的內外，魯迅在東京，補樹書屋舊事。

〈文學短論(續編)〉 孫犁，上海，文化工作社：魯迅的小說

〈文藝工作論集〉 于黑丁，漢口，中南人民文學藝術出版社：魯迅和我們

〈亡友魯迅印象記〉 許壽裳，人民文學出版社：剪辮，屈原和魯迅，雜談名人，《浙江湖》撰文，仙臺學醫，辦雜誌。譯小說，從章先生學，西片町住屋，歸國在杭州教書，入京和北上，提倡美術，整理古籍和古碑，看佛經，筆名魯迅，雜談著作，雜談翻譯，西三條胡同住屋，女師大風潮，“三一八”慘案，廣州同住，上海生活——前五年，上海生活——後五年，和我的交誼，日常生活，病死。

〈論魯迅〉 (蘇)費德倫科等，劉益璽等譯，上海，泥土社。(蘇)費德倫科，魯迅；(蘇)法捷耶夫，論魯迅，(蘇)西蒙諾夫：魯迅是蘇聯偉大的永遠忠實的朋友，(蘇)羅果夫，魯迅與俄羅斯文學，(捷)夏迪克：魯迅，一個讚頌，(美)史沫特萊：記魯迅，(日)內山完造：回憶魯迅先生，(日)鹿地



- 亘：魯迅和我，(日)池田幸子：最後一天的魯迅。
- 〈文藝的任務及其他〉張禹，上海，泥土社：論“趕任務”，〔備考〕魏金枝作《略談魯迅先生的趕任務》，致許杰先生，關於研究魯迅先生的小說的一點意見，〔備考〕一，許杰作關於《魯迅小說講話》。二，孫伐園作《五四運動和魯迅先生的狂人日記》一文及其“檢討”摘抄。
- 〈偉大的人和偉大的作家〉王西彥，上海，新文藝出版社：從《藥》看魯迅創作特色，讀《故鄉》，《祝福》——一個令人顫栗的回顧，一切爲了祖國和人民的需要，像這樣的，就是一個偉大的人物。
- 〈西廂記和白蛇傳〉黃裳，上海，平民出版社：魯迅先生對戲曲的一些意見
- 〈寸心集〉何家槐，上海，新文藝出版社：無可比擬的損失，堅韌的戰鬥——紀念魯迅逝世三周年，說話寫作的自由，文藝界聯合問題我見。
- 〈魯迅思想的邏輯發展〉華崗，上海，新文藝出版社：魯迅思想的邏輯發展，魯迅論中國歷史，魯迅論中國科學，魯迅論文藝，魯迅論婦女問題。
- 〈魯迅作品的分析(第一卷)〉朱彤，上海，東方書店：魯迅思想偉大的發展。魯迅小說的分析。
- 〈紀念魯迅，學習魯迅〉遼西省圖書館。
- 〈向魯迅學習〉唐韜，上海，平明出版社：一個偉大的愛國主義的道路，魯迅的反對自由主義的精神，魯迅否定了武訓，看法改變了，記魯迅先生，第一次會見魯迅先生，魯迅先生喪儀散記，魯迅和魯迅紀念館，吉洪諾夫在魯迅紀念館，《魯迅全集補遺》編後記，對《兒時》一文的說明，《魯迅全集補遺續編》編校後記。
- 〈瞿秋白文集(二)〉《瞿秋白文集》編委會，人民文學出版社：《魯迅雜感集》序言，《論翻譯》，《再論翻譯》。
- 〈中國美術史〉胡蠻(祐曼)，上海，新文藝出版社。
- 〈魯迅小說助讀(上册)〉許欽文，上海，北新書局：關於《孔乙己》，關於《藥》，關於《阿Q正傳》，關於《祝福》，關於《在酒樓上》，關於《幸福的家庭》，關於《肥皂》，關於《長明燈》，關於《示衆》，關於《鑄劍》，關於《非攻》。
- 〈中國近代出版史料初編〉上海雜誌公司。

#### 一九五四

- 〈魯迅生平思想及代表作研究〉徐中玉，上海，自由出版社：魯迅生平思想

及其代表作研究，《狂人日記》研究，《孔乙己》研究，《藥》研究，《故鄉》研究，“阿Q”研究，《祝福》研究，《燈下漫筆》研究，《論“費厄潑賴”應該緩行》研究，《友邦驚詫論》研究，《我們不再受騙了》研究，《爲子忘却的記念》研究。

〈魯迅作品的分析(第二卷)〉 朱彤，上海，東方書店：《阿Q正傳》的分析，魯迅小說給合探索。

〈木刻版畫技法研究〉 李樺，人民美術出版社。

〈魯迅小說裏的人物〉 周遐壽，上海出版公司：吶喊衍義，彷徨衍義。〔附錄〕舊日記裏的魯迅，學堂生活。

〈關于魯迅的生活〉 許廣平，人民文學出版社：魯迅生活之一，魯迅生活之二，因校對“三十年集”而引起的話舊，關于魯迅先生病中日記和宋慶齡先生來信，片斷的記錄，元旦憶感，瑣談，青年人與魯迅，魯迅與中國木刻，從魯迅的著作看文學，不容情的對敵鬭爭。

〈文學論稿〉 巴人·上海，新文藝出版社：魯迅的文學路線，魯迅的寫作風格。

〈文學作品研究〉(第一輯) 吳奔星，上海，東方書店：論《藤野先生》，《藥》《一件小事》，《故鄉》。

〈魯迅作品的分析〉(第三卷) 朱彤，上海，東方書店：《論“費厄潑賴”應該緩行》——革命鬭爭經驗的總結，《記念劉和珍君》——感人肺腑的英雄史詩，《友邦驚詫論》的戰鬭藝術，《我們不再受騙了》——偉大的控訴和召喚。

〈魯迅在廈門〉 陳夢韶，作家出版社：魯迅先生在廈門大學。與魯迅先生有關係的校舍，魯迅先生在廈門大學的教學工作。魯迅先生在廈門大學的著譯，編校等工作，與魯迅先生往來接觸的人物，魯迅先生在廈門大學的生活狀況一斑，魯迅先生在廈門大學附近，魯迅先生到廈門市區去，魯迅先生到鼓浪嶼去，魯迅先生到集美學校去，魯迅先生離開廈門。

〈魯迅小說助讀(中冊)〉 許欽文，上海，四聯出版社：關于《狂人日記》，關于《明天》，關于《一件小事》，關于《頭發的故事》，關于《風波》，關于《故鄉》，關于《端午節》，關于《白光》，關于《兔和貓》，關于《鴨的喜劇》，關于《社戲》。

〈魯迅《野草》探索〉 衛俊秀，上海，泥土社：張禹《野草》札記(代序)，衛俊秀，魯迅《野草》探索。

〈中國現代出版史料甲編〉 北京，中華書局：伏園，從晨報副鑄到京報副刊。

### 一九五五

- 〈唐韜雜文選〉 唐韜，人民文學出版社：文苑閒話五，從雜文得到遺教。
- 〈人中國近代思想史講授提綱〉 石峻，人民出版社：革命的民主主義者魯迅早期的社會思想。
- 〈《故鄉》研究〉 孟蒙，山東人民出版社。
- 〈魯迅與兒童文學〉 謝仲墨，作者自刊：一，為什麼要介紹兒童文學作品，二，魯迅翻譯的兒童文學作品，三，魯迅翻譯兒童文學作品來看魯迅思想的發展，四雜記。
- 〈緝鴛文選〉 蕭緝鴛，人民文學出版社：讀魯迅先生的《二十四孝圖》，魯迅的褊狹與向培良的大度，從沈從文筆下看魯迅。
- 〈胡適思想批判資料集刊〉 上海，新文藝出版社：彭安定：從魯迅文章中所看到的胡適。
- 〈魯迅事蹟考〉 林辰，上海，新文藝出版社：魯迅曾入光復會之考證，魯迅與章太炎及其同門諸子，魯迅歸國的年代問題，魯迅與讀音統一會，魯迅赴陝始末，魯迅籌辦《新生》雜誌的經過，魯迅與莽原社，魯迅與狂飈社，論《江星佚史》非魯迅所譯，魯迅演講系年。
- 〈胡適思想批判(第三輯)〉 三聯書店，吳忠匡·江山：魯迅筆下的胡適。
- 〈文章選講〉 東北師大函授教育處編，沈陽，遼寧人民出版社：何善周：《故鄉分析》
- 〈中國現代出版史料乙編〉 張靜廬輯注，北京，中華書局：臧克家：魯迅先生與編輯出版工作。
- 〈胡風文藝思想批判論文集〉 唐韜等，作家出版社：何其芳：《關於現實主義》的序。
- 〈中國現代文學史略〉 丁易，作家出版社：魯迅先生的舊體詩。
- 〈魯迅談創作〉 中國青年出版社：一，魯迅給青年作家的信，二，魯迅論作家的階級立場，參加實際鬭爭，寫重大題材和民族形式等，三，魯迅給青年作家的文學作品所作的小引和序，四，魯迅談自己的創作。
- 〈怎樣閱讀文藝作品〉 韋君宜等，安徽人民出版社：郭預衡，魯迅先生是怎樣指導青年讀書的。

- 〈學習與戰鬥〉 唐韜，上海，新文藝出版社：不許胡風歪曲魯迅，讀魯迅雜文，魯迅先生決不會為胡風“辯護”。
- 〈文藝散論〉 劉綏松，漢口，長江文藝出版社：魯迅一後期雜文中的社會主義現實主義，精神魯迅是蘇聯人民和蘇聯文學最忠誠的朋友，讀《彷徨》中的三篇小說，胡風是魯迅精神的歪曲者。
- 〈一年集〉 何家槐，作家出版社：《祝福》，《孤獨者》。
- 〈新文學史綱〉 張畢來，作家出版社。
- 〈論文藝改造〉 周鋼鳴，上海，人間書屋：雜文應走普及的道路（中國雜文是魯迅開創的文體），再展開民主與科學的思想教育（《吶喊》與《彷徨》是五四以來新文藝的光輝作品。）

### 一九五六

- 〈韜奮文集〉（一） 三聯書店：偉大的鬪爭，從心坎裏，魯迅先生逝世周年紀念。
- 〈論《野草》〉 馮雪峰，上海，新文藝出版社。
- 〈中國現代出版史料丙編〉 張靜廬輯注，北京，中華書局：魯迅先生紀念委員會：《魯迅全集》發刊緣起，蔡元培、許廣平：《魯迅全集》序及編校後記，唐韜：重訂魯迅著譯書目。〔附一〕 林辰·孫用：唐日正誤。魯校書補。〔附二〕 柏葑珠：魯迅先生著作版本和內容述略。
- 〈文藝問題短論集〉 李蕪，武漢，長江文藝出版社：學習魯迅先生的戰鬥精神，魯迅先生和我們同在，高舉魯迅的投槍匕首粉碎當前的敵人。
- 〈散文三十篇〉 李廣田，人民文學出版社：魯迅的思想和創作
- 〈中國新文學史初稿〉 劉綏松，作家出版社。
- 〈中國美術史講稿〉 王遜，中央美術學院。
- 〈談寫作和閱讀〉 殷白，中國青年出版社：從魯迅的兩篇小說想到的。
- 〈魯迅小說論集〉 李桑牧，武漢，長江文藝出版社：論《狂人日記》，魯迅在“五四”運動前夜的兩篇作品，《阿Q正傳》的偉大意義，農民和農民孩子們的真實面貌，魯迅小說中舊中國婦女的形象，《吶喊》中幾篇描寫知識分子的作品，《彷徨》中幾篇描寫知識分子的作品，卓越的諷刺文學——《故事新編》。
- 〈跟青年談魯迅〉 馮文炳，中國青年出版社：為什麼要研究魯迅和怎樣研究魯迅，魯迅的少年時代，魯迅在日本，辛亥革命與魯迅，五四運動，魯迅

的第一篇小說，分析《阿Q正傳》，魯迅怎樣寫雜感，魯迅的雜文是詩史，魯迅與現實主義傳統，魯迅對文學形式和文學語言的貢獻，魯迅的藝術特點，魯迅怎樣對待文化遺產和民族形式，向魯迅學習。

〈《吶喊》分析〉 許欽文，中國青年出版社。

〈關於中國現代文學〉 李何林，上海，新文藝出版社。

〈五四時期的中國革命運動〉 沈煥春，三聯書店。

〈現代作品選講〉 萬曼，湖光人民出版社：魯迅的生平和創作道路，《故鄉》分析。

〈文學評論集二集〉 陳涌，作家出版社：論魯迅小說的現實主義，保衛魯迅方向，粉碎胡風集團的反革命思想，認真向魯迅學習。

〈魯迅選集(一)〉 中國青年出版社：馮雪峰：魯迅文學的道路。

〈魯迅作品論集〉 李湘，中國青年出版社。陳涌：論魯迅小說的現實意義，劉泮溪：魯迅雜文的政治意義和藝術價值，李桑牧：卓越的諷刺文學——《故事新編》——魯迅小說試論之一，李湘：讀魯迅的《一件小事》，何家槐：《祝福》，韓書田：《故鄉》。〔附錄〕箭鳴，千禾：魯迅小說研究中的錯誤傾向，李度貴：關於《藥》裏的烏鴉及其它。

〈學習魯迅〉 韓長經，上海，新文藝出版社：前記，魯迅與兒童問題，魯迅與農民問題，魯迅與青年作者。

〈關於中國古典文學問題〉 王瑤，上海，古典文學出版社：魯迅對於中國文學遺產的態度和他所受中國古典文學的影響。

〈魯迅在廣州的日子〉 曾敏之，廣東人民出版社：魯迅的南來，發酵的年代，夢與現實，向南方告別。〔附錄〕魯迅與思想改造，魯迅的人情味。

〈憶魯迅〉 茅盾等，人民文學出版社。夏丐尊：魯迅翁雜記，沈尹默：憶魯迅，孫伏園：憶魯迅先生，尚鉞：懷念魯迅先生，許欽文：在老虎尾巴，鄭振鋒：永在的溫情，李霧野：魯迅先生和青年，魯彥：活在人類的心裏，陳學昭：回憶魯迅先生，馬珏：初次見魯迅先生，羅常培：從廈門解放引起的感想，茅盾：紀念魯迅先生，鄭柏奇：魯迅先生的演講，川島：回憶魯迅先生一九二八年杭川之游，丁玲：“開會”之于魯迅，李蘭：憶魯迅先生——中譯《夏娃日記》的來歷，艾蕪：悼魯迅先生。阿累：一面，以群：憶魯迅先生，陸萬美：追記魯迅先生“北平五講”前後，巴金：魯迅先生就是這樣的一個人，唐韜：記魯迅先生，黃源：魯迅先生與《譯文》，麗尼：要學習的工作精神，白危：難忘的會見，曹白：寫在永恒的

紀念中，蕭紅：回憶魯迅先生。

〈紀念魯迅美術選集〉 野夫，人民美術出版社：魯迅及其作品的插畫等美術作品70幅。

〈辛亥革命前的魯迅先生〉 王治秋，上海，新文藝出版社：故鄉與童年，由困頓走入“異途”，海外八年，歸來與出走。〔附錄〕 魯迅先生年譜（許壽裳），民元前的魯迅先生。（景宋）

〈魯迅的小說〉（文藝作品閱讀輔導叢書）巴人，上海，新文藝出版社。

〈人民文豪魯迅〉 平心，上海，新文藝出版社：戰鬥的現實主義者魯迅，啓主蒙義者和民主主義者魯迅，愛國主義者和國際主義者魯迅。〔附錄〕 思想家的魯迅。

〈回憶魯迅先生〉 李霧野，上海，新文藝出版社：在北京時的魯迅先生，記“未名社”，魯迅先生和青年，“三·一八”慘案前後，民報副刊及其它，魯迅先生兩次回北京，魯迅先生的讀者，關於魯迅先生的日記和手蹟，魯迅先生喜愛的幾個詩人，魯迅先生的風度。

〈魯迅先生的幼年時代〉 許欽文，浙江人民出版社：魯迅先生的故居，魯迅先生的幼年時代。〔附錄〕 1. 回到紹興教書做校長時的魯迅先生。 2. 接家屬離去故鄉的魯迅先生。

〈論魯迅的創作〉 張泗洋等，吉林人民出版社：魯迅生活和創作的道路，《吶喊》與《彷徨》的基本內容，《阿Q正傳》，散文詩：《草野》，戰鬥的七首：雜文，《故事新編》。

〈魯迅和他教導青年的話〉 溫濟澤，中國青年出版社：魯迅，“和實際的社會鬭爭接觸”，“橫眉冷對千夫指，俯首甘爲孺子牛”，“是大衆中的一個人，…才可以做大衆的事業”，“有一分熱，發一分光”，“認真點”，“勤”“時間就是性命”，魯迅談家庭問題，魯迅談婚姻和戀愛問題，魯迅談讀書，魯迅讀作文。

〈魯迅傳略〉 朱正，作家出版社。書中分十部分附有後記：1. 1881年至1898年 2. 1898年至1902年 3. 1902年至1906年 4. 1906年至1909年 5. 1909年至1917年 6. 1918年至1922年 7. 1923年至1926年 8. 1926年至1929年 9. 1930年至1935年 10. 1936年。

〈花前續記〉 周瘦鵑，江蘇人民出版社：一瓣心香拜魯迅。

〈魯迅先生美術活動年表（資料）〉 王明侯，北京，朝花美術出版社。

## 一九五七

- 〈魯迅雜文的藝術特徵〉 唐韜，上海，新文藝出版社。
- 〈魯迅先生爲什麼要寫《阿Q正傳》？〉 徐嘉瑞等，雲南人民出版社：徐嘉瑞：魯迅先生爲什麼要寫《阿Q正傳》，劉堯民：魯迅在《阿Q正傳》裏如何批判辛亥革命，蒙樹宏：魯迅小說中的婦女群衆，李廣田：學習魯迅，反對教條主義和宗派主義——在昆明市魯迅逝世二十周年紀念會上的發言，吳祖光：我對魯迅先生的認識——在昆明市魯迅逝世二十周年紀念會上的發言，陸萬美：青年向魯迅學習些什麼，魯凝：從“阿Q”精神到空頭文學家，落汀：魯迅是培養新生力量的典範。
- 〈哲學史簡編〉 洪潛等，人民出版社。
- 〈大歡樂的日子〉 巴金，作家出版社：憶魯迅先生，紀念魯迅先生，秋夜，一個秋天的早晨。
- 〈浪花〉 林默涵，作家出版社：未死的阿Q，從阿Q到福貴，兩個悲劇。
- 〈魯迅的青年時代〉 周啓明，中國青年出版社：魯迅的青年時代，魯迅的國學與西學，魯迅與中學知識，魯迅的文學修養，魯迅讀古書，魯迅與歌謠，魯迅與清末文壇，魯迅與範愛農，魯迅與“弟兄”魯迅與“閩土”，魯迅在南京學堂，魯迅的笑，回憶伯父魯迅(附)(周靜子)，《阿Q正傳》寫的夢卜。
- 〈魯迅在北京住過的地方〉 孫世愷，北京出版社：魯迅在北京住過的地方，北京魯迅博物館。
- 〈魯迅研究〉 劉泮溪等，作家出版社：魯迅的生平和事業，魯迅的科學思想，魯迅怎樣發展了中國文化的民族形式，魯迅所開辟的中國文化的大眾方向，魯迅的現實主義的發展道路，魯迅小說的特色，魯迅雜文的政治意義和藝術價值，魯迅的詩歌和書信，魯迅與文藝統一戰線及文藝批評，魯迅整理中國文學遺產的成績，魯迅介紹世界文學的成績。
- 〈《故事新編》及其他〉 何家槐，中國青年出版社：《理水》札記，對於《采薇》的一些理解，《鑄劍》的，思想意義，《非攻》，談《出關》，優美的詩篇——《社戲》。
- 〈美麗的北京〉 《北京文藝》編，北京，通俗文藝出版社：孫世愷：魯迅的故居。
- 〈向偉大的魯迅學習〉 韓罕明，湖南人民出版社編輯，出版：韓罕明：從《中國地質略論》看魯迅早期的愛國主義思想，汪樹白：發揚魯迅的現實主

義精神抵制教條主義與黨八股，高樂森：略論魯迅的文藝理論，樊籬：魯迅論現實主義，李桑牧：在“百花齊放百家爭鳴”時代裡學習魯迅先生，梁再：魯迅與婦女。

〈微痕集〉 田仲濟，上海，新文藝出版社：阿Q與鴛鴦，敲門磚，看見。

〈弦外集〉 李希凡，上海，新文藝出版社：《阿Q正傳》簡論，關於《阿Q正傳》，典型新論質疑。

〈中國出版史料補編〉 張靜廬輯注，北京，中華書局：唐韜：魯迅先生的梓印工作。

〈細流集〉 姚文元，上海，新文藝出版社：學習魯迅反八股和反教條主義的精神，刻苦學習，永遠前進——介紹魯迅的學習精神。

〈關於魯迅的小說，雜文及其他〉 徐中玉，上海，新文藝出版社：現代中國文學的第一篇小說：《狂人日記》，《阿Q正傳》的語言藝術，關於魯迅的雜文，魯迅論文學研究的方法，魯迅論怎樣讀書，魯迅對於學術論辯的看法和態度。

〈魯迅先生的故事〉 唐韜，上海，少年兒童出版社：寫在前面，一個刻苦自勵的人，踢鬼，母子之間，賣書，三個小故事，“孺子牛”，一幅木刻的來由，“烏籠”的妙喻，講笑話，同志的信任。

〈初學集〉 黃藥眼，武漢，長江文藝出版社：論魯迅文藝思想的發展。

〈文學作品分析〉 江西師院中文系現代文學教研組編，江西人民出版社：孔源：魯迅的《狂人日記》，魯迅的《藥》，趙越瑞：魯迅的《離婚》。

〈魯迅圖片集〉 人民美術出版社編輯·出版，魯迅生平和著述年表。

〈中國文學史教學大綱〉 北京，高等教育出版社。

〈魯迅與現代漢語文學語言〉 高名凱等，北京，文字改革出版社。

〈作家與兒童文學〉 陳伯吹，天津人民出版社：魯迅與中國兒童教育，魯迅與兒童教育。〔附錄〕 回憶和策勵。

〈論阿Q和他的悲劇〉 王西彥，上海，新文藝出版社：論阿Q和他的悲劇，從《藥》看魯迅創作的特色，讀《故鄉》，《祝福》——一個令人顫栗的回顧，魯迅小說中的知識分子，也談關於魯迅小說中知識分子形象問題，讀《傷逝》，論《故事新編》，讀《朝花夕拾》札記，叛逆的和尚和復讐的鬼魂，純朴的詩，狼的好計，關於學習和研究魯迅的二三問題，魯迅創作小說的時代意義，魯迅的愛國主義，跨越自己，生命和工作，象這樣的，就是一個偉大的人物。



- 〈在文藝思想戰線上〉 以群，上海，新文藝出版社：擴大和深化魯迅的研究工作，憶魯迅先生，記魯迅先生的死。
- 〈中國現代文學史〉 孫中田，吉林人民出版社。
- 〈魯迅作品研究〉 吳奔星等，江蘇人民出版社。朱彤：魯迅後期雜文的戰鬥意義，陳瘦竹：魯迅小說的體裁，黃進德：魯迅小說裏的知識分子形象，吳奔星：劃時代的戰鬥詩篇——《野草》，沈蔚德：論魯迅的戲劇體的作品 朱彤：魯迅的語言藝術，吳調公：論魯迅的文藝批評，孫望：《懷舊》試譯（附《懷舊》原著），陳鳴樹：評許杰的反現實主義的“小說論”。
- 〈民主與自由〉 中國青年出版社。許廣平：新時的喜悅。
- 〈魯迅的文藝思想〉 以群，上海，新文藝出版社：魯迅前期文藝思想的發展，魯迅後期文藝思想的戰鬥性，魯迅的現實主義精神，魯迅在創作實踐上的典型化的特點，魯迅對待文學遺產的態度，魯迅對待文藝批評的態度，魯迅熱愛文藝的新芽。
- 〈《故事新編》的思想意義和藝術風格〉 《文藝月報》編輯，上海，新文藝出版社：吳穎：如何理解《故事新編》的思想意義，李桑牧：《故事新編》中主要作品是針對現實的諷刺作品，還是歷史作品？，峻明：我是這樣來理解《故事新編》的，翟奎曾·馬中伏：關於《故事新編》中的“油滑之處”，石越：關於《故事新編》創作上的一些問題，劉季林：也談《故事新編》及其“油滑之處”，伊凡：關於《起死》，吳穎：再論如何理解《故事新編》的思想意義。
- 〈遵命集〉 巴人，北京出版社：魯迅小說的藝術特點，雜憶雜感和雜抄，“魯迅風”話舊。
- 〈短篇小說評論集〉 北京出版社編輯·出版：韓書田：《故鄉》，沈仁康：《風波》，唐韜：談魯迅的《一件小事》，樊駿：談談《社戲》，何家槐：讀《孔乙己》
- 〈魯迅研究概述〉 邵伯周，湖北人民出版社：魯迅的生平事蹟，魯迅思想發展的道路，魯迅的文藝思想，魯迅的小說，魯迅的雜文，魯迅的其它創作，魯迅在文學藝術方面研究介紹工作。〔附錄〕《魯迅研究資料索引》
- 〈魯迅在文學戰線上〉 唐韜，中國青年出版社：一個偉大的愛國主義者的道路，魯迅對文學的任務及其特徵的理解，魯迅談作家的思想鍛煉，從理論鬥爭中學習魯迅的戰鬥精神，魯迅重視反映迫切的政治鬥爭與重大主題，魯迅雜文的藝術特徵，魯迅對戲劇藝術的一些意見，魯迅徹底地否定了武

訓，不許胡風歪曲魯迅。

- 〈文藝隨談〉 魏金枝，上海，新文藝出版社：談《故鄉》中的兩個人物，再談《故鄉》中的兩個人物，對《示衆》的一些臆測，魯迅對於兒童的一些看法。
- 〈中國現代文學論文選集〉 馮雪峰等，河南人民出版社：魯迅先生對左聯的態度。
- 〈魯迅講學在西安〉 單演義，武漢，長江文藝出版社：“國立西北大學”介紹，“暑期學校”的籌設，魯迅先生應約來陝，魯迅先生在西安，魯迅先生返北京，寄贈西安友好的書和信，魯迅先生西來講學的影響。

### 一九五八

- 〈魯迅研究札記〉 胡冰，上海，新文藝出版社：試論《朝花夕拾》，《偽自由書》簡論，略論《孔乙己》——兼評朱彤等的觀點，魯迅對石刻畫像的搜集與研究，魯迅與中國左翼作家聯盟，關於魯迅的散佚著作，讀《魯迅書簡補遺》（致日本人部分）——兼評吳元坎的譯文，也談《魯迅詩本事》——並就商于錫金，于植元論《魯迅日記》的思想藝術價值。
- 〈戲曲小說論集〉 戴望舒，作家出版社：《古小說鈎沈》校讀記，《唐宋傳奇集》校讀記。
- 《藝術的理解》 呂英，作家出版社：紀念魯迅先生，魯迅的藝術方法。
- 〈回憶偉大的魯迅〉 沈尹默等，上海，新文藝出版社。沈尹默：魯迅生活的一節，鄭奠：片斷的回憶，張佳邨：陳廣將運和魯迅先生的一次會見，川島：憶魯迅先生和《語絲》，憶魯迅先生一九二八年杭川之游，一件小事，欽文：魯迅先生在磚塔胡同，魏建功：憶三十年代的魯迅先生，司徒喬：魯迅先生買去的畫，憶魯迅先生，敏之：魯迅在廣州的日子，俞獲：回憶魯迅先生在廈門大學，陳敦仁：憶魯迅先生在閩南，治秋：魯迅和韋素園，巴金：我認識的魯迅先生，孫伏園：魯迅和當年北京的幾個副刊，靳以：回憶魯迅先生，于伶：初見魯迅先生時，趙家璧：記魯迅先生與良友公司的幾件事，記魯迅先生選蘇聯版畫，于伶：回憶魯迅先生對一次活劇演出的批評，于海：憶起魯迅的話，劉峴：憶魯迅先生，許廣平：魯迅在日本，魏金枝：有關魯迅先生的幾件舊事，吳朗西：片斷的回憶，王寶良，魯迅先生與內山書店，陳廣：記魯迅先生的一次講話，陳烟橋：一生熱愛美術的魯迅先生，張望：一段回憶，內山完造：思念魯迅先生，張尾景和：在上海“花園莊”我認識了魯迅，內山嘉吉：我的回憶。

- 〈雜花集〉 臧克家，北京出版社：魯迅對詩歌的貢獻，魯迅寫的紀念文章，假如魯迅還活着，魯迅的“遺囑”，“遵命文學”與“奉命文學”——魯迅先生逝世紀念有感。
- 〈魯迅親友談魯迅〉 張能耿、杭州，東海文藝出版社：東昌坊口，魯迅的母親，魯迅祖父介孚公一二事，長慶寺和龍師父，三味書屋的老塾師壽鏡吾老先生，三味書屋的讀書生活，關於運水，魯迅與他的外婆家，中西學堂，魯迅去南京，魯迅在南京點滴，魯迅在浙江兩級師範學堂，魯迅先生在紹興府中學堂任監學，魯迅在紹興府山會師範學堂做監督，魯迅與《越鐸日報》，魯迅與校外社會人士的接觸，魯迅先生在紹興任教時的家庭生活，范愛農之死。
- 〈繁弦集〉 唐韜，作家出版社：“發展”縱橫談。
- 〈今朝集〉 張春橋，上海，新文藝出版社：要象魯迅那樣生活。
- 〈在文藝戰線上〉 唐麟等，湖南人民出版社：伍光樁：重讀魯迅《對於左翼作家聯盟的意見》。
- 〈美術評論集〉 張望，遼寧人民出版社：魯迅對人民美術的重大貢獻，再談魯迅與美術。
- 〈《彷徨》分析〉 許欽文，中國青年出版社：《祝福》，《在酒樓上》，《幸福的家庭》，《肥皂》，《長明燈》，《示衆》，《高老夫子》，《孤獨者》，《弟兄》，《離婚》。〔附錄〕《彷徨》的封面畫，祝福畫。
- 〈文藝思想雜談〉 鄭篤等，山西人民出版社。鄭篤：魯迅——工人階級知識分子的典型和榜樣。
- 〈學習魯迅和瞿秋白作品札記〉 丁景唐，上海，新文藝出版社：從《魯迅日記》看魯迅和瞿秋白的友誼，關於“第十三篇關於列爾孟托夫的小說”——魯迅和瞿秋白友誼的一例，關於《引玉集》——魯迅和瞿秋白友誼的一例，關於《引玉集》——魯迅和瞿秋白友誼的一例，關於魯迅論《萬古愁曲》的一封信，關於魯迅給鄒韜奮的一封信，關於凱綏·珂勒惠支木刻《犧牲》的說明，《凱綏·珂勒惠支版畫選集》序目校讀語，魯迅論裏維拉的壁畫，關於綏甫林娜小說《肥料》的後記，關於《果樹園》，繼承和發揚魯迅編譯出版兒童文學作品的優良傳統。
- 〈和魯迅相處的日子〉 川島，人民文學出版社：大師和園丁——魯迅先生與青年們，當魯迅先生寫《阿Q正傳》的時候：憶魯迅先生和《語絲》，和魯迅先生在廈門相處的日子裏，憶魯迅先生一九二八年杭州之游，一件小事，

- 重記《游仙窟》，魯迅先生所送給我的書，北京魯迅博物館裏有一張照片，魯迅先生和雜文。
- 〈中國美術史略〉 閻麗川，人民美術出版社：近代木刻。
- 〈在不平常的日子裏〉 葉以群，天津，百花文藝出版社：發揚魯迅的革命精神，假如魯迅先生活着。
- 〈瞿秋白的文學活動〉 曹爾西，上海，新文藝出版社：論魯迅及其他革命作家。
- 〈文學雜評〉 張天翼，作家出版社：有關學習魯迅的一兩個問題。
- 〈京郊集〉 劉綏松，武漢，長江文藝出版社：魯迅——祖國文學遺產的繼承者和捍衛者，讀魯迅詩一首，斥反黨者的謬言——評馮雪峰《回憶魯迅》。
- 〈中國現代文學史〉(第一篇) 北京師範大學。
- 〈葵花集〉 高歌今，上海文藝出版社：魯迅的《高老夫子》。
- 〈文學研究集刊〉(第四集) 北京大學文學研究所，人民文學出版社：祭儀：魯迅論典型。
- 〈魯迅研究資料編目〉 沈鵬年，上海文藝出版社：魯迅著譯及有關書錄，有關魯迅著譯的一些原始資料目錄，關於魯迅的研究資料系年目錄，魯迅生平和著述年表。
- 〈魯迅創作的藝術技巧〉 朱彤，上海，新文藝出版社：魯迅論美和藝術技巧的關係，魯迅塑造人物形象的藝術，魯迅語言的思想鍛煉和藝術鍛煉，魯迅的抒情語言的藝術，魯迅的諷刺語言的藝術，魯迅的描寫語言的藝術，阿Q在典型理論和美學理論上的意義。
- 〈生活與創作論集〉 思基，武漢，長江文藝出版社：談魯迅的散文詩《野草》，談魯迅的諷刺。

### 一九五九

- 〈周立波選集〉 周立波，人民文學出版社：談“阿Q”
- 〈鼓吹集〉 茅盾，作家出版社：魯迅談寫作。
- 〈魯迅作品講和〉 何家槐，武漢，長江文藝出版社：中國現代文學的奠基人——魯迅，魯迅的小說，魯迅的散文詩和散文，魯迅的雜文，魯迅的《故事新編》的分析。
- 〈興滅集〉 姚文元，上海，新文藝出版社：略談“存真”。
- 〈中國兒童文學講話〉 蔣風，江蘇人民出版社：魯迅和兒童文學。

- 〈五四小說選講〉 北京大學中文系56級四班，中國青年出版社：《故鄉》，《祝福》，《傷逝》。
- 〈抒情詩的構思〉 沈仁康，黃珮玉，武漢，長江文藝出版社：《風波》，讀《祝福》，《肥卓》，魯迅的《長明燈》，魯迅的《傷逝》，《離婚》。
- 〈魯迅作品選〉 王士菁，中國少年兒童出版社；許廣平：《魯迅作品選》序言 王士菁：魯迅生平簡介，《魯迅作品選》後記。
- 〈光輝的戰鬥傳統〉 陳盈等，廣東人民出版社；張向天：五四運動前後的魯迅，胡叔和：簡述五四時期的文藝思想，雷石榆：五四時期浪漫主義和現實主義的優良傳統。
- 〈沫若文集(第十一卷)〉 郭沫若，人民文學出版社：寫在菜油燈下，告鞭屍者，民族的傑作——悼唁魯迅先生，下滅的光輝。
- 〈沫若文集12卷〉 郭沫若，人民文學出版社：莊子與魯迅，魯迅與王國維。
- 〈海澱集〉 何家槐，作家出版社：讀《孔乙己》，《對於左翼作家聯盟的意見》的主要內容和基本精神，魯迅的寫作精神和寫作特點，魯迅和黨的領導。
- 〈文學淺論〉 周立波，北京出版社：談“阿Q”，略論魯迅先生的雜文。
- 〈獄中瑣記及其他〉 冶秋，上海文藝出版社：魯迅和韋素園。
- 〈中國現代文學史〉 復旦大學，上海文藝出版社。
- 〈保衛魯迅的戰鬥傳統〉 陳鳴樹，天津，百花文藝出版社：斥胡風對魯迅的歪曲，批判劉雪葦的《魯迅散論》，魯迅論藝術——兼評陳涌的《為文學藝術的現實主義而鬭爭的魯迅》一文，關於《魯迅小說講話》評許傑的反現實主義的“小說論”——關於《魯迅小說講話》的文藝理論部分，批判李長之的《魯迅批判》，徐中玉的《魯迅生平思想及其代表研究》是怎樣的一本書？，論魯迅初期的美學思想，論魯迅的抒情散文——關於《野草》和《朝花夕拾》，魯迅是厚今薄古的偉大榜樣，魯迅與拜論，魯迅與兒童文學。
- 〈魯迅舊詩箋注〉 張向天，廣東人民出版社。
- 〈中國現代文學史〉 華南師範學院中文系。
- 〈魯迅博物館〉 北京魯迅博物館編，文物出版社：魯迅故居，博物館藏品，博物館陳列，〔附錄〕魯迅生平大事及著譯年表。
- 〈魯迅——中國文化革命的巨人〉 姚文元，上海文藝出版社：偉大的時代產生了偉大的魯迅，中國革命的發展和魯迅的道路，魯迅論文學，魯迅的歷史觀點，魯迅對待文化遺產的態度，魯迅思想方法的幾個特點，結束語，後記。

- 〈五四新文學運動的精神〉 田仲濟，山東人民出版社：魯迅，戰鬥的旗幟，魯迅在現實主義道路上的發展。
- 〈魯迅傳〉 王士菁，中國青年出版社：本書為1958年5月出版名為《魯迅——他的生平和創作的增訂本》
- 〈文學散論〉 羅蔭，上海文藝出版社：魯迅——文化革命的偉大旗手，論五四時期新文學運動的兩條道路鬭爭。
- 〈文論小集〉 劉泮溪，山東人民出版社：魯迅論文學藝術的幾個基本問題，魯迅的《朝花夕拾》，紀念魯迅，要保衛社會主義現實主義。
- 〈心靈的歷程〉 李桑牧，武漢，長江文藝出版社：上篇，中篇，下篇。上篇對《狂人日記》作了分析；中篇依發表先後對《頭髮的故事》、《端午節》等作品中知識分子形象進行了分析；下篇是對魯迅形象的分析。
- 〈唱贊歌的時代〉 王西彥，天津，百花文藝出版社：在紀念魯迅的時候。
- 〈魯迅論文學〉 人民文學出版社編輯，出版。
- 〈論文學〉 瞿秋白，人民文學出版社：論翻譯，再論翻譯，《魯迅雜感選集》序言。
- 〈文學問題漫論〉 以羣，作家出版社：且戰鬥，且前進中的魯迅。
- 〈中國現代文學史〉 吉林大學中文系，吉林人民出版社。
- 〈學習魯迅先生〉 欽文，上海文藝出版社：“五四”時期的學生生活，憶沙灘，憶春光社，憶“五四”話愛羅先珂，魯迅先生在磚塔胡同，在老虎尾巴，我和魯迅先生鐵門話別的一幕，在老虎尾巴的魯迅先生，在“東壁下”看魯迅先生的生活方式，魯迅先生刻下的一個早字，在給魯迅先生責罵的時候，在對魯迅先生的哀悼中，跟魯迅先生學寫小說，魯迅先生在青年時候怎樣加強文學修養，魯迅先生譯《苦悶的象徵》，《魯迅書簡》讀後感，進一步研究魯迅先生的遺作，魯迅先生著《故事新編》，魯迅先生是這樣幫助青年的，魯迅先生是這樣重視思想改造的，魯迅先生幫助青年學費，魯迅先生和孫中山先生，魯迅先生和古典文學，魯迅先生和假魯迅，魯迅先生的措詞，魯迅先生對於生命和工作的看法，阿Q——阿桂。阿貴和阿鼠。

### 一九六〇

- 〈魯迅生平事蹟(畫傳)〉 北京魯迅博物館編，文物出版社：共收魯迅生平事蹟圖片一套39張。
- 〈談人物描寫〉 吳調公，江蘇文藝出版社：第五章第三節敘事類的人物描寫

中分析《范愛農》。

- 〈作品分析叢談〉 俞元桂，福建人民教育出版社：讀《爲了忘卻的記念》。  
〈贊歌集〉 巴金，上海文藝出版社：魯迅先生就是這樣一個人。  
〈中國現代文學史(第二冊)〉 吉林大學中文系，吉林人民出版社。  
〈文藝散論〉 鄭篤，山西人民出版社：魯迅先生與蘇聯文學。  
〈文學遺產選集三輯〉 譚丕模等，中華書局：劉綏松：魯迅—祖國文學遺產的繼承者與捍衛者。林長：魯迅《古小說鈎沈》的輯錄年代及所收各書作者。  
〈上海十年文學選集論文選〉 上海文藝出版社：唐韜：不許胡風歪曲魯迅。

#### 一九六一

- 〈魯迅回憶錄〉 許廣平，作家出版社：前言，“五四”前後，女師大風潮與“三一八”慘案，魯迅的講演與講課，北京時期的讀書生活，所謂兄弟，廈門和廣州，我又一次當學生，內山完造先生，同情婦女，向往蘇聯，瞿秋白與魯迅，“黨的一名小兵”。
- 〈學習魯迅和瞿秋白作品札記〉 丁景唐，上海文藝出版社：本書爲1958. 6初版和1959. 7再版的修訂本，除原來各篇外，關於魯迅的還增加了以下幾篇：對《魯迅全集》注釋本的幾點意見，《魯迅全集》注釋本補注三則，一，關於《庶聯的版畫》，二，關於《十字街頭》，三，《公民科歌》的一字之差：關於《革命時代的文學》。〔附錄〕《革命時代的文學》（魯迅先生講吳之莘記），《魯迅全集》以外的一篇佚文——關於《“日本研究”之外》，從魯迅手稿中學習些甚麼——介紹《魯迅手稿選集》。
- 〈魯迅論兒童教育和兒童文學〉 蔣風，少年兒童出版社：《魯迅論兒童教育和兒童文學》前言，魯迅與兒童文學（年表）。
- 〈沫若文集13卷〉 郭沫若，人民文學出版社：魯迅和我們同在，我建議，冷與甘，一封信的問題。
- 〈茅盾文集(第九卷)〉 茅盾，人民文學出版社：謹嚴第一，“寬容”之道，“韌性”萬歲，“……有背于中國人現在爲人的道德”。
- 〈語文課中魯迅作品的教學〉 許欽文，上海教育出版社：本書對22篇魯迅作品的時代背景·詞語含義加以講解。注釋，其中有：《吶喊》：“孔乙己”“藥”“一件小事”·“風波”·“故鄉”·“社戲”，《彷徨》：“祝福”，《故事新編》：“籌劍”，《野草》：“好的故事”，《墳》：“論雷峯塔的倒掉”·“論‘費厄潑賴’應該緩行”，《華蓋集續編》：“紀念劉和珍君”，《朝花夕拾》：“從

百草園到三味書屋”·“藤野先生”·《二心集》：“對於左翼作家聯盟的意見”·“‘喪家的’資本家的乏走狗”·“中國無產階級革命文學和前驅的血”·“友邦驚託’論”·“答北斗雜誌問”·《南腔北調集》：“我們不再受騙了”·“爲了忘却的記念”，《且介亭雜文》：“中國人失掉自信力了嗎？”

〈論阿Q的典型問題(1922~1961)〉 華東師範大學中文系資料室編，編者自刊。

## 一九六二

- 〈魯迅詩歌注〉 周振甫，浙江人民出版社：本書滙編了魯迅的詩作共六十題七十七首，包括現在所能見到的魯迅全部詩作，對每首詩的時代背景、歷史事實、寫作意圖、思想意義、字句含義以及典故出處均作了注釋。書末附《魯迅的詩論》。
- 〈新松集〉 姚文元，上海文藝出版社：從“阿Q”到梁生寶——從文學作品中的人物看中國農民的歷史道路，一個深刻的悲劇——論魯迅的《傷逝》
- 〈中國現代文藝資料叢刊(第一輯)〉 上海文藝出版社：上海魯迅紀念館資料組：《魯迅全集》未印著作，文操：一九二二年《魯迅日記》拾輯，熊融說明，吳元坎譯信：魯迅給田涉的四封信，魯迅手記舊紹興八縣鄉人著作目錄，紀文：魯迅著譯系年目錄(上)，王鶴照口述·周芾棠整理：回憶魯迅先生，蔡耕：《毀滅》出版的經過和鬭爭。
- 〈中國現代文學史綱要(草稿)〉 唐韜，高等院校教材編輯辦公室。
- 〈書話〉 晦庵，北京出版社：《守常全集》，《域外小說集》，科學小說，半農雜文，鄉土文學，翻版書，“有人翻印，功德無量”，革命的感情，關於禁書之二，《藥用植物及其他》，談封面畫，畫冊的裝幀。
- 〈魯迅——偉大的革命家，思想家和文學家〉 王士菁，作家出版社。
- 〈花〉 曹靖華，作家出版社：人民的春天要開始了，取天火給人的人，哪有閒情話年月，素箋寄深情，采得百花釀蜜後，智慧花開爛如錦，嘆往昔，獨木橋頭徘徊無終期，雪霧迷蒙訪書畫。
- 〈燕雜集〉 唐韜，作家出版社：論魯迅的美學思想，從魯迅雜文談他的思想演變，魯迅雜文的藝術特徵，小事不小——談《一件小事》的思想性和藝術性，論阿Q的典型性格，故事新編，新編的故事——談《故事新編》，反映“五四”歷史意義與時代精神的詩篇——魯迅前期雜文勝談，現代文學史札記之一。



- 〈中國現代文藝資料叢刊(第二輯)〉 上海文藝出版社：紀文：魯迅著譯系年目錄(下)
- 〈過渡集〉 思基·沈陽，春風文藝出版社：讀魯迅的散文詩《野草》，談魯迅的諷刺。
- 〈古今集〉 黃秋耘，作家出版社：“高吟肺腑走風雷”——關於魯迅先生幾首舊體詩的雜感。
- 〈在文藝學習的道路上〉 臧克家，上海，新文藝出版社：魯迅與編輯出版工作，魯迅對詩歌的貢獻。
- 〈仰止集〉 林如稷，四川人民出版社：懷念魯迅先生，魯迅給我的教育，關於魯迅思想發展的幾個問題，學習魯迅的最主要之點，魯迅小說的藝術特點，魯迅雜文的思想與藝術特點，試論魯迅小說的革命的現實主義，學習魯迅雜文的幾點理解，分析《對於左翼作家聯盟的意見》，一個堅決反封建的鬥士的藝術形象，魯迅對於勞動人民美德的贊頌，魯迅將會怎樣對待體力勞動，關於魯迅的〈無題〉一詩，林冰骨遺作：我所記憶的四十五年前魯迅先生，後記。
- 〈鼓吹續集〉 茅盾，作家出版社：聯系實際，學習魯迅——在魯迅先生誕生八十周年紀念大會上的報告。
- 〈文藝評論選集〉 人民日報編輯·出版：細言：關於魯迅小說的藝術技巧札記。
- 〈創作漫談〉 唐韜，作家出版社：慧眼識英雄。
- 〈編餘叢談〉 魏金枝，作家出版社：談談《故鄉》中的兩個人物，再談《故鄉》中的兩個人物，對《示衆》的一些臆測，漫談魯迅小說中的創作手法。
- 〈今昔文談〉 以羣，上海文藝出版社：發揚魯迅的革命精神，假如魯迅先生活着，學習魯迅的堅決·持久的鬥爭精神，認真地繼承和發揚魯迅的傳統，李大釗與魯迅。

### 一九六三

- 〈沫若文集17卷〉 郭沫若，人民文學出版社：體現自我犧牲的精神——魯迅逝世二十周年紀念大會的開幕詞。
- 〈散文和散文教學〉 湖南函授師範學院語文組，湖南人民出版社：《文學與出汗》內容分析。
- 〈魯迅(電影劇本)上集〉 陳白塵，上海文藝出版社。

〈魯迅先生與教學〉 謝勳武，河南人民出版社：魯迅——以身作則偉大教育家，魯迅先生與教學，魯迅先生與漢語教學，〔附錄〕 魯迅先生語言理論研究，魯迅先生與古典文學教學，魯迅先生與作文教學，魯迅先生與課外閱讀指導，魯迅先生與科學研究，魯迅先生與他的老師。朋友和學生，後記。

〈亭子間里〉 周立波，湖南人民出版社：試議阿Q

〈文學賞鑑論叢〉 傅庚生，西安，東風文藝出版社：從“沈鬱頓挫”窺測魯迅的小說，魯迅在文史研究上的幾點啓示，讀《故事新編》札記，“足足”和“小小”。

〈魯迅收藏中國現代木刻選集〉 人民美術出版社：前言。

〈中國現代文藝資料叢刊(第三輯)〉 上海文藝出版社：紀文輯錄：《魯迅全集》未收書簡。

#### 一九六四

〈文學藝術的春天〉 何其芳，作家出版社：論阿Q。

〈文藝雜談〉 哈爾濱，北方文藝出版社：延澤民：偉大的人民作家·偉大的人民戰士——紀念魯迅先生誕辰八十周年。

〈魯迅和他的作品〉 林志浩，北京出版社。

〈文藝思想論爭集〉 姚文元，作家出版社上海編輯所。本書系一九五八年七月由上海新文藝出版社出版的《論文學上的修正主義思潮》一書的修訂本。

#### 一九六五

〈在前進的道路上〉 姚文元，人民文學出版社上海分社：從阿Q到梁生寶。

## 〈彙 報〉

- 曹性坡 : 1985. 1. 20~9. 20 韓國佛敎文化研究차 일본 체류  
 1985. 10. 26 제 2회 성파시조문학상 시상 : 진주제일예식  
 장에서 수상자 최재호(삼현여고교장)
- 李根孝 : 1985. 1. 7~1. 29 유럽 11개국 교육 시찰
- 徐鳳城 : 1985. 3 부산외국어대학 중국어과 전임으로 부임
- 金泰寬 : 1985. 3 동의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전임으로 부임
- 康寔鎭 : 1984. 3~1985. 9 연구차 대만 國立師範大學과 미국  
 University of Alabama에 체류  
 1985. 10. 12 대만 國立師範大學으로부터 文學博士學位取得  
 논문제목 : 老乞夫·朴通事研究—諸書之著成  
 及其書中漢語語音語法之析論.
- 高八美 : 1985. 3~現在 연구차 대만 국립사범대학 체류.

### 第一回 學術發表會開催

日 時 : 1985. 6. 15(土) 오후 3시~5시

場 所 : 경남대학교 본관 세미나실

發表者 : 蔡雄祥 教授(경남대)

題目 : 蘇東坡詞研究

金龍雲 教授(동아대)

題目 : 前期魯迅의 인식범주

## 新入會員紹介

### 〈正會員〉

- 吳 淳 邦：蔚山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專講  
박 경 실：釜山大學校 中語中文學科 講師  
辛 基 幸：中國東吳大學 中文研究所 博士班

### 〈準會員〉

- 文 鈴 蘭：中國國立 政治大學 中文研究所 碩士班 在學  
文 寬 洙：中國國立 政治大學 中文研究所 碩士班 在學  
朴 淑 慶：中國國立 政治大學 中文研究所 碩士班 在學  
金 相 喆：中國國立 政治大學 中文研究所 碩士班 在學  
趙 成 鎬：中國國立 政治大學 中文研究所 碩士班 在學  
俞 玄 穆：中國國立 政治大學 中文研究所 碩士班 在學  
鄭 在 亮：中國輔仁大學 中文研究所 碩士班 在學  
金 仁 喆：中國輔仁大學 中文研究所 碩士班 在學  
李 政 林：中國國立 臺灣大學 中文研究所 碩士班 在學  
林 承 坯：中國國立 臺灣師範大學 國文研究所 碩士班  
在學  
임 수 암：中國東吳大學 中文研究所 碩士班 在學  
申 熙 一：中國東海大學 中文研究所 碩士班 在學

李	喆	洙：中國高雄 師範大學 中文研究所 碩士班
朱	仁	實：中國國立 臺灣大學 中文研究所 碩士班
劉	真	鍾：釜山產業大學校 中語中文學科 碩士班
金	哲	民：釜山產業大學校 中語中文學科 碩士班
孫	莉	莉：釜山產業大學校 中語中文學科 碩士班
姜	侖	熹：釜山產業大學校 中語中文學科 碩士班
李	美	京：釜山產業大學校 中語中文學科 碩士班
姜	秉	喆：釜山產業大學校 中語中文學科 碩士班



中國語文論集〈第2輯〉

---

1985年 10月 1日 印刷

1985年 10月 10日 發行

編輯人 李 根 孝

印刷處 研 文 出 版 社

發行處 釜山・慶南中國語文學會

---

連絡處：〒608 釜山市 南區 大淵洞  
釜山産業大學校 中語中文學科  
T. 622-5331~8・623-6240~6

